

구약  
4

BELIEVER'S BIBLE COMMENTARY  
Psalms 107~150 · Proverbs · Ecclesiastes · Song of Solomon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시편 107~150 · 잠언 · 전도서 · 아가서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 시 가 서 (2)

정 병 은 옮김

BELIEVER'S BIBLE COMMENTARY

BY

WILLIAM MACDONAL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

# BELIEVER'S BIBLE COMMENTARY

---

Psalms 107~150 · Proverbs · Ecclesiastes · Song of Solomon

WILLIAM MACDONALD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1-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화 : (031) 914-2732, 팩스 : (031) 917-4520

---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Ilsan4-dong, Ilsan-gu, Koyang-shi,  
Kyunggi-do, 411-828, KOREA

# 차 례

약어표.....	4
저자 서문.....	5
편집자 서문.....	7
시편 주해(계속).....	11
저주의 시에 대해.....	26
잠언.....	159
잠언 서론.....	160
잠언 주해.....	170
참고 문헌.....	351
전도서.....	353
전도서 서론.....	354
전도서 주해.....	364
참고 문헌.....	441
아가서.....	443
아가서 서론.....	444
아가서 주해.....	450
참고 문헌.....	463

## 약어표

- ASV—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FWG—그란트의 숫자 성경(F. W. Grant's Numerical Bible)  
JND—다비의 새번역(John Nelson Darby's New Translation)  
JBP—필립의 의역본(J. B. Phillips' Paraphrase)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KSW—(Kenneth S. Wuest's An Expanded Translation)  
LB—현대어 성경(Living Bible)  
NASB—새 미국 표준역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 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NIV—새 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KJV—새 흠정역(New King James Version)  
RSV—개정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V—개정역(Revised Version(England))  
TEV—오늘날의 영어 성경(Today's Bible Version)  
A.D.—주후(主後;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B.C.—주전(主前: Before Christ)  
NU—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

## 저자 서문

“신자 성경주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지한 학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어떤 주석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준 다음 보다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독자를 성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본 주석은 쉽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집필되었으며, 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인상을 풍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친구약 성경의 원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말씀의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을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딤후 2:15).

본 주석의 논조는 간결 명료하므로 독자는 어떤 구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쪽에 걸친 설명을 애써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진리가 짧고 간결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설명들을 소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설명이 문맥과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주석은 어떻게 성경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만일 본서가 목적 그 자체로 사용된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덜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본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독려하고 주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우는데 사용된다  
면 그 목적을 이룬 것이다. 모쪼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  
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독자의 마음  
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바란다.

## 편집자 서문

“주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에 어떤 성경교사가 엠마오 성경학교(지금의 엠마오 성경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충고였다. 그 중 적어도 한 학생이 지난 3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교사는 본 ‘신자 성경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였고, 그 학생은 당시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본 편집자 아더 화스타드(Arthur Fars-tad)였다. 그는 평생에 단 한 권의 주석만 보았는데 헤리 아더 아이언사이드의 에베소서 강해서인 “하늘에 속한”(In the Heavenly)이 그것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해 여름에 그 책을 정독한 후에 아더 화스타드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 1. 주석이란?

주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주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최근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발행인이 성경에 관계된 책을 15가지로 분류했다.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주석이 스터디 바이블이나 심지어 성구사전, 성경지도, 성경사전 등과도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주석은 절별 혹은 단락별로 성경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거나”(comments) 도움을 줄만한 언급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석을 저만치 쫓혀두며 “저는 단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 자체만 읽

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나 그렇지 않다. 주석은 단지 최선의(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성경 강해(하나님의 말씀을 절별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를 문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주석들(가령 아이언사이드 주석)은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출간했다. 게다가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된 유명한 성경 강해자들이 영어로 보급된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강해자들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서는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신자 성경주석’이 간행된 것이다.

## 2. 주석의 종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주석을 집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매우 개방적인 것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본 ‘신자 성경주석’은 성경을 신앙과 삶 모두에 절대 충분한 영감 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주석이다.

주석은 매우 전문적인 것(예를 들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구문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설명을 가한 것)에서 매우 간략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는데 본 주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문적인 설명은 주로 각주로 돌렸으나 본문 해설에 관한 한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충 얼버무리지 않고 충실히 다루었다.

맥도날드의 글은 “강해가 풍부하다.” 그의 글의 목적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돕는데 있다.

주석은 또한 신학적인 진영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과 로마 카톨릭적인 것, 전천년적인 것과 무천



년적인 것 등으로 나뉘는데 본 주석은 보수적이며 개신교적이며 그리고 전천년적이다.

### 3. 본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주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다음 순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대강 훑어봄—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구절에 대한 참조—어떤 구절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해당 구절이나 문맥에 대한 설명을 찾아봄으로써 분명 적절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3) 교리에 대한 연구—성경의 주요 언약들, 세대 구분, 성막 등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찾아 보라.

(4) 책별 연구—만일 성인 주일학교나 정규집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본문을 미리 공부해 둬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토론을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물론, 만일 인도자도 본서를 참고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다른 주석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상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는 난해한 본문이 흩어져 있으며 본

서와 같은 주의 깊고 보수적인 책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성경공부는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듯이 그 출발이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조금씩 진보하면서 꿀맛과 같이 달콤한 시간이 된다.

맥도날드는 30년 전에 세계 “주석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 바 있다. 새 흠정역본(New King James text)에 맞춰 편집을 하면서 이 성경주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석을 즐겨 사용하라!”는 충고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 시 편

(시편 107편~150편)

## 시편 주해(계속)

### 5. 제5권(107~150편)

#### 107편: 구속받은 자는 이렇게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는 다음 두 가지 어휘 군(群)으로 정리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방식이 있다.

죄(Sin)                      혹은 거역(Rebellion)

종살이(Servitude)      징벌(Retribution)

간구(Supplication)      회개(Repentance)

구원(Salvation)          회복(Restoration)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떠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어서 그들은 그러한 떠남의 쓰라린 결과를 맛본다. 정신이 들자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의 위치로 다시 한번 돌려놓으신다. 탕자의 이야기처럼 그 사실을 친근하고 적절하고 또 생생하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이 되풀이되는 흐름에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나타나 있다. 하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기를 원하는 인간 본성의 고질적인 성향이고,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의 다함 없는 자비이다.

여기 107편에는 여호와의 자비하신 구원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

타나 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의 구원(4~9절).

옥에 갇힌 자들의 구원(10~16절).

중병에 걸린 자들의 회복(17~22절).

광풍을 만난 선원들의 구원(23~32절).

서론(107:1~3)

**107:1~3** 그러나 먼저 주제를 알리는 서론이 나온다.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촉구이다.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는데, 여호와 는 선하시다는 것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그 둘 다 쉬지 않고 감사 드릴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이제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분의 인자와 사랑을 받은 특별한 자들로,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핍박과 종살이와 압제와 환란에서 구속 하시고 전 세계적인 분산에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자들로 택함 받았다. 물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지 만, 우리는 본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아야 한다. 우리 역시 죄의 노예시장에서 구속된 자들이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감사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의 구원(107:4~9)

**107:4~9** 이 첫 번째 묘사는 이스라엘이 그 두렵고 황량한 광야 에서 보낸 40년 간의 여정을 비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백성들은 길을 잃고 굶주리고 목이 말랐다. 그들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다. 그 때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즉시 그들의 방향이 끝났다. 여호와께서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셨다. 그 곳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발판과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마침내 안식할 수 있는 한 성을 발견했다. 그들은(그리고 우

리 모두는)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기이한 돌보심으로 인해 얼마나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약속의 땅에서 그분은 목마른 자들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자들에게 가장 좋은 양식을 허락하신다.

옥에 갇힌 자의 해방(107:10~16)

**107:10~12**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두 번째 묘사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것이다. 시편 기자는 그 70년의 기간을 투옥상황에 비유했다. 바벨론은 어둡고 칙칙한 구덩이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복역하도록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슬에 매인 죄수와 같았다(물론 바벨론에서의 상황은 애굽에 있었을 때처럼 가혹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된 노역에 지쳐 쓰러졌으며, 아무도 곁에 오지 않았다.

**107:13~16**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흑암의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포로의 사슬을 끊으셨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유일한 합당한 일은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들을 위해 이루신 모든 기이한 일로 인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다.

“저가 늦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시편 기자가 본 단락에서 바벨론 포로를 언급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까닭은 이 구절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있는 표현이 이사야 45:2에 발견되는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포로생활을 종결시키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본 절과 거의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다.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셨다.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늦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문맥으로 보아 그분은 바벨론 포로의 종결을 말씀하고 계심이 분

명하다.

### 중한 병에 걸린 자들의 회복(107:17~22)

**107:17~20** 이 셋째 단락은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스라엘은 그 때 병들어 있었다. 그들은 마카비 시대의 시련기를 막 벗어났다. 어떤 이들은 미련하게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 그들은 이미 식욕을 잃었고 속히 사망의 문에 이르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잔존자들은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말씀은 치유의 사역으로 이스라엘 집에 이르신 살아있는 말씀(the Logos)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듯하다.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에서 “그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는 기록을 얼마나 자주 대하는지. 마태는 구주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을 성취하셨다고 상기시켜 준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마 8:17). 만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고침 받지 않았다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우리는 그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그 모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07:21~22**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기이한 행사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촉구한다.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일야말로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로 그 행사를 선포할 특별한 이유이다.

### 광풍을 만난 선원들의 구원(107:23~32)

**107:23~27** 마지막 묘사는 매우 생동적이다. 그것은 대양을 왕래

하는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 먼저 바람이 크게 거세어진다. 이어서 파도가 엄청난 물결을 이룬다. 배가 파도 위로 치솟다가 아래로 곤두박질한다. 파도 위에서 흔들거리다 파도 밑으로 빨려 들어간다. 거대한 배가 펄펄 끓는 가마솥의 성냥갑 마냥 요동친다. 그와 같은 폭풍 속에서는 어떤 용감무쌍한 선원도 낙담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은 임무를 수행하느라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우왕좌왕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절감하며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음을 직감한다.

**107:28~30** 신을 부정하며 저주하던 선원들이 이러한 때 기도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셔서 그러한 절박한 기도애 귀를 기울이신다. 그분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파도가 고요해진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사람들은 다시 항해하여 얼마 후에 바라던 항구에 진입한다.

**107:31~32** 구원받은 선원들은 그분의 변치 않는 인자하심과 놀라운 기도응답으로 인해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그분을 높이고 장로들의 회(會)에서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그들의 서원을 갚아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폭풍과 그 뒤에 이어질 평화의 나라에 들어감을 묘사한다고 말하면 너무 문제를 비약시키는 것일까? 폭풍은 대환란을 가리킨다. 바다는 쉬지 않고 요동하는 이방 민족들을 가리킨다. 선원은 야곱의 환란 동안 다른 민족들에게 괴롭힘 당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의 믿는 잔존자가 여호와께 호소한다. 그 때 여호와께서 친히 개입하사 평화와 번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지상에 재림하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107:33~43)

**107:33~34** 이 시의 남은 부분은 그분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분은 큰 권능으로 강을 말리우고 샘을 증발시키신다. 백성들이 그분에게 등을 돌릴 때 옥토를 변하여 소금밭이 되게 하는 일은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107:35~38** 그러나 그분은 그 반대로도 일하실 수 있다. 평강의 왕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광야지역에 물이 풍부한 못이 여기저기 생겨날 것이다. 사하라 사막과 모제브 사막이 물이 가득한 동산이 될 것이다. 오랜 세기 동안 사람이 거하지 않던 곳에 주거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온 땅에 도시들이 세워질 것이다. 광야가 경작지로 돌변할 것이다.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 풍성히 결실할 것이다. 그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곳곳마다 곡물이 넘칠 것이며, 기축은 질병을 모를 것이다.

**107:39~43** 한편 그분이 악한 통치자들을 다루시는 모습은 정반대로 묘사된다.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39,40절).

이것이 바로와 헤롯과 히틀러의 운명이었으며, 환란 때에 사단의 삼위(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역주)가 겪을 종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큰 가족으로 그들을 축복하신다. 정직한 자들은 그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나, 악인은 그것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린다(악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지혜 있는 자는 사람들과 민족들의 운명을 배후에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이며, 역사와 현재의 사건들을 통해 교훈을 얻을 것이다. 특히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그분의 섭리 속에서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 108편 : 속히 도우소서!

이 시가 친숙하게 여겨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1~5절은 시편 57:7~11과 거의 같고, 6~13절은 시편 60:5~12과 거의 일치한다. 이 시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와 약속과 문제와 다시 기도로 이어지다가 밝은 전망으로 마감한다.

#### 찬양(108:1~5)

**108:1~2** 시편 기자는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 노래하며 찬양할 마음과 열의가 있다. 아직 어두운 시간에 그는 그의 영혼을 깨우고, 조용히 쉬고있는 비파와 수금을 깨워 감사의 노래로 새벽을 맞도록 한다.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생각인지!

**108:3** 그는 그의 노래를 집안이나 가까운 이웃에 한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만민이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며, 열방이 그의 찬미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러한 결심은 또한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한다.

**108:4~5** 왜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에 대해 열심히 있었는가? 그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은 하늘 위에 광대하고 그분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기 때문이다. 그분에 대한 찬송은 그분의 위대하심에 걸맞아야 한다. 즉, 그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 되셔야 마땅하다.

다윗의 놀라운 경배의 노래를 듣노라면 다음과 같이 표현한 어떤 이의 심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다.

“찬양은 기도보다 더 신령하다(divine). 기도는 하늘에 이르는 축복된 길을 가리키지만 찬양은 이미 하늘에 있다.”

#### 기도(108:6)

**108:6** 이제 그는 간구로 나아간다. 나라가 적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전망이 어두웠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종종 경험한 초자연적인 도움의 손길이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그는, 침략자들을 물리칠 도움을 보내사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여호와께 탄원했다.

#### 약속(108:7~9)

**108:7~8** 그 성소에 요동치 않고 엄위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 열국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인 권리를 주장하셨다. 그분은 메시아의 지배가, 야곱의 우물이 위치한 세겜 지방과, 야곱이 가축을 위한 장막을 지은 숙곳 골짜기와(창 33:17), 목초지와 약제용 향유로 유명한 길르앗 고원과, 요단 양편에 위치한 므낫세를 포함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에브라임은 지파들을 이끌어 그 지경을 보호하는 그분의 머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유다는 창세기 49:10의 약속대로 그분의 흘, 즉 통치권좌가 될 것이다.

**108:9** 역시 그 왕국에 포함될 외국 영토의 대표자로 모압, 에돔, 블레셋 등 세 이방 나라가 언급되었다. 모압은 그분의 목욕통이 될

것인데, 그것은 멸시와 지배를 표현하는 상징물이다. 에돔에게는 그분의 신을 던지실 것인데, 신은 소유권과 예속과 조롱을 암시한다. 모압과 에돔은 속국(屬國)이 될 것이나 블레셋은 멸망할 것이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 문제(108:10,11)

**108:10~11** 에돔에 대한 승리의 약속은 다윗으로 그 성취를 보고픈 간절한 마음을 갖게 했다. 에돔의 수도인 셀라(‘페트라’로도 알려졌음)는 접근불가능하고 난공불락한 성으로 잘 알려졌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이끌어 에돔에 이르게 하여 그것에 대한 승리를 외치게 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얼굴을 숨기신 것이다. 그분의 도움이 보이지 않았고 불행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에 나아갔으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까닭에 패배하고 말았다.

#### 기도(108:12)

**108:12** 여호와 없이는 상황이 절망적이며 그분 외에 아무도 도울 수 없다. 다윗은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도움은 무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전장(戰場)에서 도움을 베푸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일을 돌아봐 달라고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했다.

#### 전망(108:13)

**108:13** 기도의 자리를 떠나자마자 시편 기자는 승리의 찬가를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분이 대적을 물리치고 사랑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폴 게르하르트가 그토록 생동력 있게 표현한, 믿음에서 난 확신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모두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도 두려움 없네.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부를 때  
악한 군대가 달아나네.  
나의 벗이요, 전능하신 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온들  
나를 어찌 해치겠는가?

세상은 쇠하고 사라져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니  
악한 무리의 증오가  
주의 사랑에서 날 떠나게 못하며  
굽주림과 기갈과 궁핍과  
힘센 왕들의 분노가  
내 거처를 위협치 못하네.

내 마음 기쁨으로 뛰고  
슬픔은 머물지 못하네.  
내 마음 밝은 햇살 아래  
높이, 영광 중에 노래하네.  
예수, 그분의 사랑의 빛줄기가 내게 비추니  
내 노래의 샘은 하늘 높이 잠겨 있네.”

## 109편 : 하나님의 대적의 운명

모든 저주의 시 가운데 이 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처럼 정

제된 신랄한 비방으로, 혹은 세세하고 철저한 공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시는 없다. 이 시를 대하는 독자는 시편 기자가 대적에게 임하기를 촉구하는 다양한 징벌을 보고 그 탁월한 표현력에 놀라고 매료되지 않을 수 없다!

**109:1~3** 이 시는 긴장을 풀게 하는 부드러움으로 시작된다. 다윗은 그가 찬송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호소했다. 그의 대적들이 그를 해하려고 악행을 도모하고 온갖 거짓 비방을 퍼붓고 있었다. ‘미워하는 말’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날아왔다. 더더욱 참기 힘든 것은 그러한 공격이 모두 아무 근거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109:4~5** 다윗은 이제까지 대적들에게 사랑과 인자를 베풀어왔으나 그 대가로 어떤 결과가 돌아왔는가? 한 꾸러미의 거짓된 비방을 그는 받았다. 아울러 그는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 모든 친절에 대해 그들은 모욕으로 보답했으며, 사랑에 대해 증오로 보답했다.

**109:6~7** 이제 그는 공격의 날을 세웠다. 이제부터 맹렬하고 냉혹한 저주의 말이 그의 상처 입은 영혼으로부터 튀어나온다. 1~5절의 여러 대적들에게서 이제 그는 한 대적에게로 집중했다.

마침내 그 사람은 사로잡히고 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면, 여호와께서 상황을 다스리사 악인이 그의 고소자가 되고 악마와 같은 사람이 그의 원고가 될 것이다. 재판 끝에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혹 그가 감량을 호소한다면 그의 요구는 법정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이다.

**109:8~10** 그의 생명은 단축되고 그의 직분은 다른 이가 취할 것

이다. 이 저주는 제자의 무리의 회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와 그의 직분에 대해 사도행전 1:20에 인용되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시가 다윗과 그의 대적에 대해서만 아니라, 메시아와 그분의 배신자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도 장차 올 날의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이 시의 가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적의 가족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다. 그의 자녀들은 전에 그들의 집이었던 곳에서 쫓겨나 늘 방황하며 구걸하는 자가 될 것이다.

**109:11~13** 그의 재산에 대해 말하자면, 채권자가 몰려와 그의 모든 소유를 취할 것이며, 그가 모아들이 모든 것을 외인들이 나눠가질 것이다.

그 자신이 아무런 자비를 베풀지 않은 까닭에 아무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아무도 그의 고아된 자녀들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 가문의 이름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잊혀질 것이다. (동양인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것이 가장 치욕스런 형벌 중 하나이다.)

**109:14~15** 그의 선조들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의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그들의 죄를 잊지 마시고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계속 간구한 까닭에 필경 그들의 죄책은 가중

되었을 것이다.

**109:16~20** 16절에서 우리는 그 악인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기소장을 읽게 된다. 공황을 베풀기를 금하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 그 대신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찾아내어 괴롭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본 절에서 우리는 죄 없으신 구주를 십자가로 내뿜은 가룟 유다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인 영역에는 냉혹한 보상의 법칙이 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죄의 결과를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인과(因果)의 법칙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구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이제 그의 저주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 이제 축복이 그를 멀리 떠나갈 것이다. 그는 옷을 입듯이 저주를 일삼았으니 이제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그러한 저주가 그의 삶에 스며들고, 그의 존재 전체와 뺏속까지 스며들 것이다. 저주가 그가 입은 옷과 같이 그를 덮을 것이다. “그가 결코 벗을 수 없는 띠처럼 착 달라붙게 하소서”(Knox).

이상이 그의 고소자와 비방자들에 대한 다윗의 바람이다. 그는 심판의 목록에서 어느 한가지도 간과하지 않았다. 어떤 이의 말대로, “어떤 사람이 대적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는 모든 심판이 이 악인에게 일어나기를 빌고 있다.”

**109:21~25** 시편 기자는 두 가지 기도와 한가지 찬양으로 마감한다. 먼저 그는 자신의 곤란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분 자신을 능력과 공의



의 하나님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의 편에 서주시기를 원했다. 다윗을 위해 개입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다시 한번 나타내실 것이다.

시편 기자의 곤경은 극심했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상했다. 그의 생명은 길게 드리운 그림자처럼 소멸되고, 사람이 메뚜기를 손에 가지고 놀듯이 이리저리 불려갔다. 오랜 금식으로 인해 그의 무릎은 닳고 그 몸은 가죽과 뼈만 남았다. 대적들은 그의 가련한 처지를 비웃고 그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109:26~29** 두 번째 기도에서 그는 대적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줄 것을 여호와께 구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를 건지실 때, 그 때 대적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신 결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실진대 그들이 저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적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나, 시편 기자는 그 때에 기뻐할 것이다. 그들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걸옷 같이 입게 하소서!”

**109:30~31** 끝으로, 우리는 다윗이 그의 기도가 응답될 때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일상적인 찬양이 아니라 큰 감사의 찬양이 될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찬양이 아니라 무리 중에 올려지는 찬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제는 여호와께서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여호위를 우리의 보호자로 모신다는 것은 큰 확신을 준다. F. B. 메이어는 이렇게 말한다.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의 팔을 잡고 법정에서 들어서는 피고는 얼마나 담대한가?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해 곁에서 계실 때 그 피고를 정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익한 시도인가?”<sup>1)</sup>

## 저주의 시에 대해

시편 109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저주의 시에 내포된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지적으로 정직한 태도가 아닐 것이다. 물론 그 문제는 그러한 시들의 보복적이고 징벌적인 정신(spirit)을 다른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용서와 사랑의 정신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 109편이 저주의 시의 대표격이므로 여기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먼저, 이제까지 제기되어왔지만 필자에게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견해들을 소개해보겠다. 그런 다음, 물론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필자가 보기에 옳은 견해로 여겨지는 견해를 제시하겠다.

첫 번째는, 이 저주의 말들은 악인에 대한 보복이나 징벌의 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일어날 저주라는 견해이다. 영거는 이렇게 말한다.

“경건한 자들에 의해 개개인에 대해 퍼부어진 저주는 복수심이나 분한 마음이나 참을성 없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언이며, 따라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다.”<sup>2)</sup>

그렇다면, 저주의 시에 나타난 현재시제로 된 많은 명령문들이 미래시제로 옮겨졌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위치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다. 따라서 그는 그러한 가혹한 심판을 선언할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사실은 모든 저주의 시가 다 다윗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러한 대목들을, 그 가혹성을 지적하지 않은 채

1) (109:30,31) Meyer, *Psalms*, p. 133.

2) (평론) Unger, *Bible Dictionary*, p. 231.

다만 그 사람들의 느낌을 사실 그대로 기술한 것(historical record)으로 간주한다. 바네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시편 기자의 마음 속에 실제로 일어난 느낌을 단순히 기록한 것이며, 부분적으로 성화될 때의 인간 본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보존된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영감의 영(성령)께서 시편 기자의 그러한 느낌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으신 것은 다윗, 아브라함, 야곱, 베드로 등의 행동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으신 것과 마찬가지로이다...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 꼭 영감 받은 자들이 절대적으로 무죄해야 함을 전제하지는 않는다...이 견해에 의하면 저주의 시에 사용된 표현들은 우리의 본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sup>3)</sup>

이밖에 또 다른 견해들이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으며, 따라서 이스라엘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었다는 식으로 저주의 시를 옹호하는 견해가 있다.

어떤 이들은, 우리 각 사람 속에는 죄가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요소가 있다는 논리를 편다.

또 어떤 이들은, 시편 기자는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묘사한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보복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말했듯이, 필자는 위의 어느 견해에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필자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저주의 시는 ‘율법 아래 사는 유대인에게는 적절하지만 은혜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정신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들이 우리에게 가혹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신약성경의 계시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이다. 다윗과 그밖에 시편 기자들은 신약성경이 없었다.

---

3) (평론) Barnes, *Psalms*, 1:37.

스크로기는 이렇게 말한다.

“...이전 세대는 현재 세대보다 열등했으며, 율법은 복음과 모순 되지도 않지만 복음과 동등하지도 않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기 위해서도 오셨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시편 가운데 심판이나 보복을 말하는 표현들을 바울 서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sup>4)</sup>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데 그 가족을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극단적인 처사로 보이겠지만, 시편 기자에게는 정당한 처사였다. 왜냐하면 아버의 죄를 자손 3,4대까지 미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다(출 20:5, 34:7; 민 14:18; 신 5:9).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안든 간에, 영적인 영역에는 죄가 가정적으로 역사하는 법칙이 있다. 어떤 사람도 홀로 있지 않다. 그의 행동의 결과는 그 자신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가운데(in the acceptable year) 살고 있다. 이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신원(복수)의 날이 시작되면, 저주의 시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 환란의 순교자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계 6:10)

끝으로, 한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시편에 나오는 가혹한 저주의 말들은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온갖 저주를 당하사 우리로 저주 당하는데서, 또한 저주하는데서 영원히 자유케 하신 그분을 묵상하도록 희미하게나마 우리 마음을 준비시킨다. 물론, 시편에 묘사된 모든 징벌들이 우리의 구속주로서 그분이 당하신 심판의 무서움을 희미

---

4) (평론) Scroggie, *The Psalms*, p. 32

하게 반영해주는 것은 아니다. ☞

## 110편 :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의 주(主)

이 ‘다윗의 시’는 구약의 어떤 구절보다 신약에 많이 인용 내지 언급되는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시는 명실상부한 메시아 시로서, 먼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화롭게 되신 분으로, 그 다음은 우주적인 통치권을 취하기 위해 지상에 재림하시는 영광의 왕으로,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다.

**110:1** 첫 구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주(主)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주’라는 이름으로 언급된 두 구별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달려있다. 첫 번째 인물은 의심의 여지없이 여호와를 가리킨다.<sup>5)</sup> 다른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돈’으로 ‘주인’ 혹은 ‘통치자’를 의미한다.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때로는 인간 상전에게 적용되었다. 단어 자체는 항상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문구가 다윗의 주(아돈)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보여준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신원(身元)에 대해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물으셨다. 약속된 이가 누구의 후손이겠는가?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정확히 답변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110편(그들이 메시

5) (110:1) KJV와 NKJV에서 대문자 “LORD”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이름인 여호와(=야웨)를 가리킨다.

야시로 인정하고 있었다)에 의하면 메시아가 또한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그가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왕인 다윗이 지상에서 그의 주(主)를 소유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 답은 메시아는 하나님이자 인간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으로서’ 그는 ‘다윗의 주’이다. ‘인간으로서’ 그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 위(位) 안에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신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주이자 다윗의 후손이셨다.

바리새인들로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그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절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 기록을 볼 수 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마 22:41~46; 막 12:35~37; 눅 20:41~44).

신약의 기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님이라는데 대해 아무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마 26:64; 막 14:62, 16:19; 눅 22:69; 행 2:34,35, 5:31, 7:55,56; 롬 8:34; 고전 15:24; 엡 1:20; 골 3:1; 히 1:3,13, 8:1, 10:12,13, 12:2; 벧전 3:22; 계 3:21). 그러므로 1절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승천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분에게 이르신 말씀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 원수가 그분의 발등상이 되기까지만 거기에 계신다.

**110:2** 1절과 2절 사이에는 H. A. 아이언사이드가 ‘큰 공백’이라고 부른,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심에서 재림까지 이어지는 ‘교회시대’가 있다.<sup>6)</sup> 2절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메시아의 왕의 홀을 내어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예루살렘을 수

6) (110:2) 아이언사이드는 이 표현을 ‘커다란 공백’, 즉 현 교회시대라는 책 제목으로 사용했다.

도로 하여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그 홀은 그분의 왕권을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대적들 가운데서 온 땅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으신다.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에 앞서 주 예수께서 다시 일어선 대적을 멸하실 것이다. 여기서는 대적을 멸하는 문제가 아닌, 그분의 친구가 되어 기꺼이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대적을 다스리는 문제를 말한다.

**110:3** 그것은 3절에 의해 확증된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이 거룩한 산으로 군대를 이끄시는 날에 기꺼이 자신을 드린다. 혹은 NKJV의 표현대로, “주의 백성이 주의 권능의 날에 지원병(volunteers)이 될 것이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에 자원하는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왕을 알현할 것이다. “그들은 그 삶과 행실을 통해 거룩하고 순전한 성품 가운데 깃든 모든 아름다움 혹은 매력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바네스는 말한다.

3절 후반은 역자들과 주석가들의 고민거리였다. 스크로기는 이렇게 풀이한다. “...이슬이 아침에 생기듯이, 무수하고, 신선하고, 밝고, 강력한 주의 군대가 주께 나올 것이다.”<sup>7)</sup>

**110:4** 그 나라의 기이한 특징 중 하나는 주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 의 두 직임을 그분의 위(位) 안에 통합시키신다는 점이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 통치자의 경우에는 극히 위험한 통합이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는 오랜 뚜렷한 외침은 근거가 합당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통치자이실 때는 그 통합이 이상적이다. 부패하지 않은 왕권과 영적인 제사장권이 통합된, 세상이 고대했지만 보지 못한 그러한 통치를 세상에 허락할 것이다.

4절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제사장직에 관한 네 가지 사실을 본다.

---

7) (110:3) Scroggie, *The Psalms*, p. 85.

- 그는 여호와와 맹세에 의해 제사장이 되었다.
- 그 임명은 철회할 수 없었다.
- 그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
-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것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라는 문구는 히브리서 5~7장에 우리를 위해 해석되어 있다. 거기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아론 내지 레위의 제사장직과 비교되고 대조된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과 아론의 가족을 제사장에 임명했다. 그들의 제사장직은 혈통의 문제였으며 죽음과 더불어 종식되었다.

이 신비로운 인물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명에 의해 세워졌다. 그것은 그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다(“아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히 7:3). 그리고 그의 제사장직은 시작되거나 끝났다는 언급이 일절 없다(“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히 7:3). 여러 면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레위의 제사장직보다 뛰어났다. 멜기세덱은 주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분은 레위가 아니라 유다 지파 출신이었다. 그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에 의해 세워졌다. 그리고 그분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므로 그분의 제사장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멜기세덱이 메시아를 예표해준 또 다른 면은 그가 왕이자 제사장이었다는 점이다. 그의 이름과 칭호는 그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다고 말해준다(히 7:2). 그는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창 14:18).

**110:5** 이 시의 후반 세 구절은 주 예수님을, 그분의 나라가 시작



되기 전에 모든 불법과 반역을 멸하는 강한 정복자로 묘사해준다.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의 정체를 밝히는 문제는 그것을 여호와께 아뢰는 말로, 또한 메시아-왕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때 해결된다. 예컨대, 5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주(아도나이-여기서는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여호와) 우편에 계시며, 그(메시아)가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우리말 성경은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라고 되어 있음-역주).

**110:6** 이것은 요엘 3:9~17, 스가랴 14:3, 계시록 19:11~21에 예견된대로, 주 예수께서 이방 열국을 치러 나가시는 모습이다. 그분은 열방 중에 심판을 집행하사 온 땅을 시체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는 “넓은 땅을 다스리는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라고 옮겨질 수도 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실” 불법의 사람의 운명을 가리킨 말일 수도 있다(살후 2:8).

**110:7**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왕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실 것이다. 물은 종종 성령을 상징하므로(요 7:38,39)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암시하며, 아울러 그분이 왜 이어서 승리를 거두고 그 머리를 드시는지를 설명해준다.

### III편 : 주의 기이한 행사

시편 111편에는 세 가닥의 줄이 얽혀져 있다.

- 여호와와 그의 행사(2~4, 6~7절).

- 언약(5,9절), 법도(7절)와 동의어인 여호와와 말씀.
- 그분의 성품과 행사의 영원한 특성(3,5,8~10절).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이 시는 글자 수수께끼 시이다. 1~8절은 각각 두 줄로 되어 있고, 9,10절은 각각 세 줄로 되어있다. 그리고 그 22줄은 각각 히브리어 철자 순으로 시작된다.

이 시의 주제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이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바벨론 포로의 흑암에서 그분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분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다.

**111:1** 이 노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신실한 자들에 대한 촉구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시편 기자 자신의 결심과 함께 시작한다. 그는 신자들의 작은 모임과 백성들의 큰 집회에서, 혹은 사석과 공석에서 그렇게 찬양하고자 한다.

**111:2~3** 여기에 언급된 여호와의 행사에 대한 네 가지 묘사는 그분의 모든 행사에 적용되지만,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모든 행사의 '최고봉'은 출애굽 사건이었다. 여호와의 행사는 커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모든 자들의 합당한 연구과제이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놀랍게 드러낸 것이며, 그분의 의는 영원히 지속된다.

**111:4~5** 그분은 어린양의 피로 이뤄진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대로 기념하며,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영원히 기념하는 예식으로서 유월절을 제정하셨다. 주의 만찬에서는, 더 좋은 어린양의 피로 이뤄진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고,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상기시키는 예식을 예비해주셨다. 아마 5절은 특

별히, 하나님이 광야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적으로 ‘양식’(문자적으로 ‘먹이’)을 공급하신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언약 백성임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그분이 자신이란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은 항상 사실이다.

**111:6** 그분은 가나안 열족을 쫓아내고, 시편 기자가 여기서 “열방의 기업”이라고 부른 약속의 땅으로 그분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행사를 그들에게 또 한번 나타내 보이셨다.

**111:7~9**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그분이 항상 신실하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분의 모든 법도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고 그것을 신실하고 아름답게 이루신다. 그분은 출애굽 때에, 그리고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분의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셨다. 그분은 그 영광스런 통치에 앞서 열두 지파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다시 한번 구속을 베푸실 것이다. 그 모두는 그분의 언약의 일부이며, 결코 실패할 리 없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며, 그 이름처럼 그분 또한 그러하다!

**111:10** 그분을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에 이르는 길에 접어든 것이다. 그분을 순종하면 할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신다. “순종은 영적인 지식을 얻는 통로이다.”

그분은 영원토록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다!

## **112편 : 의인의 보상**

**112:1** 이 시와 앞의 시는 그 글자 수수께끼 형식과 그 영적인 교

훈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다. 이 시는 111편이 끝나는 지점, 곧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실행하는 자를 출발점으로 한다. 111편에서 여호와에 관해 언급된 몇몇 사항들이 이 시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111편에서는 의의 태양께서 그 모든 영광 중에 빛을 비추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신자가 달처럼 그 영광을 반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써 신자는 성령에 의해서 동일한 아름다움으로 변화된다(고후 3:18).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종종 시편 기자의 감정을 표현했으며,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 훌륭한 본을 남겨두었다.

누가 복있는 자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복하는 자,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것을 지킴으로 그러한 마음을 입증하는 자가 복있는 자이다. 그는 실제적인 경건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축복들을 거뒀들이다. 이를테면 이러하다.

**112:2** ‘후손의 강성.’ 그의 후손은 힘과 영예가 있는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경건한 유산으로 인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교회시대에 적용할 때는 그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전환시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2:3** ‘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허비와 가난에서 건져준다. 그의 의로움, 즉 그의 정직과 근면과 검소함의 결과는 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112:4** ‘안전한 조명.’ 흑암을 면케 해준다는 보증은 없지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리라는 약속은 있다. 삶의 모든 어두운 순간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으로 나타내신다.

**112:5~6** ‘너그러움.’ 너그러운 사람,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주기를 거절치 않는 사람은 범사에 형통한다. 그러한 사람은 분별력과 공의로 일을 처리한다. 그의 삶은 안정된 기초 위에 세워지며, 그는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112:7** ‘두려움에서 해방됨.’ 그는 흉한 소식과 사업의 파산과 자연적인 재난을 늘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 그는 여호와의 의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그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112:8** ‘대적 앞에서의 담대함.’ 그의 대적들도 그의 평온 내지 평정을 뒤흔들지 못한다. 그는 비록 잠시 그들이 득세한 듯 보이나 그들의 멸망이 확실하며 자신이 승리자의 편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112:9** ‘영원한 열매와 존귀.’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었기에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친절의 결과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의 뿔(힘의 상징)을 부끄러움 중에 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머리가 찬사로 관 씌워질 것이다. 바울은 너그러운 마음의 영원한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 고린도후서 9:9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112:10** ‘악인의 시기.’ 악인은 경건한 자가 마침내 보응과 영원한 존귀를 얻는 것을 보고 탄식하고 시기할 것이다. 그들은 이를 갈며 분노하다가 웅크리고 소멸할 것이다. 그 바라던 모든 것이 그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바네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시편에 의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묘사된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의인은 번성하고 행복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이

를 것이다. 그들은 사는 동안 존경을 받고 죽은 뒤에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개입하시는 것을 목도할 것이다. 그들은 위험과 환란의 날에 고요하고 안정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뢰할 것이며 범사에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베푼다는 것은 확실히 축복이 아닐 수 없다.”<sup>8)</sup>

### 113편: 그렇게 위대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

113:1~6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을 ‘무한히 높으신’ 분으로 제시하며,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매우 가까이 계신’ 분으로 제시한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높으시다. 그러한 분이로서 그분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다.

누구에게? 그분의 모든 종들에게(1절).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송축함으로(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인해 그분께 감사하는 것을 의미함; 2절).

얼마나 자주? 끊임없이-이제와 영원토록(2절).

어디서? 모든 곳에서-해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3절).

무엇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그분은 모든 나라 위에 높이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시다(4절).

*그분의 비할 데 없으심으로 인해*. 아무도 높은 위에 앉으신 그분과 비교될 수 없다(5절).

*그분의 무한한 살피심으로 인해*. 천지에 그분이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6절). 6절은 그분이 ‘하늘에 있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도 스스로 낮추셔야 한다고 암시해준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무한히 높으신 그분이 또한 심

8) (112:10) Barnes, *Psalms*, 3:149.

히 가까이 계신다.

**113:7~9** 가난한 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분이 그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궁핍한 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분이 그들을 낮은데서 높이 사 방백들과 함께, 땅의 높은 자들과 함께 앉히신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분이 그녀에게 가정을 허락하고 그녀로 자녀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불임(不妊)은 유대 여자들 가운데 커다란 수치였다. 그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랍비들의 기도서에 의하면 가장 기뻐할 일이었다.

### 적용

나는 가난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는 영적인 면에서 놀랍게 부요해졌다.

나는 궁핍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이 궁핍한 자를 구덩이에서 취하시고 놀라운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주셨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사귀를 허락해주셨다.

나는 잉태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열매도 내 삶에서 맺지 못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공허하고 황폐한 인생에서 의미 있고 생산적인 삶으로 건져내셨다.

내가 시편 기자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가 보좌를 채우시네.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요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의 주제이신

그가 높은 보좌를 채우시네.

높이 계시지만 그가 찬양을 받으시네.

그의 백성이 이 땅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네.

그들이 드리는 희미하고 미약한 부르짖음이

구주의 귀에 상달하네.” (토마스 켈리)

## 114편: 주님의 능력의 임재

**114:1**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속되고 광야생활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전 과정은 시종 하나님의 권능을 놀랍게 드러내주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과정이야말로 이제까지 일어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이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옴으로 오랜 속박과 압제의 세월이 끝난 것은 얼마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에게서 해방될 때의 그 기쁨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그들은 더 이상 이방 언어로 퍼부어지던 위협과 저주 아래 움크리지 않았다!

**114:2** 얼마 후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영토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이 그분의 영토, 즉 그분이 한결같은 돌봄으로 살피시는 영역이 되었다. 지리적인 면에서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던 것이 오늘날 영적인 면에서 교회에게 적용된다.

**114:3**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자 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물러갔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 볼품 없는 피난 행렬이 아니었다. 바다는 그 지으신 창조주를 우러러 보고는, 이스라엘이 발이 젖지 않은 채 건너갈 수 있도록 신속히 뒤로 물러갔다.

40년 후,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



다. 요단강이 아담 성읍에서 그 흐름을 멈추었고, 그 땅에 진입을 막던 마지막 장벽이 대로(大路)가 되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두 사건이다. 홍해를 건넌 것은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있어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속된 것을 상징한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광야의 방황에서 건짐을 받아, 다시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

**114:4** 그 두 사건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다른 두려운 사건들이 있었다. 그 중 가장 괄목할 한가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사건이었다. 자연이 격동하여 산들이 수양같이 뛰고 작은 산들이 어린양같이 뛰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한 나머지 온 지경이 지각변동을 일으킨 양 뒤흔들렸다. 그 광경이 심히 두렵기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다(히 12:21).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른 곳은 그 두려운 율법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는 아무 상관없네.

내 구주의 순종하심과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네.”(아구스투스 M. 토플레이)

**114:5~6**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마음이 크게 기뻐서, 바다와 요단과 산과 작은 산에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말해달라고 재촉했다. 그 질문들은, 자연 가운데 힘과 견고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물들이 여호와 앞에서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웃으며 조롱하는 노래의 형태를 띤다.

**114:7~8** 이어서 온 땅은 그러한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와 공경을 표해야 한다는 선언이 이어진다. 그분은 영원히 위대하신 ‘스스로 계신 자’인 동시에 야곱, 곧 쓸모 없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신다(출 17:6; 민 20:11). 이스라엘 백성은 갈증으로 완전히 낙담했다. 그들은 심히 원망했으며 심지어 애굽에 돌아가기를 원했다. 이에 하나님은 처음에는 호렙에서, 그 다음에는 트리바에서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못이 흐르게 하셨다. 그 반석은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맞으사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수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바울은 말해준다(고전 10:4).

### **115편: 이스라엘이 우상을 거절하다**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들의 고토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회복은 전적으로 여호와 때문이다. 그분이 자기 백성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해, 그리고 자신의 약속에 충실한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이다.

**115:1~2** 너무도 오랫동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해왔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70년간이나 포로로 놔두는 것을 보니 너희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가 보구나!”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들의 조롱과 야유는 잠잠해졌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옹호하신 것이다.

**115:3** 이제 참 하나님이 초월자시며(“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주권자이심(“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을 온 세상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하나님의 초월자되심(초월성)은 그분이 우주 위에 높으시며 우주를 떠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주권자되심(주권성)은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115:4~7**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우상숭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상의 무력함과 무가치함을 깨달은 까닭에 그들은 그 새긴 신상으로 인해 이방인들을 조롱한다.

우상은 은금으로 만들어지며, 따라서 그 가치는 시장의 형편에 따라 결정된다. 그것은 사람에게 의해 제작되며, 따라서 그것을 숭배하는 자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그것은 입이 있어도 가르치거나 장래를 예언하지 못한다. 그것은 눈이 있어도 숭배자들의 문제를 살피지 못한다. 그것은 귀가 있어도 기도를 들을 능력이 없다. 그것은 코가 있어도 드러지는 제물의 향내를 맡지 못한다. 그것은 손이 있어도 느낄 수 없다. 그것은 발이 있어도 그 선 곳을 떠나지 못한다. 그것은 목구멍으로 소리도 내지 못한다.

**115:8**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과 같다. 사람들이 그 숭배하는 대상과 같아진다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의 정해진 원리이다. 그들의 도덕 수준은 그들의 신(神)에 의해 형성된다. 우상을 신뢰하는 자는 불순하고 나약하고 우둔하고 지각이 없게 된다.

**115:5** 오직 여호와만이 신뢰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독창자(시편 기자)가 앞으로 나아가 여호위를 확고히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에게 촉구한다. 이에 합창대가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라는 고백으로 화답한다.

**115:10~11** 이어서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집이 여호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라는 권면을 듣는다. 그리고 합창대가, 그들은 그들의 검증 받고 증명된 도움이요 방패시라는 고백으로 다시금 화답한다. 세 번째로, 아마도 이방인 회심자를 포함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로 대상을 넓혀 선창자가 호소한다. 그들 역시 그들이 그들의 참 도움이요 방패임을 알고 있다.

**115:12~15** 마치 제사장들이 노래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사 그 부(富)를 회복시키신 그 동일한 여호와께서 그들, 곧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이방인 회심자들과 연령과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확증하는 듯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후손을 번창케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아마도 그들은 그 수가 고갈된 민족의 수적인 증가를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러나 그 기도는 영적, 물질적 번성 또한 포함할 수도 있다. 게다가 그들은 여호와, 곧 천지를 지으신 분의 일반적인 축복을 기원한다.

**115:16** 하나님은 하늘은 그 자신의 거처로 지으셨지만 땅은 사람이 거할 곳으로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은 그분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다.

**115:17~18** 17절은 죽음은 인간의 여호와를 찬양할 능력을 종식시킨다는 구약 성도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반영한다. 그들이 아는 한 죽은 자는 철저한 침묵 상태에 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는 자들은 즉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몸은 비록 무덤 속에 침묵 중에 누워있지만, 그 영혼은 아무 속박 없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의 절정은 우

리에게도 유효하다. 즉,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를 마감 짓는 서원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 116편: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도다!

이 시 전체에는 첫 번째 부활절 아침의 환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동산의 무덤이 비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부활과 관련하여 응답된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올리고 있다.

**116:1~4** 그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라.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세 단어뿐이지만 가장 순수한 예배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장려한 고백으로만 가까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하는 나약한 영혼에게, 여호와께 대한 아주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참된 예배임을 안다는 것은 크나큰 격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주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진술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 또한 예배이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겔세마네와 골고다에서 드러진 번민 속의 간구를 들으신 까닭에 그치지 않는 감사로 마음이 흘러 넘쳤다. 사망의 줄이 그분을 조여오고 육체가 해체되는 고통이 그분을 사로잡을 때, 그분이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견디고 있을 때, 그 때 그분은 여호와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분을 구원하셨다. 그분을 죽어 가는데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다.

**116:5~6**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 여호와의 영광을 진술하는데서

발견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자신의 부활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열거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즉, 인자하고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공의롭고 공정하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분은 동정이 많으시다. 여호와와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의 경우로 말하자면, 여호와와는 신실한 자, 무죄한 자, 혹은 아무 도움이 없는 자를 보존하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위경에 처할 때 그들을 구원하신다.

**116:7** 끝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후대하신다. 그분은 축복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으시다. 그러기에 주 예수님은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괴로움과 번민과 고통이 끝났다.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사 그분을 구원하셨다. 이제 그분은 잘 예비된 안식에 들어가신다.

**116:8~10** 이어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다시 상기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같은 예배를 반복하기를 마다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찬양을 들으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찬양제목은 영원히 반복될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세 가지 구원을 베푸신 아버지께 대한 감사로 충만했다. 그 영혼이 죽음에서 건짐 받았다. 그 눈이 눈물에서 건짐 받았다. 그리고 그 발이 넘어짐에서 혹은 패배에서 건짐 받았다. 이제 그분은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셨다. 죄와 사망과 무덤과 음부를 물리친 승리자로서 그렇게 행하셨다.

10,11절은 문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소 의문스럽다. 아마도 TEV가 그 의미를 잘 포착한 듯 보인다.

“나는 완전히 망하였다”라고 말할 때나, 혹은 심지어 ‘아무도 믿

을 수 없다'라고 두려움 중에 말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믿음을 간직했다.”

가장 깊은 고난의 순간에도, 혹은 사람들이 믿을 가치가 없음이 드러났을 때에도 그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분의 고백은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깊은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116:12~13** 이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질문으로 표현된 예배의 마지막 요소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그분께 보답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지불하는 어떤 대가도 그분의 은혜를 욕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방법으로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고자 하는 타고난 본능이 있다. 그 방법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여호와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의 위대함을 깨닫고 특별한 헌신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116:14** 부활하신 구주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기로 결심하셨다. 그것은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하는 동안 약속하신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서원이었다. 이제 그분은 그러한 서원을 이행하신다.

**116:15** 다시 한 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라는 고백에 의해 문맥의 흐름이 갑자기 중단되는 듯하다. 이 구절은 비록 문맥에 맞추기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한 독립된 말씀으로 애독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이다. 그들의 죽음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께 귀중하다. 그러나 그것은 주 예수님의 경우에는 더욱더 사실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의롭다 할 수 있는 의로운 근거를 제공하는 까닭에 아버지께 귀중했다.

**116:16~17** 1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전히 “여호와와 중” 이시다. 이것은 마치 그분이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출 21:5). 것처럼 그분은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서명하셨다. 하나님의 여종의 아들이로서 그분은 그 모친 마리아가 그랬듯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속박을 풀어 주신 까닭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하셨다.

**116:18~19** 다시 한번 그분은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서원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서 장차 주 예수님은 여호와께 찬양의 합창을 올리도록 그들을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서원을 갚으실 것이다. 그 일은 임마누엘이신 그분께서 그 못 자국난 손으로 우주의 왕의 홀을 쥐기 위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뤄질 것이다.

### **117편 :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117:1~2**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인 이 장에서 이방인들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포착하고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메시아의 자비를 힘입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로마서 15:11에서 1절 말씀을 인용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은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할 뿐 아니라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다.

다음의 훌륭한 시가 이 시의 메시지를 극히 아름답게 묘사해준다.



“하늘 아래 거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창조주께 대한 찬양이 올라가게 하시고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통해  
 구속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소서.  
 주여, 주의 인자가 영원하고  
 주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오니  
 주를 찬송함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울려 퍼지기를,  
 더 이상 해가 뜨고 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리라.” (아이작 왓츠)

### 118편: 너희 왕을 보라!

이 놀라운 찬양의 합창의 배경은 우리 주와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 무대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의 출현을 기념하기 위해 무리가 모여든 예루살렘이다. 성전 그늘 아래서 한 독창자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고, 그 뒤에 합창대가 서 있다. 고요한 침묵이 온 청중을 덮는다.

**118:1 독창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합창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온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으로 화답한다.)

**118:2 독창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합창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118:3 독창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합창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성전 문에 서있는 제사장들에게서 ‘아멘’ 하는 깊은 탄성이 터진다.)

**118:4 독창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합창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무리가 이 영광의 순간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데 대해 감사의 눈물을 억제하느라 애쓰고 있다.)

**118:5~9 독창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답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무리는 이것이 환란 기간에 하나님에 의해 놀랍게 보존된 이스라엘의 신실한 잔존자들의 고백임을 이해한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방백들, 즉 높은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118:10 독창자:**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합창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18:11 독창자:**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합창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18:12 독창자:**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가시덤불은 요란한 불꽃을 내내 쉬 타버린다.)

**합창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18:13~14** 독창자: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독창자는 13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명령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잔존자들에 대한 그의 잔인한 학대를 말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때에 주님께서 개입하사 그 거짓 메시아를 불못에 던지셨다[계 19:19,20].)

**118:15~16** 독창자: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이스라엘 온 지경에 메시아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의 물결이 넘친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합창대: 여호와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와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18:17~18** 독창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독창자는 잔존자의 입장이 되어,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학살과 멸절 위기를 회상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으며, 이제 그들은 확신과 안정 가운데 미래를 직면한다.)

**118:19~20** 독창자: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구속받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 뜰에 들어가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스도의 통치시에 제사제도가 부분적으로 재건될텐데, 그 때는 갈보리를 되돌아보는, 말하자면 과거 회상적인 제사가 될 것이다.)

**합창대:** 이는 여호와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것은 성전 문지기인 레위인들의 고백이다. 그들은 이 문이 여호와께 속했으며 그분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경건한 자들이 사용하는 문이라고 설명한다.)

**118:21~22** **독창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고백한다.)

**합창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주 예수께서 돌이시다. 건축자는 유대 백성과 특히 초림시에 그분을 거절한 그들의 지도자들이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받던 그 나사렛 사람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것을 보고 파커(Parker)가 “전문가들의 어리석음”이라고 일컬은 과오를 자복한다. 그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ASV). 머릿돌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몇몇 견해가 있다. [1] 건물의 모퉁이돌, [2] 아치의 가운데 돌, [3] 피라밋의 꼭대기 돌. 어떤 견해가 정확하든 간에 문맥상 최고의 존귀를 의미한다.)

**118:23** 이는 여호와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합창대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의 마음에 합당한 자리를 주 예수님께 내어주신 이가 여호와 임을 시인하는 모습을 대변한다. 마침내 대관식 날이 이르렀다!)

**118:24** 이 날을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바네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 날은 마치 그 일을 위해 제정된 새날이요, 백성들이 보리라고 기대하지 못한, 따라서 일반적인 일정에서 벗어나 다른 날들에 추가된 날과도 같았다.”<sup>9)</sup>)

**118:25**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이 이른바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 때에 인용한 구절이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이다[마 21:9]. 그러나 그들은 곧 환영하던 태도를 바꿔 그분의 처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그분의 권능의 날에 주님을 환영하고 있으며, 그들의 그러한 마음은 신실하고 불변할 것이다.)

**118:26** 독창자: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주님께서 성전 가까이 이르시자 앞서 노래하는 자가 낭랑한 어조로 백성들을 축복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여러 세기 전에 예수님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까지 다시는 그분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바 있으시다[마 23:39]. 이제

---

9) (112:10) Barnes, *Psalms*, 3:173,174.

마침내 그들은 그분을 그들의 메시아와 왕으로  
기꺼이 인정한다.)

**합창대:**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마도 이것은 성전 문 곁에 선 제사장들의 축복  
일 것이다.)

**118:27** 여호와와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비취셨으니 줄  
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맏지어다.  
(이스라엘 회중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의  
어두운 심령에 빛을 가져오신 분으로 경배한다.  
그분을 앞세운 채 제단 쪽으로 행렬이 나아가면  
서 사람들이 줄을 제단에 매라고 외친다.)

**118:28~29** **독창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  
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  
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 그분의 이름을 조롱거  
리로 삼던 백성에 의해 하나님으로 시인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합창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이 노래는 찬양과 경배에로 점점 고조되었다. 옛  
예루살렘 온 거리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리  
고 그 소리가 사그라들면서 사람들은 그 마땅한  
지배권을 가지신 영광스런 주님의 놀라운 천년왕  
국을 누리기 위해 그들의 거처로 돌아간다.)

## 119편: 성경에 관한 모든 것

이 시는 성경의 황금 알파벳으로 불려왔다. 그 이유는, 각각 동일

한 히브리어 알파벳 문자로 된, 22개 단락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각 단락은 8구절로 되어 있고, 각 단락의 모든 구절은 같은 히브리어 문자로 시작된다. 즉, 원문상에는 첫째 단락의 모든 구절은 알렘(Aleph)으로 시작되고, 둘째 단락의 모든 구절은 벳(Beth)으로 시작되고, 등등으로 전개되어 있다.

NKJV에 의하면, 이 가장 긴 시의 네 구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명칭 내지 묘사를 담고 있다. 그 네 예외구절은 84,121,122,132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이름들은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규례, 말씀, 약속, 판단, 성실하심, 강령, 의, 명령 등이다.

알파벳을 이렇게 글자 수수께끼식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성과 완전성을 진술하는데 가능한 모든 인간언어가 총동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리도우트는 지적했다.<sup>10)</sup> 신약에서도 이와 유사한 암시를 볼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다(계 1:8). 알파와 오메가는 물론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문자이다. 그 말씀은 그분이 모든 알파벳 문자를 결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선하고 완전한 것이 되신다는 뜻이다.

이 시의 어느 두 구절도 똑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각 구절마다 조금씩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이 119편에 대해서 C.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시는 18편 같은 갑작스런 감정의 분출이 아니며 또 그런 모습도 취하지 않는다. 이 시는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또한 여유를 갖고 숙련된 손질을 가하기를 즐겨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조용히, 오랜 시간을 들여, 한 땀 한 땀 이어져 만들어지는 수예품과도 같은 작품이다.”<sup>11)</sup>

10) (119편 서론) Lewis, *Reflections*, p. 52

11) (119편 서론) Lewis, *Reflections*, p. 52.

이 시의 여러 단락에 붙여진 다음 소제목들은 주로 F. W. 그랜트의 주해를 참조한 것이다.

- 1~8절 말씀 순종의 축복
- 9~16절 말씀을 통한 정결
- 17~24절 말씀을 통한 분별력
- 25~32절 말씀을 통한 자기 부족 인식
- 33~40절 말씀의 능력
- 41~48절 말씀을 통한 승리
- 49~56절 말씀을 통한 안식과 위로
- 57~64절 말씀 안에서 오래 참음
- 65~72절 형통한 때와 곤란한 때의 말씀의 무한한 가치
- 73~80절 말씀을 통한 통찰력
- 81~88절 말씀에 의해 힘을 얻는 고난당하는 자
- 89~96절 말씀의 영원성
- 97~104절 말씀을 통한 지혜
- 105~112절 범사에 등불과 빛이 되는 말씀
- 113~120절 악인과 말씀
- 121~128절 말씀을 통한 분리와 구원
- 129~136절 말씀을 통한 기쁨과 사귄
- 137~144절 말씀에 대한 열정
- 145~152절 말씀을 통한 경험
- 153~160절 말씀을 통한 구원
- 161~168절 말씀의 완전성
- 169~176절 말씀을 통한 기도와 찬양

가장 높은 차원의 의미로 볼 때, 이 시는 우리 구주께서 이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준다.



또한 “그 충만한 예언적인 의미에서 (이 시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분의 오랫동안 무시당한 말씀으로 돌이킬 때 고백할 표현이 될 것이다”라고 벨렛은 지적했다.<sup>12)</sup>

**119:1** 복 있는 혹은 행복한 자는 그 삶이 여호와의 말씀과 일치되는 자이다. 비록 그가 죄를 범하고 실패하더라도 말씀 안에는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며 그것이 그를 완전한(흠이 없는) 상태에 머물게 한다.

**119:2** 중요한 것은 그분의 증거에 대한 순종, 다시 말해서, 마치 못해하고, 주저주저하고, 발이 질질 끌리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깊고도 넘치는 열망이다!

**119:3** 행복은, 소극적으로는 모든 형태의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데서 발견되며, 적극적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경에 그려놓으신 길을 쫓아가는 것이다. 악을 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을 행하는데 완전히 몰입되는 것이다.

**119:4** 하나님의 법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며, 마음내키는 데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근실히 지켜야 할 것이다.

**119:5** 시편 기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에서 그 자신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교훈에서 기도로 서서히 전환하면서 그는, 꾸준히 순종하고자 하는 바램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

12) (119편 서론) Bellett, *Short Meditations*, p. 131.

**119:6** 여호와와 모든 율례를 지키는 한 그는 마음을 괴롭히고, 뺨을 붉게 만들고, 때로는 몸마저 움츠러들게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19:7** “기도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은 멀거나 어려운 여행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며, 그로 인해 자발적인 경배에 이르게 된다.

**119:8** 굳은 결심은 겸손한 순종과 짝을 이룬다. 시편 기자는 열심히 주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기자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119:9** 모든 청년의 삶 가운데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는 어떻게 순결을 지키느냐는 것이다. 그 답은 성경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119:10**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 편의 간절한 추구와(“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하나님 편의 능력 부여(“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가 있다.

**119:11**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거스르거나 우리의 협력이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다. 어떤 이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했다. “성경에서 최고의 책은 성경이다. 성경을 두는 최고의 장소는 마음 속이다. 성경을 그곳에 뒤야하는 최고의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데서 구원해주기 때문이다.

**119:12**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고 심히 은혜로우시기에, 새롭게 된 성품은 그분의 율례를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빚어지기를 소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119:13** 말씀의 보화를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은 반드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픈 소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진정 뉘를 믿을 때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삶의 법칙이다.

**119:14** 성경의 숨은 보배를 찾는 자는 금덩어리를 찾고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한다.

**119:15** 하나님의 말씀은 극히 만족스런 목상을 위한 무한한 재료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결단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119:16**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 5:3).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나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준행하고자 결심한다.

**119:17**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있어서나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필요가 크므로 그분께 풍성한 은혜를 구하도록 하자.

**119:18** 성경은 겉으로 보아서는 잘 보이지 않는 기이한 영적인 보배가 풍부하다.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보기 위해 열릴 필요가 있다.

**119:19** 성경은 나그네를 목적지까지 정확히 안내해주는 지도다.

**119:20** 성경에 대한 갈증이 심하고 또 늘 유지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시편 기자의 영혼은 말씀에 대한 사모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러한 뜨겁고 강렬한 마음을 늘 간직했다.

**119:21** 역사는 교만하고 방자한 자들이 어떻게 주의 계명을 거절하고, 곧 하나님의 능한 손에 의해 멸망당했는지에 대한 사례로 가득하다.

**119:22** 신자는 세상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벧전 4:4). 그러나 성실함은 보상을 받을 것이며, 그분의 “잘 하였도다”는 칭찬이 훼방과 멸시를 넉넉히 보상해줄 것이다.

**119:23**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꺾박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욕을 받되 대신 욕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힘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

**119:24** 메튜 헨리는 이렇게 말한다.

“방백들이 비방할 때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는가? 하나님의 율례가 그의 조언자였으며, 그것이 그에게 오래 참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조언해주었다.”<sup>13)</sup>

**119:25** 인생은 정상이 있는가 하면 골짜기도 있다. 우리는 슬픔 중에 가라앉을 때에도 말씀의 회복력으로 소생시켜 달라고 여호와께 구할 수 있다.

---

13) (119:24) Matthew Henry, *Commentary in One Volume*, p. 706.

**119:26** 우리가 우리 행위를 고할 때, 즉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여호와께서는 용서로 답하신다. 그것은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기도로 표현된, 거룩에 대한 새로워진 열망을 갖게 한다.

**119:27**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의 의미와 그것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사에 대한 묵상을 가져올 것이다.

**119:28** 우리의 영혼이 눈물에 잠기는 삶의 어두운 순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사, 종종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사 계속 나아가도록 힘을 주신다.

**119:29**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 성경은 모든 형태의 거짓에 대한 거룩한 증오심을 심어 준다. 또한 성경은, 진리란 하나님이 어떤 사물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요 17:17).

**119:30** 아무도 스스로 거룩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은 성경에 제시된 성실한 길(the way of truth)을 의도적으로 택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맞춰야 할 표적이요 좇아야 할 본이요 걸어야 할 길로 우리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스펀전은 말했다.

**119:31** 시편 기자는 접착제로 붙듯이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향하기 쉬운 성향을 깨닫고, 여호와와의 도우심을 적극 호소한다.

**119:32**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머리가 아닌 큰 마음을 주실 때 그

때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신속히 지키게 된다.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119:33** 우리는 가르침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학교의 학생으로서 우리는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는 법을 열심히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생애가 마치는 날까지 준행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119:34** 우리는 깨달음을 구해야 한다. 성경에 대해, 그 의미와 요구사항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분을 전심으로 좇을 수 있겠는가?

**119:35** 우리는 안내를 구해야 한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안내해주시기를 원한다. 그 길이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119:36** 우리는 물질적인 부요 보다는 영적인 부요를 구해야 한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딤후 6:6). 어떤 사람에게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가고 그 대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준다는 것은 은혜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119:37**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하나님의 실재를 구해야 한다. 여기에 TV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 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TV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묘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사실 그대로 다루고 있다.

**119:38** 우리는 주의 약속을 세우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주의 은혜의 모든 강물을 내가 주장하며, 모든 약속에 내 이름을 기록하네.” 그분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는 사실에 달려있다.

**119:39** 우리는 회방에서, 즉 주 예수님의 이름에 수치나 불명예를 끼칠만한 일체의 것에서 떠나기를 구해야 한다. 그분의 규례는 선하며, 우리는 그것을 신실히 좇아야 한다.

**119:40** 우리는 개인적인 부흥을 구해야 한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사 35:7). 우리가 그분의 법도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분은 그분의 의로 우리를 소성케 하실 것이다.

**119:41**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긍휼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지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주장해야 한다.

**119:42** 여호와와의 기도응답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불신자들의 회방을 침묵시키는데 기여한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실패할 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119:43**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바라다면, 그분은 그분을 위해 증거할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실 것이다.

**119:44**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살아있는 동안

그분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어찌 내가 내 최선을 드리고 온전히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외에 무엇을 달리 생각하리요?”

**119:45**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자유케 된 자들은 진정 자유하다 (요 8:36).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속박된 체계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의 법도를 구하는 자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다.

**119:46** 믿음은 열왕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력을 준다. 얼마나 많은 군주들이 겸손하고, 종종 멸시당하던 신복들에게서 복음을 들었는지!

**119:47**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깊은 개인적인 기쁨을 얻는다. 성경은 기쁨의 샘이요 즐거움의 강이요 결코 마르지 않는 만족의 근원이다.

**119:48** 우리는 그 범위와 그 깊이와 그 능력과 그 보화와 그리고 그 무한함에 놀라 서있다는 의미에서 성경을 경외한다. 우리는 그 내용과 그 끼친 영향력으로 인해 성경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밤낮 묵상한다.

**119:49**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잊을 리 만무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풀무에서 믿음이 다 바닥이 날 때 우리는 “주여,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를 올릴 수 있다.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가르치고는 이렇게 우리로 수치를 당하게 놔두실 리 없어.”

**119:50** 말씀의 소성케 하는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말씀이 위로의



확실한 근원임을 알게 된다. 슬기로운 자의 말은 종종 공허하고 무익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적절하고, 또 효과적이다.

**119:51** 만일 우리가 여호와께 신실하다면 우리가 마땅히 받을 비방과 조롱의 몫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발견했을 때는 그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119:52** 우리는 과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격려를 받는다.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동일한 자비가 남은 길도 확실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의 과거의 사랑은 우리로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어두움에 빠지게 내버려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119:53** 하나님의 율법이 욕을 당하고 거부당하는 것을 볼 때 신자는 격분하게 된다. 주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롬 15:3).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명예도 아들에게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119:54**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인해 나그네는 나그네 된 집에서, 혹은 낙스의 표현대로 “추방자의 땅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길이 거칠어도 멀지 않다. 밤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노래를 주신다.

**119:55**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잠 못 이루는 밤은 말씀 안에 계시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을 사랑하게 되며, 그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게 된다.

**119:56** 순종은 축복이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4:8).

**119:57**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비할 데 없는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지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로 서원하게 된다. 그분은 모든 것에 충족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소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리 만치 부요케 되는 것이다.

**119:58** 그분은 모든 것에 충족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고후 3:5).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자비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119:59** 인도(Guidance)는 늘상 일어나는 문제이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을 알만한 지혜가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경에 그려진 길로 우리의 발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119:60** 오늘날 우리는 즉석음식, 즉석 서비스 등 즉석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의 즉석 순종이야말로 생각할만한, 생산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119:61** 악인이 무고한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꾀할 수 있으나, 그 때문에 신자는 더욱 인도와 보호를 위해 말씀을 기억한다.

**119:62**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행 16:25). 그들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해를 당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judgments)에 관해 찬양할 수 있었다.

**119:63**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한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성경애호가를 사랑한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와 인종의 구별을 초월하는 범세계적인 사립이다.

**119:64**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세상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 아니, 세상은 그것으로 충만하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은 “주여, 나로 주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게 하소서”라는 고백으로 반응한다.

**119:65** 그분이 말씀대로 나를 선대하신 그 놀라운 행사로 인해 여호와께 감사한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네가 받은 복을 세어 보고 하나씩 열거해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놀라게 될 것이다!”

**119:66** 우리 모두는 지식만이 아니라 명철(good judgment)도 구해야 한다. 분별력이나 균형감각 없이 지식을 소유할 수도 있다. 말씀과 삶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좋은 지각을 얻는다.

**119:67** 하나님의 징계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히 12:11). 방황으로 인해 치른 대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

**119:68** “하나님(God)”과 “선하다”(good)는 영어 단어는 어근이 같은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선하게 되려면 우리는 그분의 멩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워야 한다.

**119:69** 경건치 않은 자들이 거짓말로 우리의 평판을 손상시키려 할 때 우리는 신실히, 요동치 않고 성경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보호를

얻을 수 있다.

**119:70** 세속적인 자들로 사치와 쾌락에 탐닉하게 하라. 우리는 육체적인 방종이 아닌 영적인 교훈에서 만족을 발견한다.

**119:71**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고난의 축복은 영원하다.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꾀박을 꾀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119:72**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다. 컴퓨터가 아무리 큰 수를 기록한다해도 성경의 가치만큼은 기록할 수 없다.

**119:73** 하나님이 놀라운 숨씨로 우리를 지으셨을진대 그분이 우리의 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철저히 이뤄야 한다.

**119:74** 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우리는 영적인 신선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강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다.

**119:75** 질병과 고난과 역경은 직접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다. 한편 하나님은 특정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허락하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분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숙한 증거이다.

**119:76**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진토이며, 우리를 붙들어줄 그분의 연민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119:77**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고된 압박을 당하는 성도에게 생명을 새로이 불어넣는 것과도 같다. 그분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분이 돕기 위해 곁에 오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119:78** 겔리뉴(Gelineau)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읊고 있다. “거짓으로 나를 해롭게 하는 교만한 자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목상하리이다.” 하나님은 죄가 역사하도록 허락하시며, 시편 기사는 말씀하신대로 행하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119:79**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과 사귄음을 가지려 하는 것은 영적인 본능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

**119:80** 우리가 주의 율례를 순종하는데 흠이 없기를 원해야 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생각한 한가지는 죄에 빠지는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이다.

**119:81** 신자는 고난당해도 무너지지 않으며, 당황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넘어져도 멸망하지 않는다(고후 4:8,9).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을 기다리기에 지쳤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다.

**119:82** 비록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며 그 눈이 침침해졌지만 그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라고 기도

하는 대신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라고 기도한다.

**119:83** ‘연기 중의 가죽병’은 오그라들고 검게 그슬린 상태이다. 그 비유 그대로, 여기 괴로움 중에 있는 신자는 기다림으로 시들고, 마르고, 흉한 모습이지만, 주의 말씀이 있는 한 절망하지 않는다.

**119:84** 인생은 아주 짧다. 그 짧음에 비해 고난의 날이 너무 긴 것 같다. 여호와께서 압제자들을 징벌하실 때이다.

**119:85** 본 절의 악인들은 불경건하고 무법하다. 이 두 특성은 함께 나타난다. 그들은 의인과 무고한 자의 멸망을 꾀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119:86** 하나님의 말씀만큼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그분의 핍박받는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 고소자들의 공격을 당할 때 “나를 도우소서!”라는 “황금 기도”를 담대히 사용할 수 있다.

**119:87** “만일 우리가 법도를 붙잡는다면 약속에 의해 건짐 받을 것이다”라고 스펀전은 말했다. 혹 절망의 순간에 이를지라도 순종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도움이 올 것이다. 믿음을 가지라!

**119:88** 최선의 기도는 강한 내적인 필요로부터 온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사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119:89** 믿음은 어둠 속으로의 도약(跳躍)이 아니다. 그것은 온 세

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성경)에 기초한다.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모험이 아니다.

**119:90**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분의 말씀에만 아니라 그분의 행사에도 나타나 있다. 그것은 모든 세대에 미치며 자연의 질서와 정밀함 속에 나타나 있다.

**119:91** 천지는 그분의 법에 순종한다. 파종하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등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 정해지고 유지된다.

**119:92** 바네스는 이렇게 말한다.

“아주 훌륭한, 그러나 고난을 많이 겪은 한 성도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만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신 33:27)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의 한 선언이 없었다면 나는 1천 번은 넘어졌을 것입니다.’”<sup>14)</sup>

**119:93** 성경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한 자들은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우리가 거둬낸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벧전 1:23).

**119:94**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더럽힘과 손상으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법도와 우리 자신을 바로 때 우리는 이러한 현재시제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

14) (119:92) Barnes, *Psalms*, 3:204.

**119:95** 악인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영향력 없는 하찮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분을 위해 열매를 거두는 한 우리는 반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는다.

**119:96** 이 세상의 제아무리 좋은 것도 완전치 못하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무한하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된다.

**119:97**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분명 그분의 말씀 또한 사랑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으로 표현될 것이다. 묵상의 순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새로운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발견하게 된다.

**119:98** 말씀의 지혜로 무장된 겸손한 신자는 그의 대적들이 발끝으로 서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무릎을 꿇고 볼 수 있다.

**119:99** 만일 스승이 자신의 위치에 스스로 만족하고 쉬고 있다면, 곧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젊은이에게 추월당할 것이다.

**119:100** 그것은 무책임한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나이나 지성이 아니라 순종이다. 즉, 순종지수가 높은 젊은이는 노인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다.

**119:101**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행동을 볼 수 있다. 시편 기자는 최선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발을 죄악의 길에서 금하였다.



**119:102** 성경의 성결케 하는 영향력은 놀랍다. 성경의 교훈을 통해 주님께 가르침 받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증오심과 거룩에 대한 사랑을 발전시킨다.

**119:103** 또한 성경은 큰 기쁨의 근원이다. 세상 어떤 책도 성경만큼 즐거움을 줄 수 없다. 꿀이 달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달콤하다.

**119:104**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 사람들은 진짜지폐를 연구한다. 것처럼 진리를 깊이 알고 있으면 모든 거짓 행위(way)를 가려내고 제거할 수 있다.

**119:105** 말씀은, 소극적으로는 어떤 행동방식을 금함으로써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바른 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는 이 등(燈)의 따뜻함에 얼마나 큰 빛을 지고 있는 지!

**119:106** 여기에 성경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결단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119:107** 스펀전은 이렇게 말한다.

“앞 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주의 군사로 맹세를 했지만, 이 구절에서는 그러한 맹세에 걸맞은 고난을 당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해 시련을 당케 하는 것이다.”<sup>15)</sup>

---

15) (119:107) Charles H. Spurgeon, *The Treasury of David*, 6:244.

**119:108** 우리는 여호와 앞에 제사장과 학생으로 나아온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인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히 13:15). 학생으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거룩한 가르침을 향해 열어놓는다.

**119:109**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위경에 처할 때 우리는 여호와와 율법을 기억함으로 안전과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조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향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해야 한다.

**119:110**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자들은 사단의 꾀계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 그들은 말씀에 단순히 순종함으로 사단의 울무를 벗어난다.

**119:111** 성경은 값진 소유물이요 소중한 기업처럼 선택되어야 한다. 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자가 누리는 기쁨이 어떠한가! 하물며 책 중의 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119:112** 성경의 가치를 깨달은 모든 지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로 결심한다. 순종의 학교에는 방학도, 휴강도 없다.

**119:113** 모팻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읊고 있다. “내가 반과 반으로 된 사람들(men who are half and half)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한 순간에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다음 순간에는 세상 편에 선다. 그들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119:114** 여호와와는 추적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요, 정면으로 공격당할 때 우리의 방패이시다. 그분의 약속을 바라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그분은 속이거나 속임을 당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119:115**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최악된 행동과는 떨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계속 접촉을 유지한다.

**119:116** 이 기도의 요지는 이러하다. “주께서 나를 붙들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행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버렸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며, 나는 소망이 좌절될 것이 옵니다.”

**119:117** 우리가 스스로 안전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과 같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율례를 항상 주의하는 것이다.

**119:118** 여호와와는 그분의 율례를 떠나는 자들을 거들떠보지 않으신다. 그들의 영특함은 언젠가 우둔함으로 그 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119:119** 제련사가 쇠물의 표면에 떠오르는 찌꺼기를 걸러내듯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

르친다. 만일 그분이 죄를 공의롭게 처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존중할 수 없을 것이다.

**119:120**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바네스의 표현대로, 우리는 “그분의 법의 엄격성과 영성과 가혹성에 대한 경외심으로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119:121** 공(公)과 의(義)를 행했다는 시편 기자의 주장은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해해야지 불변의 원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의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였으며, 따라서 압제자의 손에 자신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여호와께 구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였다.

**119:122** 보증인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사람이다. 갈보리에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던 그분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시며, 교만한 압제자를 물리쳐주신다.

**119:123** 여기에 그 눈이 피곤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 사람이 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개입하시겠다는 의로운 약속이 이뤄지기를,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다.

**119:124** 121절에서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듯 당당한 모습이었으나 여기서서는 여호와의 자비 혹은 은혜에 자신을 내맡긴다. 그분의 자비의 한 형태는 은혜로운 가르침 사역이다.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119:125** 좋은 주인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유용하고 능률적인 종

이 될 수 있다.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증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각이 필요하다.

**119:126** 상황이 뒤바뀌었다. 이제 종이 간접적으로 주인에게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그분의 법이 폐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위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호소이다. “지금 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119:127**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늠하는 한 가지 증표는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느냐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정금보다 더 귀히 여긴다면 그 표지는 닳고 그 내지는 헤어질 것이다.

**119:128** 우리가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또 다른 증거는 그것에 순종하는 정도이다. 만일 그 말씀을 준행하고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119:129**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한성과 순수성과 정확성과 조화성과 보편타당성과 능력과 충족성에 있어 놀랍다. 그러한 책은 마땅히 읽혀지고 주의를 모아야 한다.

**119:130** 성경을 열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빛을 받는다. 성경이 온 세상에 미친 거룩한 감화력은 헤아릴 수 없다. 성경은 스스로 우둔하게 여기며 도움을 원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119:131**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고도 큰 갈증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마음이다.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벤전 2:2).

**119:132** 우리는 이러한 반복된 도움 요청에 싫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시편 기자는 싫증을 느끼지 않았으며, 하나님도 역시 그러하시다. 우리는 이생을 살면서 결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이를 수 없다.

**119:133** 여기에 거룩이라는 동전의 두 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좇아 여호와께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내주하는 죄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119:134** 이 기도의 앞 부분은 비범하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의 압박에서 건짐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비범한 목적을 주목하라.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이다.”

**119:135**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중에, 그분의 은총과 임재와 능력의 증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답하여 격려의 보너스를 내리시는 법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가르침 받고자 하는 열망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119:136**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니, 이 얼마나 깊은 고뇌와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한 말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가? 시편 기자 자신에 대한 부당함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로써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슬픈 성모’(Stabat Mater)의 저자인 벤데티(Bendetti)가 어느 날 울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랑(Love)이 사랑 받지 못하고 계시기에 울고 있습니다.’”<sup>16)</sup>

**119:137** 성경의 저자는 의로우시며, 따라서 성경 역시 정직하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119:138**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의롭고 성실하며, 그분의 말씀은 완전히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119:139** 바네스는 이렇게 통찰력 있게 말한다.

“뿔박자와 포행자와 비방자들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침해하는 것을 더 슬퍼한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의 커다란 승리이다.”<sup>17)</sup>

**119:140** 성경은 충분히 검증된 책이다. 그 약속을 수천 번 시험해보아 진실임이 밝혀졌다. “성경은 사람들의 증오와, 격노한 사제들의 공격과, 무신론자들의 조롱과, 현대 비평가들의 세속 지혜를 극복하고 보존되었다”(Scripture Union).

**119:141** 대적들이 보기에 시편 기자는 미천하여 멸시를 당했다. 그러나 사람의 조롱이 그로 성경을 붙든 손을 놓게 하지 못했다.

**119:142** 하나님의 의(義)는 스쳐 지나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이다. 성경이 진리를 포함한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치가 않다. 성경이 진리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다.

---

16) (119:136) Moody의 *Notes*, p. 79에서 인용.

17) (119:139) Barnes, *Psalms*, 3:217.

**119:143** 시편 기자는 환란과 우환이 가득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눈물 위에 드리운 무지개를 볼 수 있었다.

**119:144** 하나님의 증거는 현재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다. 그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이생과 내세에서 삶을 누리는 우리의 능력이 커질 것이다.

**119:145** ‘부르짖다’는 단어가 이 단락을 이해하는 열쇠이다.<sup>18)</sup> 여기서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력의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열망을 드러내는 기도를 물리칠 수 없으시다.

**119:146** 베드로처럼 과도 밑으로 빠져들 때 우리는 항상 “나를 구하소서”라는 외마디 기도를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키사 다시 그분을 위해 살도록 힘을 주신다.

**119:147** 웨이글(Weigle)은 이렇게 표현했다. “이것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동이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경건한 사람의 헌신적인 습관을 묘사해준다.” “성경 없이는 아침식사도 없다”(No Bible, no breakfast)가 우리의 생활철칙이 되어야 한다.

**119:148** 잠 못 이루는 밤도 묵상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따금씩, 그러한 시간에 주님은 ‘어두움의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119:149**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존전에 즉시 나아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된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

18) (119:145) 145~152절은 ‘부르짖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첫째 문자인 ‘코프’로 시작된다.



삶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할 수 있다.

**119:150** 대적이 가까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에게 해를 끼치고자 한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법의 권위를 거절한 까닭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119:151**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다수(多數)이다. “승리자의 편에 선 우리를 아무 대적도 해치지 못하며, 아무 두려움도 놀라게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분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119:152**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크나큰 위로가 된다. “의심과 두려움의 거센 폭풍이 몰려오거든 실패하지 않는 약속 위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라.”

**119:153** 여호와는 진정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신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고통을 슬픔의 사람이 함께 느끼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임하신다.

**119:154**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변호자요 생명의 수여자가 되어달라고 구한다. 그에 대해 맹렬한 비난이 퍼부어졌다. 그는 변호자가 필요했다. 그는 지쳐서 쓰러지기까지 핍박을 받았다. 그는 생명을 새로이 불어 넣어줄 자가 필요했다.

**119:155**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의지에 반하여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천국을 원치 않는 사람들로 채우고자 하지 않으신다. 말

숨 들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119:156** 인간의 어떤 언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아무리 우리가 요청해도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꺾박 중에 있는 시편 기자는 생명의 구제, 즉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건짐 받기를 구했다.

**119:157** 본문 중 여러 구절들이 물론 주 예수님에게서 참된 성취를 보았다. 꺾박자와 대적에게 에워싸인 중에도 그분은 여전히 아버지의 증거에 충성을 다했다.

**119:158** 자기 자신에 대한 악행보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을 더 슬피한다는 것은 영적인 성숙의 증표이다. 우리 모두 이처럼 주님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다면!

**119:159** 153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고난을 보소서”라고 고백했다. 여기서는 스피릿의 표현을 빌면, “나의 애정(affection), 즉 법도에 대한 애정을 보소서”라고 고백한다. 또한 그는 이 단락에서 세 번째로 생명의 보존을 구했다(154,156).

**119:160**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강령(綱領, entirety)에 있어 진리이다. 그 안의 모든 약속이 확실히 성취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8).

**119:161**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종들을 압제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두려움이 신실한

자들로 주님을 배신하지 못하게 한다.

**119:162** 성경을 탐구하여 놀라운 영적인 부요를 발견하는 지는 숨은 보물상자를 찾은 것과 같은 희열을 경험한다.

**119:163** 말씀을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거짓말)을 미워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을 좇아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된다.

**119:164** ‘일곱’은 완전 혹은 완성의 수이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그분의 의로운 규례로 인해 끊임없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119:165** 말씀은 혼란한 세상에서 평안을, 유혹의 세력에서 안전을 준다. 본문은 신자가 슬픔이나 환란을 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순종함으로 최악의 수렁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19:166** 시편 37:3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그 권면을 자신이 좇아 행했다고 고백한다. 먼저는 믿음이 오고, 믿음의 열매로 행위가 따르는 것이다.

**119:167**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순종을 지켜온 것으로 여겼다(말 1:13).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말씀을 순종했으며 더욱더 사랑했다.

**119:168** 이 단락의 후반부 세 구절은 성경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을 말한다. 본문을 일반 신자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혹 지나치다고

생각되거나 그것을 우리 구주의 말씀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문제가 사라진다.

**119:169** 이 시는 마감이 가까워오면서 열정적인 간구의 분위기가 고조된다. “...하게 하라”(let)는 단어가 일곱 번 발견된다. 먼저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절박한 호소 뒤에, 참된 영적인 깨달음을 달라는 호소가 이어진다.

**119:170** 이 단락에 의하면 대적이 그리 멀지 않은 듯하며, 따라서 약속하신대로 구원해달라는 간구가 반복된다.

**119:171**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지식의 증가는 교만과 자기 과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찬양과 경배를 가져와야 한다.

**119:172**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로 씨름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 얘기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의로우며 엄청난 가치가 있다.

**119:173** 이것은, 전능자의 못 자국난 손이 인간에 불과한, 그러나 여호와의 법도를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의도적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그림이다.

**119:174** 우리 영혼의 구원을 성취된 사실로 누리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뤄질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을 소망한다. 그 어간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데서 큰 기쁨을 발견한다.

**119:175**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는 찬양하기 위함이다. 질병이나 사고로부터의 일체의 구원은 우리의 예배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의 기도에 새로운 긴박성을 부여해야 한다.

**119:176** 본문은 이 시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죄의 자백 중 하나이다. “거룩한 기쁨의 높디높은 비행(飛行)은 항상 죄와 무가치함을 자백하는 낮은 땅으로 되돌아와야만 한다.”

### 120편 : 비방자의 무력한 희생물

신자의 삶에 있어 고통스런 경험 중 하나는 거짓말과 비방의 희생이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신자는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말은 온 세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 스피츠의 말이 사실임을 허탈하게 깨닫게 된다. 그는 쉽게 모멸과 좌절의 늪에 빠져든다.

**120:1~2** 그것이 이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시”<sup>19)</sup>를 통해 시편 작자가 여호와께 달려가도록 한 환란이었다. 그의 간청은 짧고, 단순하고, 그리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대적들의 거짓된 입술과 이교도들의 꾀사한 혀에서 건짐 받기를 원했다.

**120:3~4** 바로 이어서, 그는 한 악인을 바라보며 엄한 징벌을 예고했다. 그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 궁사의 활에서 날카로운 화살이 그에게 박힐 것이다. 그리고 그 꾀사한 혀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그것이 비누로 깨끗이 씻어질까? 아니다. 그것은 뜨거운 로템나무 숯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 광야식물의 뿌리는 강렬한 열기로 이 름난 숯불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19) (120:1,2) 시편 120~134편은 연례적인 여호와의 절기(유월절 등)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른 까닭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린다.

**120:5** 이 서글픈 순간에, 평화를 사랑하는 시편 기자는 메섹과 게달 족속 중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했다. 메섹은 야벳의 아들이었으며(창 10:2), 그의 후손은 야만스럽고 미개한 백성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었으며(창 25:13), 그의 후손 역시 잔인하고 무자비했다. 국제표준성경백과사전(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에 의하면, “모슬렘 민족의 계보는 이스마엘에서 출발하여 게달을 거쳐 모하멧의 후손으로 이어진다.”

**120:6~7** 시편 기자는 평화를 미워하는 야만족들 가운데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머물러 있었다.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려는 그의 노력은 거듭되는 도발행위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다.

만일 그가 신약시대에 살았다면 비방과 다툼을 좀더 잘 대비했을 것이며 좀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주 예수님의 이러한 본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벧전 2:23).

그는 베드로의 이러한 가르침을 염두에 둘 수 있었을 것이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벧전 2:20).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3:9).

그리고 그는 주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꺾박하였느니라”(마 5:11,12).

## 121편 : 지키시리라!

121:1~2 흠정역에는 이 시가 이렇게 시작된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hills)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도다.”

이후의 번역자들은 여기에 이교적인 요소, 즉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아닌 산에서 온다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렘 3:23). 그래서 그들은 1절의 둘째 소절을 질문형으로 바꾸었다. 이를테면 NKJV는 이렇게 옮기고 있다.

“내가 산(hills)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도다.”

나는 여기서 여전히 흠정역의 번역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를 밝히겠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상의 하나님의 거처였다. 지성소의 영광의 구름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다.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위치해 있으며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산지(hills)를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그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과 동일했다. 창조주의 거처가 예루살렘 산지에 있었으므로 모든 도움이 산에서 온다는 시적인 표현이 가능했던 것이다.

처음 두 구절에서 화자(話者)는 시편 기자로서 천지를 지으신 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

**121:3** 3절에서부터 화자가 바뀐다. 나머지 구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고 계신 것들을 들 수 있다. 요지부동한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신자의 발은 실족하는데서 보존될 것이다. 발은 기초나 혹은 서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신뢰하는 자녀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의미이다.

**121:4** 또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보호자를 보장하고 있다. 알렉산더 대제는 그의 군사들에게 “제군들이 잘 수 있도록 내가 깨어 있다”고 말했다.<sup>20)</sup> 더 이상 우리 주변 세계를 의식하지 않는 밤 시간에 끊임없는, 지칠 줄 모르는 돌봄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신다.

**121:5~6** 우리의 보호자가 다름 아닌 여호와 자신이라는 보장이 여기에 있다. 위대한 우주의 주재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성도의 안전을 친히 책임지고 계신다.

그분이 모든 악한 세력에서 보호하신다는 보장이 있다. 그분이 “네 우편에서 네 그들이 되신다”는 말은 그분이 밤낮 그분의 자녀를 해를 당하지 않게 지키는 호위병으로 곁에 계신다는 의미이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는 현대 문자주의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일사병(日射病)으로 해석된다.<sup>21)</sup> “달”의 비유는 종종 고대의 미신과 민간전승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풀이된다. 그러나 귀신에게서 해방된 자들과 영의 세계에서 해와 달의 중요한 역할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기쁘게도 본문이 귀신의 사술로부

---

20) (121:4) Moody, *Notes*, p. 79.

21) (121:5:6) 이 글이 ‘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 글은 양 극단을 제시하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 또 한 예는 “너의 출입”(8절), 즉 너의 모든 생활모습을 말하는 표현이다.



터의 보호와 자유를 약속해준다.

**121:7~8**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신다는 보장이 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신자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우연한 일이나 아무 목적 없는 사건이나 운명적인 비극 따위는 일절 없다. 그분은 비록 질병과 고난과 죽음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주장하고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 사이에 그분을 신뢰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 곧 자신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롬 8:28).

끝으로, 시간과 영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히 살피신다는 보장이 있다. 그분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지키다”와 “지키는 자”라는 단어가 이 여덟 구절의 지면에서 세 번 나온다. “보존하다”는 단어도 세 번 나온다.<sup>22)</sup>(우리말 성경은 모두 ‘지키다’로 되어 있음-역주). 그 표현들이 결합하여, 여호와를 유일한 소망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큼 안전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안식을 누리는 영혼은  
그분이 결코, 결코 대적에게 내어주지 않네.  
지옥의 모든 권세가 그 영혼을 멸하려 해도  
그분이 결코, 결코 버리지 않으시네!” (리처드 킨; 1787).

## 122편 : 평화의 성

“오, 주의 보좌 앞에서 보내는 그 한 시간의 순결한 기쁨이여,

---

22) (121:7,8) 이 모든 형태들은 ‘사말’이란 하나의 히브리어 동사를 옮긴 것이다.

무릎꿇고 기도할 때, 주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친구와 이야기하듯 이야기를 나누네!” (화니, J. 크로스비).

**122:1**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절기에 올라가 봐야할 시간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위에서 말한 그러한 순결한 기쁨에 사로잡혔다. 그는 기뻐했다. 무거운 의무감이나 지루한 일상사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데서 그는 만족과 기쁨을 발견했다.

**122:2** 그리고 이제 믿음의 순례자들이 실제로 성 안에서 있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거룩한 귀향 본능에 이끌린 듯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돌아왔다. 그곳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122:3~4** 그들은 멀찍이서 조밀하게 지어진 황토빛깔 나는 도성을 동경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사방 1마일 둘레인, 그 햇살이 내리쬐는 성벽 안에는 천장은 둥그렇고 지붕은 평평한 집들과 비좁은 골목들이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매혹의 눈길로 응시한 한 건물은 여호와의 전이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그 도성을 사모한 것은 바로 그 전 때문이었다.

그곳을 향해 여호와의 지파들이 순례 길을 떠났다. 그곳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모여서 자신의 이름에 감사드리라고 선언하신 곳이었다.

**122:5** 물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이기도 했다. 그곳은 다윗의 집의 보좌를 둔 곳이었으며, 따라서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었다.

**122:6** 그 이름은 ‘평강의 성’을 의미하지만, 이제까지 그 이름이 잘못 불려져왔다. 그 성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분쟁과 고난과 학살을 겪은 도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돌들은 그 거룩함이 더럽혀진 흔적을 지니며, 그 성벽은 종교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기억을 지닌다. 다윗, 바로, 산헤립, 느부갓네살, 프톨레미, 헤롯, 디도, 십자군(고드프리), 티무르군, 사라센군(살라딘) 등 모두가 그곳에서 전쟁과 살육을 벌였다.”<sup>23)</sup>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통렬한 외침 속에는 역사적으로나 예언적으로나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다. 어두운 시대가 앞에 놓여있다.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메시야가 그곳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의 좁은 거리는 이방 침략자들의 발자국 소리로 울릴 것이다(눅 21:24).

F. B. 메이어는 여기 6절에는 은혜스런 두운(頭韻)법이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평강의 성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할지라.”

(Peace in the City of Peace

May those be at peace who love her)

이 평안의 축도는 큰 임금의 성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드리워져 있다.

**122:7~9** 그러한 사랑이 그 성안의 평강과 그 궁중의 행동을 구하는 기도에 표현되어 있다. 경건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위해 소원하던 것을 우리는 교회를 위해 소원해야 한다. 우리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

---

23) (122:6) Callins and Lapierre, *O Jerusalem!*, p. 33.

야 하는지(엡 4:3)! 교회의 평안과 번성을 통해 세상으로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

그것이 8절이 의미하는 바다.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그 다툼과 분열이 종식되기를 갈망해야 한다. 바네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것은 온 세상에 흩어진 경건한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표현해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벼들이 교회를 심히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들은 그들 곁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한다.”<sup>24)</sup>

앞서 언급했듯이 이 성의 최고의 영광은 여호와의 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그 성의 위치나 그 보기 흉한 건물이나 그 슬픈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심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성을 성전 부지로 택하셨다는 것이다. 여호와의 임재가 그분이 은혜로 만지시는 모든 것 주위에 영광의 광채를 비추인다.

여러 세기 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키셔야만 했다. 그들은 성전 자체보다 성전의 금을, 제단 자체보다 제단의 예물을 더 중시했다. 예수님은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셨다(마 23:16~22).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상의 다른 모든 도시와 구별짓게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다.

## 123편: 긍휼을 바라는 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는 ‘눈’과 ‘긍휼’이란 두 핵심 단어가 있다. 전자는 네 번 나오고, 후자는 세 번 나온다. 무대는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친숙한 포로된 땅이다. 그들은 애굽과 바벨

---

24) (122:7-9) Barnes, *Psalms*, 3:238.

론과 나치 독일과 바르사바의 유대인 지역과 보다 최근에는 시베리아의 강제수용소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여기에 나타난 지역은 지명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바벨론인 듯하다.

**123:1** 눈을 하늘로 향하고 뭔가 하나님의 공훈의 조짐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며, 포로들은 그들의 길고 어두운 박해의 밤을 종식시켜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123:2** 그들은 자신들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에 비유했다. 그것은 흔히 주인의 뜻을 알아채고 순종할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여호와께서 공훈을 베푸시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의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들이 염두에 둔 공훈은 포로생활이 속히 끝나고 마음에 그리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압제자들에게서 건짐받기 위해 그분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

**123:3~4** 공훈을 바라는 간절한 호소가, 넘치도록 멸시를 당한 백성에게서 하나님 보좌로 두 번 상달되었다. 날마다 그들은 이방 압제자들로부터 조롱과 증오를 받았다. 그들은 ‘안일한’ 자들의 날카롭고 교활한 비방을 너무도 오랫동안 당해왔다(슥 1:15). 그들은 ‘교만한’ 바벨론 압제자들의 오만 아래 너무도 오랫동안 고초를 겪어왔다(렘 50:31,32). 이제 그들은 넘치도록 받았다. 아주 충분했다! 휴식시간이 되었다고 그들은 느꼈다.

이에 그들은 반유대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세상에서 유일한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시는 분께, 압박과 버림을 당한 자들의 친구되신 분께 이러한 강권하는 기도를 토로한 것이다.

## 124편 : “만일…하지 않았다면”

**124:1**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것이 그 ‘만일’에 달려있었다. 그것이 구원과 재앙의 차이를 가져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으며,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아마 유대인들처럼 아슬아슬하게 위경을 피해온 민족도 없을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그들은 오래 전에 소멸되었을 것이다. 포위, 살육, 학살, 개스실 등을 생각하면 그들이 살아 남았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 편이라는 그 한 가지 강력한 이유로 인해 그들은 살아 남았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항상 그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너무도 종종 그들은 그들의 승리를 그들 자신의 총명과 능력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여호와를 떠나서는 그들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항상 있었다.

**124:2~5** 시편 기자는 대적들이 엄청난 수와 우월한 병기로 이스라엘을 치러 일어난 때를 생각했다. 식량공급이 위태로운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의료공급이 끊겼다. 생필품이 바닥이 났다. 그들이 완전히 포위되었다. 대적이 그들을 바다에 몰아넣겠다고 위협했다. 전망이 어두웠다.

**124:6~7** 사나운 짐승처럼 대적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려 했다. 혹은 달리 표현하면, 그들은 이방 군대의 거대한 파도에 삼킴을 당할 참이었다.

그러나 그 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대적들로 전술문제로 서로 다투게 하셨다. 혹은 유대인들에 관한 그릇된 정보

를 듣게 하셨다. 혹은 지도자의 죽음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혹은 승리를 목전에 둔 시점에 휴전협정을 맺게 하셨다.

한편,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을 생각지 못한 식량 창고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다. 혹은 숨겨진 무기고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다. 혹은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외부의 도움을 입게 하셨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영적인 지각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신비롭고 기적적인 구원에 대해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린다. 탐욕스런 이방군대는 작은 이스라엘을 삼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군대가 설치해놓은 울무를 벗어났다. 울무가 끊어졌고, 유대인들을 에워싼 사슬이 풀어졌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그들은 도피했다.

**124:8** 그들의 겸손하고 감사에 찬 고백은 이러하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이 기적의 하나님을 독점하지 않는다. 교회도 하나님의 절묘한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이 시의 고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개개인 신자들도,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 편이 아니었다면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자신들이 완전히 정복당했을 것임을 알고 있다.

## **125편 : 평강의 길**

**125:1** 시온 산은 예루살렘 성의 작은 봉우리 중 하나로써 때때로 예루살렘 성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여기서서는 최고의 안정성과 힘을 지닌 것, 즉 요동치 않는 성을 의미한다.

믿음의 사람은 그와 같다. 그의 삶은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져 있

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지어진 까닭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마 7:25).

시편 기자는 시온 산이 영원히 있다고 말한다. 지상의 도성에 관한 한, 이것은 그 당시 신자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약에서 땅이 언젠가 불로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벧후 3:7,10,12). 그러나 우리 자신도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 영원한 산이니, 영원한 도성이니(로마) 하는 표현들이 그러하다.

중요한 사실은, 시온 산은 비록 언젠가 멸망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의 신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는 만큼 안전하다.

**125:2**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의 지형적인 특징에서 또 다른 영적인 진리를 보았다. 그 성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군대가 그 성에 접근하는 일체의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다.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친히 그분의 자녀들을 둘러싼 보호막이 되어주신다. 이것이 사단이 말한 욕을 둘러싸고 있는 그 울타리이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욥 1:10)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125:3** 또 하나의 놀라운 주장이 3절에 나와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혹자는, 이스라엘 땅이 종종 악인에게 침략과 정복을 당하지 않았느냐고 본문 상반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는지 모른다. 물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본질은 문맥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 이 시는 여호와의 의뢰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시의 약속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이스라엘의 경계가 침범을 당하고 그 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순종하고 신뢰하는 동안은, 악인의 권세가 그들 가까이 이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왜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대적을 막아주셨는지 그 흥미로운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손을 대고픈 유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외부의 적으로부터만 아니라, 내부의 자아와,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 죄를 범하기 쉬운 자아의 성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125:4** 4절 역시 문맥에 맞게 이해해야 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정직함은 그들의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열매이다.

**125:5**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라고 고백하면서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들을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포로되고 흩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는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평강을 얻는 비결을 제시해준다. 그것은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발견된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찢은 분에게 돌이키고 독자를 위해 슬퍼함같이 그분을 위해 슬퍼할 때, 그 때 오랜 세기 동안 그들을 벗어났던 평강이 마침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샬롬, 샬롬!

## 126편 : 눈물의 뿌림, 기쁨의 거둠

**126:1** 조서가 유대인 포로 지역에 전해지자 유대 백성들은 전율과 환희에 사로잡혔다. 바사 왕 고레스가 포로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선포했다. 그것은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다. 긴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생전에 다시 볼 수 있을지 아쉬워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그 소식이 전해졌다.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챙기는 동안 그들은 마치 꿈길을 걷는 듯했다.

**126:2** 그렇지 않아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고 말을 즐겨하던 백성들이 흥분이 고조되어 더없이 시끄러웠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기뻐할 일이 생겼다. 고향에 돌아간다니! 귀향 채비를 서두르면서 웃고 노래 부르는 일은 전에 없던 경험이었다.

**126:3** 그것은 이방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셨다고 여겼다. 지상의 다른 민족들 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와의 사랑과 돌보심의 특별한 대상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오직 여호와의 손길의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기쁨에 찬 포로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고백으로 감격을 표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126:4** 그러나 그들은 걸치고 있는 옷밖에 아무것도 없는 가련한 잔존자의 형편으로 고국에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권력과 재정과 보호가 필요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남방(히브리어로 ‘네게브’)은 남쪽 사막이었다. 평상시에 그곳은 메마른 볼모지였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말랐던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초목이 무성해졌다. 그처럼, 지금은 소수에 불과한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어 열두 지파 모두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귀환중인 포로들은 기도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건과 복구 수단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행복하고 열매맺는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했다.

**126:5~6** 그들이 돌아간 첫 해는 특히 힘들 것이다. 곧바로 추수할 곡식이 전혀 없을 것이다. 빨리 곡물을 심고 추수할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 때는 식량을 가급적 절약해야 하는 결핍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첫 곡물을 얻기 위해 씨를 뿌리는데는 다소간 슬픔과 좌절이 따를 것이다. 여기에 적은 곡물을 수확한 한 농부가 있다. 그는 거둔 곡식을 당장의 필요를 위해 가족의 양식으로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래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그 대부분을 밭에 심을 수도 있다. 그는 그것을 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앞치마에 손을 깊이 넣어 씨를 경작된 땅에 흘뿌리는 동안 눈물이 앞치마에 떨어졌다. 아내와 자식들과, 형편없는 죽 사발과, 그리고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참고 견뎌야 할지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식구들의 입에서 양식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귀환한 포로들의 입술에는 이러한 즐거운 소리가 터져 나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그들은 나아가 씨를 뿌렸다. 그들의 현재의 고난은 익은

곡식단을 곳간에 들이는 기쁨에 의해 넉넉히 보상받을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물론 영적인 영역에도 적용된다. 복음이 널리 전파 되게 하기 위해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에는 궁핍할지 모르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기쁨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어린양을 경배하는 기쁨은 그 무엇에 비할 수 없다!

영혼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영혼을 위해 처음 눈물 흘리는 자가 영혼을 얻는 자다”라고 적절히 표현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한다.

“구주께서 그러하셨듯이 무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내 눈이 눈물로 흐려질 때까지 바라보게 하소서.

길 잃고 헤매는 양무리를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저자 미상).

## 127편 : 범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작은 것이 큰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사실이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큰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이 이 시가 전하는 메시지이다. 만일 우리의 활동이 여호와에 의해 명령과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과 정력의 낭비이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의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조직을 세울 수 있다.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는 통계수치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여호와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전혀 무가치할 뿐이다. “사람이 계획하지만(proposes) 그 집행은 하나님이 하신다(disposes).”

시편 기자는 그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네 가지 활동영역을 선택했다. 그 네 가지는 집 건축, 지역 방비, 근로활동, 가정을 세우는 일 등이다.

**127:1** 집을 짓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과 자금력에 기초한 계획으로 일을 진행시킨 다음 다 지어진 건물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확실히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린 다음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여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그 계획이 결코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두 번째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의 기적적인 공급과, 시간의 정확한 일치와, 우연의 법칙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의 전개 등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스릴이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이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노력의 헛됨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례는 안전의 영역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것은 우리가 경찰이나 그 밖의 보호기관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안전이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달려있으며, 만일 우리가 진정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적인 주의(注意)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데 충분치 못하다는 의미이다.

**127:2** 근로활동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 있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고되게 일하고 생활비를 버는 것이 아무 쓸모 없게 된다.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가족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 시는 종일 앉아서 음료나 마시며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이 시의 요지는, 만일 하나님을 제쳐놓고 일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개는 그런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군이

삶을 받되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학 1:6).

반면에, 만일 우리가 여호와께 진정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분을 제쳐두고 오랜 시간 힘들게 일해서는 얻을 수 없는 선물을 잡지는 사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혹은 모팻의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잡지는 동안 온다”는 말씀의 의미인 듯하다.

**127:3** 네 번째이자 마지막 사례는 가정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 중 하나이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에 대한 이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가정에서 양육받은 것을 전제로 한다. 그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았다.

**127:4**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부모는 나이가 들면 전사로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고, 사냥꾼이 활과 화살로 하듯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줄 경건한 자녀들을 의지할 수가 있다.

**127:5**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대가족을 반대하는 현 세태의 거센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품에 자식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믿는 자녀들, 즉 믿음의 가정의 일원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녀들은 축복이 아니라 큰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F. B. 메이어는 성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당사자들이 성문에

서 만나 문제를 해결했다고 일깨워준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의미는, 어떤 사람의 자녀가 인간관계나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여 손실을 보거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의가 실행되는 것을 본다는 것이다.

이 시는 스가랴를 통해 하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드러내준다(슥 4:6). 우리는 돈이나 인간의 재능을 의지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여호와의 뜻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건축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원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란 나무나 풀이나 짚뿐이다. 그분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생산해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면 헛바퀴만 돌뿐이다. 그러나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은 진정 열매를 맺게 된다. 육신적인 무기는 육신적인 결과를 생산해내고, 영적인 무기는 영적인 결과를 생산해낸다.

## 128편 : 여호와의 축복

**128:1** 삶을 진정 누리는 신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신자이다.

그런 자는 모세 율법 아래서는 자연적인 축복을 받았다.

**128:2** ‘장수.’ 그는 일찍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물질적인 부를 누렸다.

‘행복.’ 그는 불화와 다툼이 없고 하나님의 낮을 늘 대하는 만족한 삶을 누렸다.

‘형통.’ 만사가 형통했다. 그는 재난과 곤경과 가뭄과 역병과 패배에서 보호를 받았다.

**128:3** ‘풍성한 생산.’ 그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많은 자녀를 낳았다. 그의 상(床)에는 힘과 활력이 넘치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 자식들이 둘러앉았다.

**128:4** 은혜시대에서는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다(엡 1:3). 그러나 윌리엄스의 표현대로, “믿음은 이 노래의 물질적인 축복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것이 되게 할 수 있다.” 지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를 능하게 하는 주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떤 즐거움도 자유롭게 된 영혼의 즐거움에 비할 수 없다. 영혼의 형통이 최고의 형통이다. 그리고 영적인 재생산이 물질적인 번성의 기쁨을 능가한다.

**128:5~6** 이 시의 마지막 두 구절은 약속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기도로 이해될 수도 있다. 기도로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시온 성소의 거처에서 혹은 예루살렘 보좌에서 그분의 믿는 백성들을 축복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들은 경건한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루살렘의 형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도록 장수(長壽)를 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평강이 임하기를 구했다.

이 시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돌아와 의로 다스리실 때 임할 개개인과 민족의 축복을 기쁨으로 대망한다.

## 129편 : 반유대주의가 거두게 될 결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여러 대적에게 당한 일을 회고한 다음 여호와께 그 잔인한 침략자들을 멸절해줄 것을 간구한다.

**129:1~2** 이스라엘은 초기부터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애굽에서 당한 압제는 그 초기에 있었던 잇을 수 없는 속박과 고난의 경험이었다. 그러나 대적은 유대인을 멸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그들이 보존된 것은 역사상 괄목할 기적 중 하나였다.

**129:3** 그들의 고난은 깊고도 오래 지속되었다. 이방 압제자들이 농부가 밭을 갈 듯이 그들을 탄압했다. 그들의 등은 채찍에 맞아 긴 고랑이 패였다.

**129:4** 그러나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적시에 개입하사 잔인한 침략자들이 그분의 백성을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셨다.

**129:5~7** 반유대주의자들은 항상 수치와 패배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축복된 추수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근동 지역의 평평한 지붕에 돌아나는 성성한 잡초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흙이 깊지 못하므로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며, 곧 뜨거운 햇볕에 말라죽을 것이다. 사실 눈에 떨 만큼 자라기도 전에 시들 것이다. 그것을 베는 자가 품에 안기는커녕 손으로 한 줌 되게 잡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129:8** 지붕 위의 풀은, 구경꾼들이 베는 자에게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치거나, 베는 자들이 이에 “우리가 여

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고 화답하는 즐거운 추수 장면을 연출해낼 수 없다(룻 2:4). 이처럼,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오랜 세기 동안 잔인한 경작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추수를 거부당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 심은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 130편 : 깊은데서 부르짖었나이다

최선의 기도는 강렬한 내적인 필요에서 나온다고 혹자는 말한바 있다. 안락하고 형통한 때에는 진지한 기도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삶의 폭풍을 만나 괴로움 당할 때, 그 때 우리는 열렬하고 지속적인 간구로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130:1~2** 나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슬픔과 고난의 한계에 종종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삶의 어두운 순간에 처해있다. 위를 올려다보는 길 밖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다. 그래서 ‘깊은데서’ 하늘 보좌에로 그의 절박한 외침이 올라갔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외롭고 가냘픈 소리를 듣고 응답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그 간구는 물론 응답되었다. 항상 그렇듯이!

간구자가 생각하기에 그의 고난은 모종의 죄와 다소간 관련이 있었다.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백되지 않은 죄를 우리의 재난의 원인으로 여겨 제거한다는 것은 항상 바람직한 생각이다.

**130:3~4** 만일 여호와께서 세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 대가를 우리 각인이 치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상황은 매우 절망적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길이 있음

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다. 범죄한 죄인을 위한 용서가 있고, 범죄한 성도를 위한 용서가 있다.

첫째는 ‘법적인’ 용서, 즉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의 용서가 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얻어진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망라한다. 그것이 가능함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완성하신 사역 때문이다.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셨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의로운 요구가 우리의 대속주에 의해 충족된 까닭에 자유롭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

둘째는 ‘부모로서의’ 용서, 즉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로서의 용서이다. 그것은 그분께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써 얻어진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가족과의 사귄의 회복을 가져온다. 그것 역시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위해 사신 바 된 용서다.

그분의 용서의 한가지 결과는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경외를 받으시는 것이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용서가 완전하고 값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30:5~6** 시편 기자가 직접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3,4절에 확실히 그것이 암시되어 있다. 5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한 것은 용서를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다. 용서는 그가 자백하는 순간 주어졌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가 기다리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깊은데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즉시 기도 에 답하시지만 때로는 기다리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네.

우리 마음이 연약할 때 그분은

그분의 자녀가 구하는 바로 그것을 주시네.  
 그러나 종종 믿음은 보다 깊은 안식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그분의 침묵을 신뢰해야 하네.  
 그 이름이 사랑이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네.  
 별들은 타버리고 산들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확실하네” (저자 미상).

이처럼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 즉 듣고 응답하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바라는 법을 배웠다. 파수꾼이 동트기를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것을 보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5,6절은 놓쳐서는 안될 보다 넓은 의미가 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분의 교회를 하늘로 옮겨가시기를 고대하는 오늘날 신자의 간절한 바람을 표현해준다. 그 복스런 소망은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130:7~8** 이 시의 마지막 두 구절은 구원을 위한 기도가 응답된 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간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한 후에 그는 다른 이들도 그런 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진실로 믿을 때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는 격려를 받았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주어졌다. 첫째로 그분의 인자하심이 변치 않는다. 둘째로 그분의 구속이 그 공급에 있어 풍성하다. 그리고 끝으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려는 그분의 의지가 확고하다.

이 시는 깊은 슬픔에서 시작되어, 어떤 문제도 크게 여기지 않고 어떤 딜레마도 복잡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힘찬 호소로 마감된다.

### 131편 : 슬기로운 겸손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 밑을 헤아릴 수 없는 신비들과 최고의 지성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기이한 상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고난이란 문제에 대해 누가 최종적인 답을 말하겠는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영역에 떠오르는 모든 의문들에 누가 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누가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131:1** 다윗은 모든 해답을 알고 있는 체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모든 것을 아는 체하는 자의 마음처럼 높지 않았다. 그의 눈은 지적인 대가의 눈빛인양 높이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했으며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데 만족했다. 왜 자신이 알 수 없는 크고 심오한 일에 매달리겠는가? 그럴 필요 없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다.

**131:2**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 이러한 태도는 그의 영혼에 평안과 고요함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엄마 품에서 고요해진 젖은 아이 같았다. 처음에는 아이가 보채고 불안해하고 못 견뎌할 것이다. 그러나 젖을 입에 물리면 갑작스레 조용해지고 엄마 품에서 안정을 찾는다.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이해하느라 이

궁리 저 궁리 불안스레 마음 고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답변할 수 없는 의문들을 하나님께 맡기자마자 우리 영혼은 긴장에서 풀려나게 된다.

**131:3**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와 같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권했다. A. W. 토저는 이렇게 말했다. “최고의 비밀되신 분 앞에 놀라움과 즐거운 침묵 속에 서서, ‘주 하나님이며, 당신은 아시옵니다’라고 속삭인다는 것은 크나큰 특권임을 잊지 말라.”

### 132편 : 기도와 약속

이 시의 기자와 배경에 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한가지 가능한 견해는, 솔로몬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새로 지은 성전의 제 위치에 안치시킬 때 지어졌다는 것이다. 그 견해에 의하면, 1~10절은 여호와께서 쉼기나(영광의 구름)로 강림하여 궤 위에 거하시기를 바라는 솔로몬의 기도이고, 11,12절은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후반의 13~18절은 솔로몬의 구체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들을 담고 있다.

**132:1~5** 여호와께서 다윗이 당한 모든 고난을 그를 위하여 기억 해주시기를 구하는 서두의 간구는 평생에 그를 괴롭히던 일반적인 곤경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지상 거처로서 성전을 짓기 위해 겪은 깊은 정신적 육체적 경험들을 가리킨다. 다음 세 구절에서 그것이 설명된다. 성경 다른 데에 기록되지 않은 한 경우에,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집, 즉 야곱의 전능자가 거하실 처소를 마련할 때까지는 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의 침상에 눕거나 혹은 잠을 자거나 하

지 않겠노라고 여호와께 엄숙히 서원했다. 이 서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위한 영구한 처소를 세울 때까지는 만족스런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뜻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다윗이 전쟁의 사람인 까닭에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는 못했으나 솔로몬에게 건축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해주는데 큰 기여를 한 것과 성전건축을 바라는 그 마음에 대해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하신 일을 알고 있다.

**132:6** 본문은 기랏에 있는 궤의 위치에 대한 회상과,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져오려는 다윗의 사람들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듯하다. 6절은 궤를 에브라다(베들레헬)와 관련짓는 듯 보기에 특히 해석이 어려우나, 그러나 궤가 그곳에 있었다는 기록은 일절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시도되어 왔다.

(1) 왕과 그 신복들이 처음에 베들레헬에 있을 때 궤의 행방에 대해 들었으나 결국 야일, 즉 기랏여아림에서 그것을 찾았다.

(2)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을 가리키며, 실로에 있던 궤의 안치소를 가리킬 수도 있다.

(3) 에브라다는 베들레헬이 아닌 갈렙 에브라다(대상 2:24)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갈렙 에브라다는 “숲의 성”을 뜻하는 기랏여아림의 야일(나무)과 동일하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6절의 두 문장은 같은 의미를 지닌 병행문장을 이루는 셈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132:7** 그 거룩한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가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경배하기 위해 그분의 장막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했다. 궤는 그 위를 덮은 영광의 구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른 까닭에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여겨졌다.

**132:8~10** 이제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 소리를 듣는다(8~10절; 대하 6:41,42). 그는 하나님께 성소에 드셔서 궤의 상징성을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제사장들의 경건한 행렬과 백성들의 즐거운 외침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총을 위해 구했다. “주의 기름 받은 자”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132:11~13** 여호와와는 우선 다윗 언약을 간략히 언급하십시오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언약은 다윗에 관한 무조건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영원한 보좌와 그 위에 영원히 앉을 후손을 약속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후손에 관한 조건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순종에 달려있었다. 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육체적으로 그분은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나단의 후손이었다(눅 3:31).

**132:14~18** 이어서 솔로몬의 구체적인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응답이 주어졌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비교로 살펴볼 수 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8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을 원하였음이다”(14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9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16절).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9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16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  
치지 마옵소서”(10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기름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  
하였도다. …저에게는 면류관  
이 빛나게 하리라”(17,18절)

사실 여호와는 솔로몬이 요구한 모든 것에 지나도록 풍성히 응답  
하셨다. 풍부한 식료품과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겠다는 추가적인  
약속이 있다(15절). 제사장들은 의로만이 아닌 구원으로 옷 입을 것  
이라는 약속이 있다(16절). 성도들은 기쁨으로 외칠 것이라는 약속  
이 있다(16절). 원수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18절).

17절의 의미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한 강력한 왕을 다윗에게  
서 나오게 하실 것이며(눅 1:69), 다윗, 즉 그분의 기름 받은 자를 위  
해 등불 혹은 아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이다(왕상 15:4). 영구한 왕조  
에 대한 이 약속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수치로 덮일 것이나 그분의 머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 씌워질 것이다.

“전에 가시로 관 씌워졌던 머리에  
이제 영광으로 관 씌워졌네!  
하늘의 빛나는 왕관이  
위대한 승리자의 이마에 들렀네!” (토마스 켈리).

### 133편 : 연합하여 등거함이어!

값진 물건은 조그만 상자에서 나오는 법이다. 이 시는 짧지만, 양  
적인 부족을 질적인 면에서 보완하고 있는 문학적이면서 영적인 귀  
한 작품이다.

시편 기자의 요지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로 형제들이 한 마음

으로 함께 거한다는 것은 선하고 즐거운 일이다. 둘째로 그것은 향기롭다. 셋째로 그것은 소생을 가져온다. 끝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히 보장해준다.

**133:1** 형제들의 연합은 주목하고 볼만한 광경이다. 그러나 연합이란 모든 점에서 일치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자유가 있다. 모든 일에 있어 사랑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획일적이지 않으면서도 연합은 가능하다. 우리 모두는 다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동역을 방해하지 않는다. 인체의 모든 지체들은 다르다. 하지만 그 지체들이 머리에 순종하여 행할 때는 놀라운 연합이 이뤄진다.

만장일치 없이도 연합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소한 문제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질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밖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불화 없이 동역할 수 있는 한 그러하다. 연합의 진정한 적(敵)은 시기와 험담과 비방과 비판과 사랑 없음이다.

**133:2** 연합은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된 향기로운 기름과 같다(출 30:22~30). 그 기름은 그의 머리에 부어진 다음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까지 내려갔다. 제사장 자신뿐만 아니라 둘러싼 모든 이들이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았다. 이 거룩한 기름은, 즐거이 동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향기로운 향으로 내려오고, 또 주변 지역에 그들의 간증의 향기를 발산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한다.

**133:3** 연합은 소생을 가져다준다.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기자는 혈몬산을 먼 산들에게 시원하고 생기를 복돋는 수분을 공급하는 근원으로 보았다. 다시금 이들은 연합된 형제들에게서 땅 끝까지 소생함을 가져다주는 성령을 상징한다. 하나님과의 사귄과 다른 신자와의 사귄 가운데 행하는 신자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

마지막 요지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는 것이다. 오순절을 그 예로 들어보자. 제자들이 조화와 화평 중에 거하며 기도로 연합하여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그들 위에 강림하였으며, 그들은 복음의 향기와 생기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갔다.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설명되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연합이 있을 때 그들은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누린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통로가 된다.

### **134편: 와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134:1~2**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상적인 매일의 활동을 마친 다음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밤새 경계를 서고 (대상 9:33) 향을 태우고 여호와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대하 29:11, 31:2).

이 처음 두 구절은 백성들이 해산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부른 노래였던 것 같다. 본문은 성전에서 야간근무중인 여호와와 종들에게 전해졌으며, 이들의 사역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성소를 향해 손을 드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134:3** 3절의 반응은 백성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제사장들의 축복이다. 그 축복에 대해 다음 네 가지를 볼 수 있다.

축복하는 자 - 주,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위대함 - “천지를 지으신.”

축복 받는 자 - “여호와께서 내게(단수) 복을 주실지이다.”

축복하는 자의 위치 - “시온”, 성소가 있는 곳.

### **135편: 찬양의 이유**

**135:1~2** 처음 두 구절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다소 일반적인 호소를 발한다.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가리킴이 분명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이들도 포함할 것이다 (19,20절).

**135:3**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주목하라. 그분은 선하시다. 시간과 영원에서 어떤 피조된 혀도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다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을 밝히고 경배하는 것뿐이다.

그분의 이름은 아름답다. 그 이름은 죄악된 자를 구원하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이다.

**135:4**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의아해하는 영혼으로 하여금 “왜 나를?”이라는 영원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것이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한다!

**135:5**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분을 창조주와 유지자와 구속주로 묵상할 때 우리는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는 깊은 감격으로

찬양하게 된다.

우리 주는 모든 신 위에, 다시 말해서 모든 통치자와 세력가와 모든 우상 위에 뛰어나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계 19:16).

**135:6** 그분은 우주의 주재이시다(6절). 그분은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주재권이란 하나님이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사실(fact)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것, 즉 그분이 우주의 보좌에 계셔서 ‘자기의 기뻐하는 뜻대로’ 모든 일을 지휘하고 모든 일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5)</sup>

**135:7** 그분은 자연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계시다. 구름과 번개와 비가 아무리 그 위세가 두려워도 그분의 능한 손의 지배를 받는다. 스테펜 칼녹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신과 같아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이해를 초월한다. 그것은 제지되거나 제약을 받을 수 없으며, 피조물에 의해 좌절될 수도 없다.”

**135:8~9** 그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능력의 나타남은, 장자의 죽음으로 절정에 오른 재앙들을 통해, 그리고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 바로가 패배당한 것이었다.

**135:10~11** 그분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시온과 옥 및 가나안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승리를 은혜로 허락하셨다.

---

25) (135:6) Pink, *Attributes*, p. 27.

**135:12**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다. 가나안 땅은 애굽을 피해온 자들에게 기업을 주어졌다.

**135:13** 그분은 영원하시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거하며, 그분의 이름은 물론 그분의 모든 속성을 대표한다.

그분은 영원한 기념(영예)을 지니신다. 그분은 대대에 아름답게 기억되실 것이다.

**135:14** 그분은 정의롭고 동정적하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신원해주시고 그분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다. 모세가 신명기 32:36에서 처음 그 사실을 노래했으나 그 노래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135:15~18** 그분은 우상들 위에 뛰어나시다. 그 거짓 신들에 대한 본문의 묘사는 그들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데 충분하다. 그들은 은과 금이요, 따라서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따라서 사람보다 열등하다. 그들은 병어리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생명이 없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들을 지은 자들은 그들과 같아서, 영적으로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병어리요 죽은 자들이다.

**135:19~20**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러한 묵상은 그분을 송축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존귀와 찬양과 경의와 경배와 감시를 그분께 올리고자 하는 바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스라엘 온 집이 그분을 송축해야 한다. 제사장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아론의 집)이 그분을 송축해야 한다. 레위인으로 섬기는 이들이 그분을 송축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 그분을 송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그분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때 이스라엘이 노래할 제목이다.

**135:21**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행해야 할 일이다.

### **136편: 위대한 할렐!**

이 시는, 26구절의 각 구절의 둘째 문장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반복되는 화답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독특하다. “만일 한번의 영원함이 충분치 않다면, 여기 이 한 시에 26번의 영원함이 있다”고 토마스 굿윌은 말했다.

이 시는 위대한 할렐로 알려진 시로서, 페사크(유월절)와 로쉬 하샤나(시년절) 절기에 의식의 일부로 정식으로 읽혀지던 노래였다. 또한 이 시는 매일의 경배에 사용되었다.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어도 지루하지 않은데, 이는 여호와와의 한결 같은 사랑은 우리 앞에 끊임없이 필요하며 그 주제는 결코 고갈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분의 인자와 성실과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 경배의 촉구(136:1~3)

**136:1~3** 그분의 어머하심으로 인해, 그리고 그분의 본질적인 선하심으로 인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먼저 서두에 호소한다. 그분은 여호와(언약을 지키시는 주)시다. 그분은 신들의 하나님(우주의 모든 강력한 통치자들 위에 뛰어나신)이시다. 그분은 만주의 주(천사든 인간이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계신 주권자)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하시다. 그분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인도자요 승리자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위한 공급자로서 선택하시다.

창조주(136:4~9)

**136:4~9**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엇보다도 창조의 큰 기사에 나타나 있다. 그분의 지혜로 그분은 광대한 하늘을 지으셨다. 그분은 대륙을 떠다니는 큰 섬처럼 드러내셨다. 그분은 하늘에 커다란 얽은 막을 두셨으며, 해는 낮의 빛을 제공하고 달과 별은 사람이 잠자는 시간 동안 부수적인 빛의 역할을 한다.

구속주(136:10~15)

**136:10~15** 위대한 창조주는 또한 능한 구속주이시다. 그분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분은 애굽의 육신의 꽃을 꺾으신 다음 강한 손으로 그분의 백성을 붙들고 이끌어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분은 홍해를 갈라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을 내셔야 했다.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통과했으나 바로의 군대는 바다가 원위치하여 삼킨바 되었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인도자(136:16)

**136:16**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그 황량하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포장된 길도, 표지판도, 지도도 없었고, 다만 여호와, 즉 비할 데 없는 인도자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부였다.

승리자(136:17~22)

**136:17~22** 그분은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전쟁을 치러



주셨다. 시혼 왕과 옥 왕이 길을 가로막자 그분은 그들을 확실히 물리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영토의 일부로 주셨다.

돕는 자, 구주, 공급자(136:23~25)

**136:23~25** 일종의 요약으로, 시편 기자는 그분이 돕는 자요 구주요 공급자 되심으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분은 그 수가 적고 힘없고 압제를 당할 때에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대적의 올무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분은 모든 생물에게 양식을 한결같이 공급하신다.

하늘의 하나님(136:26)

**136:26**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분의 인격적인 위대함과 다함 없는 인자를 끊임없이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분께 감사할 수 있다.

### **137편: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잊을진대!**

1948년 4월,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은 사실상 포위상태에 있었다. 식량공급이 거의 바닥이 났다. 사람들은 1주일에 마가린 2온스, 감자 0.25파운드, 마른 고기 0.25파운드로 연명해갔다. 그 때 트럭 행렬이 식량을 싣고 텔아비브에서 오고 있다는 전갈이 왔다.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수십 대의 트럭을 반겨 맞았다. 그들은 그 트럭행렬 맨 앞 광경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 행렬 맨 앞의 푸른색 포드차의 앞범퍼에 누군가 이렇게 써놓았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잊을진대...”

이와 같이, 이 시편 137:5 말씀은 포로와 분산으로 점철된 격동의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유대 백성에게 용기를 북돋는 외침이 되어왔다.

**137:1~3** 바벨론 속박에서 풀려난 뒤에 기록된 이 시는 시온에서 쫓겨날 때의 고통을 회상한다.

아마도 안식일에, 자유로운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바벨론 강변에 모였다. 옛 일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눈물이 흐르곤 했다. 그들은 시온을 기억했다. 그들에게 있어 그곳은 온 세상의 영적인 중심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 그들은 큰 성회로 모이는 동안 그곳에 즐거움과 희락이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배하러 그곳에 올라갈 수 없었으며, 그 성소에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부정한 손이 있었다. 바벨론 강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눈물과 고난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마음에 그려보았다.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했다. “쳐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애 3:48).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읍하리로다!”(렘 9:1)

**137:2** 그들은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었었다. 혹은 흔히 하는 말대로 그들은 선반에 수금을 걸었었다. 그런데 왜 수금을 타지 않았을까? 악기가 쓸모가 없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노래부를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부를 노래가 없다면 반주도 필요 없었다.

**137:3** 종종 바벨론 압제자들이 그들에게 히브리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구했다. 소금으로 상처를 문지르는 듯 그들은 고통스럽게도 이렇게 요구했다. “고국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하나 불러봐라!”

**137:4** 얼마나 모욕적인 요구인지! 유대인들은 응하지 않았다. 마

음이 상해서만이 아니라, 그보다는 이방 우상숭배자의 땅에서 여호와와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잇는 것과는 같았다. 그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혼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합당치 않다고 보았다. “이방인의 땅과 여호와와의 노래는 결코 함께 발견될 수 없다”고 F. B. 메이어는 말했다.

**137:5~6** 이제 그 땅에 돌아온 까닭에 시편 기지는 예루살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려는 그의 백성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다.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이 그곳에 거하는 여호와를 대표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만일 그가 더 이상 시온에 대해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애착을 갖지 않는 때가 온다면, 그 응당한 보응으로 그의 오른손이 생기를 잃고 다시는 수금 줄을 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마음에 첫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다시는 그 아름다운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다.

**137:7** 먼저 그 자신에게 그러한 조건적인 저주를 선언한 까닭에 그는 이어서 거룩한 성의 파멸에 일익을 담당한 자들을 거론하기가 한결 쉬웠다.

예를 들어, 에돔 자손을 보라. 그들은 일종의 박수부대를 이루어 그 성을 완전히 파괴라고 침략자들을 부추겼다. “훼파하라. 훼파하라. 그 기초까지 훼파하라!”고 그들은 외쳤다. 여호와여,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만족히 여기는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소서!

**137:8** 이어서 잔인한 파괴자인 바벨론이 있었다. 그 민족은 비록 그분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의 도구이긴 했으나 하나

님은 바벨론인의 무자비한 살육을 용서치 않으셨다.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매우며”(사 47:6).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슥 1:15).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시편 기자는 마음에 조금도 의문이 없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였다(사 13:1~22; 렘 50:15,28; 51:6,36). 바벨론을 파멸시킨 자들은 그분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다.

**137:9**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극히 난해하다.

“네 어린것들을 반석에 매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신약성경의 비폭력적인 가르침으로 양육받은 자들에게는 매우 가혹하고 보복적이고 무정한 처사로 여겨질 것이다. 왜 아무 죄 없고 힘없는 아이들이 그토록 비인간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다음 사실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이 구절이 축자적으로 완전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라는 전제 하에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문제는 말씀 자체가 아닌 우리의 이해에 달려있다. 둘째로, 바벨론의 어린 것들의 멸망은 이사야에 의해 분명히 예언되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사 13:16).

따라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것(하나님의 선고를 집행하는 자들이 유복하다는 부분을 제외하고)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우리는 죄 없는 아이들이 종종 그들의 부모의 죄의 결과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출 20:5; 34:7; 민 14:18; 신 5:9). 아무도 홀로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의 행동은 선악간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죄의 고통스런 결과 중 한가지는, 그 비극적인 보응에 다른 이들이 연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주의 내용을 대할 때는, 모세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적합한 행동과 태도가 은혜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사실을 누누이 밝히셨다(마 5:21~48).

당신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그 영적인 적용은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죄들을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 작은 죄들이 멸절되든가 아니면 그것들이 우리를 멸하든가 둘 중 하나이다. C. S. 루이스는 이 점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면세계에는 어린 아기와 같은 것들이 있음을 안다. 장차 만성적인 음주벽이나 뿌리깊은 증오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나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달래고 설득하는, 그리고 아주 미미하고 힘없어 보이기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잔인한 처사로 느껴지는 그러한 작은 방종과 작은 분노 따위의 희미한 시작이 있다. ‘나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다만...’ 혹은 ‘나는 적어도...하기를 바랬는데...’ 혹은 ‘조금만 생각해봐’ 등등의 속삭임으로 그것들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모든 예쁘장한 아이들(아이들은 그렇게 애교스럽게 다가온다)을 대할 때는 이 시의 조언이 최선이다. 어린 것들을 떼어 치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은 쉽지만 행동에 옮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sup>26)</sup>

### 138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다윗은 모종의 중요한 기도 응답에 대해 크게 감사했다. 이러한

---

26) (137:9) Lewis, *Reflections*, p. 113,114.

감사의 표현을 통해 그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에 대한 합당한 본을 남겨주었다. 의문의 여지없이 이 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 곧 메시아의 지배 아래 마침내 회복될 때 그 완전한 적용을 볼 것이다.

**138:1** 다윗의 감사에는 주저함이 일절 없다.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그의 모든 능력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그의 예배에는 소극적이거나 은밀한 부분이 일절 없다. 그는 신들 앞에서, 즉 세상 열왕 앞에서 부끄럼 없이 노래했다. 여기에 나오는 ‘신들’은 천사나 우상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문맥상 주변 통치자로 그 의미가 제한되는 듯하다.

**138:2** 경건한 유대인의 관례대로 다윗은 예배드릴 때에 성막을 향해 경배를 했다(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sup>27)</sup> 그는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게 했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 모든 약속이 이뤄질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문맥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계가 있으며, 그 의미는, 그분이 말씀하신 비를 행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행하셨다는 뜻인 듯하다. 아울러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풍성히 이루시는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자신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계시를 뛰어넘으셨다”는 뜻이 담겨있을 수도 있다.<sup>28)</sup> 만일 이 구절을 성육신하신 말씀에 적용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

27) (138:2) ‘성전’으로 옮겨진 단어(헤칼)는 궁전, 혹은 성막을 포함한 다른 건물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항상 유대인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8) (138:2) Clarke, *Psalms*, p. 337.

신에 대한 다른 모든 나타남 위에 주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의미이다.

**138:3** 3절은 시편 기자가 찬양을 토로한 직접적인 배경을 밝혀준다. 절박한 순간에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며 그 응답이 즉시 왔다. 엄청난 힘이 그의 영혼에 부어져 두려움을 내어쫓고 위험에 직면하도록 용기를 북돋웠다.

**138:4~6**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세상 열왕에게 능력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았으며, 이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았다. 이에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비록 초월적인 존재지만 다윗 같은 낮은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다윗의 대적 같은 교만한 자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38:7** 다윗은 모든 종류의 대적과 모든 종류의 위험과 모든 종류의 고난에 에워싸였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마치 대적들이 존재하지 않듯이 그들 사이로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다. 그의 대적을 친 그 손이 그를 재난에서 구원할 것이다.

**138:8** 정당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고 확언한다. 동일한 확신으로 바울은 빌립보서 1:6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분의 선하심이 시작한 일을  
그분의 능력의 팔이 완성할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예와 아멘이요

이제껏 헛된 것 없네.  
장래 일이나 현재 일이나  
땅 아랫것이나 땅 위엣 것이나  
그분으로 그 목적을 보류하게 하지 못하며  
우리 영혼을 그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네.”  
(아구스투스 M. 토플레디)

그렇다.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며, 비록 우리가 다윗과 더불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도, 버릴 마음도 없으시다.

### 139편: 하나님은 심히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심히 광대하시네!  
그분이 알지 못하시는 것 없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 없고  
그분이 할 수 없는 것 없네.”

만일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토록 광대하신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면,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것이 이 장려한 시에 나타난 다윗의 묵상의 흐름이다.

**139:1~2** 먼저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이 알지 못하시는 것 없네.  
우주가 무한하고 광대해 보일지라도



그분은 모든 모래알의 영원한 이야기를 아시네.”

그러나 여기서는 개개인의 삶에 대한 그분의 지식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다. 1988년에 세계인구는 50억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친밀히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셨다! 말과 행동, 생각과 동기 등 그분은 우리를 훤히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쉬기 위해 자리에 앉는 때와 여러 가지 활동에 몸담기 위해 일어나는 때를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헤아릴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생각을 예측하신다.

**139:3** 그분은 우리가 걸을 때와 누울 때 우리를 살피신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행위 중 아무것도 그분에게 숨기우지 못한다.

**139:4** 그분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할지를 아신다.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완전히 그분 앞에 열려 있다.

**139:5**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3).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지식이 그토록 완전하므로 그분은 우리의 전후를 지킬 수 있으시다. 항상 그분의 손이 우리를 덮고 보호한다.

**139:6**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은 우리의 이성을 아연케 한다. 그 지식의 무게 아래 우리의 두뇌는 바짝 오그라든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해하기엔 너무 높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의 광대함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다!

**139:7~8**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시다. 그분은 한번에, 같은 시간에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범신론과 같지 않다. 범신론은 피조물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과 분리되고 구분되는 분이라고 가르친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인간이 여호와의 임재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인간이 하늘로 올라간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피하겠는가? 물론 불가능하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마 5:34). 인간이 해체된 상태로 음부에 자리를 깔지라도 거기서도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139:9~10**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는 초당 18만 6천 마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늘을 가로질러 비추는 아침 햇살을 가리킨다. 우리가 흑 빛의 속도로 우주의 먼 구석까지 여행할 수 있다해도,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붙들기 위해 기다리시는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우연히도, 9,10절은 우리가 사는 제트 여행시대와 잘 조화를 이룬다. 나는 1969년 막 사역을 위한 여행을 떠날 때 주님께서 이 보배로운 약속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탄 많은 제트 비행기들이 새벽날개와 같이 문자 그대로 땅 끝까지 나를 실어다 주었다. 그러나 언제나, 속도나 거리와 상관없이 주님의 보호와 임재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 당신도 이 약속을 스스로 주장하고, 또 비행기로 여행하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란다.

**139:11~12**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숨길 어두움을 원한다면 그는 헛된 피난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밤이 여호와와의 임재를 차단할 수는 없다. 어두움은 그분께는 어둡지가 않다. “...밤이 낮과 같이 비취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하나님은 도저히 피할 수 없다. 파스칼의 말대로 “그분의 중심은 어디에나 있으나, 그분의 원주(圓周)는 어디에도 없다.”

**139:13~14**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족할 것이다. 다윗은 이제 그분의 능력과 기술에 대한 생각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그가 택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구체적인 측면은 아기가 모태에서 성장하는 놀라운 모습이다. 글자의 한 점보다 더 작은 조그만 액체물질 속에 그 아이의 장래 모든 특성(피부색, 눈과 머리카락 색깔, 얼굴 형태, 자연적인 재능 등)이 계획되어 있다. 아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갖추게 될 모든 것이 그 비옥한 수정란 속에 유전자 형태로 들어있다. 그것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형성될 것이다.

“관절과 인대와 근육은 말할 것도 없고, 60조개의 세포와 19만 마일의 신경섬유와, 온 몸에 피를 나르는 6만 마일의 혈관과, 250개의 뼈마디와...”<sup>29)</sup>

다윗은 태아의 형성을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주께서 내 장부(inward parts, ‘속 부분’ 혹은 ‘내부의 요소들’)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 부분’을 지으셨다. 각 부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술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사실과 소리와 향기와 시각과 촉각과 통증을 기록해두는 능력과 과거를 회상하는 능력과 계산하는 능력과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한계가 없어 보이는 능력을 지닌 뇌를 생각해보라.

---

29)(139:13,14) Radmacher, 추가자료는 구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조직하셨다. 이것은 근육, 근골, 인대, 신경, 혈관, 뼈 등이 놀랍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적절히 묘사해준다.

다윗은 여호와께 찬양을 발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이 신묘하고 기이하게 지어졌다고 고백할 따름이다. 인체의 경이로움에 대해, 그 질서정연함과 복잡함과 아름다움과 본능적인 욕구들과 유전적인 요소들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는 자연과학을 연구한 사람이 어떻게 무한한 창조자를 믿는 신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139:15** 다시금 시편 기자는 그의 몸이 모태에서 형성되던 때를 회상한다. 여기서 그는 태아를 지칭하는데 ‘나’ ‘나의’ ‘나를’이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성경적인 견해는, 인간의 인격성은 출생 전에 존재하며, 따라서 의료상 어쩔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산(流産)은 살인이라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를 완전히, 철저히 아셨다는 것을 인식했다. 다윗이 은밀한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그의 골격, 즉 그의 뼈 구조가 하나님께 숨기우지 못했다. “땅의 깊은 곳”은 지구표면 아래를 가리킬 리 없다. 아무도 거기서 지음 받지 않는다. 문맥으로 보아 그것은 단지 “모태 속”을 의미할 수 있다. 에베소서 4:9에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금 문맥에 의하면 이 에베소서 말씀은 동정녀의 자궁을 통해 세상에 오신 일을 가리킨다. 그분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39:16** 시편 기자는 그의 “이뤄지지 않은 형질”을 말할 때 함께 들들 말아지거나 싸여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바네스를

비슷한 몇몇 사람들은 이 단어가 “몸의 모든 지체가 아직 접혀져 있는 혹은 발전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그 구별된 형태와 위치를 드러내기 전의” 배아 혹은 태아를 아주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그의 존재의 예비단계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다윗이 그 최초의 왕성한 외침으로 자신의 출현을 선언한 그 역사적인 순간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윗의 생애의 모든 날이 그 놀라운 건축자에 의해 기록되었다.

**139:17~18(상)** 시편 기자는 그의 영과 혼과 몸을 지을 때의 하나님의 주의 깊은 계획을 생각한다.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분의 관심이 얼마나 세세한지. 앤드류 아이비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세포가 거의 예외 없이 온 몸의 건강을 위한 계획 내지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알고 있다.’”

**139:18(하)**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보기에 시편 기자는 여기서 자신의 출생 순간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앞 단락(13~18절)에서는 출생 전 아홉 달 동안 하나님이 그를 세세히 돌보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 출생한 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를 붙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있다. 우리가 흔히 그 날을 “처음 빛을 보는 날”이라고 일컫듯이 그는 자신의 출생을 “(잠에서) 깨는 것”으로 표현했다.

**139:19~22**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재하심과 전능하심을 묵상한 뒤에 시편 기자는 그분에게 감히 등을 돌리는 미미한 인간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징벌은 극히 마땅하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어떤 이들은 19~22절의 다윗의 기도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논조라고 보고 눈

꼬리를 치켜들 것이다. 시편 기자의 감정은 징벌적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고 그들은 반발할 것이다.

내 견해를 밝히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거룩과 의로움과 비례하여 강조되어왔다고 믿는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리의 전부는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속성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다른 속성을 희생시키고 행사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미워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호와는…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시 11:5). 그분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시 5:5). 그분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린 손과,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 말을 일삼는 거짓 증인과,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잠 6:16~19).

에드워드 J. 영은 다음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 기도로 인해 다윗을 정죄하러 나아가기 전에, ‘나라이 임하옵시고 뜻이…이루어지이다’라는 주기도문을 되뇌일 때마다 우리 자신이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sup>30)</sup>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분의 대적이 멸망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실 때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그를 해롭게 하기를 영원히 그치게 될 날을 주저함 없이 열망했다(19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악하게 거부하고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다.

다윗이 그들을 미워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로 그들을 심히 미워하고 그의 대적으로 여기게

---

30)(139:19-22) Edward J. Young, *Psalms 139*, p. 95.

한 것은 여호와와의 영예에 대한 그의 열정이었다. 여기서 그는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동전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신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다윗의 수금 줄은 예수님의 마음의 울림이었다.” 영(Young)은 이렇게 설명한다.

“다윗의 증오는 하나님의 증오와 같았다. 그것은 악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서고 악(惡)은 사라져야 한다는 열렬하고도 진지한 소원에서 나온 것이다. 만일 다윗이 미워하지 않았다면 그는 악의 성공과 하나님의 실패를 원했을 것이다. 다윗의 증오심의 속성을 생각할 때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sup>31)</sup>

**139:23~24** 이 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늘 합당한 기도, 즉 이 땅에 범죄하는 성도가 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도로 마감된다. 본문은 마음을 철저히 살피고 아실 것과, 생각 혹은 뜻을 주의 깊게 시험하고 아실 것을 능력의 하나님께 구한다. 본문은 모든 악한 행위를 드러내어 자백하고 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그분께 구한다. 그리고 끝으로 영원한 길로 그를 인도해주실 것을 그분께 구한다.

본문은 자신의 무죄함이나 의로움을 항변하는 도전의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여호와와의 임재 안에 있고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의 자백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악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그 죄악을 드러내사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했다.

## 140편: 악인의 손에서 건지소서

**140:1~3** 다윗은 대적의 비방에서 건짐받고자 하는 기도로 시작

---

31) (139:19-22) Edward J. Young, *Psalms 139*, p. 105.

한다. 악인이 그를 비방하고 강포한 자가 그를 해할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싸움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즐겁지가 않았다. 그들은 혀를 날카롭게 갈았으며, 입술 아래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뿜어져 나왔다.

**140:4~5** 그러나 시편 기자는 대적의 올무에서도 보호받기를 원했다. 그 악한 자들은 덫을 놓는데 전문가였다. 그들은 그를 올무에 빠뜨릴 계략을 짰다. 그들은 그의 길에 덫을 설치했다. 그들은 그를 움짱달짝 못하게 할 그물을 놓았다. 그들은 미끼와 유혹물을 길을 따라 걸어놓았다.

**140:6~8** 이어서 그는 그들의 살해계획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결심으로-“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간청으로-“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의지함으로-“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감사함으로-“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간구함으로-“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간구는 이런 뜻이다. “악인으로 나를 해하려고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그의 악한 계획의 공범자처럼 되지 마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惡)을 돕거나 부추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악을 용납하는 것은 그분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암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140:9~11**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해(害)가 악인 위에 덮이고, 그들이 꾸민 무서운 일이 그들의 교만한 머리 위에 임하고, 타는 숯이



그들 위에 쏟아지고, 그들이 아무 피할 길 없는 웅덩이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강포한 자에게 재앙이 지체 없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는 구했다.

**140:12~13** 이 시는 의로우신 여호와에 대한 조용한 확신으로 마감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윗은 의(義)가 승리할 것, 즉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 편에 계심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의인은 항상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직한 자는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것이며, 그것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 **141편: 분향함 같게 하소서**

**141:1** 서두에서 다윗은 그의 호소를 듣고 받아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간곡히 부르짖으면서 여호와께서 속히 그에게 임하고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구했다.

**141:2** 이 구절은 극히 아름답다. 그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처럼 기쁘고 향기롭게 되고, 그의 손을 들고 간구하는 모습이 저녁제사처럼 여호와의 눈길을 끌게 해달라고 구했다.

**141:3~4** 그러나 이어서 그는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간다. 그의 첫 번째 주된 관심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경건치 않은 자들과 같은 부류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는 그릇된 말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여호와께 누를 끼칠만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줄 파수꾼을 입에 세워달라고 구했다. 또한 그는 타락한 자들의 악한 행위에 동참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벗어난 마음을 달라고 구

했다. 그는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탐스럽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소유를 나눠 갖기를 원치 않았다.

**141:5** 경건한 친구의 제안과 비판과 책망은 사려 깊은 사람들에게 의해 기꺼이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결점을 다른 이에게서 보는 것같이 선명히 보지 못한다. 우리에게 진정 관심이 있는 자들만이 기꺼이 우리의 결함과 “잘 보이지 않은 부분”을 지적 해줄 수 있다. 그것은 그들 편이 친절이며, 양약처럼 받아들여져야 한다.

“여전히 나는 악의 행위에 대해 기도할 것이라”(우리말 성경은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로 되어 있음-역주).

본문은 앞뒤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나, 그 의미는, 4절에 언급된 악인의 악한 계략이 실패하기를 다윗이 계속 기도한다는 뜻인 듯하다. 다비는 이 부분을 “그들의 재난 중에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읊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그들의 삶에 재난이 닥칠 때에 그는 친절하게도 자신을 책망해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그가 재난당한 대적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데, 그러한 관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10절과 모순되는 듯하다.

**141:6** “저희의 관원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달므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저희의 관원들”은 아마도 악한 무리의 두령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들이 그 필연적인 운명을 당할 때에 나머지 죄인들은 다윗의 말이 결국 사실이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141:7** 사람이 받을 갈고 흙을 부서뜨릴 때처럼 우리의 해골이 무

덤 앞에 흠어들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에서 유대 백성에게로 대상이 바뀌는 듯하다. 그들이 당한 핍박은 말이 갈아지듯이 철저했다. 이제 그들의 해골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음부가 그 뼈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기다리는 듯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마른 뼈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을 생각나게 한다(겔 37:1~14).

**141:8~10** 마지막 세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의 구원과 대적에 대한 보응을 위해 기도했다. 그의 기대하는 바는 오로지 여호와께 근원을 두며, 피난과 보호를 바라는 그의 바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따라서 그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교묘한 올무를 자신이 벗어나는 대신 그들이 그 올무에 빠지게 해달라고 구했다.

#### **142편: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적에게 쫓기고 친구에게 버림당하고 굴속에 갇힌 그런 상황에 처한 다윗을 보게 된다.

**142:1~2** 그는 홀로였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다. 버림받은 사람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굴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여호와 앞에 원통함을 토했다. 그것은 그가 분노하거나 분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의 우환과 슬픔에 대해 여호와께 다 아뢰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의 기력이 거의 사라질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당하는 고난을 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142:3~4** 그의 재난의 내용 중 한가지 중요한 요소는 그의 대적이 끊임없이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항상 그가 다닐만한 곳에

올무를 놓았다. 그가 오른쪽, 즉 변호자나 조력자의 자리를 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아무도 관심 없는 듯했다. 아무도 그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다.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이것은 실로 빈번하게 울려 퍼지는 외침이다.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를 향해, 그리고 아마도 오늘날의 잠자는 교회를 향해 울리는 엄위한 고발의 외침이다.

**142:5~7** 그러나 만일 인간의 수준에서 아무런 피난처가 없다면 그는 확실한 피난처요 생존 세계에서 복스런 분깃인 여호와께로 갈 수 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이 극한 위경에 처해있으므로 속히 구원하러 오실 것을 여호와께 구했다. 그를 뒤쫓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에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편에 서사 판세를 뒤집으시기를 원했다. 여호와께서 그 추방과 우환의 옥에서 그를 건져내시면 다윗은 넘치는 감사를 표할 것이다.

또한 신자들은 그를 축하하러 몰려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를 심히 선대하신 까닭에 함께 감사드릴 것이다. 클락크의 말대로, “우리의 환란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자들도 우리의 승리에는 참여할 수 있다.”<sup>32)</sup>

### **143편: 기도의 여러 측면**

12구절로 된 이 짧은 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로 다양한 주제와 분위기를 접할 수 있다.

**143:1** ‘기도를 들어달리는 일반적인 요청.’ “들으시며…귀를 기울이시고…응답하소서.” 여기에는 표현의 빈곤 대신 뛰어난 다양성을

---

32) (142:5-7) Clarke, *Psalms*, p. 343.

볼 수 있다. 다윗은 그분의 진실하심(그분의 약속에 대한)과 그분의 의(그분이 자신의 힘없는 종을 보호하시는 것은 의로운 일이므로)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

**143:2** ‘회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아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스스로 이뤄낼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참회자로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에 합당하게 된다.

**143:3** ‘위경.’ 상황은 긴박했다. 대적이 맹렬히 그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땅에 엎드려짐을 당한 자처럼 되었다. 그를 괴롭히는 자들이 그를 압박하여 고립과 어두움과 은둔과 단절을 겪고, 그리고 무덤 속의 오래된 시체 마냥 잊혀지게 했다.

**143:4** ‘절박함.’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감당치 못함을 두려워했다. 그의 심령은 포기상태였고 그의 마음은 참담했다.

**143:5** ‘회상.’ 그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옛날을 되돌아보았다. 그러한 때가 어디 어디 있는가?

**143:6** ‘열정.’ 하나님을 향해 그 손을 펴는데서 그의 기도의 진지함과 열기를 엿볼 수 있다.

‘강렬함.’ 그는 마치 마르고 황량한 땅이 신선한 비를 갈급해 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했다.

**143:7** ‘긴박성.’ 여호와께서 서둘러 그를 구원하셔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필경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은혜를 구함.’ 분노로든 무관심으로든 하나님의 낮을 숨긴다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로였다.

**143:8** ‘인자하심을 구함.’ 그는 하나님이 곧 그에게 말과 한결같은 사랑의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했다. “아침에”는 일찍 내지 지체함 없음을 뜻한다.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 어떤 이는 이 구절을 가리켜 모든 사람이 생활의 철칙으로 삼을만한 구절이라고 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으니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 우리는 길을, 혹은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를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만이 생산적이고 또 즐거운 삶이다.

**143:9** ‘구원을 위한 간구.’ 대적들의 위협으로 인해 다윗은 여호와께 구원과 안전을 부르짖었다. 그는 다른 누구의 도움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와의 보호만을 의지했으며, 그러한 순전한 믿음이 이제 그의 간구의 근거가 되었다.

**143:10** ‘가르침을 바라는 호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뿐 아니라(8절) 그 뜻을 순종하는데 훈련된 마음을 원했다. 하나님은 결국 그의 하나님이었으며, 피조물이 그 창조자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합당한 일이겠는가?

‘평탄한 길을 위한 기도’ 사람마다 살면서 굴곡을 겪게 마련이지만 모두가 다윗처럼 험난한 역경을 겪지는 않는다. 그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여호와와 선한 신(神)이 앞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극단적인 위험이나 재앙이 없는 평탄한 곳으로 그를 인도해주시는 것이다.

**143:11** ‘보존을 위한 간구.’ 자신의 지속적인 보존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시키면서(“주의 이름을 인하여”) 시편 기자는 전능자의 손과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가장 강력한 지렛대 중 하나를 사용했다.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자신이 환란에서 구원받아야 할 이유로서 하나님의 의(義)를 호소했다. 이것은 강력한 기도였다.

**143:12** ‘대적에 대한 보응.’ 끝으로 그는 그분의 인자하심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그의 대적을 찾아 멸하실 것을 구했다. 혹 이런 일들(과멸과 인자하심)이 모순처럼 들린다면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악인의 멸망은 온 세상에는 은총이 된다. 강도를 체포하여 징벌하는 것이 사회와 인류에게 좋은 일(a mercy)이며, 모든 감옥이 공의 뿐 아니라 자비를 드러내듯이(사회에는 자비요, 범죄자에게는 공의) 그러하다.<sup>33)</sup>

다윗의 마지막 호소는 그가 여호와와 종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는 여호와 편에 있다. 그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오직 그의 대적을 제거함으로써만 그는 자신이 계속 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144편: 행복한 사람

이 시는 비록 상당 부분이 다른 시에서 발췌한 인용문으로 이뤄져

---

33) (143:12) Barnes, *Psalms*, 3:314.

있으나 임의로 짜맞춰진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일관성이 있다.

**144:1~2**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삶의 전투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고 높였다. 여호와께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그에게 기술과 재능을 부여하셨다. 여호와는 그의 반석이요, 그의 인자요, 그의 요새요, 그의 산성이요, 그의 구원자요, 그의 방패요, 그의 피난처요, 그의 승리이다. 더 이상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겠는가?

**144:3~4**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취볼 때 인간은 실로 하찮은 존재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살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추운 날 입김 마냥 헛되고, 지나가는 그림자 마냥 덧없는 존재이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나, 다윗은 여기서 아마도 그의 대적을 특별히 염두에 둔 듯하다.

**144:4~8**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모소불능한 하나님이 그 미미한 대적을 치러 나가실 때를 위해 기도하게끔 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출현을 어떻게 묘사하겠는가? 유일한 방법은 온 자연이 격동하고 온 우주가 요동하는 그러한 엄위한 신현(神顯; 하나님이 자연적인 사건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역주)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이 낮게 드리운다. 그분이 산을 접촉하니 산이 연기를 뿜은 화산이 된다. 번개가 전능자가 쏜 화살처럼 하늘을 가로지른다. 이어서 대적이 완전히 와해되고 축출되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환란의 소용돌이에서 다윗을 건져내신다. 그분은, 만성적인 거짓말쟁이요 진리를 지지하기보다는 거짓을 말하기 위해 그 오른손을 드는 이방 침략자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신다.



**144:9~11** 그가 건짐 받은 결과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방 대적들의 “해하는 칼”에서 그를 건져내신 분을 열 줄 비파로 찬양할 것이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하고서도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다.

**144:12** 왕이 그러한 파괴적인 상황에서 건짐 받은 후에 그의 나라는 여기에 묘사된 이상적인 상태를 누릴 것이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대적을 멸하고 그분의 천년통치를 세우실 때까지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먼저, 가정이 부흥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아들들은 강하고 왕성한 나무같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준수할 것이다. 딸들은 궁전의 새긴 기둥처럼 매혹적이고 아리따울 것이다.

**144:13~15** 이어서 들의 곡식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곳간과 창고가 각종 곡식과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양떼가 번식하여 들에 수만 마리가 넘칠 것이다. 가축은 아무 사고 없이 새끼를 낳을 것이다. 혹은 소는 짐을 무겁게 실을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옮겨져 있다-역주).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는 표현은 이방 침략자도 없고 강제로 추방당하는 일도 없고 소란한 소요(騷擾)도 없고 거리의 약탈도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속한 비할 데 없는 행복을 잘 묘사해준다.

## 145편: 누락된 문자 “nun”(nun)

이 다윗의 찬송시는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시작하

는 글자수수께끼 시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히브리어 본문(맛소라)에 의하면, ‘n’에 해당하는 ‘nun’(nun)이 13절과 14절 사이에 누락되었다. 고대 헬라어와 아람어와 라틴어 역본은 다음 문장을 추가하고 있다.

“여호와는 모든 말씀에 진실하시고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이 문장(누락된 ‘nun’ 문장)이 사해 두루마리 사본에서 히브리어로 발견되기도 했다.

**145:1~3** 이 시의 주제는 여호와의 광대하심이다. 시편 기자는 시간과(‘날마다’) 영원에서(‘영영히’) 그의 하나님이자 왕을 높이고 송축하고 크게 찬양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에 사로잡혔다. 그의 다함 없는 노래의 골자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그의 광대하심은 크게 찬양할만하며, 그리고 그의 광대하심은 그 범위가 무한하다는 것이다.

**145:4** 하나님의 행사와 능한 일은 대대로 칭송될 것이다. 그 노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45:5** 시편 기자는 그분의 기이한 구원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귀하고 엄위한 영광을 감사함으로 목상할 것이다.

**145:6**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행위의 위력을 말할 것이며,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145:7** 사람들은 각처에서 주의 크신 은혜의 어떠한 즐거이 외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의(義)의 광대함이 즐거운 노래의 주제가 될 것이다.

**145:8** 여호와의 광대하심은 그분의 은혜와 자비에까지 미친다.

그분은 자기를 절제하는데 있어 광대하시며, 인자하심에 있어 광대하시다.

**145:9~10** 그분의 선하심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미치며,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향해 예외 없이 자비하시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이 비록 들리지 않으나 그분께 감사한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분의 성도들은 그분의 무한한 완전하심으로 인해 함께 그분을 송축한다.

**145:11~13**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광대하다. 그 나라는 능력과 영광이다. 그분의 백성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행사의 광대함과 그분의 통치의 영화로운 완전함을 말한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대대에 이른다.

**145:14** 여호와는 삶의 무거운 짐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보존하시는데 있어 광대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압박과 문제아래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145:15~16** 또한 그분은 필요를 채우시는데 있어 광대하시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의존하고 기대하며, 그분은 그들에게 필요한대로 공급하신다. 그것은 성장과 준비와 분배를 놀랍도록 잘 조직화한 것이다. 그분은 그 손을 펴시는 것 외에 별다른 노력 없이 온 세상에 가득한 무수한 피조물을 먹이신다. 그분은 얼마나 광대한 하나님이 신지!

**145:17** 그분은 그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에 있어 광대하시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불의하거나 무자비한 것이 전혀 없다. 오직 하

나님 안에서만 이러한 미덕들이 완전히 결합된다.

**145:18** 그분은 낮아지심과 가까이하심에 있어 광대하시다. 그분은 그분을 진지하게 찾는 자들에게 항상 가까이 하신다.

**145:19** 그분은 구원에 있어 광대하시다.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자는 아무도 버림받지 않는다.

**145:20** 그분은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지키시는데 있어 광대하시다. 그분은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버리라고 권고하신다.

**145:21** 다윗의 마음은 정해졌다. 그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며, 또한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누락된 ‘눈’에 관해 이렇게 말하게끔 한다. 즉, 우주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데 혹 당신은 누락된 자는 아닌지!

## **146편: 아굽의 하나님의 영광**

**146:1** 첫 구절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호소하는 두 명령문을 담고 있다.

**146:2** 둘째 구절은 사실상 그에 응답하는 두 선언문을 담고 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것은 어떤 사람과 그의 최고의 자아(自我) 사이에 이뤄지는 아름다운 대화이다.

**146:3~4** 이 시의 나머지는 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전폭적으로 신뢰하기에 합당한지를 설명해준다. 머지 않아 우리들 대부분은 왜 사람을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방백들조차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사람들 중 최선은 기껏해야 사람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들췌치고 그들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 심장의 박동이 멎으면 사람은 죽어 장사되고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의 모든 웅대한 계획이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 믿을 수 없고, 무력하고, 죽을 운명이며, 덧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146:5** 행복과 도움과 소망의 길은 야곱의 하나님, 즉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분이 우리의 신뢰를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46:6** ‘전능한 창조주.’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진대 그분이 무엇을 못하시겠는가?

‘의지할만한 분.’ 그분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그분이 거짓 말을 하거나 약속을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모험이 아니다. 그분은 실패할 수 없으시다.

**146:7** ‘무력한 자의 변호자.’ 그분은 의인이 보상을 받고 그들의 소송이 마침내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 파도가 그를 덮칠 것 같으나 반드시 그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공급자.’ 그분은 영육간에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잔칫집으로 인도하사 얼마나 놀라운 상(床)을 베푸시는지!

‘해방자.’ 그분은 인간의 압제와 죄의 사슬과 세상의 울무와 사단의 속박과 그리고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포로를 자유롭게 하신다.

**146:8** ‘시력을 주시는 자.’ 여호와께서는 소경의 눈을 여신다. 어떤 이는 육체적으로, 어떤 이는 정신적 영적으로, 어떤 이는 나면서부터, 어떤 이는 사고(事故)로, 어떤 이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소경이 된다. 어떤 경우든 그분께는 어렵지 않다.

‘일으키시는 자.’ 그분은 염려와 역경과 환란과 슬픔의 짐 아래 굴복한 자들의 기진맥진한 영혼을 일으키신다.

‘의인을 사랑하시는 자.’ 바네스는 이렇게 말한다. “율법을 순종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찬양의 기초이다.”

**146:9** ‘나그네의 보호자.’ 그분은 나그네와 객과 버림받은 자의 안녕에 관심이 있으시다. 나그네는 여호와에게서 참된 위로자를 발견한다.

‘홀로된 자의 친구.’ 그분은 고아와 과부와, 아무 도움 자 없는 자들을 붙드신다.

‘악인의 심판자.’ 그분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운 계락을 파하고 악인의 길을 헛되이 끝나게 하신다.

**146:10** ‘영원한 왕.’ 하나님의 영원성은 인간의 무상함과 대조를 이룬다. 여호와는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여호위를 찬양하라! 당신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은가?

**147편: 회복된 예루살렘-하나님을 찬양하라!**

일반적으로 이 노래는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노래로 받아들여진다. 만일 그 당시에 이 노래가 합당했다면, 왕이 돌아오셔서 마침내 그 성과 그 백성의 기업을 회복시키실 때는 더욱 그 의미가 온전해질 것이다.

이 시의 일관된 흐름은 이러하다.

찬양의 합당함(1절).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인해(2~6절).

자연세계에 있어서의 섭리로 인해(7~9절).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기뻐하심으로 인해(10,11절).

예루살렘에 대한 선하심으로 인해(12~14절).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19,20절).

**147:1** 인간의 새롭게 된 성품은 본능적으로 여호와의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것은 또한 아름답고 극히 합당한 일이다.

**147:2~4** 그분은 회복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그분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망명자를 포로된 데서 다시 끌어 모으심으로 인해 찬양 받으신다. 한 민족이나 개인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떼시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은혜로운 회복사역을 통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리고 그분은 별들의 수를 헤아리고 각기 그 이름을 부르시기에, 그분의 백성의 수를 헤아리고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친밀히 아심은 물론이다.

3,4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무한한 지식 옆에 진술되어 있음을 보고 아키바드 G. 브라운은 이렇게 탄성을 발한다.

“겸비한 경외심으로 감히 고백하건대, 성령께서 둘 이상의 표현을 모아 곁에 나란히 배열한 말씀 가운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별

의 수효를 계수하신다'는 말씀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은 없다.”<sup>34)</sup>

“치유의 손을 상심한 자에게 얹고  
다른 손을 별에 얹으신 채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은 먼 곳을 바라보시니  
그곳은 그리 멀어 보이지 않네.”(M. P. 페르구슨)

**147:5~6** 그분은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분은 압제받는 자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악한 압제자를 엎드러뜨리신다.

**147:7~9** 이어서 하나님은 자연적인 섭리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 펼쳐진 구름으로 인해 그분께 감사를 올려야 한다. 비와 비가 땅에 주는 모든 축복으로 인해 그분께 찬미를 올려야 한다. 산을 덮은 풀로 인해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구름과 비와 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쓰려면 방대한 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광대하신 한편, 들짐승이 먹이를 취하도록 세세히 돌보시며 굶주린 까마귀 새끼의 울음소리에 반응을 보이신다.

**147:10~11** 그분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우선하심으로 인해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그분은 기병의 말이나 보병의 강하고 튼튼한 다리에 위압당하지 않으신다. 혹은 달리 표현하면, 그분은 달리는 말이나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대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147:12~14** 이어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대한 선하심으로 인해 경

---

34) (147:2-4) Archibald G. Brown, 추가자료는 구할 수 없다.



배 받으셔야 한다. 여기에는 네 가지 축복이 나타나 있다.

시민생활의 안전-그분은 문뱃장을 견고히 하사 대적이 성문으로 침략하지 못하게 하신다.

가정의 행복-백성들은 즐겁고 만족스런 삶을 즐긴다.

나라의 안정-그분은 국경지대에 평안을 주신다.

농사의 번영-그분은 최고의 양식으로 백성들을 만족케 하신다.

**147:15~18** 자연력에 대한 그분의 다스리심도 여호와를 찬양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가지다. 그분이 명령을 보내시니 그 신속하고 극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땅은 담요처럼 눈에 덮인다. 그분은 서리를 재갈이 흘으신다. 우박이 내리칠 때 달아나 숨지 않을 자 누구겠는가? 그런 다음 그분이 명령을 바꾸시니 눈과 얼음이 녹는다. 남풍이 온도를 상승시키고 봄철의 해빙(解氷)이 시작된다. 인간의 삶에도 것처럼 어둡고 차가운 겨울 뒤에는 봄의 온기와 소생함이 온다.

**147:19~20** 끝으로 그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 찬양 받으셔야 한다. 그분은 그 백성에게만 그분의 율법과 언약을 허락하셨다. 어떤 민족도 그들처럼 은총을 입지 못했다. 이방인들은 그분의 규례의 수신자들이 아니었다.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분의 말씀의 보관자요 세상에 대한 그 전달통로로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사실로 인해(19,20절) 모세와 바울은 경탄하며 경배를 올렸다(신 4:8; 롬 3:2; 11:33).”<sup>35)</sup>

## 148편: 만물의 합창

나는 다양한 합창을 보고 들어왔으나 이와 같은 합창은 처음이다.

---

35) (147:19, 20) Williams, *Student's Commentary*, p. 148.

이것은 생물과 무생물을 망라한 모든 만물로 구성되었다. 온 우주가 층층이, 높이, 끊임없는 줄로 찬양대를 이룬다.

**148:1~6** 맨 위에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천군이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한다. 해와 달과 별이 그 다음이다. 그들의 역할은 천체의 음악을 지휘하는 것이다. 높은 하늘과 습기에 싸인 구름이 “높은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한다. 만물이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말씀으로 세계를 존재케 하신 분으로 높인다. 그분이 그분의 피조물에 영구성과 안정성을 부여하셨으며, 그 속에 변치 않는 법칙과 원리를 정해놓으셨다.

**148:7~8** 다음 순서는 큰 바다 짐승과 모든 충만한 어족이다. 그들도 그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 등이 그분의 말씀을 신속히 좇는 모습은 여호와께서 계절과 날씨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그것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148:9~10** 이어서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이 그 머리를 들고 우러러 경배한다. 열매를 맺고 목재에 쓸 나무를 내는 모든 나무들이 그 가치를 벌려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 들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새들이 모두 여호와의 지혜와 권능을 노래한다.

**148:11~12** 앞줄에는 인류의 큰 무리(왕들과 방백과 모든 정부 관리와 모든 일반 백성 등)가 있다. 남녀노소 모두 고개를 들고 입을 크게 벌려 여호와를 찬양한다.

**148:13~14** 이 대규모 찬양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찬양하고, 여호와를 비할 데 없는 영광을 지닌 분으로 찬양한다. 그리고 이 찬양에는 한가지 특별한 주제가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 여호와를 높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백성을 위해 한 뿔, 즉 메시아를 일으키셨다. 주 예수님의 재림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성도들이 그분을 찬양할 특별한 이유를 허락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찬양대 앞, 그분을 특별히 가까이 하는 위치에 서 있다. 회복된 그 민족을 통해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나간다. 그런 까닭에 찬양대가 한 소리로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 149편: 하나님의 존영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 부분(1~6절 상반절)에서는 성도들이 노래하고 있고, 뒷 부분(6절 하반절~9절)에서는 성도들이 다스리고 있다. 시간은 주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왕국을 시작하시는 때이다.

**149:1~3** 이스라엘이 부르는 새 노래는 창조와 구속과 다스림의 노래이다. 그들은 자연적 영적 세계를 지으신 주재요 그들의 영광스런 왕이 되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노래로만 아니라 춤으로도 그분을 찬양한다. 뭐라고? 신자들이 춤을 춘다고? 그렇다.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순전한 기쁨으로 춤을 춘다. 참된 영적인 기쁨과 경배의 표현으로서 춤은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오늘날 행해지는 춤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과 남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시편 기자는 춤을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만일 탬버린과 하프가 감정이 있다면 모두 여호와께 찬양을 올리려 성화할 것이다. 악기들은 너무도 종종 감각적인 쾌락의 도구로 전락한다. 그 적절한 사용은 좋지만, 그 남용은 매우 해롭다.

**149:4~6(상)** 왜 모두들 악기를 타며 즐거워하는가? 여호와께서 그분의 회복된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충성된 잔존자에게 승리의 회환을 허락하셨다. 대환란이 지나갔고 비가 그치고 햇살이 밝게 비추었다.

백성들이 영광의 왕과 연합될 때 그들의 것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할 많은 이유가 있다. 그들은 낮에 보좌에 앉을 때, 혹은 밤에 침상에 누울 때 즐거운 노래를 부를 모든 이유가 있다(5절의 ‘침상’은 보좌를 가리킬 수도 있다.) 그들의 모든 입술이 하나님의 존영으로 가득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모습이다.

**149:6(하)~8** 6절 중반에서 갑자기 내용이 바뀐다. 여기서 마지막까지는 공의를 집행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맡은 이스라엘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메시아의 재림시에 그 대적이 멸망당할 일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 심판은 주님께 의해 집행될 것이나,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심판을 집행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본문은 천년왕국 동안 열방의 머리 역할을 할 이스라엘의 위치를 가리키는 듯하다. 주 예수님은 그 기간에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다(계 2:27). 사도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것이다(마 19:28).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다스리는데 동참할 것이다(단 7:22).

이처럼 성도들이 그 손에 두 날 가진 칼을 쥐고 필요할 때마다 민족들에게 보수와 징벌을 행할 것이다. 반역적인 왕들과 귀인들은 사슬과 쇠고랑에 결박될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인 의와 철저한 공의의

통치가 될 것이다.

**149:9** 모든 불복종과 반역이 신속히 징벌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그 날에 이스라엘의 영예로운 역할이다.

물론 신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장래 통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6:2,3에서 볼 수 있다.

### **150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장려한 마지막 시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서 본연의 참 목적을 발견하라고 만물에게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이 시점에 적합하겠는가? 이 시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가?”라는 찬양이란 주제에 대한 네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인간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서 자신의 존재의 주된 이유를 발견한다. 웨스트민스트 소 요리문답에 간략히 표현된 대로,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150:1** 그러나 어디서 경배해야 하나? 그분의 성소와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 어디서나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예배가 불가능한 곳이란 아무 곳도 없다.

**150:2** 그리고 무엇을 경배해야 하나?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분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그러나 그분의 지극한 광대하심을 ‘인해서’

(for)만 아니라 그분의 지극한 광대하심을 ‘좃아’(according to) 해야 한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의 영광을 말하는데 있어 냉랭하다는 것은 최악이다.

**150:3~5** 어떻게 경배해야 하나? 모든 악기를 총동원한 합주로 해야 한다. 웅장하고 당당한 나팔과, 감미롭고 목가적인 비파와, 부드럽고 은은한 수금과, 경쾌하고 자유로운 춤이 곁들인 소고와, 첼로, 콘트라베이스, 바이올린, 만돌린, 기타 등 가능한 모든 현악기를 동원하여 위대하신 왕을 높여야 한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등 관악기 중 어느 하나도 이 놀라운 합주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타악기로, 특히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큰 아멘 소리에 맞춰 크게 울리자.

**150:6** 그러나 “그것은 누가?”라는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누가 경배해야 하나? 그 답은 물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이다. 세상 모든 소리로 이뤄진 대규모 합창대에 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원히 찬양 올리는데 참여하라는 신호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 참고문헌은 ‘시가서(1) 시편’ 을 참고하라.

# 잠 언

# 잠언 서론

“잠언은 사진첩이나 예절규범이 아니다. 잠언은 삶의 열쇠를 제시한다. 잠언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들은 ‘그것은 지혜로운가, 아니면 어리석은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는 한가지 기준으로 평가된다”(데릭 키드너).

##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잠언은 오늘날처럼 현대적이다. 그것은 우리들 각자가 직면해야 하는 삶의 문제들을 다룬다.

만일 성경 중 어떤 책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빛을 비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책이 그러할 것이다.

“어떤 청년이 잠언서에는 아무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하자 카알 라일이 대답했다. ‘잠언을 몇 가지만 지어보게나. 그러면 이 책이 달라 보일 걸세.’”<sup>1)</sup>

잠언은 젊은이들로 어른들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들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기록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건전하고 정화된 상식의 집대성이다.

잠언의 목적은 1:1~7에 밝혀져 있다. 요약해서 그것은, 젊은이에게 지혜와 지각을 주어 인생의 참된 축복을 발견하고 죄악의 울무와 수렁을 피하게 하는 것이다. 중심 구절은 9:10이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

1) (서론) D. L. 무디의 *Notes from My Bible*, p. 81에서 인용.



아르논은 이 책을 가리켜 “지상의 삶을 위한 하늘의 법”이라고 했다.<sup>2)</sup> 이것은 잠언의 내용을 매우 간략히 요약해준다.

잠언은 종종 기억하기 쉽도록 해학적으로 표현된, 지혜에 대한 간결한 진술이다. 잠언의 대부분은 유사점이나 대조점을 보여주는 두 문장으로 구성된다.

잠언은 다음과 같이 그 부류가 다양하다.

(1) 어떤 것은 단순한 사실을 표현하는 단일한 진술이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16:7)

(2) 어떤 것은 한가지를 다른 것과 비교한 두 문장 내지 문구로 구성된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25:25).

(3) 어떤 것은 “그러나”로 흔히 연결된,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묘사하는 두 문장 내지 문구로 구성된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10:7).

이런 형태는 주로 10~15장에서 발견된다.

(4) 어떤 것은 같은 개념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표현한 두 문장 내지 문구로 구성된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23:27).

## 2. 기자

이 책은 대부분 교훈이 그 지혜로운 왕에 의해 기록된 까닭에 “솔

---

2) (서론) 아르논은 본문을 그의 잠언주석 제목으로 사용한다(참고문헌을 보라).

로몬의 잠언”으로 불리운다(1:1; 10:1; 25:1). 열왕기상 4:32은 솔로몬이 3천 편의 잠언을 지었다고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 넣으사 성경이 되게 하신 수백 편이 여기에 있다.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을 포함한다고 밝혀져 있다(30:1). 31장은 “르무엘 왕의 말씀”이라고 소개되어 있다(31:1). 이 두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는 오늘날 아는바가 없다. 어떤 이들은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들이었다고 생각한다.

### 3. 연대

잠언 25:1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의 한 부분을 편집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책의 최종 형태는 적어도 B.C. 700년 경의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솔로몬의 저술활동은 B.C. 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만일 아굴과 르무엘이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시적인 이름이 아니며, 그들이 B.C. 900년 이전이나 B.C. 700년 이후에 산사람들이라면 편집연대를 좀더 멀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4. 배경 및 주제

솔로몬과 몇몇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이 극히 시적인 잠언서는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 책은 광범위한 주제들(아이를 징계하는 것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까지)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종종, 적어도 요약된 형태로, 여기서 발견되지 않는 진리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된다. 이 책은 음주, 할부구입, 청소년 범죄, 노동문제 등에 대해 말해준다. 우리는 여기서 말이 많은 여자와 교만한 사람과 자기 잘못을 지적 받기 싫어하는 사람과 이상적인 여인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이 여기서 의인화(擬人化)

된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 책의 이상적인 요소들은 그분에 대해 말해주는가 하면, 그 부정적인 요소들은 그분의 도움을 호소한다”(Daily Notes에서 인용).

잠언은 내용을 개괄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은 동작을 묘사한 그림처럼 어떤 일관된 생각을 제시하는 대신 여러 가지 색깔의 모자이크처럼 날개의 그림들을 제시해준다.

이 책을 연구하면 여러 면에서 야고보서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 한가지 가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항목에서 격언의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다.

- (1) 성경 자체에서      (2) 역사에서
- (3) 전기(傳記)에서      (4) 문학작품에서
- (5) 자연에서      (6) 신문이나 잡지에서
- (7) 라디오나 TV에서      (8)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어떤 잠언은 ‘절대적인 진리’를 말해주는 한편 어떤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이나 여기저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여호와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항상 진리이지만(18:10),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17:17).

본 ‘신자 성경주석’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해당하는 본문을 먼저 읽기를 바란다. 관련된 구절을 읽지 않는다면 본서의 여러 가지 설명이 하등 의미가 없을 것이다.

## 잠언의 주제별 분류

### 여호와

경의함(1:7,29; 2:5; 8:13; 9:10; 10:27; 14:26,27; 15:16,33; 16:6; 19:

23; 22:4; 23:17; 24:21; 28:14)  
 보호(15:25; 18:10)  
 부자와 가난한 자(10:15; 13:7,8; 14:20,21,31; 15:16; 17:1,5; 18:23;  
 19:1,4,17; 21:13; 22:2,7,16,22,23; 28:3,6,11,27; 29:7,13)  
 신뢰(3:25,26)  
 심판과 공의(15:25; 17:3; 21:2; 29:26)  
 응답된 기도(15:8,29)  
 의지함(29:25)  
 인도하심(3:5,6; 16:3,9)  
 전지하심(15:11; 16:2)  
 주권과 능력(16:1,7,9,33; 19:21; 20:24; 21:30,31; 22:12)  
 지혜의 근원(2:6~8)  
 징계(3:11,12)  
 창조(3:19,20; 16:4; 20:12; 22:2; 29:13)  
 축복(10:22)  
 편재하심(15:3)

### 부모의 역할

부모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1:8,9; 6:20,22; 13:1,19~26; 20:20; 23:  
 22; 30:17)  
 부모의 충고(1:8~19; 2:1~22; 3:1~55; 4:1~27; 5:1~23; 6:1~35;  
 7:1~27; 23:19~35; 24:4~22; 31:1~9)  
 자녀 교육 입문(13:24; 19:18; 22:6,15; 23:13,14; 29:15,17)

### 언어생활

거짓말, 속이는 말(6:17; 10:18; 12:19,22; 14:25; 17:4; 26:18,19,23~  
 26,28)

거친 말(15:1)  
 급한 말(18:13; 29:20)  
 만족을 주는 말(12:14; 18:20)  
 많은 말(10:19; 13:3)  
 무가치한 말(14:23)  
 방해하는 말(27:14)  
 비방하는 말(10:18; 30:10)  
 사려 깊은 말(15:28)  
 선한 말(10:20,22; 16:21,23,24; 23:16)  
 아침(20:19; 26:28; 28:23; 29:5)  
 악한 말(12:13; 15:28)  
 어리석은 말(12:23; 14:3,7; 15:2; 18:6,7)  
 왜곡된 말(4:24; 10:31,32; 15:4; 17:20)  
 인자한 말(15:1,4)  
 정직한 말(12:19; 13:5)  
 제어된 말(10:10; 11:12,13; 12:23; 13:3; 17:27,28; 21:23)  
 지혜로운 말(10:31; 14:3; 15:2; 18:4)  
 진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6:19; 12:17; 14:5,25; 19:5,9,28; 21:28; 25:  
 18)  
 치유를 주는 말(12:18; 15:4; 16:24; 18:21)  
 한담(11:13; 16:28; 17:9; 18:8; 20:19; 22:22; 26:10,22~26,28)  
 합당치 않은 말(17:7)  
 합당한 말(15:23; 25:11)  
 해로운 말(11:9,11; 12:18; 15:4; 16:27; 18:21; 26:18,19)  
 험뜯는 말(11:12)  
 험담(25:23)

기타 주제

가르침을 잘 받음(1:5; 9:7~9; 10:17; 12:1,15; 13:1,10,18; 15:5,10,  
12,31,32; 17:10; 19:20,25; 21:11; 25:12; 27:5,6; 28:23; 29:1)

가증한 것—여호와께(3:32; 6:16; 8:7; 11:1,20; 12:22; 15:8,9,26;  
16:5; 17:15; 20:10,23; 21:27; 28:9)

—다른 사람에게(13:19; 16:12; 24:9; 26:25; 29:27)

거짓된 저울과 추(11:1; 16:11; 20:10,23)

게으름뱅이(6:6~11; 10:26; 15:19; 18:9; 19:15,24; 20:4,13; 21:25;  
22:13; 24:30~34; 26:13~16)

교만과 겸손(3:34; 8:13; 11:2; 15:33; 16:5,18,19; 18:12; 22:4; 29:23)

구령(救靈)(11:30; 24:11,12)

근면한 사람(21:5; 22:29; 27:18,23~27; 28:19)

근면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10:4,5; 12:24,27; 13:4)

기질과 자기 절제(23:1~3; 25:28)

꿀(16:24; 24:13; 25:16,27; 27:7)

노인(16:31; 17:6; 20:29)

다른 사람에게서 안내와 조언을 얻는 지혜(11:14; 12:15; 15:22; 20:  
18; 24:6)

말씀과 순종(13:13,14; 16:20; 19:16; 28:4,7,9; 29:18; 30:5,6)

보증(6:1~5; 11:15; 17:18; 20:16; 22:26,27; 27:13)

부지런함(12:9,11; 14:4,23)

분쟁과 다툼(10:12; 12:18; 13:10; 15:1~4,18; 16:27,28; 18:6~8; 21:  
9,19; 28:25)

불공평(18:5; 24:23~25; 28:21)

비웃는 자(3:24; 9:7,8,12; 13:1; 14:6; 15:12; 19:25; 21:11,24; 22:10;  
24:9; 29:8)

빌려움과 빌려줌(22:7)

성냄과 참음(14:17,29; 15:18; 16:32; 19:11)  
 술(20:1; 21:17; 23:20,21,29~35; 31:4~7)  
 시기(3:31; 14:30; 23:17; 24:1,19; 27:4)  
 옛 지계석(22:28; 23:10,11)  
 왕 또는 통치자(14:28,35; 16:10,12~15; 19:12; 20:2,8,26,28; 21:1;  
 22:11,29; 23:1; 24:21,22; 25:2~7,15; 28:15,16; 29:2,4,12,14,26;  
 30:31; 31:4,5)  
 원수(16:7; 24:17; 24:1,19; 27:4)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의 상호관계(3:1,2,7,8,16; 4:10,22; 9:11;  
 13:12; 14:30; 15:13,30; 16:24; 17:22; 18:14; 27:9)  
 의인과 악인의 대조(3:32,33; 10:3,6,7,9,11,16,24,25,28~32; 11:3~  
 11,17~21,23,27,31; 12:2,3,5~8,12~14,20,21,26,28; 13:2,5,6,9,21,  
 25; 14:2,9,11,14,22,32; 15:8,9,26; 24:15,16; 28:1,12)  
 의인화된 지혜(1:20~33; 8:1~36; 9:1~6; 14:1; 16:16,22; 19:23)  
 정의와 불의(13:23; 17:15,26; 18:5; 21:15; 22:8,16; 24:23,24)  
 제비뽑기(16:33; 18:18)  
 종과 노예(14:35; 17:2; 19:10; 29:19,21)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3:35; 10:8,13,14,23; 12:15,16,23;  
 13:16; 14:3,8,15,16,18,19,24,33; 15:7,14,20,21; 17:11,12,16,21,24,  
 25,28; 18:2,6~8; 29:8,9,11)  
 친구, 이웃, 우정(3:27~29; 6:1~5; 11:12; 12:26; 14:21; 16:28; 17:9,  
 17; 18:17,24; 21:10; 22:24,25; 24:17,19; 25:8,9,17,20,21,22; 26:18,  
 19; 27:6,9,10,14,17; 28:23; 29:5)  
 평판(10:7; 22:1)

## 부(富)

고통이 따르는 소득(15:6,16,17; 16:8; 17:1)

그 한정된 가치(11:4)

급하게 얻은 재물(13:11; 20:21; 28:20,22)

덧없음(23:4,5; 27:24)

보호(10:15; 13:8; 18:11)

부지런함으로 얻음(11:16)

부한 채함(13:7)

불의하게 얻은 재물(10:2; 13:22; 15:6; 20:17; 21:6; 28:8)

상속(19:14)

선물과 뇌물(15:27; 17:8,23; 18:16; 19:6; 21:14; 25:14; 29:4)

정직하게 얻음(10:16)

지혜보다 가치가 떨어짐(16:16)

칭지기직과 관대함(3:9,10,27,28; 11:24~26; 19:6; 21:26; 22:9; 28:27)

친구가 생김(19:4,6)

## 악한 여인

악한 여인 또는 음녀(2:16~19; 5:3~23; 6:24~35; 7:5~27; 9:13~18; 22:14; 23:27,28; 30:20)

## 기타 여인들

꺼림을 받는 여인(30:23)

다투는 여인(19:13; 21:9,19; 25:24; 27:15,16)

삼가지 않은 아름다운 여인(11:22)

슬기로운 아내(19:14)

어진 아내(12:4; 18:22; 31:10~31)

유덕한 여인(11:16)

젊은이의 아내(5:18,19)



## 5. 개요

1. 서론(1:1~7)
2.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솔로몬의 잠언(1:8~9:18)
  - 1) 지혜의 권고(1:8~33)
  - 2) 지혜의 길(2장)
  - 3) 지혜의 보상(3:1~10)
  - 4) 상급으로서의 지혜(3:11~20)
  - 5) 지혜의 실행(3:21~35)
  - 6) 가정의 보화인 지혜(4:1~9)
  - 7) 지혜와 두 길(4:10~27)
  - 8) 부도덕함의 어리석음(5장)
  - 9) 보증, 게으름, 속임의 어리석음(6:1~19)
  - 10) 간음과 음행의 어리석음(6:20~7:27)
  - 11) 의인화된 지혜(8장)
  - 12) 지혜와 어리석음의 초청(9:1~18)
3. 실제적인 도덕성에 관한 솔로몬의 잠언(10:1~22:16)
  - 1) 의로운 삶과 불의한 삶의 대조(10:1~15:33)
  - 2) 의로운 삶에 대한 격려(16:1~22:16)
4. 지혜로운 사람에 관한 잠언(22:17~24:34)
  - 1) 지혜로운 사람의 교훈(22:17~24:22)
  - 2) 지혜로운 사람에 관한 추가적인 교훈(24:23~34)
5.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25:1~29:27)
6. 아굴의 교훈(30장)
7. 르무엘 왕의 모친이 르무엘을 훈계한 잠언(31:1~9)
8. 이상적인 아내와 어머니(31:10~31)

# 잠언 주해

## 1. 서론(1:1~7)

**1: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열왕 중 가장 지혜롭고 부하고 가장 존귀한 왕이었다(왕상 3:12,13; 4:30,31). 그는 3천 편의 잠언을 지었으나 그 중 일부만 이 책에 보존되었다. 1:1에서 29:27까지가 그 내용이다.

**1:2~3** 2~6절은 왜 그가 이 잠언을 썼는지 이유를 말해준다. 간단히 말해서, 이 잠언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를 제공해준다. 여기서 사람들은 분별력을 배우고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훈계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선한 것과 악한 것,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유용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것 안에서 양육 받는다.

**1:4** 이 잠언에 귀기울임으로써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우며 혹은 ‘지각’을 개발시키고, 젊은이는 통찰력과 정화된 지식을 얻는다.

**1:5** 지혜로운 자는 이 잠언에 주의함으로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며, 명철한 자는 스스로를 지도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젊은이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처음부터 “지혜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라고 선언한 것은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그것이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지혜 있는 자는 가르침을 잘 받는 자이다. 그는 말을 하는 대신 기꺼이 듣고자 한다. 그는 다 아는 체하는 허풍쟁이가 아니다.

**1:6** 이 책은 잠언과 비유, 즉 종종 이면에 숨겨진 교훈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책은 지혜로운 말과 그 속에 숨겨진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1:7** 이제 우리는 이 책의 중심 구절에 이른다(9:10도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 혹은 주요 부분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피조물이 그 창조자를 의뢰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 무엇이겠는가?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무엇이 더 비논리적이겠는가? 사람이 행할 지혜로운 일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몸과 마음을 다해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책에서 지혜 있는 자가 기꺼이,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듯이, 미련한 자는 아무 얘기도 들려줄 수 없는 자이다. 그는 잘못을 교정 받으려 하지 않으며 자만에 빠졌으며, 혹 교훈을 받되 힘든 과정을 겪은 후에야 받는다.

## **2.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솔로몬의 잠언(1:8 ~9:18)**

### **1) 지혜의 권고(1:8~33)**

**1:8** 1~7장은 주로 “내 아들”에게 주어진 교훈으로 그 표현이 15

회 가량 나온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식의 삶에 최선을 원하는 부모의 마음의 호소를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충고에 주의함으로써 어린 자녀는 삶의 덫을 피하고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지혜를 개발하게 된다.

우리는 경건한 부모, 특히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력에 얼마나 많은 빛을 지고 있는지! 헨리 보우쉬는 다음 사실을 일깨워준다.

“과거의 많은 위인들은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것에서 크나큰 축복을 받았다. 모세, 사무엘, 디모테를 생각해보라.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경험한 어머니의 돌봄과 경건한 영향력이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어거스틴, 존 뉴턴, 웨슬리 형제를 생각해보라. 사랑의 법과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매일의 지침과 감동으로 체험되는 현장인 가정에서 그들을 양육한 경건한 여인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들의 이름은 결코 역사의 페이지를 밝혀주지 못했을 것이다.”<sup>3)</sup>

**1:9** 부모의 훈계를 따를 때 그것은 머리의 아름다운 관과 목의 금사슬이 되는데, 이것은 순종이 지혜 있는 아들의 삶에 영예와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10** 종종 젊은이의 삶을 볼 때 “악한 무리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그 과정이 10~19절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먼저 경고의 깃발이 펄럭인다. 인생은 악의 유혹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안돼”라고 1주일에 1천 번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조가 있어야 한다.

**1:11** 여기에 거리의 불량배가 우리의 어린 친구를 무장강도단에

---

3)(1:8) Henry Bosch, ed., *Our Daily Bread*.

들어오라고 권한다. 필요하다면 그들은 희생자를 죽일 수도 있다. 우리 친구는 그 거친 친구들이 자기를 갱단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에 우쭐할 수도 있다.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그들이 부추긴다. 그리고 뭔가 매력적인 것이 그의 마음을 끌 수 있다.

**1:12** 아마 그는 집안에 갇힌 생활에 싫증을 느끼고 뭔가 ‘신나는’ 일을 벌리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여기 멋진 일이 있다! 완전 범죄! 갑작스런 타살에 의한 죽음, 그리고 신속한 증거인멸, 그리고 하룻밤에 벼락부자가 된다고 한다! 함께 한 모든 동료의 집마다 훔친 물건으로 가득할 것이다. 유혹의 소리를 들어보라. “함께 가자. 그러면 거금을 손에 질 거야. 모두 똑같이 나눠 가질 거야. 넌 틀림없이 성공할 걸.”

**1:15~16** 그러나 지혜로운 소리가 이렇게 말한다. “내 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가능한 한 그들을 멀리 하라. 벼락부자를 꿈꾸는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 넌 성공할 수 없다.”

“그 친구들은 항상 최악된 삶을 추구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라는 것을 너는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살인에 살인을 계속 저지른다.”

**1:17~18** 새는 눈에 띄는 그물이나 올무를 피할 수 있는 감각이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해할 올무를 놓고는 그리로 곧장 들어간다.

**1:19** 이 이야기에는 교훈이 들어있다. 속히 부하려 하는 자들은 탐욕의 대가로 자신의 삶을 지불하게 된다.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본문은 폭력으로 부유해지려는 시도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의 폭은 넓다. 도박이든 경마든 주식투자든 속히 부해지려는 일체의 시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부르는 두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는 지혜의 음성이고, 하나는 이방 여인의 음성이다. 지혜는 여기에 여인으로 묘사되었지만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sup>4)</sup> 이방 여인은 죄의 유혹과 불경건한 세상을 상징한다.

20~23절에서 지혜는 어리석게도 그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변론을 한다.

**1:20** 지혜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서서 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보라. 그녀는 성읍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1:21** 이제 그녀는 소란한 교차로와 성문 어귀에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서서 인류에게 소리를 높이신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인류와 족속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온갖 이기적인 다툼의 소리 너머로

당신의 음성, 인자의 음성을 듣네!” (프랭크 메이슨 노쓰)

**1:22**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에게 외친다. ‘어리석은 자’는 선악간에 온갖 종류의 영향을 쉽게 받아들이는 순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불안정함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 ‘거만한 자’는 현명한 충고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진지하거나 심각하지 않다. ‘미련한 자’는 가르침을 함부로 거절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만만하며 그들의 무

---

4) (1:19) 지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호크마)는 여성명사이므로 여기서 이 덕목을 여자로 의인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를 고집한다.

**1:23** 이 구절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이런 뜻일 수 있다.

“네가 내 초청을 듣지 않으므로 이제 돌이켜 내 책망을 들으라. 내가 심판의 말로 내 신을 부어줄 것이요, 네 앞에 놓은 일을 알려주리라.”

이 해석에 의하면 24~27절은 그들의 운명을 묘사하는 말이다. 둘째 의미는 이러하다.

“내가 너를 꾸짖을 때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축복으로 내 신을 네게 부을 것이며 내 지혜의 말을 네게 알려주리라.”

여기에 나오는 ‘신(神)’이란 단어는 아마도 ‘생각’ 혹은 ‘마음’을 뜻할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명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그 진리는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보다 분명히 밝혀져 있다.

**1:24** 인생의 최대 비극 중 하나는 지혜의 은혜로운 간청을 어리석게 거절하는 것이다. 그것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어진 기회를 상실한 이스라엘의 비극을 슬퍼하시던 주님의 탄식을 생각나게 한다. “내가…하려 했지만…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1:25** 지혜가 자신의 모든 훈계를 멸시하고 자신의 건설적인 비판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 슬퍼한다.

인간의 완고한 거절이 그토록 불합리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D. G. 반하우스가 들려준 일화가 그 좋은 사례이다. 한 꼬마아이가 워싱턴 동물원에서 관람객들을 사자 우리에서 6피트 떨어지게 한

난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나오라고 소리 치자 아이는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쳤다. 그러자 뒤에서 기다리던 사자가 그 아이를 덮쳐 우리로 끌고 가서는 갈기갈기 찢고 말았다. 반 하우스에 의하면 본문의 교훈은 이러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명령과 원리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그분이 독단적이거나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 자신의 위치나 절대권리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니라 그분 앞에 다른 것을 두면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을 친히 아시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사실 배후에 있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도 이해할 수 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히 12:6). 그분은 우리가 사자에게로 물러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 주위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sup>5)</sup>

**1:26** 만일 사람이 계속해서 듣기를 거절한다면 그러한 거절이 반드시 재난과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그 때 지혜가 그를 조롱할 것이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것이 이곳과 시편 2:4에 나온대로, 재난이 불경건한 자에게 임할 때에 실제로 주께서 비웃으신다는 의미인가? 이 비웃음을 잔인함이나 악의나 복수심을 조금이라도 내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답은 분명히 “아니다”이다. 우리는 그 웃음을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생각해야 한다. 일개 인간이 전능하신 대주재를 무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이없고 우스꽝스런 일인가? 마치 모기가 펄펄 끓는 풀무

---

5) (1:25) Donald Grey Barnhouse, *Words Fittly Spoken*, p. 239.



불을 무시하는 셈이 아닌가? 또한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지혜의 명령을 비웃거나 그것을 없는 것처럼 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여전히 그 명령은 요동치 않고 서 있으며, 적어도 그 비웃은 사람에게는 그 명령이 마지막 비웃음을 선사할 수 있다. 정의의 비웃음을 말이다.

**1:27** 회계할 날이 확실히 올 것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심판이 광풍처럼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재난이 폭풍처럼 몰아칠 것이다. 근심과 슬픔과 충격과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1:28** 그 때 사람들은 헛되이 지혜를 부를 것이다. 필사적으로 지혜를 찾을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다. 빛을 거절하면 그 빛이 그들을 거절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보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神)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을 것이다(창 6:3). 그런 까닭에 복음의 호소는 긴박한 초청인 것이다.

“때를 놓치지 마세!

때를 놓치지 마세!

예수님의 음성이 당신을 부르는 동안

때를 놓치지 마세!

죄 가운데 더 오래 있으면

곧 문이 닫히고

당신의 호소는 너무 늦고 말리.

때를 놓치지 마세!” (저자 미상, 19세기)

**1:29** 이 비웃는 자들에 대한 정죄는, 지혜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완고하게 거절했다는 것이다. 아마 그들은 복음

이 여자나 아이들에게는 어울리지만 자기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다고 비웃었을 것이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롬 1:22). 지혜에 대한 미움은 요한복음 3:19~21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1:30**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선한 교훈을 그들의 삶에 일절 적용치 않았으며, 성경이 그들의 불경건한 말과 행실을 정죄할 때 비웃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31** 이제 그들은 그들의 악함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그들의 계략의 악한 열매로 그 배를 채울 것이다. 그것은 지혜의 잘못이 아닌 그들 자신의 잘못이다.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1:32** “부주의한 자들은 그들의 자기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분별한 자들은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멸망한다”(Moffatt).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자유는 있으나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택할 자유는 없다. 하나님은 세상에 일정한 도덕적인 원리를 정해놓으셨다. 그 원리가 모든 선택의 결과를 주관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데 결합시키신 것을 따로 떼어놓을 방법은 없다.

**1:33** 반면에 지혜에 주의하는 자는 안전히, 또한 두려움 없이 살 것이다. 지혜의 제자된 자들은 완고한 자와 불의한 자의 뒤를 따라다니는 고난과 슬픔과 수치가 없는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

## 2) 지혜의 길(2장)

2장에서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지혜의 길로 행하라고 권고한다. 1~4절은 하나님을 이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즉, 전심으로 그것을 찾고 찾아야 한다. 그리고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은 지혜와 명철을 줄 것이라고 약속한다. 전체 22구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22문자와 일치한다.

**2:1** 먼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그의 계명을 간직하려고 아들에게 권한다. 잠언은 ‘네 속에’ 간직되기 위해서, 혹은 기억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2:2** 반드시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들은 주의 깊게 듣는 자가 되어야지 제멋대로 얘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현대의 대부분 상담처럼 자신의 문제를 마구 얘기하도록 격려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의 현명한 조언에 귀기울여야 한다.

**2:3~4** 만일 그가 진정 관심이 있다면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고자 소리를 높여야 한다. 목표에 진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삶의 법칙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은을 구하고 숨은 보물을 찾을 때와 같은 동일한 마음의 추구이다. 우리의 비극은, 너무도 종종 사람들이 영적인 부요보다 물질적인 부요를 얻는데 더 열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2:5** 그러나 찾는 자들은 반드시 얻는다. 주님과와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진정 알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미 그분을 발견한 것이라고 초대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이 말한 것도 그 까닭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이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신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

는 것이다.

**2:6**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주님에게서 신령한 지혜를 배우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분은 우리에게 바르게 생각하는 법과 가치를 평가하는 법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법과 신령한 통찰력을 개발하는 법을 가르쳐주신다.

**2:7** 그분은 정직한 자를 위해 온전한 지혜를 풍성히 예비하시며, 성실히 행하는 자를 위해 특별한 보호의 방패를 예비하신다.

**2:8** 그분은 정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자들의 길을 보호하신다. 그분의 성도들은 죄 뒤에 남는 고통과 쓰라림을 피해간다. “하나님의 택한 친구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입한다”(Knox).

**2:9** 이 구절은 5절과 유사하다. 둘 다 “그러면”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의 유익을 열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소원하는 자는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히 행하는, 다시 말해서 의로운 길과 모든 선한 길을 택하는 법을 알게 된다.

**2:10** 그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지혜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의로운 것을 아는 지식이 불쾌한 것이 아닌 즐거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참된 신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지루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2:11** 근신(discretion), 혹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사람을 여러 가지 “악한 울무”에서 구원한다. 건전한 판단은 우리를 악한

무리와 동류가 되는데서 구원한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 도덕적, 육체적인 위험에서 날마다 보존되는지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 철저히 보호 받는 삶을 누리고 있다.

**2:12** 우리는 악인과 동류가 되는데서(12~15절), 그리고 패역한 여자의 유혹의 손길에서(16~19절) 건짐 받았다.

먼저 우리는 사실을 곡해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그들의 말은 전혀 믿을 가치가 없다.

**2:13~15** 그들은 정직함의 밝은 길을 떠나 범죄와 패역함의 어두운 길로 들어간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서 야만적인 기쁨을 취하고, 죄악으로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리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구부러진 길로 다니며 그들의 행위는 어리석고 패역하다.

**2:16** 지혜는 그러한 사람들로만이 아니라 부도덕한 여자의 유혹으로부터도 건져준다. 이 여자는 문자 그대로의 창기로 이해할 수도 있고, 거짓 종교나 불경건한 세상에 대한 비유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녀는 아첨하는 말로 유혹한다. “당신은 집에서는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어, 당신은 잘생겼고 재능도 뛰어나. 당신은 매력이 풍부해. 당신은 사랑과 동정이 필요해. 내가 바로 그것을 채워줄게.”

**2:17** 그녀는 “소시의 짝”, 즉 그녀의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녀의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서약을 잊어버렸다. 혹은 “그녀의 하나님의 언약”은 십계명과, 특별히 간음을 금하는 제7계명을 가리킬 수도 있다.

**2:18** 18절 첫 문장은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내려간다” 혹은 “그녀는 자기 집인 사망으로 빠져든다”(RV 난하주)로 옮겨질 수도 있다. 이어지는 둘째 문장은 NKJV의 번역을 지지하는 듯 보인다. 그 둘을 결합하면 그 뜻은,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내려가며”, 따라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은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길은 “죽은 자에게”(우리말 성경은 “음부로”로 되어 있음-역주) 이르며, 따라서 그녀를 좇는 자들은 곧 분리된 영들이 모인 곳에 있게 된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 다 죽게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모든 인생의 공통된 운명 이상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그것은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도덕적인 사망을 의미할 것이다.

**2:19** 일단 그녀에게 유혹을 당하면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구절은 사실상 빠져나올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진술들은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일단 그녀의 유혹에 말려들면 바른 길로 되돌아오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2:20** 본절은 11절과 연결시켜 보라. 지혜는 악한 자와 이방 여인에게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신실하고 정직한 자들과 사귀도록 격려해준다.

**2:21~22** 모세 율법 아래서는 정직한 자와 완전한(책망할 것이 없는) 지는 가나안 땅의 안전한 곳을 보상으로 받았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러한 지상의 물질적인 축복이 천상의 영적인 축복으로 바뀐다. 하지만 의로움과 근신함이 내세뿐 아니라 이생에서도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악인이 축복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도 동일하게 사실이다. 거역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영원한 기업이 없다.

### 3) 지혜의 상급(3:1~10)

**3:1** 모든 인자한 부모처럼 지혜는 그 자녀에게 최선을 원한다. 그녀는 그 최선이 오직 그녀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성경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여기서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게 마음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간곡히 당부한다.

**3:2**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오래 살고 또 보다 나은 삶을 산다. 부모의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질병과 사고와 비극과 이른 죽음을 맞는다. 이 구절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를 약속하는 제5계명에 부합한다(출 20:12). 제이 아담스는 이렇게 말한다.

“오랜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온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악한 양심은 몸을 망가뜨린다. 선한 양심은 장수와 몸의 건강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의 몸의 행복은 상당 부분 영혼의 행복에서 온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육체의 상태가 서로 정신신체학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원리이다.”<sup>6)</sup>

**3:3~4** 인자와 진리는 외적인 행동에서 나타나야 하며(“네 목에 매며”) 또한 내적인 삶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혹은 ‘성공’, AV난하주)을 받는 길이다. 만족을 주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삶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

6) (3:2) Jay Adams, *Competent to Counsel*, p. 125.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일으킨다. 그에 대한 최고의 답이 다음 두 구절에 주어져 있다.

**3:5** 먼저 우리 자신(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도를 위해서도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그것은 주저함 없는 의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세가 따라야 한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지 못하며 우리 자신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렇게 적절히 표현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렘 10:23).

**3:6** 끝으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지배에 맡겨져야 한다. 우리 자신의 뜻은 일절 없어야 하고, 오직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려는 순전한 열망만이 있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되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통해, 상황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 성령의 내적인 평안을 통해, 혹은 그 모든 것들의 결합을 통해 그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면 그분은,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불순종이 될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인도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3:7~8** 자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관한 한 우리를 ‘정지상태’에 머무르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 “만사



가 형통”하게 된다. 그것은 몸에 건강을, 뼈에 힘(문자적으로 ‘음료’ 혹은 ‘생기’)을 준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인간의 도덕적 영적 상태와 육체적 건강과의 밀접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두려움, 슬픔, 시기, 분노, 증오, 죄책감 등의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인간의 질병의 60% 이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알코올(간경화증), 담배(폐 기종(氣腫), 암, 심장질환), 문란한 성생활(성병, 에이즈) 등이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를 보라.

6절의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문자적으로는 “그리하면 네 길을 평탄하게 혹은 곧게 해주시리라”이다.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의학 분야에 있어 시대를 앞서 갔다.

**3:9**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받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우리의 소유에 대해 청지기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그 관리를 책임 맡은 청지기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한 생활수준을 택하고 그 이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드리고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데이빗 리빙스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만 바라보겠노라고 결심을 해야 한다.

**3:10** 구약에서 너그러운 유대인은 곳간이 가득하고 포도즙이 넘쳐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물론 우리의 축복은 보다 영적인 성격의 것이긴 하나, 우리가 주님께 아무리 드려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 4) 보상으로서의 지혜(3:11~20)

**3:11~12** 또한 우리는 그분의 징계에 굴복함으로써 주님을 인정

할 수 있다. 너무도 종종 우리는 징계를 징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징계는 가르침, 경계, 격려, 충고, 교정, 징책 등 자녀에 대한 합당한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거나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그것을 피하거나 그로 인해 좌절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징계로부터 최선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우리의 삶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징계는 분노가 아닌 사랑의 증거이다. 교정은 아들 됨의 증거이다 (히 12:6~8). 정원사는 잡초가 아닌 포도나무를 가지친다.

**3:13** 지혜를 얻는 자는 복있는 자이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그리스도 자신을 비유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그러하다. 이어지는 구절들에 그리스도를 삼입하고 다시 한 번 읽어보라.

**3:14** 주 예수님을 아는 축복은 은과 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훨씬 초월한다. 그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주신다.

“은이나 금보다 예수님을 택하리.

부귀를 소유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쪽을 택하리.

집이나 땅보다 예수님을 택하리.

대국의 왕이 되어 최악의 무서운 지배를 받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이끌림 받으리.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택하리.” (조지 비버리 서)

**3:15** 그분은 진주나 어떤 보석보다 귀하며, 세상의 어떤 상급보다

더 사모할만하다.

**3:16** 그분은 한 손으로는 장수, 즉 영생을 주시고, 한 손으로는 영적인 부귀를 주신다.

**3:17** 그분의 모든 길은 즐거운 길이며, 그분의 모든 첩경은 평강이다. “그분이 인도하실 때는 여행이 즐겁고, 그분이 길을 가리킬 때는 모든 것이 평강이다”(Knox).

**3:18** 그분을 가진 자들에게 그분은 그 열매가 가치 있는 생명인 나무와 같다. 그분 가까이 머무는 자는 복있는 자이다.

**3:19~20** 이 두 구절은 창조와 심판과 섭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묘사한다. 창조에 있어서 그분은 땅을 세우고 하늘을 굳게 펴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홍수시에 깊은 샘들을 여셨다. 그리고 섭리로써, 그분은 바다에서 물을 끌어올려 구름이 되게 하신 다음, 비를 땅에 내리사 다시 그 물을 흡수하신다.

그러면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인가? 그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이다(요 1:3; 골 1:16; 히 1:2).

## 5) 실천에 옮겨진 지혜(3:21~35)

**3:21** 우주를 창조하고 지탱하시는 지혜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놀라운 특권이다. 우리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

**3:22~24** 그것은 내적인 활력(“영혼의 생명”)과 외적인 아름다움

(“목에 장식”)을 준다. 그것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없이 안전하게 우리 길을 가게 한다. 그것은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두려움이 없는 깊은 잠을 보장한다.

**3:25** 그것은 악인을 뒤따르는 갑작스런 두려움에서 지켜준다. 불경건한 자의 외관상의 변성을 시샘하는 자들은 그런 삶의 실상(착취, 절도, 보복, 뇌물, 공갈, 유괴, 살인 등)을 보지 못한 것이다.

**3:26**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길로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발이 닳에 걸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구원을 삶에서 체험하고 의식한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언젠가 우리는 삶 가운데 얼마나 구원을 많이 경험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3:27** 27~31절에서 부정적인 표현들에 주목하라. “...아끼지 말며... 주겠노라 하지 말며... 모해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쫓지 말라.”

먼저, 당신이 주어야 할 위치에 있을 때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것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번 임금과 갚아야 할 빚과 빌려온 연장 등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로는 이런 뜻일 수 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친절이나 선행을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 교훈은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한 나머지 이웃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기 위해 여기에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약 4:17).

**3:28** 당신이 오늘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당신의 이웃으로 내일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라.

누가 내 이웃인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내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는 구원의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

만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짐을 주신다면 오늘 그 일을 해야 한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스르지 말라.

**3:29** 이웃에 대한 사랑은 아무 의심 없이 마음놓고 옆에 사는 이웃에게 악한 음모를 피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이웃과의 분쟁에서 종종 일어나는 비열하고 잔인한 일체의 보복행위를 근절시킨다.

**3:30** 여기서는 우리를 전혀 자극하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 싸움을 벌이지 말라고 경계한다. 우리가 싸움을 선동하러 일부러 다니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는 충분한 싸움이 있다!

**3:31~32** 포학한 자(압제자)는 손쉽게 성공하는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번성을 시샘하거나 그의 길을 좇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패역한 자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멸시하고 가증히 여기시나, 정직한 자는 친밀한 신뢰관계로 이끌어들이신다(요 14:23).

**3:33** 하나님의 정죄냐 그분의 신뢰냐, 그분의 저주냐 그분의 축복이냐, 그것이 선택할 문제이다! 악인의 집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비추인다.

**3:34** 다시금 하나님의 비웃음과 그분의 은혜 사이의 선택이 있다. 그분은 거만한 자는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구절이 신약에 두 번 인용된 것으로 보아(약 4:6; 벰전 5:5) 그 선택

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3:35** 끝으로 영예로움과 수치 사이의 선택이 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 미련한 자는 수치 가운데 빠지는 불명예로 알려지게 된다.

## 5) 가정의 보화로서의 지혜(4:1~9)

**4:1** 1~9절에서 솔로몬은 그의 부친이 그에게 전해준 선한 가르침을 재진술하며, 자녀들에게 참된 통찰을 얻기 위해 노력을 등한히 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잠언은 젊은이에게 지혜로운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것을 권하는 간절한 권고로 가득하다.

**4:2** 경건한 노인과 사귀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의 오랜 경험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의 교훈은 선하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

**4:3** 여기서 솔로몬은 자신이 부친에게 아들이요 모친이 보기에 ‘외아들’이었던 때를 언급한다. 사실 그는 외아들이 아니었다. 아마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는 표현은 “내 어머니의 사랑하는 외아들이었다”는 뜻일 것이다(Knox).

**4:4** 솔로몬의 부친 다윗은 일찍이 그의 아들에게 그의 선한 충고를 간직하고 그로써 가치있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다. 다윗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이 4~9절에 주어지 있다.

**4:5~6** 그의 주된 관심은 그의 아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었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한다. 솔로몬이 그밖에 무엇을 하든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만이 진정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4:7** 지혜를 얻는 첫째 단계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받거나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게 마련이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명철과 분별력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악한 것과 선한 것,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의미한다.

**4:8** 만일 우리가 지혜를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 첫 자리에 둔다면 그 지혜가 우리를 아름답게 높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혜를 사랑으로 품는다면 그 지혜가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4:9** “그녀가 매력으로 너를 장식하고 영광으로 너를 관 씌울 것이다”(Moffatt). 지혜는 그 자녀에게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수여한다. 이것은 방탕과 부도덕에 방치된 버림받은 삶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 **7) 지혜와 두 길(4:10~27)**

**4:10** 부친의 조언을 인용하기를 마친 뒤에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재차 호소한다. 정결한 삶이 장수로 이끈다는 것은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원리이다. 담배와 알코올과 마약과 성적인 죄악이 어떻게 질병 및 죽음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4:11~12**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치고 좋은 본을 끼

쳤을 때 만족할 수 있다. 가르침은 반드시 본과 결합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행동이 그의 말보다 더 호소력이 있다.

정직한 길로 다니는 아들은 다닐 때 방해받지 않고 뿔 때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아람어 역본은 “네가 한 걸음 한 걸음 다닐 때 내가 네 앞에서 길을 내줄 것이다”라고 읊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준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체 계획을 한꺼번에 보여주시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인도하신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아올 때 그들을 인도하신다. 배는 선장이 조종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때 그것을 조종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움직일 때 우리를 인도하신다.

**4:13** 우리는 선한 교훈을 굳게 잡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듯 지혜를 지켜야 한다. 이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데, 육신을 입은 지혜이신 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 특히 그러하다.

**4:14** 14~19절은 악한 무리에 대해 경계하고, 어두움의 길과 빛의 길을 대조한다.

불의한 자들과의 사귀를 금하는 이 권면은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4:15** 이 짧고 단호한 명령에는 긴박한 경고의 논조가 있다. 최악된 삶을 피하라. 알아보기 위해 기웃거리지 말라. 다른 길로 돌이키라. 계속 전진하라. 그것은 흥미롭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스틸 있어 보일지 모르나 마침내 당신을 파멸시킬 것이다.



**4:16~17** 죄에 종노릇하는 자들은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누군가를 찌어 파멸과 재앙에 이르게 하지 않으면 심한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들의 음식은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이다. 또는 그들은 불의를 식물로 삼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

본문은 인간의 최악된 성품을 아주 생생히 묘사해준다. 그 본성이 죄 덩어리기에 죄를 짓는 것이 그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다. 본문은 사회적인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예레미야 17:9에 대한 주해를 보라).

**4:18~19** 의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정오의 가득한 빛에 이를 때까지 점점 밝게 빛나는 돋는 햇볕과 같다. 다시 말해서 의인의 길은 항상 점점 밝아진다.

악인은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에 비틀거린다.

**4:20**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의 아들에게 그의 지혜로운 권면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한다. 이러한 구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4:21** 지혜의 가르침을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유익하다.

**4:22** 지혜의 말씀은 생명을 주며 창조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

그리고 그것은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는데, 왜냐하면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죄와 스트레스에서 사람을 건져내기 때문이다.

**4:23** 23~27절은 로마서 12:1에 대한 구약의 짝이다. 본문은 마음과 입술과 눈과 발 등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고한다. 하나님은 속 사람에서 시작한 다음 외적으로 역사하신다.

마음이 첫 번째다. 그것은 내적인 삶, 생각, 동기, 소원 등을 말한다. 마음은 행동이 우러나는 근원이다. 샘이 깨끗하면 거기서 흘러 나오는 시내도 깨끗하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爲人)도 그러하다. 요컨대 이 구절은 깨끗한 사고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24~25** “퀘홀을 품은 입”은 정직하지 못하고 왜곡된 언어를 가리킨다. “사곡한 입술”은 솔직하지 못하고 공명정대하지 않은 대화를 가리킨다. “똑바로 보는 눈과 눈꺼풀”은 한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걷는 것, 죄나 일체의 무가치한 것을 결눈질하지 않는 자세를 가리킨다. 우리의 동물적인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대중매체가 맹렬히 폭격을 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히 12:2).

**4:26~27** 만일 우리가 거룩의 길에 주의하면 우리의 모든 길이 잘 정돈되고 안전할 것이다.

모든 큰길 좌우편에는 범죄 장소로 이끄는 사잇길과 골목이 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불려도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르라.”

의심스런 곳에 가보라는 유혹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서 발견되기를 원하는가?” 하고 자문해보라.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 8) 부도덕함의 어리석음(5장)

**5:1~2**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젊은이를 늘 따라다니는 죄 중

하나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다. 선한 충고에 주의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배우는 지는 참된 분별력을 개발한다. 그들의 언어는 순결하고 진실하므로 그들을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날 세상에 가득한 유혹과 혼란에서 지켜주는 충분한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러기에 바울은 배도하는 시대에 말씀에 착념하라고 디모테에게 권하고 있다(딤후 3:13~17).

**5:3** 5장 나머지는 흔히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불리우는 창기에 대해 말한다. “음녀”는 창기, 즉 천한 목적을 위해 자기 몸을 파는 자를 가리킨다. 그녀는 죄와 세상과 거짓 종교와 우상숭배와 혹은 사람의 아들들이 접하는 기타 유혹으로 볼 수 있다. 그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것은 향기롭고 감미롭고 매력적이다. 그녀는 교활하고 간계한 말로 속삭인다.

**5:4** 그녀는 처음에는 즐겁고 상냥해 보이거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다. 죄는 앞에서 보면 매력적이거나 뒤돌아보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녀와 동침하는 대가는 엄청나다. 죄책감, 후회, 추문, 성병, 결혼 생활의 파경, 가정의 파괴, 정신적 혼란, 그밖에 많은 질병이 따른다.

**5:5~6** 그녀는 자신의 희생자를 죽음과 지옥으로 향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이끈다. 그녀는 버림받은 여인이기에 선한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녀의 성격은 불안정하고 간계하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지 못한다. “생명의 길은 그녀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운 길이 그녀의 길이다”(Moffatt).

**5:7** 이 모든 위태한 상황을 생각하며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그의

말을 듣고 그 교훈을 떠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한다.

**5:8** 한가지 중요한 보호막은 가능한 한 유혹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죄와 관련 있는 대상이나 장소를 늘 가까이 접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도피해야 할 때도 있다. 요셉은 그렇게 했으며, 비록 걸옷을 잃기는 했으나 그의 순결을 지키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8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도 있다.

**5:9~10** 창기를 찾아가는 자들은 정력을 소모하고, 청년의 그 황금기를 잔인한 요부(妖婦)에게 바치고 만다.

게다가, 남몰래 부도덕한 관계(문자 그대로의 성관계든 아니면 음란한 그림이나 'x등급'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를 즐겨보는 일이든)를 즐기는 '점잖은' 사람들은 종종 공갈과 협박의 희생자가 된다. 돈으로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공개폭로를 당하고 말 것이다.

**5:11** 그러한 삶은 임질, 매독, 신체마비, 에이즈, 정서불안 등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비참한 말로를 맞는다.

**5:12~13** 게다가 후회와 회한의 슬픔이 따른다. 망신창이가 된 그 희생자는 자신의 부모와 교회의 인도자들과 그리스도인 동료들의 말을 듣지 않은 자신을 꾸짖는다. 그는 그런 불행의 바다를 피할 수 있었는데 너무 완고하여 경고를 받지 않은 것이다.

**5:14** 그리고 공개적인 수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의 과

오에 대해 징벌을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인 듯하다.

**5:15~16**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순수한 결혼관계의 사랑 안에서 자기 아내에게서 모든 성적인 만족을 얻으라고 권고한다.

KJV에 의하면, 이 구절은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미치는 충실한 결혼관계의 축복을 묘사한다.

NKJV는 이 구절을 질문형태로 바꾸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우리말성경도 마찬가지임-역주). 이것은 창기를 찾아가는 것 같은 행위는 자신의 생산능력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아주 실감나게 묘사한 표현이다.

낙스(Knox)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네 자신의 샘에서 거리로 흘러 넘치듯이, 네 자손을 많게 하라.” 이 경우에는 샘이 아내요, 물은 집에서 나와 거리에서 즐겁게 뛰노는 자식이다.

**5:17** 참된 결혼관계는 배타적인 것이며, 자녀는 “소속”의 안전감을 누린다. 따라서 이 구절은 불법적으로 자식을 낳거나, 문란한 성관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의 의심스런 부모가 되는 비극에 대해 경고한다.

**5:18** “샘”은 자기 아내를 가리킨다.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서 기쁨과 만족한 사감을 얻도록 하라. 마이클 그리피쓰의 표현대로, 남자는, “다른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그러한 배타적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풍요로움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그의 집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따스한 온기는 무한정하다”는 것을 발견한다.<sup>7)</sup>

**5:19~20** 자기 아내를 위해 결혼관계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녀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대하도록 하라. 그녀의 가슴을 만족스런 분깃으로 여기고 항상 그녀의 사랑에 사로잡히도록 하라.

어찌하여 음녀의 거짓된 매력에 사로잡히겠는가? 혹은 어찌하여 유혹하는 여자를 팔에 안겠는가?

**5:21~22** 비록 사람의 눈은 그가 가는 윤락가와 호텔 방과 은밀한 장소를 따라잡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어나는 일을 보신다. “지상의 은밀한 죄는 하늘의 공공연한 스캔들이다.”

사람은 죄를 짓고 빠져나올 수 없다.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제이 아담스는 이렇게 말한다.

“최악된 습성은 깨트리기 어렵지만, 깨트리지 않으면 그 희생자를 더욱 단단히 조여 매게 된다. 그는 자신의 죄의 줄에 단단히 매인다. 그는 죄가 나사처럼 갈수록 깊이 자신을 조여 맨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계속 조여드는 죄의 줄에 매여 뿡뿡 묶인다. 마침내 그는 죄의 노예가 된다.”<sup>8)</sup>

**5:23** 엘리콧트(Ellicott)는 이 구절을 가리켜 방탕한 자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을 절제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 결과로 죽는다. “감각이 마비됨으로 그는 죽겠고, 철저한 어리석음이 그를 파멸시킨다”(Moffatt).

시인 셸리(Shelley)가 좋은 사례이다. 외람되게도 그는 일부일처제 결혼 개념을 비웃었다. 한 사람과만 결혼하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피스(Griffiths)에 의하면, 그런 생

7) (5:18) Michael Griffiths, *Take My Life*, p. 117.

8) (5:22) Adams, *Counsel*, p. 145.

각의 결과 웰리는 처자식을 버리고 자살을 기도하고 사생자를 낳고 여자들간에 투기를 벌이는 불행을 자초했다고 한다. “시인의 삶에 그러한 ‘아름답지만 쓸모 없는’ 천사가 그의 뒤에 남긴 것과 같은 불행의 자국이 있다는” 사실에 G. 샘슨은 의아해했다.

## 9) 보증, 게으름, 속임의 어리석음(6:1~19)

**6:1** 1~5절은 보증을 서는 것, 즉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이 대신 빚을 갚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한 경계이다. 가령 당신의 친구가 할부로 차를 구입하기를 원하는데 담보를 내세울 능력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동차 회사는 할부구입자가 문제가 생길 경우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누군가의 서명을 요구한다. 그 친구가 당신을 찾아와 계약서에 서명해줄 것을 청한다. 이것은 그가 지불을 못하면 당신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절에서 “이웃”은 당신의 친구이고, “타인”은 당신이 보증을 선 자동차 회사이다.

**6:2**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경솔히 약속하면 울무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실수이다.

**6:3** 이제 할 일은 자신을 계약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네 이웃을 설득하여 계약서에서 네 서명이 말소되게 하라.

**6:4~5** 이 문제는 극히 중요하므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스스로를 건지기 위해 애써

야 한다.

그러나 왜 성경이 그토록 보증을 경계하는가? 친구나 이웃을 위해 보증서는 일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친절로 보일 수도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물건을 사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다.

(2) 당신은 그가 낭비 내지 놀음장이가 되도록 부추길 수도 있다.

(3) 만일 그가 할부를 갚지 못하고 당신이 대신 갚아야 할 입장이 된다면 그와의 우정은 끝나고 불편한 관계가 시작된다.

꼭 물건을 사야할 경우에는 현찰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 어쨌든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6:6~7** 6~11절은 게으름에 대한 경계이다. “개미”는 부지런히 다니며 종종 제 몸보다 큰 집을 나르기에 우리에게 좋은 실물교훈이 된다. 개미는 지도자나 감독 없이도 많은 일을 해낸다. 개미떼를 관찰해보면 아무 방향이나 마구 움직이는 듯 보인다. 그러나 눈에 띄는 지휘체계는 없지만 그들의 활동은 의도적이며 계획적이다.

**6:8** 이 작은 짐승은 여름 동안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추수 때에는 양식을 모아들인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장래를 위해 예비하는데 있지 않고 현재 열심히 일하는데 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은 굶은 날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금지되었다(마 6:19). 물론 개미가 장래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차이는, 개미의 장래는 이 땅에 있는데 반해 신자의 장래는 하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둔다.

**6:9** 게으른 사람은 무한한 수면능력을 소유한 듯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그는 경중시계에 아예 귀가 먹은 듯하다.

**6:10~11** 마침내 이불이 거뒤틀리면 “잠깐만, 조금만 더, 조금만 누워있게 해줘, 조금만 더 달콤한 잠을 맛보게 해줘” 하고 하소연한다. 식구들은 기다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빈궁’의 날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6:12** 12~15절은 간사한 자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이다. 그는 간교한 미소로 거짓된 속마음을 위장하는 사악한 사기꾼이다. 그는 두루 다니며 거짓말을 퍼뜨린다.

**6:13~14** 그는 동료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희생자로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온갖 암시적인 몸짓과 음흉한 표정을 동원한다. 그는 눈짓을 하고 발을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그의 마음은 악의와 패역으로 가득찼으며, 그는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킨다.

**6:15** “그러한 자들은 머지 않아 불행한 운명을 당하며, 희생의 소망이 없이 갑작스레 파멸한다”(Knox).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신문에서 그에 대한 사례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6:16** 그러한 악인을 특징지우는 것들(12~15절)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16~19절),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특히 그러하다(14,19절).

“6,7가지니”라는 표현은 이것이 대표적인 목록이지 완전한 목록이 아님을 의미하는 듯하다. 또는 일곱 번째 것이 최악의 것임을 암시할 수도 있다.<sup>9)</sup>

**6:17** ‘교만한 눈.’ 교만은 하찮은 것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것이다. 한 황제의 신복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주인이 참으로 가련한 존재였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는 모든 일에 중심 인물이 되어야 했다.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러 가면 그 아기가 되고자 했다. 결혼식에 가면 신부가 되고자 했다. 장례식에 가면 시신이 되고자 했다.”<sup>10)</sup>

‘거짓된 혀.’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은바 되었다. 거짓말하는 것은 혀를 함당치 못한 일에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신자가 거짓말하는 것이 함당한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한 권리를 주실 수 없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무한히 가치가 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갈보리에서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증명하셨다. 사형제도(창 9:6)는 살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반영한다.

**6:18**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물론 이것은 항상 악을 꾀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주 예수님은 마가복음 7:21,22에서 그러한 악한 생각들의 일부를 열거하셨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하나님은 악을 꾀하는 마음뿐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실행하는 발도 미워하신다.

---

9) (6:16) Derek Kidner, *The Proverb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p. 73. 30:15,18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라.

10) (6:17) J. Oswald Sanders, *On To Maturity*, p. 63.

**6:19**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것은 법정에서 하는 공적인 증언을 말한다. 이에 비해 17절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일상적인 대화를 가리킨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형제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살인자와 거짓말쟁이 및 위증자와 동류로 여기신다는 것이다!

당신은 위에 열거된 일곱 가지 죄 중 몇 가지나 우리 주님의 고난 및 십자가에 죽으심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 10) 간음과 음행의 어리석음(6:20~7:27)

**6:20** 간음 혹은 불충실이란 주제가 여기에 다시금 거론된다. 이 주제가 자주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절은 중요한 가르침을 소개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정형화된 서언(formula)이다.

**6:21** 예수님 당시 일부 극단적인 문자주의자들은 성구함, 즉 성경 말씀을 담은 조그만 가죽 상자를 몸에 부착함으로써 이 구절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기도 중에 이들 유대인들은 왼팔(가슴 근처)과 머리(목 근처)에 각각 성구함을 하나씩 부착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그것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구절이 진정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의 일부로 삼아 어디를 가든 그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말씀을 외적으로 소중히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이다.

**6:22** 하나님께에 순종하는 것은 이러한 축복을 가져다준다.  
인도-“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보호-“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가르침-“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6:23** 이 구절은 앞 구절을 부연 설명한다.

“명령은 등불이요”-인도를 위해

“법은 빛이요”-보호를 위해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가르침을 위해

**6:24~25** 말씀의 한가지 특별한 사역은 매끄럽고 아침하는 혀를 가진 “악한 계집”에게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녀의 자연적인 아름다움 내지 이리로 오라고 부르는 그 눈짓의 추파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6:26**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역본에 따라 다양하다.

NKJV와 NASB의 의미는, 사람이 음녀로 인해 가난하게 되고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다”) 그의 귀한 생명을 음란한 계집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 두 경우 모두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RSV는 “음녀는 한 조각 떡으로 살 수 있으나, 어떤 음란한 계집은 사람의 생명을 노략한다”라고 옳기고 있다. 여기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음녀(창기)와,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음란한 계집을 구별하고 있다.

**6:27~28** 다른 사람의 아내와 불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불을 가슴에 품는 것과 같다. 불을 가슴에 품으면 당연히 그 불에 타고 만다. 그것은 숯불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숯불 위를 걸으면 당연히 발이 데고 만다. 그리피쓰는 이렇게 경고한다.

“간음을 범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파멸과, 마음의 깊은 상처와 수치감, 불명예, 피해자측의 달랠 수 없는 분노 등의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이다.”<sup>11)</sup>

**6:29** 사람이 그 이웃의 아내와 통간을 하면 반드시 사로잡히고 징벌을 당할 것이다. 그런 죄는 일반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도덕적인 세계의 원리이다. 혹,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그의 죄가 이생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세에서 반드시 다뤄질 것이다.

**6:30~31** 본문은 두 가지 중 한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KJV와 NKJV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굶주린 가족을 먹이려고 물건을 훔치면 어느 정도 동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잡히면 자신의 소유를 다 잃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반드시 변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RSV는 30절을 질문으로 옮겨서, 어떤 이가 자신의 주림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훔칠 경우에도 사람들은 도적을 멀리하며, 그는 완전한 변상을 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한다.

어떤 경우든, 요지는, 도적은 자신의 죄에 대해 변상을 할 수 있지만, 간음을 범한 자는 그가 입힌 피해를 결코 완전히 말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6:32** “부녀와 간음하는 자가 무지한 자인” 까닭은 그 자신을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육체적으로도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신 22:22).

**6:33** 한순간의 정욕 때문에 그는 아마도 격노한 남편에게서 “상함과 능욕”을 받는다. 또한 그는 남은 생애 동안 그를 따라다니는

---

11) (6:28) Griffiths, *Lié*, p. 116.

수치와 불명예에 시달린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를 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진다.)

**6:34** 여기서 우리는 예기치 않은 때에 집에 돌아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발견한 남편의 투기하는 분노를 대한다. 그가 보복을 시작할 때 어떤 변명이나 호소도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다.

**6:35** 가해자는 어떤 대가로도 그 남편을 달랠 수 없다. 어떤 배상도 그의 결혼관계를 침범한 대가로 충분치 못하다.

**7:1** 7장은 계속해서 부도덕함으로 그들의 삶을 망치지 말라고 젊은이들에게 경고한다. 그들은 이 영감받은 명령을 지상의 물질적인 부보다 더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7: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풍성한 삶에 이르는 첩경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눈동자처럼 지켜야 한다. 이 표현에 대하여 ‘국제표준성경백과사전’(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은 이렇게 설명한다.

“가운데 동공(洞空)이 있는 눈의 안구(眼球)는 둥그런 모양을 한 ‘눈동자’(apple)로 불리운다. 그것의 중요성과, 조금만 위협의 기미가 있어도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닫힘으로 눈을 세심히 보호하는 그 기능으로 인해 그것은 극히 소중하고 또 빈틈없이 보호받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다.”<sup>12)</sup>

**7:3** 시적인 표현을 통해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

12) (7:2)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1:209.

행동을 다스리고(“네 손가락에 매며”) 전폭적으로 순종할 문제가 되  
게(“네 마음판에 새기라”) 하라고 말한다.

**7:4** 우리는 지혜를 누이에 합당한 공경과 존경심으로 다루고, 명  
철을 우리의 친족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본문의 문맥에서 지혜는  
삼가 피해야 할 음녀와 대조를 이룬다.

**7:5** 지혜와 그 가르침을 좇는 자들은 음녀와 이방 계집의 호리는  
말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 음녀를 묘사하기 위해 두 가지 단어가 여  
기에 사용되었다. “음녀”는 자유분방하고 결혼서약에 불충실한 여  
인을 의미하며, “이방 계집”은 타국인과 모험가를 의미한다.

**7:6** 6~23절은 고객을 찾아다니는 음녀와 그녀에게 미혹된 한 청  
년에 대해 생생히 묘사해준다. 기자가 들창으로 내어다보니 이 비극  
의 드라마가 펼쳐졌다.

**7:7** 한 청년이 아무 생각 없이, 목적의식 없이 거리로 나왔다. 아  
마 그는 안정된 가정 출신인 듯한데 시간을 즐기려고 외출한 것이  
다. 그는 여느 떠벌리는 친구들 못지 않은 건달일지는 모르나, 실은  
완고한 죄인이 아니라 다만 풋내기 동네 건달에 불과했다.

**7:8** 이제 그가 홍등가(紅燈街)로 들어갔다. 그는 음녀의 골목 가  
까이로 지나갔다. 그는 게으름뱅이의 걸음으로 그 거리를 기웃기웃  
했다. 그것이 문제였다. 만일 그가 건설적이고 가치있는 활동에 분  
주했다면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그의 발에 평안의 복음  
의 예비한 신이 신겨졌다면 그는 낭비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하  
나님을 위해 드려진 삶에는 죄로부터의 참된 보호가 있다. 반면에

아이작 왓츠의 말대로 “사단은 여전히 게으른 손이 저지를 불행한 일들을 보고 있다.”

**7:9** 그는 저녁 내내(해질 무렵에서 한 밤중까지)여기저기 어슬렁 거렸다. “이 밤이 깊어 가는 묘사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청년의 삶에 그림자가 점점 깊이 드리우고 밤이 덮쳐오고 있다”고 바네스는 설명했다.

그는 불꽃으로 날아드는 나방과도 같았다. 죄의 유혹과 죄의 기회가 일치할 때 위태롭고 두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우리는 그 둘이 우리의 삶에 함께 만나는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

**7:10** 이제 음녀가 요염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다. 그녀의 매혹적인 걸모습 뒤에는 관능적이고, 은밀하고, 간교한 속마음이 숨어 있었다.

**7:11~12** 그녀는 은혜스럽고 정숙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뻔뻔스럽고, 큰 소리로 떠들며, 또한 아주 집요했다. 가정을 돌본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손님을 찾아 거리를 배회했다.

그녀는 거의 어디에나 있었다. 때로는 거리에, 때로는 광장에, 때로는 모퉁이에 서 있었다. 죄는 그와 같이 쉽게 발견된다. 복음도 그렇게 찾기 쉬워야 할텐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것을 널리 알리지 못하고 있다.

**7:13** 그녀가 첫 번째 취한 단계는 충격 요법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뿔사! 이 엄청난 사랑의 표현에 그는 발이 풀리고 말았다. 그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욕망임을 알지 못했다.



**7:14** 이어서 종교적인 분위기를 띠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그녀의 말에 그는 그의 어머니와, 거실 탁자에 놓인 성경책을 기억하고 이렇게 읊조렸다. “이 여자는 좋은 여자야. 그녀는 종교적이야.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을 갚았다니 그런 여자와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를 묶은 올가미가 단단히 조여졌다.

화목제에는 또 다른 유혹이 있었다. 화목제를 드린 자는 그 날이나 다음날에 그것을 먹어야 했는데(레 7:15이하), 따라서 그녀는 그를 마음껏 대접할 음식이 풍부했다. 남자의 마음을 시는 한가지 방법이 그 배를 채우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7:15** 그런 다음 그녀는 그가 자신이 찾던 남자인체 했다. 얼마나 달콤한 거짓말인가! 아마 그녀는 지나가는 첫 번째 남자를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우쭐했다. 누군가 나를 높이 평가하다니, 누군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니!

**7:16~17** 그녀는 자신의 침상을 묘사함으로써 노골적으로 동침을 제의했다. “내 침상에는 화문 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꿰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 모든 것은 그의 정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의 후각(嗅覺)조차도 자극적인 향내에 사로잡힐 운명이었다.

**7:18** 이제 가면이 벗겨졌다. 그녀는 드러내놓고 그에게 동침하자고 권했다. 그녀는 어휘를 잘 택해서 마음이 완전히 끌리게 했다.

**7:19~20** 그녀는, 남편은 집에 없으며, 먼 여행을 떠났으므로 얼마간 집에 오지 못할 거라고 설명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남편은 여

비를 충분히 갖고 떠났으므로 상당 기간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보름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9절에 묘사된 어두움은 만월(滿月)이 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7:21** 그녀가 계속 말할수록 그의 저항력은 약해졌다. 그녀는 몇 마디 호리는 말을 더 던져 그를 굴복시켰다.

**7:22** 그는 그녀를 따라 그녀의 집에 들어가기로 맥없이 손들었다. 그가 그녀를 따라 들어가는 모습은 소가 아무것도 모른 채 푸주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가련하기 그지없었다.

22절 후반부는 다음 여러 가지 번역에서 볼 수 있듯이 원문상 그 뜻이 매우 모호하다.

“어리석은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듯이”(KJV, NKJV, 우리말 성경도 동일).

“사슬에 매인 자가 어리석은 자의 벌칙을 받으러 가듯이”(ASV).

“돼지가 단단히 붙들리듯이”(RSV).

“개가 찌임을 받아 입마개를 쓰듯이”(Moffatt).

“기분 좋게 뛰는 새끼양처럼”(Knox).

“어리석은 자가 사슬에 매여 벌을 받으러 가듯이”(Berkeley).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는, 희생물이 족쇄와 징벌을 향해 저항할 힘 없이 가고 있는 뜻임이 분명하다.

**7:23**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는 이런 뜻일 것이다.

- (1) 앞 구절의 소가 도살되는 방법, 즉 칼이 그 내장을 뚫는 모습.
- (2) 인간의 정욕의 불타오름.
- (3) 부도덕한 성행위가 인간의 몸에 미치는 결과. 청년이 앞으로 치르게 될 대가(성병, 에이즈 등)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창기에게 들

어기는 것은 새가 그물로 날아드는 것과도 같다.

**7:24~25** 그렇다면, 기자가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말에 귀기울이라고 호소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은 그런 부류의 여자와 사귀고픈 욕망을 일절 품지 않도록 그 마음을 삼가야 한다. 그들은 그녀의 길에 머물지 않도록 그 발을 삼가야 한다.

**7:26~27** 그녀에게 희생된 자의 목록은 길다. 그녀는 허다한 사람을 파멸시켰다.

그녀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음부(지옥)로 가는 넓은 길에 있는 것이다. 그는 사망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 II) 의인화된 지혜(8장)

**8:1** 8장은 7장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7장에서는 음녀가 사람의 아들들을 불렀다. 여기서는 지혜가 자기를 좇으라고 그들을 부르며, 자기를 좇을만한 합당한 이유들을 제시한다. 이와 비교되는 신약의 구절은 그분께로 나아와 마시라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요한복음 7:37이다.

**8:2~3** 본문은 지혜가 어디서 발견되는지를 말해준다. 지혜가 발견되는 곳의 목록은 그녀가 모든 인간이 매일의 삶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준다.

**8:4~5** 지혜는 뛰어난 지든 보잘것없는 지든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녀는 어리석은 자들과 미련한 자들을 초청한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안내자”라고 키드너는 말한다.

**8:6~9** 이어서 지혜의 가르침의 성격이 묘사되어 있다. 그녀는 “가장 선하고…정직하고…진실하고…의로운 것”을 말한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악한 것과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일절 나오지 않는다. 분별력과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정직하고 의롭다는 것을 알 것이다.

**8:10~11** 지혜의 가르침의 가치는 비할 데가 없다. 그것은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나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모되어야 한다.

**8:12~13** 지혜는 명철과 같은 집에 거한다. 그들은 함께 다니며, 따라서 지혜를 소유하면 명철(통찰력)도 소유하게 된다. 지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근신을 준다.

지혜가 함께 거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것들로서, 지혜는 그것들, 즉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언어 등 모든 형태의 악을 미워한다.

**8:14~21** 지혜의 상급 내지 축복은 이러하다.

좋은 충고(14절).

건전한 판단(14절).

지각(14절).

옳은 것을 행하고 악을 거절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14절).

리더십(15,16절).

치리하는 능력(15,16절).

사랑과 사귄(요 14:21)(17절).

부귀와 의를 겸비한 장구한 재물(18절).

정금이나 천은보다 가치 있는 인격(19절).

풍부한 부를 가져오는 의와 공평의 길로 인도함(20,21절).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지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은 주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데, 이는 신약성경이 그분을 지혜로 부르기 때문이다(마 11:19; 눅 11:49; 고전 1:24,30; 골 2:3). 지혜 되신 주님을 본문만큼 분명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교회는 일관되게 본문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고결한 기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8:22** 그분의 영원한 연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가지셨다”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시작이 있었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지혜 없이 존재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아들 없이도 존재하지 않으셨다. 여기서의 의미는 요한복음 1:1와 똑같다. “태초에…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8:23** 그분의 영원 전부터의 임명. “세움을 입다”는 ‘기름부음 받다’ 혹은 ‘임명되다’는 뜻이다. 창조가 일어나기 오래 전에 그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세상의 구주로 임명되었다.

**8:24~26** 그분의 선재하심. “났다”(brought forth)는 표현은 그분이 창조된 적이 있고 그로써 시작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들의 영원한 존재와 그 인격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묘사하는 시적인 표현이다.

“진토의 근원”은 세상의 시작을 가리킨다.

**8:27~29** 그분의 창조시의 임재하심. 하늘이 땅과 바다 위에 펼쳐질 때, 구름이 형성되고 샘들이 물을 솟아내기 시작할 때 그분이 거기 계셨다. 바다의 경계가 결정되고 물이 그 한계를 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을 때에 그분이 거기 계셨다. 지각을 떠받드는 내부구조를 포함해서 땅의 기초가 정해질 때 그분이 거기 계셨다.

**8:30** 그분의 창조시의 활동.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창조사역의 주체(active Agent)이셨음을 알게 된다. NKJV는 30절 상반절을 이렇게 올바르게 옮기고 있다. “그 때에 내가 능숙한 장인(匠人)으로 그분 곁에 있어서…” 이것은 물론 요한복음 1:3, 골로새서 1:16, 히브리서 1:2 등과 일치된다.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기뻐하심을 받는 위치.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어 죄인들을 위해 죽게 하신 일의 경이로움을 더해준다.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즐거움.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그분이 그러한 순결하고 온전한 기쁨의 자리를 떠나 이 수치와 슬픔과 고난으로 얼룩진 세상에 오신 일의 가치를 높여준다.

**8:31** 그분의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기뻐하심.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그분이 특히 이 조그만 지구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분의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특별한 기쁨.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은 그분이 거역하는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다.

윌리엄 카우퍼는 이 22~31절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훌륭한 찬송시를 남겼다.

“하나님이 높은 산들을 만들고 열매맺는 산들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분이 계곡에 흐를 물을 샘에 채우시기 전에  
그 놀라운 ‘스스로 있는 자’께서  
가실 줄 모르는 기쁨을 당신에게서 얻으셨으니  
당신의 이름은 지혜라.

거할 장막처럼 하늘을 널리 펴고  
바다의 흥흥한 물결을 보자기로 감싸듯 그 경계 안에 가둬두실 때  
당신이 그 때 그분과 함께 계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고  
인자들을 기뻐하셨네.

당신은 당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박은  
그런 자들조차 기뻐하셨으니  
측량할 수 없는 경이요, 거룩한 비밀 아닌가?  
우뢰 소리 속에 들려오는 음성  
‘죄인이여, 나는 네 것이라.’”

**8:32~36** 이 마지막 단락은 지혜의 초청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관련 있는 영원한 문제를 다룬다. 본문은 지혜의 가르침을 듣고 그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한다. 본문은 날마다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고 그 문설주 옆에서 신실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행복을 약속한다. 또한 본문은 지혜를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은총을 약속하는 반면, 지혜를 잃는 자들에게는 손실과 사망을 경고한다.

마지막 두 절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해보라. 그분을 발견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은총을 입는다(요 8:51; 17:3; 엡 1:6; 요일 5:12). 그러나 그분을 잃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요, 그분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요 3:36).

## 12) 지혜와 어리석음의 초청(9:18)

**9:1** 여기서 지혜는 자기 집을 짓고 초청에 응하는 자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잔치는 특히 손님들에게 지혜가 제공하는 즐거움과 사귄과 만족을 잘 묘사해준다.

“일곱 기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시도되었다. 어떤 주석가들은 메시아에게 임하는 성령의 일곱 가지 선물을 언급하는 이사야 11:2을 제시하는데, 실은 여섯 가지만 분명히 밝혀져 있다.

또 다른 해석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1) 성결하고, (2) 화평하고, (3) 관용하고, (4) 양순하고, (5)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6) 편벽이 없고, (7) 거짓이 없는 것으로 묘사된 야고보서 3:17에서 발견된다.

**9:2~3** 고기와 포도주가 풍성히 베풀어졌다. 식탁이 가득 채워졌다. 안주인이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손님을 부르라고 했다. 여종의 의무는 하나님의 지혜인 주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들에게, 이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들도 와서 지혜를 얻고 즐거워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9:4~6** 본문은 지혜가 실제로 초청하는 말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 즉 방황하기 쉽고 따라서 도움과 안내가 필요한, 영향 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집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식단(食單)에는 최고의 음식과, 지혜가 직접 혼합한 최고의 포도주가 포함되었다.

잔치에 온 자들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들의 삶에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9:7~9** 문맥의 흐름이 여기서 끊어지는 듯 보이나, 아마도 본문은 왜 거만한 자들에게 초청장이 보내지지 않았는지, 혹은 왜 지혜의 손님들이 거만한 자들을 포기해야 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듯하다.

만일 당신이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능욕을 당하게 된다. 만일 당신이 악인을 꾸짖으면 그가 돌이켜 당신을 해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 여하는 그의 인품을 나타낸다. 거만한 자는 당신을 미워하나, 지혜있는 자는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부모나 선생님이나 고용주나 친구가 당신을 책망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혜 있는 자는 비판에 분개하는 대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로써 더욱 지혜로워진다. 의로운 사람은 유용한 학식을 더함으로 유익을 얻는다.

**9:10** 다시 한번, 모든 참된 지혜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 의미하는 바이다”(Moffatt). 참된 신자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까닭에 다른 이들이 발끝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무릎을 꿇고 볼 수가 있다.

“거룩하신 자”(복수형)는 위엄과 탁월함과 완전함의 복수형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을 가리키는 복수형 단어인 엘로힘을 설명하는 복수형일 수도 있다.

**9:11** 지혜는 날과 해를 더하게 한다. 그것은 장수만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복되고 생산적인 삶과 더 나아가 결코 마감되지 않는 삶을 가져다준다.

**9:12** 지혜롭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유익을 준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이 유익을 얻는다. 반면에, 거만한 쪽을 택

하면 다른 이들도 물론 해를 당하지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당하게 된다. 결국 자기 홀로 승자가 되거나 패자가 된다.

**9:13** 지혜의 잔치를 거절하는 자는 어리석음의 금식을 당하게 된다. 지혜의 고결한 제안과(1~6절) 어리석음의 천박한 유혹(13~18절)의 분명한 차이를 보라.

어리석은 여자는 크게 떠들고 무지하고 뻔뻔스런 낫을 하고 있다.

**9:14~16** 그녀는 자기 집 문 밖이나 성읍 높은 곳에 정숙한 여인이 아닌 부끄러움을 모르는 음녀의 모습으로 앉아있다.

그녀는 쉽게 미혹받는 사람들, 즉 지각이 없는 단순한 사람들을 유혹한다.

**9:17** 그녀의 호소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녀는 불법적인 관계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것이 금지된 것이요, 또 그런 일에는 짜릿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간 본성이 어떤 것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당할 때는 그러한 금지명령이 그것을 하고픈 욕망을 더욱 자극한다(롬 7:7,8). 음녀는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본능에 호소한다. 그녀는 잘 속는, 접근하기가 쉬운 자들에게 다가간다.

**9:18** 그러나 그녀는 그들에게 이야기의 다른 측면을 알려주지 않는다. 쾌락과 욕망의 순간이 지나면 평생의 후회와 음부 깊은데서 영원히 거하는 비극이 따른다.

세상도 때로 이 구절의 진리를 인정한다. 지난 세기에 인기 있었던 한 프랑스 노래는 세상의 “사랑” 개념을 이렇게 묘사한다.

“사랑의 기쁨은 하룻밤 머물지만  
사랑의 슬픔은 평생 남아있네.”<sup>13)</sup>

### 3. 실제적인 도덕성에 관한 솔로몬의 잠언(10:1~22:16)

여기까지는 생각의 일관된 흐름과 각 구절간의 연관성이 있었다. 각 주제들은 단락 형태로 다뤄졌다. 10:1~22:16에서 우리는 각각 독립된 375개의 잠언을 대하게 된다. 그 대부분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분리된 대조적인 진술을 제시한다. 우연찮게도 솔로몬의 히브리어 이름의 철자의 가중치(加重值, numerical value)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제목이 붙은 이 부분의 잠언의 수효와 같은 375이다.

#### 1) 의로운 삶의 방식과 불의한 삶의 방식의 대조(10:1~15:33)

**10:1** 아들의 행동은 그의 부모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든 아들은 바울(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유다(어리석은 아들)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10:2** 불법적으로 얻은 부(富)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것은 곧 사라진다. 그리고 죽음의 시간에 그것은 한 순간의 집행유예도 얻어낼 수 없다. 반면에 의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죽음에서 건져낸다. 그것은 사람을 최악된 삶의 위험에서 보존하며, 중생의 외적인 증거로서 그가 영생을 소유했음을 보여준다.

#### 10:3 하나님어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

13) (9:18) 불어판 본문은 이렇다: *Plaisir d'amour ne dure qu'une nuit*, Chagrin d'amour dure toute la vie.

원칙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다윗은 말했다(시 37:25). 한편, 여호와께서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는 것 역시 동일하게 사실이다. 그들이 만족과 성취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그것들이 그들을 피해 달아난다.

**10:4** 게으르고 무관심한 사람은 가난을 거둔다.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성공한다.

**10:5** 여름은 거두는 때이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모든 수고를 한 뒤에 정작 곡식을 거둘 때에 잠을 잔다면 아무 소용없다. 예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다(요 4:35).

**10:6** 추수의 법칙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정직한 삶을 심으면 하나님의 복과 사람들의 칭찬을 얻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라는 들풀을 심으면 우리 입에 독이 가득할 것이다. 이것이 하만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의 입은 가려졌고, 그 몸은 비참한 죽음을 맞기 위해 끌려나갔다(에 7:8~10).

**10:7** 거룩한 삶은 그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오래 기억된다. 악인의 이름은 향기가 아닌 악취를 풍긴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인의 아들들을 유다가 아닌 바울이라 부른다!

**10:8**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좋은 충고에 기꺼이 귀기울인다는 점에서 명령을 받는다. 입을 크게 벌린 미련한 자는 배우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므로 자기 파멸로 치달는다.

**10:9** 정직한 삶에는 안전과 평안이 있지만, 속임으로 이뤄진 삶은 드러나고 폭로된다.

**10:10** 이 구절의 대조는 RSV에 의하면 더욱 분명하다. “눈짓하는 자는 문제를 일으키나 담대히 꾸짖는 자는 화평을 이룬다”(우리 말 성경은 후반부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로 되어있음—역주). 눈짓은 은밀하고 간교함을 가리킨다. 그런 형태의 속임수가 진솔하게 책망받을 때 슬픔 대신 화평이 임한다.

**10:11** 의인의 입은 덕과 위로와 조언이 흐르는 생명의 샘이다. 악인의 입은 강포와 악의로 인해 굳게 닫힌다.

**10:12** 미워하는 마음은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해서 지난 원한과 다툼을 떠올린다.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패에 대해 비밀막을 드리운다. 그러한 잘못과 실패는 물론 자백하고 버려야 한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들에 대해 험담하거나 계속해서 들춰내지 않는다.

**10:13** 명철한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며, 스스로 징벌을 초래하는데 성공할 뿐이다.

**10:14**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중요시하고 적절한 때를 위해 그것을 쌓아둔다. “그는 합당한 때와 합당한 장소와 합당한 사람을 위해 마땅히 할 말을 예비해둔다”라고 바네스는 말한다(마 7:6).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떠벌리는 입은 언제 어떤 말을 할지 알 수 없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10:15** 부자는 더욱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진다. 돈이 있는 자가 돈을 벌 수 있다. 가난한 자는 시작도 못한다. 그의 궁핍이 그를 패망케 한다. 부자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질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가난한 자는 낡고 오래된 물건을 사고, 그것을 수선하라 가난을 면치 못한다. 이것은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10:16** 정당한 수고로 얻은 부는 복이다. 명예롭지 못한 일로 얻은 소득은 죄로 이끈다. 그리스도인 목공과 믿지 않는 술집 종업원을 비교해보라. 목공의 수입은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근로를 말해주며, 유익한 목적에 사용된다. 술집에서 일하는 것은 파괴적이다. 일하면 할수록 더욱 죄를 짓는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더 돈을 번다.

**10:17** 경건한 가르침을 즐겨 듣는 자는 생명 길에 머무른다. 선한 충고에 등을 돌리는 자는 자기 자신도 방황하고 다른 사람도 방황하게 한다.

**10:18** 이 잠언은 정직하지 않은 말로 자신의 미움을 감추는 자와, 이웃을 비방함으로 그런 마음을 밝히 드러내는 자를 비교한다. 전자는 위선자이며, 후자는 어리석은 자이며, 그 둘은 별 차이가 없다. 세 번째, 곧 신자가 실천해야 할 자세는 마음이 일절 미움을 품지 않는 것이다.

**10:19** 말을 많이 할수록 잘못된 말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조심해야 한다! 끊임없이 말하려는 욕구는 종종 과장과 비밀의 폭로와 그와 관련된 죄를 초래한다. 다른 사람의 농담을 이겨보려고 애쓰는 것은 종종 저속한 이야기에 빠지게 한다.

말을 절제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는 부끄러움과 사과와 완전한 죄에서 자신을 구원한다.

**10:20** 의인의 말은 그 인품을 드러낸다. 그 인격이 훌륭하므로 그의 언어 또한 그러하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으므로 거기서 나오는 말 역시 그러하다.

**10:21** 어떤 이는 이 잠언을 이렇게 적절히 풀이했다. “선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먹이나, 악은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한다.” 여기서의 미련한 자는 완고하고 처치곤란한 자들이다.

**10:22** 진정 삶을 부요케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와의 복뿐이다. 그러나 근심(슬픔)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 깊은 슬픔의 때를 통과하는 사실과 조화시킬 수 있는가?

본문 후반부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1) 하나님은 슬픔을 보내지 않으신다. 모든 슬픔과 질병과 고난은 사단에게서 온다. 종종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에 그것을 허락하시지만 그분 자신이 그 근원은 아니시다.

(2) 슬픔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뤄진 번영에 속한 것이다.

(3) 또 한가지 가능한 번역은 “수고가 그것에 아무것도 더해지지 못한다”이다(RV와 RSV 난하주). 즉,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그 복에 아무것도 더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고는 좋은 것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시 127:1,2).

**10:23** 미련한 자는 문제에 빠져드는 것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그

것이 그의 낙(樂)이다. 명철한 자는 지혜롭게 처신하는데 즐거움을 얻는다.

**10:24** 행악자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재앙이 임한다. 의인은 그 소원(이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고 내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허락 받는다. 이에 대해 C.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결국, 온 세상의 기쁨이 아니면 두려움이 되는 그 얼굴이 우리 각 사람에게, 혹은 이런 표정으로, 혹은 저런 표정으로 나타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수여하거나, 고치거나 가릴 수 없는 수치를 당케 할 것이다.”<sup>14)</sup>

**10:25** 하나님의 심판의 회오리바람이 지나갈 때 악인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반석 위에 설 것이며, 아무것도 그를 요동케 하지 못할 것이다.

**10:26** 초(醋)는 이를 시리게 하고, 연기는 눈을 자극한다. 것처럼, 길을 가는 도중에 꾸물거리는 게으른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안타까움과 실망과 염려를 끼친다.

**10:27** 경건한 삶은 장수를 가져온다. 악인은 갱단에 당하거나 보복을 당하거나 음주나 마약이나 방탕한 생활에 빠져 일찍 목숨을 잃을 것이다.

**10:28** 의인이 바라는 것은 기쁨으로 실현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 악인의 소망은 완전히 좌절될 것이다. G. S. 보우(Bowes)는 이렇게 설명한다.

---

14) (10:24) C. S. Lewis, *Weight of Glory*, ed. by Walter Hooper, p. 13.



“알렉산더 대제는 열국을 완전히 복속시킨 후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정복할 세상이 없어 탄식했으며, 방탕에 빠져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성주들에게서 빼앗은 금반지로 곶간을 가득 채운 한니발은 독약을 삼켜 자살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주목하지 않았으며, 그는 아무도 애곡하는 이 없이 세상을 떠났다. ‘1백만 적군의 피로 그 옷을 물들인’ 줄리어스 시저는 800여 개의 도성을 정복했으나 그 위대한 승리의 광장에서 절친한 친구들의 칼에 찔려 죽었다. 가공할 정복자 나폴레옹은 유럽의 공포로 군림한 후에 유배지에서 말년을 보냈다.”<sup>15)</sup>

악인의 소원은 확실히 망한다!

**10:29** 그분의 섭리적인 역사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나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10:30** 하나님은 의인에게 거처를 보장하시지만, 악인은 추방자요 방랑자가 될 것이다.

**10:31** 의인의 입은 지혜의 꽃을 피우는 나무와 같다. 왜곡되고 패역한 말은 베임을 당할 것이다.

**10:32** 당신은 의인이 기쁘게 할 것을 말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악인은 다만 사실을 왜곡하고 패역한 것만 말할 줄 안다.

**11:1** 거짓된 상인은 때로 두 가지 저울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사기 위한 것이요 하나는 팔기 위한 것이다. 살 때의 저울은 원래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서 그는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은 물건을 얻었다.

---

15) (10:28) G. S. Bowes, *Our Daily Bread*에서 인용.

팔 때의 저울은 표준치보다 가벼워서 손님은 값보다 적은 물건을 얻었다.

오늘날 상업활동에는 이러한 속이는 저울사용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직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1:2** 먼저 교만이 오고 이어서 패망이 온다. 그런 다음 패망과 관련된 욕됨이 온다. 그러나 겸손과 옹드림은 넘어질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11:3**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요셉의 경험이 그 예이다. 신실치 못한 자의 패역함은 자기 파멸이다. 발람의 삶이 그 증거이다.

**11:4** 재물은 시간이나 영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한다. 의(義)는 이 땅에서 일찍 죽는데서 보호해준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옷입은 자들만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다.

**11:5** 완전한(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이상적인 안내자인 의(義)의 지도를 받는다. 악인은 자신의 악의 희생물이 되어 넘어질 것이다.

**11:6** 의로움은 의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의인을 건져낸다. 유다와 같은 배도자는 자신의 악과 탐욕의 울무에 걸릴 것이다.

**11:7** 어리석은 자는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계획이 끝나는 사람이

라고 흔히 말한다. 관 뚜껑이 닫힐 때 그의 모든 소망이 끝난다. 그가 추구하던 것들이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며, 그가 바라던 번영이 영원히 사라진다.

**11:8** 하나님은 의인을 환란에서 건지시고 대신 악인에게 그 환란을 보내신다. 예컨대, 세 히브리인은 맹렬한 풀무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들을 처형하려 한 자들은 불에 삼킨바 되었다(단 3:22,23).

**11:9** 배도자 혹은 위선자는 의심과 부인(否認)으로 그 이웃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한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의인으로 거짓된 것을 알아내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멸에서 구원하게 한다.

**11:10** 성읍이 크게 기뻐하는 두 경우는 의인이 형통하는 때와 악인이 패망하는 때이다.

**11:11** “정직한 자의 축원”은 성읍을 위한 그들의 기도나(딤후 2:1, 2), 혹은 그들의 존재와 경건한 영향이 성읍에 가져오는 축복들(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다-마 5:13)을 가리킬 것이다.

악인의 속임과 약속 파기와 기만과 모욕은 지역사회를 파멸시키기엔 충분하다.

**11:12**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람을 상케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명철한 자는 칭찬하거나 덕을 세우지 못할 바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11:13** 한담하는 자는 추문을 퍼뜨리고 남의 일을 알리고 비밀을 파기하는데서 기쁨을 얻는 듯하다. 그는 아무것도 숨겨두지 않고 그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한다.

신실한 친구는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말을 절제하는 법을 안다.

**11:14** 지혜로운 지도력과 통솔력이 없으면 백성들은 곤경에 빠지게 된다. 반면에, 훌륭한 모사들의 조화로운 분별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다.

**11:15**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의 빛이나 악속어음을 갚겠다고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일을 하는 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당할 것이다. 즉, 뺨이픈 대가를 치를 것이다. 보증 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적지 않은 곤경에서 자신을 구원한다. 6:1~5 주해를 보라.

**11:16** 유덕한 여자는 아비가일의 경우에서 보듯이(삼상 25장) 존경과 영예를 얻는다. 냉정한(우리말 성경은 “근면한”)으로 되어 있음(역주) 남자는 재물을 얻지만 영예는 얻지 못한다.

**11:17** 사람의 기질은 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인자한 자는 잔인한 자가 겪는 소화불량, 뇌졸중, 위궤양, 심장병 등의 질병을 면한다. 그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영국 의학지’(British Medical Journal)는 인체에는 정신과 완전히 동떨어진 조직이 전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잔인한 성격은 몸에 그 증거를 남긴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11:18**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이 종종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들의 부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의로운 삶의 상급은 실제적이고 영구적이다.

**11:19** 모든 행동은 생명과 사망 둘 중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 잠언은 선행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한 아무도 의를 굳게 잡을 수 없다. 먼저 거둬야 한다. 그러므로 악을 좇는 자는 구원받지 못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11:20** 여호와의 관점에서 거짓된 마음은 가증하고 혐오스러울 뿐이다. 그분은 정직한 자를 진정 사랑하신다. 그분이 사랑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미워할 수도 있다고 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관점은 온전한 것이 못된다.

한편 온전한(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은 그분이 기뻐하신다.

**11:21** 본문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두 가지 사실, 즉 악인의 징벌과 의인의 후손의 구원을 선언한다.

**11:22** 돼지 코에 금고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돼지 코는 흉측하고 금고리는 아름답다. 삼가지 않는(분별력이 결여된) 아름다운 여인은 육체적인 매력과 도덕적인 결핍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것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11:23** 의인은 오직 선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는다. 악인은 악을 추구하고 진노 내지 심판의 형태로 그것을 얻는다.

이 잠언은 가치 있는 목표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국 우리는 추구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차를 별에 걸어 두라”고 이머슨(Emerson)이 말한 것도 그 까닭이다. 한 영국의 정치 지도자는 각료들에게 “그밖에 무엇을 하든 큰 지도를 사라!”고 격려했다.

**11:24**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다. 우리는 배품으로써 스스로를 부요하게 한다.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둠으로 스스로를 가난하게 한다.

우리가 모은 것은 잃는다. 우리가 준 것은 소유하게 된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고 짐 엘리엇은 말했다. 그리고 반하우스 박사는, 하나님께든 의사에게든 자동차수리공에게든 모든 사람이 다 십일조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11:25** 배풀기를 좋아하는 자는 인색한 자는 결코 알 수 없는 배당금을 거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온다.

주일학교 교사가 열심히 준비한 다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누가 가장 유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인가, 교사 자신인가?

**11:26** 이기적인 사람은 값이 올라갈 때 돌아올 이득을 바라고 기근시에 곡식을 시장에 내다 팔지를 앓는다. 그는 다른 사람을 궁핍하고 주리게 함으로 스스로를 부요케 하는 자기만 아는 자이다.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를 원한다.

세상은 생명의 양식이 없어 멸망해간다. 양식은 값없으며, 항상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것은 나눠주기 위함이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곡식을 파는 자, 즉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는 복이 있다.

**11:27** 어떤 사람의 동기가 순수하고 비이기적일 경우 그는 다른 사람의 존경을 얻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자는 스스로 해를 당케 된다.

**11:28** 이 잠언에 해당하는 신약의 짝은 디모데전서 6:17~19이다. 재물은 불확실한 것이며, 따라서 믿을 가치가 없다. 우리의 신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무감각하고 냉혹하게 돈을 탐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지막 부패한 모습이다”라고 사무엘 존슨은 말했다.

의인, 즉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푸른 잎사귀같이 생명과 활력이 넘쳐난다.

**11:29**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술주정뱅이, 성격이 괴팍한 사람, 바람피우는 사람 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이득을 탐하고(15:27), 부(富)에 마음이 팔려 삶의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듯하다. 그는 바람을 상속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탐욕을 만족시킬 만한 아무것도 없이 생을 마감한다. 그렇게 어리석게 행한 대가로 그는 보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의 종이 될 것이다.

**11:30** 의로운 삶은 사람들에게 양분과 생기를 주는 열매맺는 나무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혜롭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한다.

본문은 구령사역에 대한 중요한 말씀 중 하나이다. 본문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줄 사역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주님께 인도된 모든 영혼은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어린양을 경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11:31** 의로운 사람들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다윗은 네 배나 갚아야 했다. 의인이 그 뿌린 것을 거둔다면 악인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또는 베드로의 표현대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벧전 4:18)

**12:1** 징계와 훈계를 즐겨 받는 자는 진정 배우기를 원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뭔가 충고를 듣기를 싫어하고 교정을 거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12:2**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여호와의 은총을 확신할 수 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반대로 여호와의 징계를 확신할 수 있다. 포맨(Foreman)은 이렇게 말했다. “우주의 최고 통치자께서 악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그가 실패하리라고 결정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 최고 통치자께서 인간의 행동을 내버려둔 채 잠잠히 웃고 계신다.”

**12:3** 악의 지배를 받는 삶은 견고하지 못하다. 그것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마 13:5,6). 땅이 열고 뿌리가 없기에 씨가 곧 말라버린다. 의인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는 삶의 폭풍이 몰아



칠 때 견고히 설 수 있다. 시편 1:3에 그러한 사람이 묘사되어 있다.

**12:4** 훌륭한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남편에게 욕을 끼치는 아내는 그 뼈가 썩는 것 같은 참담한 패배를 가져다준다.

**12:5** 의인의 목표는 영예로운 것이나, 악인의 계획은 궤활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목표는 그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다.

**12:6** 죄인은 그 언어로 아무 죄 없고 쉽게 믿는 자들에게 치명적인 울무를 놓으려 한다. 정직한 자는 진실을 말함으로 그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12:7** 정의가 악인을 따라잡을 때 그 때 악인은 종말을 맞는다. 건강한 자는 기초가 든든하여 재난으로 망하지 않는다.

**12:8** 사람들은 통찰력이 있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칭찬하나 아무 원칙이 없는 자는 다만 경멸할 뿐이다.

**12:9** 비천하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껌절한 자보다 낫다. 낮은 신분에 양식이 풍부한 것이 높은 신분을 자랑하면서 굶주린 것보다 낫다.

**12:10** 의인의 인자함은 말 못하는 짐승에까지 미치나 악인은 가장 인자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역시 잔인하다.

하나님은 비록 초월자이시긴 하나 자신을 낮추사 짐승들까지 돌보시며 그들에 관한 규례를 정하셨다(출 20:10; 23:34,5). 그분은 심

지어 새 등지에 관해서까지 규례를 정하셨다(신 22:6).

**12:11** 농사와 같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그 필요가 공급될 것이다. 그러나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소비하는 자는 그릇만 비게 될 뿐 아니라 머리도 비게 될 것이다.

**12:12** “악인의 그물질한 것”(우리말 성경 난하주 참조-역주)은 악인의 그물에 잡힌 것, 혹은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서 취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의인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조용히 채우는데 만족한다.

**12:13** 불경건한 자는 종종 자신의 말로 인해 올무에 걸린다. 그들은 일관되게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스스로 올무에 빠진다. 거짓말쟁이는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가 잘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한다.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모든 환란으로부터의 자유를 약속하시지 않고 환란을 거쳐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12:14**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은 그 보상이 따른다. 슬기롭고 인자하고 순전한 언어는 사랑과 은총과 존경을 보상으로 받는다. 선한 행실은 복을 가져다준다.

**12:15** 어리석은 자에게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즐거 듣는다. 그는 한 사람이 문제의 모든 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12:16**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다. 그는 조그만 자극에도 발끈한다. 사려 깊은 자는 수욕을 참고 자제력을 나타낼 줄 안다.

**12:17**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증인은 의로운 증거를 제시한다. 거짓 증인은 거짓을 말한다.

**12:18** 어떤 이들은 그들의 혀를 칼처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휘두르며 자르고 고통을 가한다. 지혜로운 자는 건강과 치료의 말, 즉 말쟁이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해주는 말을 한다.

**12:19** 진리(진실)는 영원하다. 왜 영원한가?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에 관해 하시는 말씀이며, 따라서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 혀는 눈깜박일 동안만 있을 뿐이다.

**12:20** 악을 도모하는 자의 마음은 궤홀이 가득하다. 화평을 구하는 자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다.

**12:21** 의인에게는 아무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이다. 하지만 예외가 없지는 않다. 단 예외 없이 사실인 것은, 의인이 악인의 행동에 따르는 악한 결과에서 보호받는다. 악인은 그런 종류의 재난을 많이 당한다.

**12:22**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미워하신다. 우리는 진실을 숨기는

것과 하얀 거짓말과 과장과 진실 반 거짓 반을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확실한 길은 온전히 정직하고 신실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12:23** 사려 깊은 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학식을 겸손히 감춘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오래지 않아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12:24** 정상적인 삶의 과정에 의하면 부지런한 자는 크림이 표면에 일어나듯 지도자의 위치에 부상하기 마련이다. 게으름은 가난을 불러오고, 가난은 사람을 부림받는 위치로 강등시킨다.

오스왈드 챔버는, 단정치 못한 품행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게으름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12:25** 근심은 번뇌를 가져온다. 선하고, 격려하는 혹은 동정적인 말은 사람의 힘을 북돋는 놀라운 일을 한다.

**12:26** 겉모양과 달리 의인은 사실 불의한 이웃보다 유복하다.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죄인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듯 보이며, 이는 사람들로 금단의 열매가 더 달콤하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친구를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한다.

**12:27** 게으른 자는 사냥하지 않는다. 혹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굶지 않는다(우리말 성경 난하주 참조-역주). 첫째로 그는 시작할 원동력이 없으며, 둘째로 그 시작한 것을 끝마칠 추진력이 없다.

본문의 후반부는 원문상 전반부처럼 뜻이 모호하나, 부지런한 자는 자신이 이룬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최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임이 거의 확실하다. 룯이 그와 같았다. 그녀는 그 주운 것을 떨었다(룯 2:17). 성경을 상고하는데 있어 우리는 그 배운 바에 진전을 보여야 하며, 묵상과 기도와 실제적인 순종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성장하니  
주님을 알고, 또 우리가 아는 바를 실천하는데 힘쓰세.”

**12:28** 의의 좁은 길 그 중간에와 끝에는 생명이 있다. 그 길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있는 그러한 사망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죽음 너머 미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 NIV는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옮기고 있다.

**13:1** 육체적인 성장에나 영적인 성장에나 정상적인 성장과정이 있다. 예를 들어 아기는 걷거나 말하기 전에 기어다녀야 한다. 영적인 영역에서, 구원받은 자는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듣고 배워야 한다.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에 순종한다. 거만한 자는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고침 받기를 거부한다.

**13:2** 여기에 그 말로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기가 한 말의 축복된 결과를 봄으로써 그 보상을 받는다. 그와 대조적으로 신실치 못한 자는 다른 사람을 괴롭힐 계획을 짜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당한다.

**13:3** 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삶 전체를 다스린다(약 3:2).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화를 자초한다.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하라. 그 말

이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13:4** “말을 원하면 거지가 그 말을 탄다”는 속담이 있다. 게으른 자는 혹 큰 소원이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행동이 없는 소원은 쓸모 없다.” 부지런한 자는 일터에 몸을 바치며 먹을 것을 집에 가져온다. 이것은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사실이다. 보쉬(Bosch)는 이러한 예를 들려준다.

“아담 클락크는 성경주석 집필에 40년을 보냈다고 한다. 노아 웹스터는 36년이 걸려 사전을 완성했다. 사실 그는 사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느라 대양을 두 번 횡단하기도 했다. 밀턴은 세계문학의 최고봉에 우뚝 선 그의 시를 쓰고 다듬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기본(Gibbon)은 그의 저서 “로마제국 흥망사”(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를 집필하는데 26년을 소비한 결과 그 책은 주의 깊은 연구와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브라이언트(Bryant)는 표현상의 완벽한 미와 완전성에 이르기 위해 그의 시를 출간 전에 100번이나 고쳐 썼다. 이들은 그 하는 일을 즐거워했으며, 아무리 그 일이 어렵든 간에 한결같이 그 일에 온 정력을 쏟아 부었다.

가장 행복하고 생산적인 사람은 인류의 안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자이다.”<sup>16)</sup>

**13:5** 의인은 일체의 부정직한 것을 미워하나, 악인은 “수치스럽고 불명예롭게 행동한다”(RSV). J. 알렌 블레어는 어느 위대한 미국인의 생애로부터 이런 예화를 들려준다.

“아브라함 링컨은 옳지 않은 일에 대해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았

---

16) (13:4) Bosch, ed., *Daily Bread*.

다고 한다. 한번은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찾아왔다. 링컨은 천정을 응시하다가 의뢰인의 사정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 의자 주위를 돌며 말했다.

‘당신의 사건은 관련법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례이나 공평과 정의 앞에서는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판사 앞에서 변론을 하는 동안 저는 즐겁, 링컨, 너는 거짓말쟁이야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될 터이고, 그러면 저는 자신도 모르게, 링컨, 너는 거짓말쟁이야 하고 소리치게 될 겁니다.’

거짓말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미치는 결과에 상관없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일에 결코 진보를 보지 못할 것이다.”<sup>17)</sup>

**13:6** 의로운 삶은 보호받는 삶이다. 하나님은 정직한(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자원해서 지키신다. 그러나 죄인은 그 악이 그들을 조만간 내던질 것이기에 항상 위험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13:7** 본문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물질적인 면에서 아무 소유가 없는 자가 부자인채 하고, 재물이 많은 자가 가난한 체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문은, 경건치 않은 백만장자는 사실 영적인 가난뱅이인 반면, 신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물건은 이렇게 설명한다.

“오늘날은 스스로 부한 체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들로 가득하다.

---

17) (13:5) J. Allen Blair,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그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으나 그것으로는 삶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만한 것을 살 수 없다. 그것은 건강을 보장해줄 수 없다. 그것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것은 종종 평화를 파괴한다. 반면에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으나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높은 차원에서 부유해진 자들이 있다.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자기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줌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를 부요하게 하는 것은 삶의 능력을 죽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함으로써 자기를 가난하게 하는 것은 곧 사는 것이다. 이 히브리 지혜의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육신하신 지혜가 되신 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sup>18)</sup>

**13:8** 부지는 종종 그의 재물을 원하는 자들에게 협박을 받는다. 그는 강도와 공갈과 유괴의 위협에 직면하며, 보디가드를 고용하거나 요구하는 돈을 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가난한 자는 그런 종류의 위협을 당할 필요가 없다.

**13:9** 의인의 증거는 밝고 희망차게 떠오르는 빛과 같다. 악인의 삶과 소망은 곧 꺼질 등불이다.

**13:10** 첫 문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다툼이 일어날 때면 항상 교만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만으로는 다툼만 생겨날 뿐이다”(JND), 즉 교만으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C.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나라와 모든 가정에서 불행의 주된 원인이 되어온 것은 교만이다. 다른 악들은 이따금씩 사람들을 한데 뭉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술주정뱅이나 건달들이 모인 데서 우

---

18) (13:7)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s from the Word*, p. 203.



리는 친교와 유머와 우정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교만은 항상 적대감을 의미한다. 그것은 적대감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적대감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sup>19)</sup>

선한 권면을 기꺼이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그들은 교만과, 그에 따른 다툼을 피한다.

**13:11**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은 신속히 혹은 아무 노력 없이 온다. 도박, 경마,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돈이 거기에 포함될 것이다. 그런 종류의 부는 사람의 손에서 쉽게 빠져나간다.

정직한 수고로 얻은 재물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간다.

**13:12** 우리의 기대하는바가 거듭 지연되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러나 마침내 소원이 이뤄지면 크게 만족하게 된다. 주님의 강림하심에 이것을 적용하라.

**13:13** 여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문제이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 파괴의 단추를 누르는 것이다. 계명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는 풍성히 보상받는다.

**13:14** 지혜 있는 자의 권면과 가르침은 잘 듣는 자들에게 생명의 샘과 활력이다. 그것은 삶의 여정에 드리운 위대한 울무에서 사람들 건져준다.

**13:15** 선한 지각(understanding)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게 한다. “선한 분별력(sense)을 갖춘 사람은 칭찬을 듣는다”(LB).

---

19) (13:10) C. S. Lewis, *Christianity*, pp. 110,111.

본문 후반부의 “힘하다”로 옮겨진 단어는 본래 ‘영구적이다’, ‘오래 지속되다’, ‘항상 일정하다’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힘하다’로 옮겨졌다. 만일 그것이 ‘영구적’이란 뜻이라면 부정문, 즉 “퀘사한 자의 길은 영구적이지 않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 전통적인 본문의 표현인 “퀘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는 표현을 따르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매일마다 오는 신문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

**13:16** 사람의 품행은 그 성품을 드러낸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려 깊다면, 그것은 그 책임 있는 행동방식으로 나타난다. 어리석은 자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13:17** 믿을 수 없는 사자(使者)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온다. 충성된 사신을 보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는 모두가 만족하는 데까지 그 사명을 완수한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고후 5:20).

**13:18** 교정과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그 완고함으로 궁핍과 수치를 거둔다. 책망을 듣는 자는 존귀를 얻는다.

**13:19** 의인은 목표를 성취하고 기뻐하나, 어리석은 자는 그 죄를 버리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의인과 악을 떠나기 싫어하는 죄인을 대조한 것으로 보인다.

**13:20**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사귀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 그들은 우리를 높은 데로 이끌어줄 것이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고전 15:33). 사람은 종종 그 사귀는 친구에 의해 알려

진다. 어리석은 자와 사귀는 것은 패망을 가져온다.

**13:21** 죄인은 무수한 재난과 육체적인 손상과 오명과 재물의 손실을 당한다. 의인은 좋은 평판과 선한 생명과 좋은 상급을 누린다.

**13:22** 선한 사람은 그 자녀에게만 아니라 그 손주들에게도 산업을 물려준다. 구약에 의하면, 이것은 아마도 그가 그들에게 물질적인 부를 물려준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후손에게 풍부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라는 더 좋은 권고를 받고 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 “그릇 되어 얻은 소득은 선한 손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13:23** 가난한 자는 그 토지를 꼼꼼히 경작하여 적은 땅에서 많은 곡물을 얻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최선의 목적에 활용한다.

후반부는 이런 뜻일 수 있다.

- (1) 큰 농토를 소유한 부자는 종종 불의로 인해 파탄에 이른다.
- (2) 가난한 자의 농작물은 종종 불의로 인해 빼앗긴다.

**13:24** 현대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든 않든 성경은 체벌을 가르친다. 필요할 때 아이를 징벌하기를 꺼리는 것은 그 아이를 죄 가운데 행하도록 부추기고, 따라서 결국 그가 파탄에 빠지는데 기여한다. 매를 아끼는 부모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라고 말씀하신다.

여러 해 동안 벤자민 스폭 박사는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부모들을 격려했다. 그 후 한 세대가 지나고 고집세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확고히 가르칠 능력이 없는 것이 내가 보기엔 오늘날 미국 부모들의 가장 만연된 문

제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적어도 부분적인 책임을 전문가들, 즉 “나와 같은 아동심리학자, 병리학자, 교사, 사회활동가, 소아과 의사 등”에게 돌렸다.<sup>20)</sup>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의 잘못을 감싸주지 않고 신속히 징계한다.

**13:25** 하나님은 의인의 필요는 채워질 것이라고 보장하신다. 그러나 악인은 그 배가 주릴 것이다.

**14:1** 지각 있는 아내는 그 집과 가정을 세운다. 어리석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소홀히 하며, 왜 자신의 가정이 몰락해 가는지 의아해한다.

여자가 종교활동에 너무 몰두하여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

**14:2** 사람의 품행은 여호와께 대한 그의 태도를 반영한다. 의인은 그가 알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며, 그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멸심을 드러낸다. 키드너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길을 떠난 모든 시도는 자기 뜻과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맞서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멸스런 태도는 인정하기에는 극히 불합리하다.”<sup>21)</sup>

**14:3** 어리석은 자의 입술에는 교만이라는 매가 있다. 그는 그 오만한 말로 인해 매를 맞아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런

---

20) (13:24) Benjamin Spock, the Tampa Tribune, Tampa, FL, January 22, 1974에서 발췌.

21) (14:2) Kidner, *Proverbs*, p. 106.

징벌로부터 그를 보호해준다.

**14:4**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이 보존될 수 있다. 그러나 소의 수고가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것을 안다면 다소 지저분하고 먼지가 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수고의 대가가 다소간의 불편을 넉넉히 보상해주는 것이다.

본문은 재난지역과 같은 가정이나 예배당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다만, 진보와 생산성에 제동을 가하는 지나친 정돈과 청결 의식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14:5** 악한 양심을 갖고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 선한 양심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C. H. 맥킨토쉬는 말한바 있다. 항상 온전히 진실하도록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14:6** 거만한 자는 계속 듣기를 거부하므로 듣는 능력마저 상실한다. 그는 여호와를 거절하는 한 참된 지혜를 결코 발견할 수 없다.

명철한 자는 옳은 것을 속히 알아차린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마 13:12).

**14:7** 미련한 자와 사귀려 하지 말라. “거기서는 지식의 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RSV). 또는 “그에게서는 지각 있는 말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Moffatt).

**14:8** 사려 깊은 자에게는 지혜가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음이며, 그러한 어리석음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마침내 자기 파멸을 초래하는 속임이다.

**14:9** 본문은 원문상 뜻이 불분명하나 NKJV의 번역이 명료해보인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조롱하고, 죄가 그 옷자락에 무서운 칼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것이 날카로운 흉기를 지닐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은 그들을 웃으며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목적임을 알지 못한다. 죄를 더 이상 처리하지 말라. 그러면 구원자께서 당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실 것이다.”(존 번연)

정직한 자는 죄책감과 정죄감 없이 여호와와의 은혜를 누린다.

**14:10** 인간의 마음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함께 할 수 없는(주님은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함께 하시지만) 슬픔이 있다. 또한 직접 관련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

**14:11** 집과 장막의 대조를 보라. 집은 영구적인 것으로, 장막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직한 순례자의 장막은 보존되지만 악한 땅의 거주자의 집은 무너진다.

**14:12**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은 선행이나 좋은 성품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생각 아래 수고하며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16:25).

넓은 의미에서,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은 자기 자신의 길, 즉 하나님의 인도나 사람의 권면을 비웃는 자기 의지의 길이다. 그것은 다만 재앙과 영적인 죽음만을 가져올 뿐이다.

**14:13** 인생에는 순전하고, 티가 조금도 없는 완전한 기쁨 같은 것은 없다. 항상 슬픔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 “기쁨은 슬픔과 섞여있

고, 웃음은 눈물과 함께 간다”라고 낙스는 말했다.

**14:14**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할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그 완고함의 결과를 거둔다.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룻 1:20,21). 그리고 탕지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눅 15:17).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길)로 만족하는데, 이는 그것이 여호와와 길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윗과 함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거나(시 23:5), 바울과 함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다(딤후 4:7).

**14:15** 순진하고 잘 속는 사람은 새로운 사상이나 유행에 민감하다. 사려 깊은 자는 한번 더 살피고, 그로써 그 발을 잘못 가는데서 보존한다. 믿음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증거를 발견한다. 경신(輕信)은 과학자나 철학자나 심리학자의 쉬 사라질 모든 말을 믿는다.

**14:16** 지혜로운 자는 주의 깊고 신중하다는 의미에서 ‘두려워한다.’ 물론 본문은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어리석은 자는 거만하고 경솔하며, 제한선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를 신뢰한다.

**14:17** 노하기를 속히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분노한 가운데 그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행한다. 그는 문을 꽂 닫고,

아무거나 잡히는 데로 집어던지고,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가구를 부수고, 그리고 씩씩거리며 나간다. 그러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쉽게 노하는 사람은 악한 계교를 피하는 사람보다 참기가 한결 쉽다. 악한 계교를 피하는 사람은 그 냉혈적인 간계함 까닭에 모든 사람이 미워한다.

**14:18** 어리석은(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물려받는다. 만일 그들이 선한 가르침을 듣기를 거절한다면 그로써 그들은 더욱 미련해지는 쪽을 택한 것이다.

**14:19** 본문은 악에 대한 선의 궁극적인 승리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은 의인의 일을 돌아보실 것이다. 하만이 모르드개 앞에 엎드려야 하는 날이 이르렀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무릎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날이 올 것이다.

**14:20**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이것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타산적인 생각으로 동료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피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부자와 더불어 사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면에서 부자는 친구가 많으나, 다른 면에서는 진실한 친구, 즉 그의 소유보다 그의 됴됨이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친구가 몇이나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14:21** 본문은 앞 절과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



문이다(약 2:5). 가난한 자를 붙잡히 여기는 자는 그 행위에 복이 따른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가난한 자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이는 그분을 가리켜 “나사렛 출신의 한푼 없는 내 친구”라고 표현했다.

**14:22**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그릇 같 운명이다. 다른 사람의 선을 도모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로 보상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보호와 상급에 대한 약속에 충실하시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이 충성과 진실로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14:23** 모든 정당한 수고에는 유익이 있다. 말만 하는 것은 궁핍만을 초래할 뿐이다. 그들의 문제에 대해 늘 말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세계전도에 대해 열띤 주장을 펴지만 그들의 이웃에게 전도하기 위해 안락의자에서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들은 장래에 할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계획은 수행하지를 않는다.

**14:24** 지혜로운 자의 영광은 그 부(富)이다. 그 부를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든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든 그들은 그들의 지혜에 대해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그들의 삶과 수고에 대해 어리석음 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14:25** 법정에서 진실한 증인은 무고한 사람을 누명에서 건져준다. 속이는 증인은 그러한 속임이 초래하는 모든 파괴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한다.

복음전도자는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는 진실한 증인이

다. “자유주의학자”와 “이단종파”는 거짓을 말하고 영혼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속이는 증인이다.

**14:26**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를 가질 모든 이유를 갖춘 자이다. 만일 하나님이 그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다(롬 8:31). 그러한 사람의 자녀는 죄악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다.

**14:27**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영적인 힘과 활력의 근원으로 사망의 울무를 능히 피하게 한다.

**14:28** 백성의 수효와 만족도와 충성도가 왕의 영광을 결정짓는다. 왕이 다스릴 백성이 적거나 전혀 없는 중에 왕위에 오르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 못된다.

**14:29** 감정적인 자극을 잘 견디는 자는 큰 명철(통찰력)을 나타낸다. 충동적인 자는 어리석음을 더욱 키우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

**14:30**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화평”은 만족한 마음을 의미한다. 낙스는 이렇게 읊고 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건강이다.”

시기와 흥분은 사람의 건강에 해롭다. 폴 아돌프 박사는 이렇게 증거한다.

“병리학자들이 인정하는 소위 신경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죄책감, 분한 감정(용서하지 않는 마음), 두려움, 염려, 좌절, 결단력 없음, 의심, 시기, 이기심, 싫증 등이 있다. 불행히도 많은 병리학자들은 질병을 불러오는 감정적인 혼란의 원인을 찾아내는데는 큰

수완을 발휘하지만, 그 접근방식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까닭에 그러한 혼란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실패해왔다.”<sup>22)</sup>

**14:31** 가난한 자를 악용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모욕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기도 하다”고 조지 허버트는 말했다.

둘째 문장은 궁핍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이다.

**14:32** “악인은 자기 자신의 동전으로 대가를 지불 받음으로 종말을 맞는다. 그러나 의인은 죽음의 문 앞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Knox). 유다는 첫째 문장의 예이고, 바울은 둘째 문장의 예이다.

**14:33**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는 문장은 지혜가 그곳에서 안식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런 자는 그가 아는 모든 것을 불필요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

둘째 문장은 다소 어렵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일 수 있다.

(1)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곧 알아낼 수 있다.

(2) 지혜는 미련한 자의 속에는 알려지지 않는다(RSV).

(3) “지혜는 크게 소리쳐야 비로소 어리석은 자에게 알려진다”(버클레이 성경 난하주).

**14:34** 나라가 강성해지려면 그 지도자와 백성들이 정직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갖춰야 한다. 부패와 부정과 뇌물과 “더러운 속임수”와 추문과 그밖에 모든 형태의 불의는 나라에 불명예를 가져온다.

---

22) (14:30) Paul Adolph, “God in Medical Practice,” in *The Evidence of God in an Expanding Universe* by John Clover Monsma, 페이지 수는 알 수 없다.

**14:35** 통치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종에게 은총을 나타낸다(요셉, 모르드개, 다니엘의 경우를 보라). 부끄럽게 행하는 자에게는 그의 진노가 임한다. “왕은 유능한 종에게는 은총을 베푸나 무능한 종에게는 그의 진노가 있다”(Moffatt).

**15:1** 15장의 많은 부분은 언어 문제에 할애되어 있다. 인자한 대답 혹은 화목케 하는 대답은 분노의 폭발 내지 증폭을 제지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이에게 과격할 말로 대답하면 그것이 그의 육신적인 본성을 자극할 것이며, 곧 당신은 격한 다툼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스피셜전은 아름다운 예화를 들려준다.

“한번은 허술한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이웃과 정원이 연결된 그런 집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은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개는 아주 지독한 정원지기로 우리집 나무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는데 그 개가 우리집 정원을 마구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돌아가라고 엄히 꾸짖으며 막대기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개는 집에 돌아가는 대신 내 막대기를 주워 입에 물고 꼬리를 흔들며 내게 왔습니다. 그리고 내 발 앞에 막대기를 떨어뜨리고는 나를 아주 친근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그 개를 쓰다듬어주고 착한 개라고 부르고, 또 그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sup>23)</sup>

**15:2**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유익한 정보를 베푼다. 그는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는 어리석음이 탁류처럼 뿜어져 나온다.

**15:3**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즉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의

---

23) (15:1) Charles Haddon Spurgeon, A. Naismith에 의해 *More Notes, Quotes and Anecdotes*, p. 239에서 인용.

눈은 모든 곳에 있다. 아무것도 그분에게서 숨을 수 없다. 그분은 선 악간에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동기를 계속해서 감찰하신다. 이로 인해 다윗은 이렇게 탄성을 발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시 139:6).

**15:4** 건전하고 은혜로운 언어는 새로움을 주고 위로하고 소생케 한다. 왜곡되고 악의적인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15:5** 이 미련한 자는 앞서 만난바 있다. 그는 그 아버를 시대에 뒤떨어진 자로 여기고, 아버의 생각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아버의 가르침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교정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는다. 그는 사려 깊으며, 더욱더 사려 깊게 된다.

**15:6** 경건한 가정에서 양육받은 자는 이 첫째 문장이 진리임을 증거할 수 있다. 그들의 부모는 비록 부유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지닌 영적인 유산을 남겨준 것이다.

불의한 자의 악한 소득은 그 자신과 그의 가정에 환란을 가져다준다. 아간이 그 좋은 예이다(수 7장).

**15:7** 지혜로운 자의 말은 유익한 지식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공허하므로 아무도 유익하게 할 수 없다.

**15:8** 첫째 문장은 실체가 없는 의식의 무가치함을 가르쳐준다. 악인은 여호와께 값진 예물을 가져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시하신다. 그분은 먼저 우리의 삶의 정결을 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삼상 15:22).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겸손한 기도를 기뻐하신

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 51:7).

**15:9** 악인의 길은 여호와를 심히 불쾌하게 한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를 사랑하신다.

**15:10** 본문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두 부류(완고한 자, 즉 ‘도를 배반하는 자’와 가르침을 거절하는 자, 즉 ‘견책을 싫어하는 자’)의 사람과, 그들이 받는 징벌(엄한 징계와 죽음)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는 두 문장이 동일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의 완고함이 엄한 징계를 불러온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통해 교훈 받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으로 계속 나아간다. 히브리어의 시 구조(병행구조)에 의하면 후자의 해석이 바람직하다.

**15:11** “음부와 유명(幽冥)”(히브리어로, ‘스울’과 ‘아바돈’)은 무덤 너머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죽음과 내세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실진대, 이 땅에 있는 인생의 생각과 비밀은 얼마나 더더욱 아시겠는가!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3).

**15:12** 거만한 자는 교정 받기를 싫어한다. 그는 권면을 들으려 지혜있는 자에게 가지도 않으며, 다만 그가 듣고자 하는 것을 얘기해 줄 듯한 사람에게로 간다. 그러한 태도는 자기 파괴적이다. 그것은 그를 완고함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며, 깊은 침체에 빠지게 한다.

**15:13** 즐거운 마음은 웃는 얼굴에 나타나나, 상한 마음은 그 영향

력이 크다. 그것은 무기력과 절망을 가져온다.

**15:14** 명철한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헛되이 되씹는다. “지혜로운 자는 더욱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는 더욱 어리석게 된다.”

**15:15** 이것은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를 대조한 듯 보인다. 비관주의자는 늘 의기소침해있다. 그는 어둡고 위축되고 부정적이다. 낙관주의자는 항상 꼭대기에 있는 듯하다. 그는 삶을 충분히 즐긴다.

**15:16** 가난한 신자가 걱정을 일삼는 부자보다 낫다. 부(富)에는 번뇌가 따른다. 믿음의 삶은 염려 없는 삶이다.

**15:17** 사랑하는 분위기 속의 한 그릇 야채가 다툼이 있는 곳의 진수성찬보다 낫다. “미움으로 베풀어진 최고의 고기 요리보다 야채 한 접시가 낫다”(Moffatt).

“살진 소”는 외양간에서 키우고 최고의 먹이를 준 소로 그 고기가 연하고 맛있다. 조셉 R. 시주는 이렇게 말한다.

“인근 도시에서 나는 미국에서 그동안 가본 적이 없는 화려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는 이탈리아산 난로와 벨기에산 벽걸이 융단과 중동산 바닥 융단과 진귀한 그림들이 즐비했습니다. 한 친구에게 내가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 살았던 사람은 꽤나 행복했겠지!’ 친구가 답했습니다. ‘아냐, 그렇지 않아. 그들은 백만장자였지만 부부간에 대화가 없었어. 이곳은 증오의 온상이었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서로에 대해서 전혀 사랑이 없었어.’”(Our Daily Bread)

**15:18** 화를 쉽게 내는 자는 항상 다툼을 일으킨다. 지혜로운 자는

다툼을 피하거나, 다툼을 가라앉힐 줄 안다.

**15:19** 게으른 자의 길은 온갖 문제들로 에워싸여 있다. 아마 그는 그 문제들을 핑계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정직한 자의 길은 평탄하고 잘 포장된 대로이다.

**15:20** 삶이 정결한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큰 만족을 준다. 그러나 완악한 아들은 그녀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녀의 눈물을 업신여김으로 그 어머니를 경멸히 대한다.

**15:21**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즐긴다. 그는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한다. 지혜로운 자는 근신하고 도덕적인 삶에서 기쁨을 취한다.

돼지는 진흙탕에 뒹굴기를 좋아하나 양은 깨끗한 초장을 원한다.

**15:22**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혼자 행동하면 종종 그 계획이 무산된다. 널리 정보와 조언을 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야 할 위험을 경고해줄 수도 있고, 최선의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다.

**15:23** 정직하고 유익한 대답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다. 또한 때에 맞는 말(적시에, 특별한 필요에 부응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사 50:4). 예수님은 그러한 말을 하실 줄 아신다.

**15:24** 지혜로운 자의 길은 위로 생명을 향해 나있으므로 아래로 죽음과 파멸로 이끄는 길을 피할 수 있게 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인류의 두 길과 두 운명을 생각하게 된다.

**15:25** 주님은 오만하고 도도한 자의 집은 멸하시나 압제받는 과부의 적은 농토의 경계는 보호하신다.

**15:26** 주님은 악인의 악한 꾀는 미워하시나 선한 자의 말은 기뻐하신다.

**15:27** 본문은 우선적으로 뇌물을 받고 재산을 부풀리는 재판관이나 공직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재판을 왜곡하고 자신의 품행을 더럽힌다. 그러나 더욱 불행한 것은 그의 가족에게 크나큰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뇌물과 관련 있는 일체의 것을 받기를 거절하는 자는 삶을 누릴 수 있다.

**15:28** 의인은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깊이 생각한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입을 열어 신성모독과 더러움과 악의를 토해낸다.

**15:29** 주님은 악인을 멀리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그들과 사귀을 갖지 않으시며 그들도 기도로 그분과 만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신자는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에 계신 만유의 주재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요 9:31).

**15:30** 사람의 빛나는 얼굴은 파급성이 있다. 그것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한다. 또한 좋은 소식은 사람의 전존재를 유익하게 한다.

**15:31** 생명의 참 길로 인도하는 권면을 듣는 자는 이 땅의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자리를 차지한다. 성경의 가르침 전체와 특히 복음의 가르침은 생명을 주는 권면이다.

**15:32** 경건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기에 이는 곧 자기 자신을 경히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책망을 잘 듣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최선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15:3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로 인도하는 훈계이다. 겸손은 존귀에 이르는 길이다.

## 2) 의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격려(16:1~22:16)

**16:1** 16장 1~11절에는 여호와(주)란 이름이 9번 나온다. 사람이 마음으로 미리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권자시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말을 다스리신다. “사람은 제안을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예를 들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으나 그 말이 축복으로 나타났다(민 22:38; 23:7~10). 또한 자기 자신의 지혜를 너머 말한 가야바를 생각해보라(요 11:49~52). 헤롯과 빌라도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 모의했다(행 4:27,28).

이것은, 하나님의 핍박받는 백성은 종종 심문을 당할 때 할 말을 미리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주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마 10:19).

**16:2** 사람은 외적인 행동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 깨끗하

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여호와와는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보신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시 19:12).

**16:3** 우리의 꿈과 목표가 성취될 것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여호와께 우리의 일을 맡기는 것이다. J. 알렌 블레어는 이렇게 조언한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당황하고 낙심에 빠진 자신을 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염려하는 심령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는 상태에 이를 때마다 즉시 멈추고 ‘이것이 누구의 일이지?’ 하고 자문해보아야 한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짐 또한 그분의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라. 당신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일이 형통치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분께로 가자! 그렇지 못한 모든 것은 불순종이다.”<sup>24)</sup>

기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손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Daily Notes).

**16:4**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저주받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성경 어디서도 유기(遺棄)의 교리(어떤 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버림받기로 작정되었다는 극단적인 예정설-역주)를 가르치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다.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 결국 혹은 목적을 지니신다는 의

---

24) (16:3) J. Allen Blair,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미이다.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있으며, 모든 행동에는 보상 내지 징벌이 있다. 하나님은 악인을 위해서는 환란 날을 정하셨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 그리고 악인의 운명은 멸망이다”(TEV).

**16:5** 인간의 교만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라는 표현은 문맥으로 볼 때 교만한 자가 징벌 받는 것의 확실함을 말해주는 듯하다.

**16:6** 본문의 교훈은 이 주제에 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일 리가 없다. 구원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인자와 진리는 구원 얻는 믿음의 증표라는 점에서 죄악을 사한다고 표현될 수 있다.

본문 후반부는 그 뜻이 명료하다.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써 불행과 재난을 피할 수 있다.

**16:7** 여러 잠언의 경우처럼 본문도 일반적인 원리로서 그 예외가 있다. “의로운 삶은 대적을 무장해제한다.” 혹은 바네스의 표현대로, “선(善)은 대적을 매료시키고 심지어 물리치는 힘이 있다.”

스탠튼(stanton)은 링컨을 몹시 경멸했다. 그는 링컨을 가리켜 ‘천박한 시골뜨기’요 ‘고릴라’라고 불렀다. 그는 “굳이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비아냥거렸다. 링컨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내각을 구성하면서 스탠튼을 국방장관의 적임자라고 믿고 그 자리에 임명했다.

수년 후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살해되었을 때 스탠튼은 그의 주름

살 패인 얼굴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세상이 아는 최고의 지도자가 여기에 누워있다.”

**16:8** 불의로 혹은 속임으로 많은 소득을 얻는 것보다 정직하게 적은 소득을 얻는 것이 낫다.

**16:9**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이 애써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이 실현될지는 오직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 다소의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자 계획했지만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끝났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영원히 떠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그를 되돌려 보내셨다.

**16:10**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롬 13:1) 왕의 칙령과 결정은 권위와 최종결정권이 있다. 따라서 왕의 입은 재판할 때에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16:11** 하나님은 표준관리국(Bureau of Standards)을 관할하신다. 그분은 공정한 간칭과 명칭을 결정하신다. 사람들이 그분이 정한 표준대로 거래하면 그분이 인정하고 축복하신다.

**16:12** 사실 악을 행하는 것은 모두가 미워하는 바나 특히 왕들에게 그러하다. 그들은 그 지위로 하나님을 대표하며, 따라서 보다 큰 책임이 있다. 왕의 보좌는 공의의 기초 위에 굳게 선다.

본문은, 그 신하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하는 바라는 뜻일 수도 있다. 준법적이고 질서가 잘 잡힌 정부는 공의로 유지된다. 도덕적인 기준이 포기되면 독재가 득세하게 된다.

**16:13** 선한 왕들은 아첨하고 위선적으로 말하는 자들을 신임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을만하고, 솔직하고 성실한 자들을 원한다.

**16:14** 일단 분노하면 왕은 범죄자를 속히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통치자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노력할 것이다.

**16:15** 왕이 즐거워하면 그의 얼굴의 즐거움이 온 지경에 기쁨을 퍼뜨린다. 왕의 은총은 늦은 비를 가져오는 구름처럼 신선하다.

**16:16** 이 땅의 부(富)는 지혜와 지식에 비교할 수 없다. 부는 종종 하루아침에 사라지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토록 보존된다.

**16:17** 의인은 죄악의 길로 벗어나지 않고 거룩의 대로를 좇는다. 이 대로 위에 머무는 자는 손실과 불행에서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

**16:18** 큰 나무는 번개를 맞기 쉽다.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넘어뜨리신다. 거만한 자들은 종종 비참한 경험을 당하여 그 자아가 실추된다. 큰 기구(氣球)를 떨어뜨리는데는 작은 바늘로도 충분하다.

루시퍼의 멸망을 초래한 것이 교만이었다. 말로우(Marlowe)의 표현대로, 그는 “교만과 무례함을 키워 하나님께서 천국 문전에서 그를 쫓아내셨다.”

**16:19** 마음을 겸손히 하고 겸손한 자들의 동료가 되는 것이 교만한 자들의 외관상의 이득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으뜸이 되려는가, 그러면 겸손히 섬기라.

높이 오르려는가,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려가라.

가장 높으신 분께서는 그보다 더욱 낮아지셨다.” (저자 미상).

**16:20**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만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읽으라. 그것에 주의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신 분을 신뢰하라”고 본문은 말한다.

**16:21**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인정을 받는다. 게다가, 그의 말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로 그의 말을 기꺼이 듣고 교훈을 배우게 한다. “말의 아름다움이 설득력을 더해준다”(NASB).

**16:22** 명철은 그 소유자에게 생명과 소생의 샘이 되나,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자에게 채찍이 된다.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징계를 당한다.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자들의 징벌이다”(Berkeley).

**16:23**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는 그 말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다. 그는 권위있게 말한다.

**16:24** 인자하고 선한 말에는 꿀송이의 특성이 있어서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키드너의 표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듣는 자의 마음과 몸에 유익을 줄 수 있다.”

윗치만 나는 그 한 일에 대해 남편이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는 한 여자 얘기를 들려준바 있다. 그녀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실패했다고 늘 스스로를 탓했다. 아마도 그 때문에 폐결핵을 앓게 된 듯했다. 그

녀가 죽어갈 때 남편이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 하오. 당신은 아주 많은 일을 아주 잘해냈소.” 그러자 그녀가 물었다. “왜 그 얘기를 일찍 해주지 않았지요? 나는 당신이 ‘잘 했소’라는 말을 한번도 해준 적이 없기에 늘 나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어요.”<sup>25)</sup>

**16:25** 본문은 강조를 위해 14:12를 반복한다. 천국은 선하게 되고 선을 행해야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뿐이다.

**16:26** 수고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애쓰는데 이는 그의 굶주린 입이 그를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혹 일을 그만두고픈 유혹을 받으면 즉시 그의 식욕이 그를 독촉한다.

**16:27** 27~30절은 악(惡)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첫째로, 악을 피하고 그 말이 맹렬한 불같이 태우고 상처를 입히는 불량한 (불경건한) 사람이 있다.

**16:28** 패려한 자는 진리를 왜곡하는 자이다.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그는 다툼을 확산시킨다.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16:29**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범죄에 가담하도록 부추긴다(롬 1:32).

---

25) (16:24) Watchman Nee, *Do All to the Glory of God*, p. 55.



**16:30** 얼굴 표정이 악한 뜻을 암시할 수 있다. 눈짓이 패역한 일을 전달할 수 있다. 굳게 다문 입이 단호한 결단을 표할 수 있다.

**16:31** 백발은 장수를 상징한다. 그것은 영화 내지 아름다움의 면류관인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그것이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은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한 시편 55:23의 반대이다.

**16:32**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전쟁의 정복자보다 더 큰 영웅이다. 그 영역에서 승리하는 것이 도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만일 믿지 못한다면 한번 해보라!

“피터 대제는 러시아의 막강한 황제 중 한 사람이었지만 이 점에서 실패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정원사를 때려 며칠 후 죽게 했다. 그는 이렇게 후회했다. ‘슬프도다. 나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나 자신은 정복하지 못했도다.’”<sup>26)</sup>

**16:33** 구약과 오순절 때에 이르기까지,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적법한 방법이었다. 제비뽑기는 어느 모로나 우연의 문체처럼 보였지만 여호와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주관하셨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반적인 윤곽을 보여준다. 말씀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기도 중에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배울 수 있다. 그 때 우리는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26) (16:32) Henry Durbanville, *Winsome Christianity*, p. 41.

**17:1**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는 것이 다툼과 긴장이 있는데서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낫다.

**17:2** 유능한 종은 종종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른다. 예컨대, 솔로몬의 종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지파 중 열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은 데 비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만 얻었다.

종은 종종 아들들과 함께 동등한 기업을 상속한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한동안은 그의 종이 그의 유일한 후사처럼 여겨졌다(창 15:2,3).

**17:3** 하나님은 도가니나 풀무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신다. 그것들은 은과 금을 연단할 수 있지만 여호와는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실 수 있다. 연단과정에서 그분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삶을 정화되, 그분 자신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까지 그리 하신다.

“네가 무서운 시련을 통과할 때  
나의 죽한 은혜가 임하리라.  
불꽃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다만 네 불순물이 사라지고  
네 금이 정제되리라.” (조지 카이쓰).

**17:4** 악을 행하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의 말을 잘 듣는다. 그들은 거짓말과 근거 없는 소문과 거짓 고소를 환영한다. 거짓말쟁이는 추문과 비방과 악한 혀에 귀기울이기를 즐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즐겨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의 마음상태를 알 수 있는 척도이다.

**17:5**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자라는 것을 14:31에서 살펴본바 있다(약 5:1~5).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하여 궁핍하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여호와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바다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뻐한 까닭에 에돔의 멸망을 선언한다.

**17:6** 많은 경건한 후손은 노인에게 영예를 준다(시 127:3~5; 128:3). 자식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세대차가 있을 수 없다.

**17:7** 고상하고 품격있는 말은 무지한 어리석은 자의 입에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하물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존귀한 자에게 더더욱 합당치 않다. 사람들은 존귀한 자에게 더 나은 것을 기대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입에서 더 나은 것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보다 더 높은 표준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17:8** 뇌물은 행운의 선물처럼 도움을 준다. 또는 그 소유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뇌물을 사용할 때마다, 그것은 문을 열어주고 은총과 특권을 얻게 하고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등 그 주인에게 놀라운 일을 해준다.

**17:9** 자기에게 잘못된 일을 기억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사랑과 우정을 구하는 자이다. 과거의 잘못을 거듭 들춰내는 자는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데 성공할 뿐이다.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많은 과실을 덮어주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눈감아주는 법을 알게 된다”고 아담스는 말한다.

한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말했다. “너는 그가 네게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다른 여자가 대답했다. “기억이 나지 않아. 하지만 그 일을 잊어버린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내!”

조지 워싱턴 카버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대학입학을 거부당했다. 수년 후 어떤 이가 그 대학 이름을 묻자 “아무 일 아니야!” 하고 그가 대답했다. 사랑이 이긴 것이다.

**17:10** 간단한 책망은 어리석은 자를 가혹하게 때리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에게 더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대개 민감한 사람은 엄한 징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둔감하고 냉랭한 사람은 엄히 다룰 필요가 있다. 그들은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참 힘든 자들이다.

**17:11**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그는 적법한 권위에 순복하기를 싫어한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고집한다. 반역자를 잡으려 보냄 받는 ‘잔인한 사자’는 왕이 보낸 체포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일 수도 있다.

**17:12** ‘새끼 빼앗긴 암곰’은 사납고 다룰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암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위험하지는 않는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일단 그 머리에 어떤 미친 생각이 들어가면 아무도 말릴 수 없다.

**17:13** 친절을 손실로 갚는 자의 집에는 저주가 임한다. 다윗은 그의 충성스런 신복인 우리아를 배신으로 갚았으며, 그 결과 큰 불행이 그의 집에 임했다(삼하 12:9,10).

**17:14** 제방에 구멍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다가 곧

구멍이 커지게 된다. 사소한 다툼은 큰 분열로 확대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다툼이 미미하게 시작될 때 중지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곧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17:15** 하나님은 공의를 굽게 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죄인을 죄 없다 하거나 무고한 자를 정죄하는 것은 똑같이 그분께 가증스런 것이다. 오늘날 법정은 그런 일들로 가득하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일에 대해 회계해야 할 것이다. “정의, 정의를 따르라”는 구호가 역사를 통해 메아리쳐 온다.

**17:16** 진정 의미 있는 생각이 없이 그저 큰 값을 치르고 지혜를 사려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훌륭한 학생이 되려면 보다 높은 동기를 부여받아야 한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Mo-ffatt).

본문의 또 한가지, 아마 더 가능성 있어 보이는 의미는,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첫 자리에 둘 능력이 없을 때는 돈을 주고 지혜를 사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어리석은 자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쩔인고?”(Berkeley). 그는 지혜를 딱 한 조각인양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에게 깨닫는 마음이 없음을 깨닫지 못한다.

**17:17** 진정한 친구는 형통할 때만 아니라 역경 중에도 사랑한다. 어떤 친구가 진실한 친구인지는 종종 어려움을 겪어봐야 안다. D. L. 무디의 성경에는 이러한 흥미로운 메모가 있다. “진정한 친구는 담쟁이덩굴과 같이 크게 패일수록 더욱 달라붙는다.”<sup>27)</sup>

형제는 역경을 위해 났다. 즉, 형제관계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

---

27) (17:17) Moody, *Notes*, p. 83.

가장 필요할 때 형제가 당신 곁에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 주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시간은 없네.

한 순간도, 한 순간도 없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은 없네.

한 순간도, 한 순간도 없네! (존슨 오트맨).

**17:18** 본문은, 사랑은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앞 절 내용을 보충한다. 채무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에 친구의 빛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보증이 필요한 사람은 신용상태가 위험한 사람이다. 왜 그런 자를 위해 보증이 되려는가?

**17:19** 죄과(罪過)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좋아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한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오만하게 얘기하는 자요(Moffatt), 자신의 부를 크게 주장하는 자요, 사치하게, 분수에 넘게 사는 자이다. 이런 자는 파괴를 구한다.

**17:20** 시푼한 마음은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하며, 패역한 혀는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 그들은 불행을 불러오고 행복을 쫓아낸다.

**17:21** 지각없는 자의 부모는 슬픔으로 지낸다. 미련한 자의 아버가 된다는 것은 아무 낙이 없는 것이다.

**17:22**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상태가 질병이나 우환에서 회복되는 것과 큰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즐거운 마음은 치유에 상당히 기여한다. 상하고 우울한 심령은 사람의 활력을 악화

시킨다.

본문에 대한 각주에서 버클레이역은 “무엇보다도 뛰어난 현대치료법”이라고 표현했다.

“오늘날 의사들은 활짝 웃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운동이라고 말한다. 파안대소를 터뜨릴 때 횡경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폐가 확장되어 그 안에 흡수되는 산소량이 크게 늘어난다. 그와 동시에 횡경막은 옆으로 확장되면서 심장을 부드럽고 리듬 있게 맞사지해준다. 그 반응으로 그 소중한 기관(심장)은 더욱 빠르고 힘차게 박동한다. 혈액 순환이 빨라진다. 간, 위, 췌장(胰臟), 비장(脾臟), 쓸개 등이 모두 자극을 받아 몸 전체의 컨디션이 놀랍도록 향상된다. 이 모든 것은 2천년 전에 옛 희랍의 철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웃음을 가리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육체운동’이라고 한 말을 확증해준다.”<sup>28)</sup>

그러나 모든 웃음이 건강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테네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폴리스는, 웃음과 미소가 공격적인 면으로 사용될 때는(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무안을 주기 위해) “건강에 유익하지 않으며” 실은 비웃음당하는 쪽보다 비웃는 쪽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한다.

상한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블레이크 클락은 이렇게 말한다.

“감정은 당신을 병들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게 하고, 터질 듯한 두통을 가져오고, 코의 통로를 막고, 눈과 코가 천식과 알레르기로 물이 흐르게 하고, 목이 후두염으로 조이게 하고, 피부에 발진이 돋게 하고, 심지어 치아가 빠지게 할 수 있다. 감정은 궤양과 염증을 일으키고 아내들에게 유산을, 남편들에게 성 불능을 가져다주는 등 많은 우환을 겪게 한다. 감정은 우리를 죽일 수 있다.”<sup>29)</sup>

---

28) (17:22) Paul Brock, *Reader's Digest*, September, 1974.

29) (17:22) Blake Clark, *Reader's Digest*, May, 1972.

**17:23** 악인은 재판관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등뒤에서 뇌물을 받는다.

**17:24** 명철한 자는 지혜를 눈앞의 목표로 두고 똑바로 나아간다. 어리석은 자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다. 그의 눈은 혼계를 필요로 하는 지혜를 찾는 대신 환상 중에 온 세상을 방황한다.

**17:25** 부모로서 겪는 큰 슬픔 중 하나는 근심과 고통만을 끼치는 자식을 두는 것이다.

**17:26**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치 못하다. 그러나 그러한 공의의 왜곡이 날마다 일어난다.

**17:27**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아끼고, 명철한 자는 성품이 조용하다. 성급한 말과 급한 기질은 부족한 인격을 드러낸다.

**17:28** 외모로는 그 사람이 미련한지 알 수 없다. 겉보기에는 매우 지혜로워 보일 수 있다. “입술을 닫으면 사려 깊게 보일 수 있다” (Moffatt).

“때로는 입을 열어 모든 의구심을 없애는 것보다 입을 다물고 사람들로 당신이 어리석은 자인지 아닌지 의아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나은 때가 있다”고 제임스 G. 신클레어는 말한다.

**18:1** 본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시도된 것으로 보아 그 난해함을 알 수 있다.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자는 자기 자신의 소욕을 구하는 자이다. 그는 온갖 지혜로운 판단을 배척한다. 이런 자는 그것이 검증된 지식



내지 인정된 방법과 어긋날지라도 자기 길을 고집하는 비순응주의자이다. 그는 자기 주장으로 훌륭한 지혜를 저버린다.

RSV는 전혀 다르게 읊었다. “결길로 벗어난 자는 자기 과시를 구하며 모든 훌륭한 판단을 배척한다.” 다시 말해서 결길로 벗어난 자는 온갖 종류의 무책임한 행동을 정당화할 핑계를 찾는다는 것이다.

낙스의 번역은 이와 다소 비슷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다. “친구와 멀리하려 하는 자처럼 변명을 찾는데 빠른 자는 없다. 그는 늘 잘못을 저지른다.”

유대인 주석가들은 본문을 죄와 어리석음에서 분리된 삶을 권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하는 자는 보다 높은 관심사를 구하며 모든 참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해석 자체는 사실이기는 하나 가능성 없는 해석이다.

**18:2** 어리석은 자는 명철한 사람의 말을 듣기를 거절한다. 그는 오직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데만, 혹은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다.

**18:3** 악인이 올 때는 멸시도 오고, 불명예가 올 때는 능욕도 온다. 이것은, 외적인 부끄러움과 능멸은 내적인 악함과 비열함의 결과로 온다는 것을 달리 표현한 말이다.

**18:4**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입의 말은 그 사람을 폭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참 생각과 동기를 숨기는 깊은 물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이다. 다시 말해서 지혜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투명하다.

모팻은 본문을, 지혜로운 자의 말은 깊은 못이요 흐르는 시내요 생명의 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열지 않고 깊으

며, 바짝 마르지 않고 흐르며, 밋밋하지 않고 생기가 넘친다.

**18:5** 하나님은 여기서 도덕적인 판단을 뒤엎는 것을 정죄하신다. 악인을 편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악을 눈감아주는 것이다. 의인의 의를 빼앗는 것은 로웰이 말한 “진리를 사형대에 놓고 거짓을 보좌에 놓는 것”이다.

**18:6** 입을 크게 벌리는 미련한 자는 항상 다툼과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 술주정뱅이가 그런 면에 탁월한데, 그렇게 해서 그가 얻는 것은 멍든 눈과 타박상과 찰과상뿐이다.

**18:7** 미련한 자의 말은 그의 멸망이 된다. 그의 거칠고 상스러운 언어는 그의 중국적인 파멸을 불러온다.

**18:8** 말쟁이의 말은 맛난 별식과 같아서 듣는 자들이 열띠게 삼켜버린다. 그것은 “아주 맛있는데, 아주 좋아. 더 들려줘!”라고 듣는 자들이 말하는 것 같다.

**18:9** 게으른 자는 파괴자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들은 둘 다 큰 위험 내지 파탄을 불러온다. 그리피스는 이렇게 경고한다.

“오늘날 우리는 불량 자동차와 불량 비행기와 불량 건물 등이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임을 알고 있다. 또한 직장과 교회에서도 책임감의 결여가 협력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교회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만 아니라 무관심과 게으름을 통해서도 분열될 수 있다.”<sup>30)</sup>

**18:10**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자신을 말한다. 여호와와는 그분을

---

30) (18:9) Griffiths, *Lié*, p. 53.

의지하는 자에게 피난처와 보호막이다. 그러므로 두려운 시험을 만나거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그분이 범되지 않도록 보호 해주실 것이다.

**18:11** 부자는 그의 재물이 그를 보호해 줄 것을 믿는다. 그는 스스로 자랑스레 여기면서 재물이 마치 높은 성벽같이 그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줄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재물은 그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를 도와주지 못한다.

10절은 사실이요, 11절은 허구(虛構)이다. 10절의 의인은 사실을 의지하지만, 11절의 부자는 허구를 의지한다.

**18:12** 교만은 한 발은 무덤 위에, 한 발은 바나나 껍질 위에 둔다. 겸손은 존귀를 향해 안전하게 걸어간다. 윌리엄 로우는 그 둘을 이렇게 대조한다. “교만을 바람직하지 못한 기질로, 겸손을 고상한 미덕으로 보지 말라. 교만은 지옥이요 겸손은 천국이다.”

**18:13** 우리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전에 모든 관련된 사실을 종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상이 밝혀질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혼과 분쟁과 그밖에 모든 문제에는 양측(兩側)이 있다.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한 쪽 얘기에 동의하지 말라.

**18:14** 사람의 심령은 모든 종류의 육체적인 연약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은 견디기가 훨씬 어렵다. 감정적인 문제는 종종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하다.

폴 아돌프 박사는 병원에서 부러진 엉덩이뼈가 만족스레 회복되던 한 노인 환자 얘기를 들려준다. 퇴원한 후에 그는 한 양로원에 옮겨졌다.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환자는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

지더니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부서진 엉덩이때 때문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 때문이었다.”<sup>31)</sup>

포르수용소의 공포를 의연히 이겨낸 한 사람이 석방된 후에 자신을 밀고한 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자 그는 무릎관절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 그는 적의 공격은 견딜 수 있었으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공격은 견디지 못했다.”

**18:15** 지혜로운 자는 배우기를 멈추는 지점에 결코 이르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항상 가르침에 열려 있으며 그의 귀는 지식을 달게 받아들인다.

**18:16** 어떤 이의 뇌물 혹은 선물은 뭔가 의지하고픈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또한 본문이 종종 인용되듯이 어떤 이의 영적인 은사는 그것을 활용할 기회를 그에게 부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그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도할 수 있다면 그는 많은 기회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본문의 의미는 아니다.

**18:17** 어떤 사람이 그의 입장을 얘기하면 아주 설득력있게 보이기에 그를 믿기가 쉽다. 하지만 그의 이웃이 와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그에게 던지면 그가 그렇게 옳지만은 않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

**18:18** 구약 신자들이 제비를 뽑은 것은 그들이 보기에 미흡하게 생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었다. 제비 뽑기는 그렇지 않으면 무력에 호소할 만한 경쟁자들에게 공정하고

---

31) (18:14) Adolph, “God in Medical Practice,” 페이지 수는 알 수 없다.

평화로운 문제해결을 제시해주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께 최종적인 판단권을 맡겨드려야 한다. 우리는 제비뽑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순종함으로,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그렇게 할 수 있다.

**18:19** 가까운 친척과의 다툼이 종종 회복하기가 가장 어렵다. 마음이 상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보다는 건고한 성을 정복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한 다툼은 산성 문빛장같이 차갑고 굳세고 요동치 않는다. 자국민 사이의 내전이 종종 가장 치열한 양상을 띤다.

**18:20** 우리는 때로 사람은 그 말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선한 말이라면 만족을 줄 것이다. 사람은 그 말의 성격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18:21** 혀는 선약간에 크나큰 잠재력이 있다. 혀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결과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18:22** “아내” 앞에 “선한”이란 말이 암시되어 있다. 선한 아내를 얻는 자는 보물을 얻는 자이다. 그가 경건하고 잘 돕는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증거이다.

**18:23** 가난한 자는 종종 부드럽게, 겸손히, 간절히 말한다. 반면에 부자는 엄히 대답하고 위압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부자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18:24** 여기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 있다.

친구를 소유한 자는 그 자신이 친밀해야 한다. KJV와 NKJV의 번역을 따르면, 친밀함이 친구를 얻으며,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보다 더 친밀하다는 뜻이 된다.

NASB, ASV, NKJV 난하주 및 JND는, 여러 친구를 소유한 자는 파탄에 이르게 되나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다고 말한다(우리말 성경도 이에 속함-역주). 이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많은 친구보다는 한 진실한 친구를 갖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이다.

RSV는 “친구인체 하는 이들이 있으나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다”고 옮기고 있다. 이것은 깃털 같이 가벼운 친구와 어떤 상황에서든 변하지 않는 충성된 친구의 차이를 보여준다.

다행히도 대부분 역본들은 후반부(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다)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G. 캠벨 물건은 이렇게 말한다.

“이 중요한 구절을 여러모로 살펴보면 마침내 한 지점, 한 인격에게 이르게 된다. 그분은 죄인의 친구이다. 거기서는 아무 설명이 필요 없다. 다만 경이감과 경배만이 있을 따름이다.”<sup>32)</sup>

**19:1** 정직한 가난한 자와 진실을 왜곡하는 속이는 (아마도 부유한) 어리석은 자를 대조한다. 가난한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낫다.

**19:2** 영혼이 지식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그런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일을 경솔히 서두르게 된다.

조급함은 그의 불행을 더할 뿐이다. 그는 너무 서두른 나머지 지침을 구하거나 따르지 않으며, 이에 길을 잃고 헤맨다.

**19:3**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망쳐놓고 돌아서서는 하나님을 닮은

---

32) (18:24) Morgan, *Searchlights*, p. 204.

다. 예컨대,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라는 말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다(창 3:12).

배도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도덕적인 실패에 그 뿌리를 둔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도덕에 관련된다. 그런 다음 그는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대신 기독교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W. F. 에드니의 표현대로 “그분이 금하신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섭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19:4**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마음의 타고난 이기심에 대한 증거이다. 가난한 자는 친구가 끊어지는데 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을 줄만한 친구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19:5** 거짓 증거를 하거나 그밖에 다른 형태의 부정직에 관여되는 사람은 인생에서는 아무 변을 당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께 반드시 벌을 당할 것이다.

**19:6**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을 것을 바라고 너그러운 사람과 사귀려 한다. 사람들은 유익을 줄만한 이들과 사귀려는 경향이 있다.

**19:7** 가난한 자는 종종 그 친척에게 버림을 당한다. 그러므로 그의 친구들은 더더욱 그를 냉대한다. 간절히 도움과 동정을 구하지만 그들은 그를 저버린다.

**19:8** 지혜와 식견을 구하는 것은 일종의 계몽된 자기관심이다. 그리고 명철과 통찰력을 지키는 것은 성공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다.

**19:9** 이러한 교훈이 자주 반복되는데 대해 놀라서는 안 된다. 십

계명 중 하나가 위증(僞證) 문제를 다루고 있다(출 20:16).

**19:10** 사치(奢侈)는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문화와 세련미를 즐길 줄을 모른다. 또한 좋은 권위있는 자리에서 행동할 줄을 모른다. 그는 전에 상전이었던 자들을 함부로 대한다.

**19:11**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을 안다. 그는 누군가 자기에 잘못을 해도 너그러이 용서해준다. 다윗이 종종 사울에게 보여준 넓은 마음은 본문에 대한 좋은 실례이다.

**19:12**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같이 범죄자들에게 그 임할 위협을 경고해준다. 순종하는 신하들에게 베푸는 왕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처럼 부드럽고 신선하다.

로마서 13:1~7은 정부의 권위의 그러한 두 측면을 제시하며 이렇게 권고한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5절).

**19:13** 가정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두 가지는 완악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이다. 완악한 아들은 그 아비에게 근심을 끼치고, 다투는 아내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신경을 자극한다.

**19:14**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으나, 슬기로운 아내는 오직 여호와만이 주실 수가 있다.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이것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된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창 24:50). 그것은 하늘이 짝지어준 혼인이었다.



**19:15**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마약과도 같다. 게으른 자는 가난을 자초하며 굶주림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성경공부와 기도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19:16** 여호와와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결국 영육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경솔하고 부주의하게 행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19:17**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빌린 금액만 갚아주실 뿐 아니라 높은 이자도 주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베푼 냉수 한 그릇도 보상을 받는다. 헨리 보쉬는 이런 예를 들려준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50센트를 주며 원하는대로 쓰라고 했다. 얼마 후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아들이 답했다. ‘돌려 받을 수 있겠니?’ 하고 아버지가 물었다. ‘예, 아주 배가 고파 보이는 가련한 거지에게 줬어요!’라고 아들이 대답했다. ‘참 바보 같구나. 그 돈은 돌려 받을 수 없을 거야!’라고 아버지가 핀잔을 주자 아들이 답했다. ‘하지만 아빠, 저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 있는걸요. 성경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이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마음이 흡족하여 아들에게 50센트를 또 건네주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보세요! 그 돈을 돌려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그 돈이 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sup>33)</sup>

“우리 자신을 위해 쓴 것은 잃을 것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 빌려드린 것은

무한한 보물로 소유하게 되리.” (크리스토퍼 워즈워드).

---

33) (19:17) Henry Bosch, ed., *Our Daily Bread*.

**19:18** 그가 아직 어리고 가르침을 받을 만할 때 아들을 징계하라. 공정하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분위기에서 행해지는 체벌은 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큰 유익을 준다.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는 후반부 말씀은, 그를 징벌하기를 거절함으로 그의 삶을 파탄에 빠지게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는 것(permissiveness)은 잔인한 처사이다. 또한 그 말씀은 “감정이 격한 나머지 그를 과도하게 징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19:19** 성미가 급한 사람은 그로 인해 징벌을 당하게 된다. 그 잘못된 기질의 결과로부터 그를 구해줄지라도 그는 곧 다시 그 가운데 처할 것이며, 당신은 다시 그를 구해줘야 할 것이다.

**19:20** 인생 초기에 선한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다. 그러면 이후에 지혜롭게 될 것이다. 어떤 이의 표현대로 “지혜는 장기간의 투자이다.”

**19:21** 사람이 온갖 종류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럼에도 여호와와의 목적이 실현된다. “사람에게는 그의 악함이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길이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후 13:8).

**19:22** 본문에 대한 다비(Darby)의 번역은 매우 가치가 있다. “사람의 매력은 그의 인자함이다. 가난한 사람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어떤 사람을 당신에게 사랑 받게 하는 자질은 인자함이다. 동정 밖에 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는 도움을 약속하고 주지 않는 부자보다 낫다.

**19:23**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사람은 만족할 모든 이유를 갖고 있다. 그는 재앙에 던져지지 않는다.

**19:24**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는 음식이 담긴 그릇 속에 손을 넣고도 너무 게을러서 입으로 올리지 않는다. 너무 무거워서 올릴 수 없는 것이다.

**19:25** 거만한 자는 때려도 바뀌지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옆에 있는, 쉬 영향 받는 사람이 교훈을 배울 수가 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5:20을 생각나게 한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명철한 자는 때릴 필요가 없다. 견책의 말이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이며 그런 일을 통해 더욱 지혜롭게 할 것이다.

**19:26** 아버지를 박대하거나 비방하고(버클레이 역),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는 아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고 불명예스럽게 하고 그 상심한 부모에게 모욕과 능욕을 끼친다. 그것은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모든 일에 대한 배은망덕한 처사이다.

**19:27** 본문은 다이아몬드와도 같아서 어느 면을 돌려봐도 새로운 빛을 발한다. 이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세 가지 해석은 이러하다.

KJV는 이러한 의미이다. “성경이 공격을 당하는 학교나 신학교에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충고이다! 의심과 부인의 질문공세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대학과정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RSV와 버클레이는 이렇게 읊고 있다. “내 아들이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할 뿐인 교훈을 듣기를 중단하라.” 순종할 마음이 없다

면 선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당신 자신과 교사의 시간을 낭비하고 당신에게 죄책감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알고서 행치 않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세 번째 해석은 경고이다. “내 아들이, 교훈을 듣기를 중단하라. 그러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NKJV).

**19:28** 망령된 증인은 ‘자신’이 재판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의를 업신여긴다! 그는 탐욕스레 죄악을 삼키거나 퍼뜨린다. 그는 죄를 물먹듯이 한다는 엘리바스의 인간에 대한 표현을 생각나게 한다 (욥 15:16).

**19:29**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인간 역사의 무대에서 활개치고 있는 동안 징벌과 심판이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막이 내리는 즉시 그 둘의 필연적인 만남이 이뤄진다.

**20:1** 포도주는 조롱하는 자 내지 거만한 자가 되게 한다. 독주는 말다툼하는 자가 되게 한다.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것이고, 독주는 곡식으로 빚은 것이다. 그 두 가지 모두 사람으로 제정신을 잃게 한다. 먼저 사교적인 음주가가 되고, 다음에 술을 즐기는 자가 되고, 다음에는 술에 중독된 자가 된다. 그 습관을 떨치려 하지만 사슬에 묶인 듯 꼼짝달짝 못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사슬을 끊을 힘을 주시지만 먼저 우리편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야 한다.

**20:2** 왕이 분노하면 두려움이 궁전 전체를 휘감게 된다. 그 두려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같이 위협을 경고한다. 왕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자기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본문이 말하는 교훈은 로마서 13:4에서 발견된다. “그는(즉, 통치

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20:3** 지혜로운 자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어리석은 자는 누군가와 다투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다.

**20:4** 이스라엘에서 경작기는 11,12월로 이 때는 대개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온다. 게으른 자는 추운 날씨를 핑계삼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경작이 없이는 파종이 없으며, 파종이 없이는 수확이 없다. 게으른 자는 곡식을 얻으러 들로 나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의아해한다.

**20:5** 사람의 생각과 의도는 종종 그 마음에 깊이 숨어있다. 그는 대체로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질문으로 그것을 끌어내는 법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훌륭한 상담자는 왜곡된 생각을 빛 가운데 드러내어 치유해 줄 수 있다.

**20:6** 충성되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을 찾기란 어렵지가 않다. 그러나 진정 충성된 자들을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자기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습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 사람 자체”(Person)와 “그 사람의 특성”(Personality)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20:7** 의인은 정직과 성실 가운데 행한다. 그의 후손은 그의 삶과 본에서 귀한 유산과 축복을 물려받는다.

**20:8**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키질한다.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 자리에 앉으실 때 그 모든 것을 감찰하는 불꽃같은 눈이 거짓된 것을 살피고 모든 증거를 키질하실 것이다.

**20:9**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자신을 죄에서 정하게 할 수 없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깨끗한 환상의 희생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 깨끗함이 있다. 참 신자는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계 7:14).

“우리를 값 주고 해방하고

우리의 진홍 같은 얼룩을 말끔히 지워준 그 피,

온 세상과 지옥을 향해 외치는 말,

그 피가 깨끗케 못할 죄를 제시해보라.”(아구스투스 M. 토폴레디)

**20:10**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과 계측기를 미워하신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일체의 부정직한 일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고기의 무게를 잴 때 손가락을 저울에 슬쩍 올려놓는 정육점 주인의 속임수 따위가 거기에 포함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표준을 요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러하다.

**20:11** 사람의 근본 속성은 초기부터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아이들은 고집이 세고, 어떤 아이들은 유순하다. “어린이는 어른의 모체이다.” 어린이는 선약간에 그 성품을 어른이 될 때까지 지니게 한다.

**20:12** 여호와와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으셨다. 이것은 다름 아닌,

눈과 귀가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3** 가난한 처지가 되지 않도록 잠에 너무 취하지 않도록 하라. 일어나 일을 하라. 그러면 집세를 내고 식료품을 사고 주님의 일에 드릴 돈을 벌 것이다.

**20:14** 이것은 물건 구입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이다. 그들은 중고차를 살 때는 흠집과 닳은 타이어와 시끄러운 엔진과 우중충한 색깔 등에 대해 불평한다. “좋지 못하다.” 판매자는 그 전략을 알아채지 못하고 순진하게도 가격을 깎아준다. 구입자는 돈을 지불하고 와서는 아주 싸게 샀노라고 친구에게 자랑한다.

**20:15** 금은 보석 등 값진 장식품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장식품은 지혜로운 입술이다. 그것을 몸에 지니라!

**20:16**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잡혀야 할 것이다. 어리석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재정적인 보증을 선 자는 신용을 잃을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런 자와 어떤 거래를 할 때는 그가 약속을 어기거나 파산할 경우에 당신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큰 담보를 당신에게 제공하도록 하라. 이 권면은 특히 타인이 부도덕한 사람일 경우에 적용된다.

**20:17** 부정직하게 얻은 일체의 부(富)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으나 마침내 입안에 가득한 모래처럼 괴롭고 고통스런 것이 될 것이다. 본문은, 세금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출금액을 조작하고, 뇌물을 주고, 거짓 상표를 붙이고, 아무 차이도 없는데도 품질이 차

이가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정죄한다.

**20:18**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사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는 장군은 없다.

**20:19** 험담은 비밀을 누설한다. 그러므로 입을 크게 벌린 자와 사귀지 말라. 만일 그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당신 얘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0** 모세 율법 아래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었다(출 21:17). 이것은 오늘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젊은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준다. 만일 그러한 잘못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끊어짐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불러올 것이다.

**20:21** 탕자는 유산 중 자신의 분깃을 속히 얻었으나 속히 그것을 잃고 말았다. 본문은 속히 부해지려는 일체의 시도들에 적용된다. 쉽게 오는 것은 쉽게 간다.

**20:22** 대적에게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라. 원수갚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분이 갚으실 것이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20:23** 아담 클락크는 포목점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포목점 주인은 옷감 길이를 잴 때는 천을 잡아당겨 늘리라고 일러주었다. 아담이 이에 대답했다. “옷감은 당겨서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제 양심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랜 후에 하나님은 아담 클락크로 하여금 널리 알려진 성경주석을 쓰게 하셨다.



**20:24** 본문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물론 그 둘 다 중요하다.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의 주인인체 하고 우리 임의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한다.

**20:25**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고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된다. 뭔가를 주님께 바친 다음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서원을 하기 전에 먼저 서원을 이행할 수 있는지, 과연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확신이 있어야 한다.

**20:26**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는 타작하는 바퀴로 그들 위에 굴린다. 즉 그들을 의인에게서 분리시키고 재판에 회부하여 징벌을 가한다.

**20:27**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영혼’은 양심을 가리킨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관심과 행동에 빛을 던져주는 등불 역할을 한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의도를 인정 내지 지적한다(롬 2:14,15).

**20:28** 인자와 진리로 특징지어지는 지도자는 그 신복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다. 그는 억압이 아닌 인자함으로 권위를 유지한다.

**20:29**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나, 늙은 자의 백발은 지혜와 경험과 관련이 있다.

모든 교회는 봉사를 위한 힘과 지혜로운 조언을 위한 연륜을 필요로 한다.

**20:30**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때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본문의 의미는, 체벌은 도덕적인 악을 처리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폰 유혹이 들 때에 지난번 맞았던 채찍의 따끔함을 기억할 것이다.

**21:1** 물길의 물의 흐름을 안내하듯이 여호와께는 왕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고 다스리신다. 본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의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

**21:2** 사람은 그 자신의 삶이나 봉사에 대한 믿을만한 재판관이 못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측정하신다.

**21:3** 여호와께는 번제와 예물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기뻐하지는 않으신다(삼상 15:22). 하나님은 의식주의자가 아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내적인 실재이다.

**21:4**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 세 가지를 열거한다. 그것은, ‘눈이 높은 것’, 즉 교만의 외적인 표현과, ‘마음이 교만한 것’, 즉 내적인 마음 상태와, 악인의 번성과 행복과 삶과 희망을 의미하는 ‘악인의 형통한 것’이다.

**21:5** 생활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자와 하루아침에 부해지려는 자가 대조되고 있다. 전자는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후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21:6** 사기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려 하는 자들은 바람을 좇

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유인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 과정 중에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처지는 신기루를 좇는 사막의 여행자들과 같다. 신기루는 여행자에게 사망의 올무일 뿐이다.

**21:7**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공의를 행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우주 안에는 그러한 강포와 악함과 불의가 결코 형벌을 면치 못하는 도덕적인 원리가 작용한다. 그것은 결코 형벌을 면치 못한다!

**21:8** “범죄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졌으나, 깨끗한 자는 그 하는 일이 정직하다”(JND). 범죄는 사람으로 거짓말을 하고, 숨고, 헛되이 꾸미고, 두려워하고, 거짓 행동을 하게 한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숨을 까닭이 없다. 그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

**21:9** 성경의 무대가 되는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 지붕이 평평하다. 본문은, 신경질적이고 다툼을 일삼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 더위와 추위와 비와 눈과 바람과 우박에 노출된 평평한 지붕 한 모퉁이에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우리말 성경 난하주 참조-역주). 집밖의 폭풍이 집안의 폭풍보다 견디기 수월한 것이다.

**21:10** 악인의 마음은 항상 새로운 악을 꾀하며, 그 악을 행하는데 있어 이웃에게 아무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 그렇듯 그의 죄는 고의적이요 무자비하다. 오늘날 죄에 대한 사회학적인 변명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21:11** 거만한 자는 그 징벌을 통해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해도 순진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징벌

받을 필요가 없다. 그는 가르침만으로도 교훈을 잘 배운다.

**21:12**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지혜로 살피시고 그 악으로 인해 악인을 내던지신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일을 세세히 살피시며, 적절한 때에 손을 대사 그들로 그 운명을 맞게 하신다.

**21:13** 누가복음 16:19~31의 부자는 문 앞의 거지의 궁핍한 처지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죽은 후에 그는 도움을 부르짖었으나 아무 응답을 얻지 못했다.

**21:14** 성경은 종종 사실을 인정함 없이 단지 알려주기만 한다. 화가 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선물을 건네주면 마음이 가라앉게 되며, 격노한 사람은 그 주머니에 뇌물이 주어지면 그 노가 풀리게 된다.

**21:15**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나,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임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때는 구속받은 자에게는 환희의 때가 될 것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때가 될 것이다(살후 1:6~9).

**21:16** 잠언에서는 모든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방랑자는 죄의 사막에서 헤매는 자와 같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것이다.

**21:17** 연락과 사치한 삶(술과 기름)은 그 약속한 만족과 성취감을 주는 대신 사람을 가난하게만 한다. 그것은 재정을 바닥나게 하고 영적으로 빈곤에 빠지게 한다.

**21:18** 이사야 43:3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과 이웃 나라들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심으로, 유대인을 해방시킨 고레스에게 보상을 하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문은 정직한 자가 자유롭게 행보할 수 있도록 악인이 징벌받는다는 뜻이다.

**21:19** 얼마나 만족스런 유머인지! 기지는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욕심각심 실랑이를 벌이느니 차라리 광야의 불편함과 먼 거리와 외로움을 택하겠다고 했다.

**21:20** 여기서는 모든 좋은 것이 가득한 지혜로운 자의 집과 죄와 낭비와 방탕으로 궁핍함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의 집을 대조한다.

술을 사기 위해 가구를 비롯한 집안 물건을 내다 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다. 그가 그리스도께 인도된 후에 어떤 이가 말을 건넸다. “당신은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을 정말 믿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나는 물이 포도주가 된 일은 알지 못하오. 하지만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 술을 가구가 되게 하신 일은 알고 있소!”

**21:21** 본문의 요지는, 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는 그가 구하는 것 이상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는 의뿐만 아니라 생명과 영광도 얻는다.

**21:22**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대포나 포탄이 아닌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고후 10:4). 영적인 전투에서 지혜는 무기가 해낼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

**21:23** 자기 입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그 자신을 환란에서 구원한

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약 3:5,6).

**21:24**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만나거든 “망령된 자”라고 부르라. 그것이 그의 이름이다! 이름은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말해 준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삼상 25:25).

**21:25~26** 게으른 자는 재물을 탐하는 것과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마음이 없는 것 사이에 갈등한다. 그것은 고통스런 갈등이다! 게으른 자는 이뤄지지 않은 희망의 꿈나라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의인은 가치 있는 일에 넉넉히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번다.

**21:27** 하나님은 회개치 않은 죄인이 바치는 물건을 거절하신다. 더 나아가, “그분을 매수하거나” 어떤 악한 계획을 눈감아주거나 승인하거나 축복하도록 그분을 유도하기 위해 선물이 드러질 때에는 더더욱 싫어하신다.

**21:28** “거짓 증인은 패망하지만 잘 듣는 자의 말은 보존된다”(RSV). 거짓 증인은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다음 의도적으로 위증을 한다. 주의 깊게 듣고 정직히 답하는 자는 확고 부동한 증거를 한다.

**21:29** 악인의 굳은 얼굴은 악을 행하겠다고 다짐한 것을 나타낸다. 그는 이마가 굳었다. 정직한 자는 가르침을 잘 받음으로 안전하

며, 그 행실을 삼간다.

**21:30** 인간은 지혜와 명철과 모략에 있어서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 인간의 어떤 전략도 여호와께 통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가 …할 경영이 셋음이라”(렘 51:29).

**21:31** 사람들이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싸울 날’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로서 온다. 말이나 핵무기를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낫다(시 20:7).

플럼프터는 30,31절을 이렇게 요약한다.

“30절: 아무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31절: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없다.”

**22:1** 명예는 좋은 명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좋은 성품의 열매이다. 그것은 재물보다 나은데, 이는 재물보다 더 소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오래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은총이 은이나 금보다 낫다.

**22:2** 우리 모두가 같은 인류 가족에 속해있고 모두가 같은 창조주에게서 나왔다는 의미로 볼 때 사회적인 구분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생전에 존재하는 계층간의 구별은 죽음으로 폐해진다.

**22:3** 슬기로운 자는 앞을 내다보고 재앙이 오는 것을 보고 피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밤에 문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렇게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나가다가 “그 대기를 치른다”(Moffatt).

**22:4**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은 비효율적이고 지지부진해 보인다. 그러나 경험해보기 전에는 그 가치를 격하시키지 않도록 하라. 그것은 영적인 재물과 거룩한 영광과 풍성한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다.

**22:5** 패역한 자의 길에는 온갖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자는 그것들을 피한다.

**22:6**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아이를 적절히(마땅히 행할 길로) 훈련시키면 이후에 그가 형통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인 원칙이 그러하다. 헨리 워드 비처는 이렇게 말한다.

“어릴 때에 훈련시킨다면 아이나 나무를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잘못 가도록 허용한 뒤에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sup>34)</sup>

찰스와 요한과 그밖에 15명의 자녀의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리는 그들을 양육하는데 다음 지침을 따랐다.

- (1) 아이의 자의지를 굴복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라.
- (2) 아이가 말을 하게 되면 곧바로 기도를 가르치라.
- (3) 아이가 보채는 것을 주지 말고, 아이에게 유익한 것만을, 아이가 공손히 요구할 때 주라.
- (4) 거짓말을 예방하려면, 스스로 자백하는 잘못은 징벌하지 말고 아무도 모른 채 불순종적이고 최악된 행동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라.
- (5) 선한 행실은 칭찬하고 포상하라.
- (6) 아이에게 한 모든 약속을 꼭 지키라.

---

34) (22:6) Henry Ward Beecher,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또한 본문은, 아이들로 하여금 아무 관심이 없는 직업이나 분야로 나가도록 강요하지 말고 타고난 재능의 길로 아이들을 양육시키도록 부모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본문은 아이의 자의지는 존중하지 않더라도 아이의 개성과 소질은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키드너는 말한다.

아울러 본문은, 아이를 그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이후에 행실이 잘못되고 자기중심적이 된다고 경고해준다. 제이 아담스는 이렇게 말한다.

“본문은 부모에게, 아이를 그 원하는 대로(허용적으로) 자라게 하면 그가 성장했을 때 그런 모습을 바꿀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거라는 약속이 아닌 경고의 말씀이다. 아이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자연 죄악된 습성을 키우게 된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악한 습성은 초기에 아이의 마음에 심어질 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sup>35)</sup>

**22:7** 돈은 힘이 있으며, 선악간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너무도 종종 부자는 그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며, 아마도 그 때문에 돈이 불의의 재물로 불리우는 듯하다.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빛은 일종의 속박이다. 그것은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다. 그것은 늘 압박감에 시달리게 한다. 그것은 기회를 선용할 기동성과 능력을 제한한다.

**22:8** 악을 뿌리는 자는 중요한, 혹은 가치 있는 것을 얻지 못한다. 분노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22:9** 너그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으로써 복을 받

---

35) (22:6) Adams, *Counsel*, p. 158.

는다. 그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으로써 현재의 복과 미래의 상급을 얻는다.

**22:10** 거만한 자가 가르침과 교정과 권면에 순응하지 않을 때 다음 단계는 쫓겨남이다. 그를 쫓아내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자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그쳤다(창 21:9,10).

**22:11**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그 입술이 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되는 존귀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언급된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듯하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나 한 줄기 눈물이  
종종 상한 마음을 고치고  
진실한 친구가 되게 하네.” (저자 미상)

**22:12** 여호와께서는 사단과 사람들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진리의 지식을 보존하고 영구히 간직하신다. 그 동일한 여호와께서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거짓말을 드러내신다.

**22:13**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는데 대해 마땅한 변명거리가 없으면 아무런 이유라도(우스꽝스런 이유라도) 만들어낸다. 여기서의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둘러댄다. 어떻게 사자가 거리에 나올 수 있는가? 아마 고양이를 본 모양이다!

**22:14** 음녀의 유혹하는 말은 피하기 어려운 울무를 숨기고 있다. 여호와를 저버린 자는 그 울무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는 지식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종종 그들을 죄 가운데 내

버려두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롬 1:24,26,28).

**22:15** 아이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자의지가 도사리고 있으나, 가르침을 부단히 행함으로 그러한 악을 쫓아낼 수 있다. 메튜 헨리는 이렇게 조언한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교정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에게 교정을 받아야 하며(히 12:6,7), 그 교정 아래서 어리석음을 쫓아내고 채찍에 입을 맞춰야 한다.”<sup>36)</sup>

**22:16** 형편없는 샴을 지불함으로 부를 얻는 고용주는 그 자신도 궁핍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부자에게 주는 자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값싼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야 한다.

#### 4. 지혜로운 자의 잠언(22:17~24:34)

##### 1) 지혜 있는 자의 말씀(22:17~24:22)

**22:17** 17~21절은 22:22에서 24:22에 이르는 잠언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본문은 독자에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한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 잠언의 일부를 다른데서 수집했을 것이며, 본문 후반부는 이 잠언의 일부가 솔로몬 자신의 것임을 보여 준다.

**22:18** 이 잠언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기억하고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입술에 머물게 해야(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

36) (22:15) Matthew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3:919.

한다.

**22:19** 솔로몬이 이 잠언을 알리는 이유는 독자들로 진실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22:20** RSV는 본문을 이렇게 옮겼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애타는 말씀을 너를 위해 기록하지 않았느냐?” 어떤 학자들은 이어지는 잠언들(24:22까지)이 다음과 같이 약 30가지로 나뉘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2:22,23	23:22~25
24,25	26~28
26,27	29~35
28	24:1,2
29	3,4
23:1~3	5,6
23:4,5	7
6~8	8,9
9	10
10,11	24:11,12
12	13,14
13,14	15,16
23:15,16	17,18
17,18	19,20
19~21	21,22

버클레이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전에 모략과 지식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느냐?” “전에”는 19절의 “오늘”과 대조를 이룬다.

**22:21** 기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 그의 학생들로 모략을 얻기 위해 그에게 보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훈련을 위해 그들을 보낸 이들을 만족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22:22~23** 본문은 24:22에서 끝나는 단락을 시작한다. 아무도 힘 없는 가난한 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성문에서, 즉 심판 자리에서 곤고한 자에게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처지를 변호하시며, 부한 압제자와 불의한 재판관을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2:24~25** 노를 품은 성미가 급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좋지 않은 관계를 갖는 것이다. 종종 사람은 그 사귀는 무리와 같아진다. 그것은 실로 울무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 자신의 생활과 간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22:26~27** 여기서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빛에 보증을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만일 당신이 그 빛을 다 갚을 수 없다면 왜 재산을 다 내어주고 불안과 수치를 당하는 위험을 자처하겠는가?

**22:28** “옛 지계석”은 어떤 사람의 재산의 경계를 가리키는 돌무덤이었다. 정직하지 않은 자들은 종종 밤새 그것을 옮겨놓아 자기들의 토지는 넓히고 이웃의 토지는 감소되게 했다.

영적인 면에서, 옛 지계석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가리킬 것이다(유 3절).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은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22:29**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은 영예로운 위치로 승격될 것이다. 그는 천한 자들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크림이 표면에 떠오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요셉,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등의 삶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위대한 사람들이 도달하고 유지한 높은 위치는  
하루아침에 날아 올라 이뤄진 것이 아니네.  
동료들이 잠든 그 무수한 밤에  
그들은 땀흘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네.” (롱펠로우)

**23:1~3** 여기서 우리는 탐식과 폭식에 대해 경고를 받는다. 영향력있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 앞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목에 칼을 두어야,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기를 조심해야 한다.

3절은 누군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음식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럴 경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접대가 아니라 어떤 은밀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피기 위한 수단이 된다.

**23:4~5** 부자가 되기 위해 쉬지 않고 애쓰는 것은 일종의 피해야 할 ‘지혜’이다. 그것은 거짓된 가치를 추구하느라 인생을 소비하고 오래가지 못할 것을 의뢰하는 것이다. 재물은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런 것이다.

**23:6~8** 피해야 할 또 한가지 사교적인 상황이 있다! 악한 눈을 가진 자, 즉 당신이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눈을 흘기는 자의 손님이 되지 말라.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다. “마음껏 드세요, 더 드세요, 먹고 마시세요!”라고 말하지만 그는 사실 당신이 수저를 몇 번 뜨는지 다 세고 있다.

LB는 본문을 이렇게 풀어쓰고 있다.

“악한 자와 사귀지 말라. 그들의 호의와 선물을 바라지 말라. 그들의 친절은 속임수다. 그들은 너를 담보로 삼고자 한다. 그들이 베푸는 맛난 음식은 네 배에서 쓰게 될 것이며, 너는 그것을 토할 것이며, 그들의 ‘친절’에 대해 감사의 말을 한 것을 취소하게 될 것이다.”

**23:9**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가르치려 하지 말라. 시간만 낭비할 것이다. 그는 당신의 지혜의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

**23:10~11** 옛 지계석을 몰래 옮김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정직하게 취하지 말라. 그 토지를 빼앗음으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들의 보수자는 강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분을 대면해야 할 것이다. 그분이 당신을 대항하여 그들의 처지를 변호하실 것이다.

**23:12** 가르침을 얻는 쉬운 길은 없다. 그것은 훈련과 적용을 필요로 한다. 그것을 얻는 지름길을 약속하는 선전문구에 미혹되지 말라.

**23:13~14** 아이를 함부로 행동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성경은 허용주의를 권장하는 대신 채찍으로 바로잡을 것을 격려하고 그렇게 해도 아이가 죽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이것은 채찍질이 아이를 죽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채찍질이 실은 아이를 일찍, 갑작스레 죽는데서 구원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것은 아이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줄 것이다.

엘리는 그의 악한 아들들을 징계하는 대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고 부드럽게 타일렀다(삼상 2:22~25). 그는 그의 집과 제사장직과 그리고 온 나라에 파멸을 불러온 허용주의를 조장했다.

다윗 역시 부모로서 자식을 징계하는데 실패했다. 그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줌으로 아도니아의 마음을 언짢게 한 적이 없었다(왕상 1:6). 아도니아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두 번 모반을 시도한 후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다.

**23:15~16** 아들이 그 마음이 지혜롭고 그 입술이 진리를 말하면 아버지가 즐거워한다. 교사는 그의 학생이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러한 기쁨을 경험한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말했다(살전 3:8). 그리고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말했다(요삼 4절).

**23:17~18**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와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악인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실망을 가져오지만, 여호와께 사로잡히는 것은 기쁨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생애의 목표로 삼으라. 아울러, 장래에 악인에게는 회계할 날이, 의인에게는 결코 실망스럽지 않을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라. 장래는 죽음과 부활을 넘어 천국의 영광스런 미래를 대망한다.

**23:19** 다른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든 순종하는 아들은 가르침에 주의하고 지혜를 얻어 그 마음을 바른 길, 즉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23:20~21** 두 종류의 ‘취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너무 많이 마시는 자와 너무 많이 먹는 자이다. 그들은 둘 다 선한 삶을 원하는 자에게는 좋지 않은 친구들이다.



절제하지 못함은 그 대가를 치른다. 술주정뱅이와 탐식자는 궁핍하게 된다. 폭음으로 인한 감각상실은 누더기를 걸치게 한다.

**23:22** 젊은이는 그들의 아버지의 권면을 달게 받고 그들의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노인은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젊은이는 그 점을 인정하고 노인의 경험에서 가능한 많은 교훈을 얻고자 힘써야 한다.

**23:23** 우리는 진리를 얻기 위해 기꺼이 큰 값을 치러야 하되 어떤 이유로든 그것을 팔려 해서 안 된다. 지혜와 명철과 훈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되,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그것들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23:24~25** 현대의 풍습은 말한다. “아버지날에 아버지에게 넥타이를 선물하고 어머니날에 어머니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라.” 그러나 부모에게 더 큰 보상은 지혜롭고 사려 깊게 사는 자식의 삶이다. 본문은 이렇게 권면한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23:26~28**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라는 간절한 호소에 이어 부도덕과 술취함에 대한 엄한 경고가 시작된다. 기자는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내가 네게 베푸는 권면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 음녀(창기)는 부주의한 자를 덮치는 깊이 숨은 구덩이와 같다. 그녀는 빠지기는 쉬우나 나오기는 어려운 좁은 함정이다. 그녀는 강도같이 매복하고 기다린다. 그녀는 사람들을 병적으로 증오하며, 사람이 그물로 고기를 잡듯 속임수로 그들을 옴아뎀으로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해소한다. 날마다 그녀는 결혼관계와 가정이 파산된 신실치 못한 자들의 목록을 증가시킨다.

**23:29~30** 23장 나머지는 술취한 자에 관한 전형적인 묘사이다. 그는 스스로 온갖 재앙을 불러오며, 이런 저런 근심으로 휘청거린다. 그의 삶은 분쟁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는 늘 싸움을 걸기 때문이다. 그는 쉬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며,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그 자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터지고 찢기고 눈이 충혈되는 등 온 몸이 상처투성이인데 그 모든 상처는 불필요한 싸움에서 생긴 것들이다. 그는 온 밤을 술집에서 보내며 혼합된 술을 한 잔 한 잔 비운다.

**23:31~32** 그는 그 붉은 색과 선명한 빛깔과 그 ‘순하게 내려가는’ 모습에 마음이 끌리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으며, 이에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는 독하고 고통스런 결과를 당하고 말았다.

**23:33~34** 그의 눈은 괴이한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은 알코올을 장기간 과도하게 마심으로 생겨나는 착시현상과 정신혼란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의 말은 거칠고 왜곡되고 악의적이다. 그는 바다 위에 이리저리 떠다니거나 좌우로 미친 듯이 요동하는 뚝대 위에 누운 듯이 이러 저리 불안스레 휘청거린다.

**23:35** 누가 그를 때렸어도, 나중에 의식이 회복된 후에 그는 아프지 않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심하게 때려도 그는 느끼지 못했다. 정신이 들자마자 그는 더 마시기 위해 또다시 술집을 찾는다.

**24:1~2**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사귀려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그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성향이 있다. 그 수준은 어떠한가? 그들의 마음은 항상 강포를 피하며, 그들의 대화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4:3~4**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의 삶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위대한 삶은 악이 아닌 경건한 지혜로 건축된다. 악은 삶을 파멸시키나 명철은 삶을 견고케 한다. 악은 삶을 공허하게 만드나 참 지식은 삶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워준다.

**24:5~6** 지혜있는 자는 강한 자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명석한 자는 힘센 자보다 더 강하다. 전쟁은 지혜로운 모사들을 통해 치를 수 있으며, 지혜로운 모사가 많을수록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다.

**24:7**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너무 높아서 영원히 미칠 수 없어 보인다. 그는 결코 성문에 앉은 장로들처럼 권위있게 말할 수 없다.

**24:8~9**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새로운 모양의 악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자는 ‘사특한 자’라는 칭호를 얻는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자신의 악함을 고집하는 거만한 자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다.

**24:10** 어떤 사람의 가치를 시험하는 한가지는 그가 역경 중에 어떻게 처신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만일 상황이 어려울 때 포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갖추어야 할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만일 내 발이 조금이라도 비틀거리고

뒤로 물러갈 듯하다면,  
 만일 광야와 가시로 인해 근심에 잠긴다면  
 주여, 당신의 발을 내게 보여주소서.  
 당신의 피 흘린 발, 당신의 못 박힌 발을 보여주소서.  
 주여, 당신의 발을 내게 보여주소서.  
 오 하나님, 어찌 내가  
 내 손과 발을 당신께 보여드리겠나이까?” (애미 카미클)

**24:11~12** 무고한 사람들이 개스실과 끓는 가마와 그밖에 여러 가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뱃속의 아이들이 낙태수술로 죽임을 당할 때, 곁에 서서 그들을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오이다. 알지 못했다는 말도 아무 소용없다. 단테의 말대로,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인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이 들어갈 곳이다.”

믿는 자로서 구원의 소식을 위탁받은 우리도 여기서 뭔가 메시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남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간다.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요 4:35). 우리가 중간에 머물러 있어도 될까?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것을 보라.

곧 동이 트리라.

저들을 잃어버린 채 버려 둘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저들을 불러들이자!” (안나 쉽튼)

**24:13~14** 꿀은 여기서 지혜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둘 다 유익하고 맛이 달다. 지혜의 지식도 당신의 영혼에 그와 같다. 그것을 발견하면 장래가 있겠고, 당신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발견한 자는 밝은 장래와 그 모든 소망의 실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15~16** 의인의 집을 가로채려 하지 말라고 악한 자에게 경고를 한다. 아마 의인은 일시적인 곤경에 빠졌고 이에 악한 자가 그의 재산을 탈취하려 하는 듯하다.

의인은 환란이나 재앙에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매번 다시 일어설 것이다. 악인은 단 한번의 재앙으로도 완전히 넘어져 파멸할 수 있다.

**24:17~18** 좋은 성품의 소유자는 재난이 그 대적에게 임할 때에 기뻐하거나 그 대적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여호와와는 사람이 남의 불행을 흡족히 여기는 보복하는 마음을 품은 것을 보시면 그런 마음을 대적의 죄보다 더 큰 징벌받을 것으로 간주하실 것이다.

**24:19~20** 다시 한번, 행악자의 외관상의 성공에 분개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번에는 그 이유가, 경건치 않은 자는 전망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그 대신 그들의 삶의 등불이 꺼질 것이다.

**24:21~22** 본문은 여호와와, 그분의 대리자인 왕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르친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를 변경하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자들에 대해 경고한다. 이런 형태의 반역은 그 당시자들에게 갑작스럽고 상상치 못할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대한 충성을 타협함 없이 할 수 있는 한 인간정부에 순복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만일 정부가 주님께 불순종

할 것을 명한다면 그는 거절하고 겸손히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정부를 전복하려는 모의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 2) 지혜 있는 자의 추가적인 말씀(24:23~34)

**24:23~26** 여기서 34절까지 계속되는, 지혜 있는 자에게 속한 말씀의 새로운 부분이 시작된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재판할 때 한 쪽 편을 드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범죄자를 눈감아주어 도덕적인 분별을 흐리게 하는 재판관은 백성에게 저주받고 국민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반면에 죄를 꾸짖는 재판관은 하나님께 상급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다. 정직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자는 백성들에게 인정의 입맞춤을 받을 것이다.

**24:27** 집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나무를 제거하고 땅을 고르게 해야 하듯이 가정을 갖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생활을 바로 정돈해야 한다. 본문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되기 전에 곁 혼을 서두르지 말도록 경계해준다.

**24:28~29** 어떤 경우에도 이웃에 대해 거짓 고소를 하거나 거짓 말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혹 이웃이 그런 일을 행했다 해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24:30~34** 기자는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다 그것이 가시 덤불로 뒤덮인 것을 보았다. 온통 거친 풀뿐이었고 돌담도 무너져내렸다. 여기에는 배울 교훈이 있었다. 누군가 좀더 자자, 좀더 눈감자,

좀더 하품하자고 하면, 빈궁이 약탈자같이, 무장한 강도같이 덮친다는 것을 명심하라.

영적인 문제에서 게으름에 빠질 때 우리의 삶(포도원)은 육신의 일(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열매가 없다. 우리의 영적인 방비(담)는 무너졌고 사단이 발판을 얻는다. 냉랭함과 뒤로 물러감의 결과는 영혼의 빈곤이다.

## 5.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25:1~29:27)

**25:1** 25~29장에 포함된 잠언들은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으나 오랜 후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 편집되었다. 여기에는 히스기야의 히브리식 이름의 문자들의 숫자 값에 맞는 140개의 잠언들이 있다.

**25:2**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다. 그분의 자연적인 창조와 그분의 기록된 말씀과 그분의 섭리적인 역사에 숨겨진 모든 비밀들을 생각해보라! “만일 그분의 계획과 역사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다”라고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말했다.

왕의 영화는 일을 살피는 것이다. 문맥에 의하면 본문은 아마도, 지혜로운 왕은 그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의 추이를 잘 알고, 바른 판단을 내리고 합당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충분히 상황을 살핀다는 뜻인 듯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성경에 감추어진 영적인 보화를 찾는데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다.

**25:3** 하늘의 높음은 무한해 보이며, 땅의 깊음은 헤아릴 수 없어

보인다. 그와 마찬가지로 존귀한 왕의 마음에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아무도 그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25:4~5** 은이 도가니 속에서 녹을 때 찌기 내지 불순물이 거품처럼 표면에 일어난다. 이 거품이 거뒀을 때 은장색은 보석을 만들기에 적합한 금속을 얻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찌기는 왕궁에 있는 악한 모사들을 상징한다. 그들이 제거될 때 나라는 의로운 기초 위에 견고히 선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때 하실 첫 번째 일은 그분의 나라에서 반역과 불법과 그밖에 모든 거스르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25:6~7** 왕궁에서 앞자리로 나아가거나 귀인 중에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다가 왕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초청으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충고는 예레미야 45:5을 생각나게 한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또한 누가복음 14:8~10의 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후반부의 “네 눈에 보이는”은 RSV의 표현대로 다음 구절에 속한 것일 수도 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을 성급히 왕궁으로 가져가지 말라.”

**25:8~10** 성경은 논쟁하기 좋아하는 마음, 즉 모든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마음을 정죄한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게될 것이며, 또한 이웃이 증거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은밀히 처리하고, 다음 익명의 저자가 권면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는 것이 낫다.

“어떤 친구들과 사소한 불화가 생기고, 당신은 그 친구들을 찾아가 그 일을 얘기할 용기가 없는 대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된 원칙이 잊혀졌고, 불행이 뒤따른다.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으며, 결국 꼴이 깊어진다. 만일 우리가 본문과 같은 말씀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고 그것으로 우리의 행동을 다스린다면 많은 사소한 잘못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많은 갈등을 면할 것이다.”

10절은 당신이 당사자에게 직접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제 삼자가 당신을 꾸짖을 것이고 당신이 구설수에 오르거나 그 이상의 수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25:11**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적절한(바른) 말은 소중하고 매력적인 금속들의 결합처럼 도덕적으로 아름답고 합당하다.

**25:12** 금고리와 정금 장식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높여준다. 것처럼 슬기로운 책망자는 기꺼이 배우려는 자에게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25:13** 얼음 냉수가 더운 날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듯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시원함을 준다.

**25:14** 선물을 준다고 약속하고 주지 않는 자는 사람들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 다음 아무 비를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본문은 영적인 은사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거기에 적용될 수 있

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교사 내지 설교자인체 하다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게 된다. 인도에는 “바람만 세고 비는 없다”는 속담이 있다.

**25:15** 부드러움과 오래 참음은 종종 분개하고 흥분할 때보다 더 관원에게 설득력이 있다. 동일한 면에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강한 턱과 이의 분쇄력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25:16** 꿀은 적당히 취할 때 몸에 좋다. 그러나 좋은 것도 너무 많이 취하면 병이 든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살지 않고 살기 위해 먹는다. 레리 크리스텐슨은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친구에게 자식이 여덟 있는데 모두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어느 무더운 여름 날,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맞장구를 치며 소리쳤다. 이에 놀랍게도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좋아. 내일 너희들이 원하는대로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주겠다. 아이스크림만 먹는거다!” 아이들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다음날까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벌떼같이 식탁에 몰려나가 초콜렛아이스크림, 딸기아이스크림, 바닐라아이스크림 등을 잔뜩 그릇에 퍼담았다. 점심때도 아이스크림이었다. 이번에는 조금 양이 줄었다. 오후 간식시간이 되자 엄마가 막 신선한 케이크를 오븐에서 꺼내자 온 집에 내음이 가득했다. ‘무슨 냄새지. 내가 좋아하는 신선한 케이크 아냐!’ 하고 한 아이가 소리쳤다. 아이가 케이크가 놓인 선반 쪽으로 다가가자 엄마가 제지했다. ‘너 잊어버렸니? 오늘은 아이스크림 먹는 날이야. 아이스크림 외엔 안 돼.’ ‘하지만...’ ‘아이스크림 한 그릇 담아주렴?’ ‘아니요. 그냥 한 조각만 떼어줘요.’ 저녁시간이 되자 아이스크림만 먹

졌다는 열정은 꽤 식어버렸다. 아이스크림 그릇 둘레에 앉자 그 모  
험을 시작하자고 한 장본인인 메어리가 아빠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빠, 이 아이스크림을 빵 한 조각과 바꿔 먹으면 안될까요?’<sup>37)</sup>

**25:17** 절제는 꿀에만이 아니라 이웃방문에도 적용된다. 언제 떠  
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환영받지 못할 정도로 너무 오  
래 머물 수도 있다.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하나님께는 자주 찾아가면 갈수록 더욱 환영을 받는다”  
라고 카트라이트는 말한다.

**25:18** 여기에는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있다.

방망이-쳐서 조각 내는 것.

칼-두 날로 양쪽 끝을 자르는 것.

뾰족한 살-꺾고 상처를 내는 것.

**25:19** 만일 부러진 이로 뭔가 세계 문다면 오히려 당신의 이가 상  
할 것이다. 만일 위골된 발에 하중을 신는다면 그대로 넘어질 것이  
다. 환란 때에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  
은 고통과 실망을 준다.

**25:20**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분을 자극하고 신경을  
거스르고 전혀 환영받지 못할 일이다. 그것은 추운 날 옷을 벗는 것  
과, 쏘다 위에 식초를 부어 극심한 자극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부적  
절한 처사이다.

---

37) (25:16) Larry Christenson, *The Christian Family*, p. 58.

케이쓰 웨스톤은 처음 병원을 방문한 한 동료목사 얘기를 들려준다. “그는 두 다리를 벨트차에 매달고 두 팔을 깎스한 채 한 팔에 정맥주사를 꽂은 한 가엾은 환자를 보았다. 이에 그는 전도자로서 큰 미소를 지으며, 그리고 전도용 큰 성경을 꺼내들며 ‘형제여, 형제는 마음이 즐거운가?’ 하고 말을 건넸다.” 웨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그 목사는 환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었다.”<sup>38)</sup>

**25:21~22** 바울은 로마서 12:20에서 본문을 인용한다. 우리는 모든 잘못이나 무례를 친절로 갚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한 격분한 이웃이 어느 갓 믿은 신자를 불러 그 신자의 다섯 살 난 딸이 꽃을 밟고 유리창을 깨고 그밖에 여러 가지 말썽을 피웠다고 마구 흥분해했다. 그 이웃이 마당으로 나오자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일을 의논하자고 청했다. 이웃이 그 집에 들어와 보니 식탁에 커피와 맛있는 빵이 차려져 있었다. “미안합니다. 손님이 오셨군요.” “아닙니다.” 그 신자가 대답했다. “커피를 나누며 우리 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그 그리스도인은 다과에 대해 감사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자 방문객이 소리쳤다. “아, 당신 딸이 아니라 제 딸이 그랬어요. 제가 왜 당신에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제 아이들과 제 남편과 제 집안 식구들과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웃이 허락하자 그 젊은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6주 후 그 이웃과 그 가족은 거듭났다.<sup>39)</sup>

**25:23** 북풍이 비를 불러오듯이 참소하는 혀는 얼굴에 분을 일으

38) (25:20) Keith Weston,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39) (25:21,22) Safah Anne Jepson, “Preparing Tables of Forgiveness,” *Good News Broadcaster*, June 1975, p. 13.

킨다. 험담의 희생자는 거의 틀림없이 그 얼굴에 분을 일으키며, 그 얘기를 듣는 자들 역시 그러하다. 만일 사람들이 참조하는 자를 꾸짖는다면 그는 곧 할 일을 잃게 된다.

**25:24** 본문은 21:9과 거의 동일하며,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의 불행함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되었다.

**25:25** 복음은 먼 땅, 즉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다. 목마른 영혼에게 냉수같이 복음은 신선하고 갈증을 채워준다.

**25:26**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들이 타협하고 굴복하고 또는 의를 위해 서지 못하는 것은 흐려진 우물과 더러워진 샘과 같다. 사람들이 순수함과 깨끗함을 찾아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선다.

**25:27**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충분함’을 넘는 것은 환희가 아닌 메스꺼움을 일으킨다”라고 키드너는 말했다.

원문상 후반부는 그 뜻이 모호하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다(‘아니다’는 전반부에서 취한 것이다)”(NKJV), “중요한 문제를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JND), 혹은 “중요한 문제를 추구하는 것은 영광이다”(JND 난하주) 등 세 가지 모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25:28** 자기 생활을 다스리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아무 방비도 없는 성 같아서 모든 공격과 모든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26:1**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은 전혀 시기적절하지 않으며, 추수 때

에 비가 오는 것도 피해를 끼친다.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것처럼 부적절하고 해로운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며 그들의 어리석음만 부추길 뿐이다.

**26:2** 참새와 제비는 공중에서 오르락내리락하지만 결코 우리 위에 내려앉지 않는다. 그와 같이 까닭 없는 저주는 미신이 뭐라 말하든 사람에게 결코 이르지 않는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민 23:8; 신 23:5).

**26:3** 말에게는 채찍이, 나귀에게는 자갈이 필요하듯이 미련한 자가 이해하는 듯 보이는 언어는 날카로운 교정뿐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시 32:9).

**26:4~5** 이 두 구절은 명백한 모순을 말해준다. 첫 구절은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말하고, 둘째 구절은 그에게 대답하라고 말한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각 구절의 후반부가 그 열쇠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당신이 그 과정 중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는 대답하지 말라. 화를 내거나 무례히 행동하거나 경솔히 말하지 말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라. 그로 자신의 어리석음에 완전히 빠지지 말게 하라. 그를 책망하고 꾸짖으라. 그러면 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못할 것이다.

**26:6**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당신의 최선의 관심사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다리를 절단하거나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 미련한 자는 소식을 적절히 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직 당신에게 근심을 끼칠 것이다. 발을 베어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무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6:7** 저는 자의 다리는 아무 힘없이 달려 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의 잠언이 그러하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모르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 쓸모 없다.

**26:8** 돌을 물매에 매서는 안 된다. 돌은 자유롭게 날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것처럼 불합리하다.

두 번째 가능한 의미는, 돌이 곧 물매에서 벗어나듯이 어리석은 자는 그에게 부여되는 어떤 영예에도 합당치 않음을 곧 스스로 증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26:9** 술취한 자의 손에 가시가 들렸을 때 가시는 그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위협을 끼친다. 어리석은 자의 입의 잠언도 그렇게 잘못 적용되고 왜곡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에 관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26:10** 본문은 다음 여러 가지 역본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원문상 그 뜻이 아주 모호하다.

“장인은 모든 일을 대충 해낸다. 어리석은 자를 고용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기도 한다”(JND).

“온 몸에 상처를 입은 궁사같이 지나가는 어리석은 자나 술취한 자를 고용하는 자도 그와 같다”(RSV).

“법이 다툼을 마침내 해결하고 어리석은 자를 잠잠케 하면, 그곳의 불화가 사라질 것이다”(Knox).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를 고용하는 자는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것이다”(Berkeley).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궁사처럼 어리석은 자를 고용하거나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사람도 그러하다”(NASB).

“지나가는 어리석은 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이다”(TEV).

“모든 것을 빚으신 크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에게 임금을 주고 범죄자에게 그 값을 주신다”(NKJV).

어떤 의미가 정확한지는 단정할 수 없다.

**26:11** 개가 자신이 토했던 것을 다시 먹듯이 어리석은 자도 그 어리석음으로 그러하다. 그 둘은 불쾌하고 혐오스런 것으로 되돌아간다. 본문은 베드로후서 2:22에 도덕적인 개혁을 경험하지만 결코 진실로 거듭나지는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26:12** 교만한 자는 교정이나 가르침이나 책망을 받지 않는다. 그를 고쳐주려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무지한 어리석은 자는 때로 때로 다스려 도와줄 수 있으나 교만한 자는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26:13~16** 다시금 여기에 게으른 자와, 그가 일터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상의 사자가 있다. 그는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 돌 듯이 침상에서 이리저리 돈다. 한번은 바로 눕고, 한번은 뒤집어 눕는다. 몸을 여러 번 움직거리지만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후에 식탁에 앉을 때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음식을 입에 넣을 기운이 없다. 먹는 일과 같은 즐거운 일에도 모진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일곱 사람, 즉 한결같이 그가 잘못되었으며 또 그 마음을 조금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보는 일곱 명의 명철한 사람보다 스스로 보기에 자신이 더 지혜롭다.

**26:17** 길 가다가 스스로 흥분하거나,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놔버릴 수도 없는 지경이 된다.

**26:18~19** 그 이웃을 속여 해를 끼친 후에 “그냥 장난 좀 쳤지”라고 말하는 자는 횡불을 던지고 사람에게 활을 쏘는 미친 자와 같다. 그것은 살인을 장난이라고 변명하는 것과 같다. 본문은 무책임한 칭혼과 약속에 적용될 수 있다.

**26:20~21** 연료가 불을 삼키듯이 험담은 다툼을 삼킨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계속해서 자극과 험담과 거짓말을 더하지 않으면 곧 다툼이 사라질 것이다.

수년 전에 애틀란타 지(誌)(Atlanta Journal)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나는 썩 하고 날아가는 포탄보다 더 치명적이다. 나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승리를 거둔다. 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상케 하고 그리고 삶을 파산케 한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어떤 무죄함도 나를 위협할 정도로 강하지 못하며, 어떤 순수함도 나를 굴복시킬 정도로 깨끗하지 못하다. 나는 진실에 관심 없으며, 정의를 존중치 않으며, 힘없는 자를 동정치 않는다. 나의 희생자는 바다 모래처럼 무수하며, 종종 아무 죄가 없다. 나는 결코 잊지 않고 용서치 않는다. 내 이름은 험담(비방)이다!”<sup>40)</sup>

**26:22** 본문은 18:8의 반복이다. 타락한 인간 본성은 맛있는 별식 인양 험담을 먹어치운다.

**26:23~26** 악한 마음을 품은 온유한 입술은 은가루를 살짝 입힌 토기와 같다. 은빛 나는 도색이 질그릇의 무가치함과 칙칙함을 가려 준다. 것처럼 위장된 사랑으로 빛나는 입술이 종종 증오로 가득한 마음을 가리운다. 배신자 유다의 위장된 사랑이 좋은 실례이다.

이 고질적인 증오자는 은혜로운 말로 적개심을 감추는 동시에 그 속에 궤환을 쌓아둔다. 그가 은혜롭게 말할지라도 그를 믿을 수 없다. 그는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을 숨겨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는 그는 악의로 가득하다. 비록 그 증오심을 궤환로 잠시 가리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의 악함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날 것이다.

**26:27** 인간의 악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루이가 만든 작품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그는 프랑스 전쟁 초기에 흉악범들을 묶어둘 사슬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양질의 금속을 잘 배합하여 강도(強度)가 비할 데 없는 사슬을 만들었다. 후에 루이 자신이 반역죄가 드러나 옥에 갇히게 되자 그는 이렇게 읊조렸다. “이건 내가 만든 사슬이군! 내가 직접 찰 줄 알았다면 좀 다르게 만들었을 텐데!”

**26:28** 본문은 비방자와 아침꾼을 엄히 정죄한다. 비방자는 그의 희생자를 미워하고, 아침꾼은 스스로 폐망을 불러온다.

**27:1** 아무도 내일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모든 앞일에 대해 자랑하지 말라(눅 12:16~21). 야고보서 4:

---

40) (26:20,21) *Atlanta Journal*,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13~15도 참조하라.

**27:2**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은 뒤에 감추고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 “자서전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Berkeley 난하주).

**27:3** 미련한 자의 집요하고 자극적인 말은 무거운 짐보다 더 참기가 어렵다. 입을 크게 벌린 미련한 자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느니 차라리 돌이나 모래를 나르는 것이 낫다.

**27:4** 분과 노는 잔인하고 위압적이지만 종종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투기는 끊임없이 사람을 갉아먹으며 따라서 한결 위험하다. 예를 들어 제 삼자에게 결혼생활이 방해를 받는 사람의 경우가 여기에 적용된다.

**27:5** 직설적인 면책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유익을 준다. 그러나 숨은 사랑, 즉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거부하거나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랑은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27:6** 대부분 사람들은 당신의 잘못에 대해 당신에게 정직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거부할까봐 염려한다. 건설적인 비판으로 당신을 도와주려고 당신에게 양해를 구하는 자는 참된 친구이다.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된, 혹은 험한 것이다(RSV).

유다는 제자들의 무리에서 예수님을 분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미리 무리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그 신호는 입맞춤이었다. 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상징행위가 가장 저열한 용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유다는 주님께 다가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한 다음 그분께 헤프게 입을 맞추었다. 입맞춤에는 두 단어가 사용되었다(마 26:48, 49). 첫 번째는 48절로 정상적인 단어이다. 두 번째는 49절로 거듭된 혹은 애정에 찬 입맞춤을 표현하는 강렬한 단어가 사용되었다.

**27:7** 배부른 자는 최선의 맛난 음식에도 감사할 줄 모른다. 주린 자는 조그만 부스러기에도 감사한다.

이것은 물질적인 소유와 영적인 특권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27:8**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방랑벽이 있다. 그는 보금자리를 떠난 새와 같이 책임을 기피하고 견고하고 확실한 것을 세우지를 못한다.

**27:9** 친구의 아름다운 충고의 향기는 기름과 향이 주는 기쁨에 비할 수 있다. 친구와의 사귄에는 진실로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27:10** 우정은 가뀌지고 늘 새롭게 되어야 한다. 종종 가장 오랜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친구나 가족의 오랜 친구와의 사귄을 잃지 않도록 하라.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피해를 당한 자의 집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의 집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환란이 임하면 당신과 관계가 먼 가까운 친척보다는 신실한 이웃에게서 더 도움과 동정을 얻을 수 있다.

**27:11** 아들의 행동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반영한다. 제자는 그 스승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끼칠 수도 있다. 버클레

이는 이렇게 적절히 표현했다.

“교사의 한가지 방어책은 그의 학생들의 성공이다.”

**27:12** 노아는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을 방주에 숨기는 슬기로운 자였다. 남은 백성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그들의 길을 가다가 재앙을 당하였다. (22:3 주해를 보라).

**27:13** 현대의 관용적인 표현에 의하면, 첫째 문장은,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자는 “그 옷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둘째 문장은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잡힐지니라”라고 옮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선 자의 재산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확실히 주장하라는 것이다. 빚진 자가 갚을 수 없으면 그 보증이 된 자가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27:14** 아직 잠이 덜 깬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은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아주 성가신 일이다.

**27:15~16** 다투고 잔소리 많은 아내는 비 오는 날에 지붕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 둘은 “사람을 질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녀를 제지하는 것은 바람을 제지하고 오른 손으로 기름을 잡는 것과 같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그녀는 회피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계속해서 불평을 해댄다.

**27:17** 집안에서 식탁에 앉아 단단한 쇠막대기에 칼을 갈아 날을 세우는 것은 과거에 흔한 일이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

람과 사람 사이의 생각의 교환은 그 생각을 보다 날카롭게 해준다.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보다 폭넓은 견해를 갖게 한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지혜를 날카롭게 한다. 친밀한 대화는 인격을 연마해준다.

**27:18** 무화과나무를 잘 돌보는 자는 좋은 과실을 보상으로 받는다. 자기 일에 부지런하면 공간에 양식이 쌓이게 된다.

또한 자기 주인을 충실히 섬기는 자는 존귀를 얻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존귀히 여기시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요 12:26).

**27:19** 맑은 샘을 들여다보면 물 속에 당신 얼굴이 비추인 것을 볼 수 있다. 것처럼 다른 사람을 깊이 연구하면 당신 자신 속에 있는 많은 것(동일한 감정, 유혹, 야망, 생각, 능력, 약함 등)을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 설교를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절립을 받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27:20** “음부와 유명”(히브리어로 ‘스울’과 ‘아바돈’), 죽음과 무덤은 더 이상 희생자가 필요 없다고 외칠 지점에 결코 이를 수 없다. 것처럼 사람의 눈도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아더 G. 기스는 이런 예를 들려준다.

“톨스토이는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한 농부 얘기를 들려준다. 마침내 그는 바쉬커족 가운데 아주 싼 땅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모든 소유를 팔아가고 바쉬커족이 사는 데로 먼 여행을 하여 그들과 흥정을 했다. 1천루블을 주고 그는 하루 온 종일 걸어야 둘러 볼 수 있는 아주 넓은 땅을 샀다. 다음날 아침 그는 한쪽 방향으로 길을 떠나 멀리 걸은 다음 왼쪽으로 방향

을 돌렸다. 그는 비옥한 지역을 찾아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마지막 지역을 둘러보고 나서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처음 출발한 지점에 해가 지기 전에 도달하기 위해 쏘살같이 달렸다. 빨리, 더 빨리 달려서 그는 마침내 해가 막 질 즈음에 출발점에 비틀거리며 도달했다. 그리고 거기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사람들이 그를 작은 구덩이에 묻어주었다. 그가 필요한 땅은 그게 전부였다.”<sup>41)</sup>

다행히도 인간의 마음의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만족한다.

“오 그리스도, 그분은 깊은 사랑의 달콤한 샘이요,

이 세상에서 맛보는 맑은 시냇물이라.

거기서 나는 깊은 물을 마시리.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인자는

큰 바다를 가득 채우니

임마누엘의 땅에 영광, 영광이 거하네.” (안네 로스 커즌)

**27:21** 도가니가 은을 시험하고 풀무가 금을 시험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한다.” 이것은 사람은 칭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시험해볼 수 있다는 뜻일 수 있다. 그가 칭찬으로 교만해지는가, 아니면 칭찬을 조용히 겸손히 받아들이는가?

또는 본문은, 사람은 그가 칭찬하는 대상으로 시험해볼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ASV 난하주). 그의 기준 내지 가치의식은 그의 성품을 반영한다.

또는 본문은, 바네스의 제안대로, “사람으로 칭찬에 대해 그렇게 반응하게 하라”, 즉 “사람으로 칭찬에 섞여있을 만한 모든 아침과 비열함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라”는 뜻일 수도 있다.

**27:22** 당신은 아마 ‘절구’와 ‘공이’가 상점에 진열된 것을 본적이

---

41) (27:20) Arthur G. Gish, *Beyond the Rat Race*, p. 91.

있을 것이다. 절구는 그릇모양의 물건이다. 공이는 끝이 둥그런 두툽한 막대기로서 절구에 물건을 넣고 부수는데 사용된다.

설령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는다해도 미련한 자에게서 그 미련함을 벗겨낼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곡물에서 그 껍질은 벗겨낼 수 있으나 미련함은 미련한 자에게 달라붙은 분신과 같아서 그에게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27:23~27** 본문은 농경생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한편 농부의 근면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데 있어 지침이 없고 중단이 없는 수고가 따라야 한다. 성공적인 목양은 오직 끊임없는 근면함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은 지역교회의 목양에도 동일한 무게로 적용될 수 있다.

재물은 오래가지 못하며, 면류관의 영예도 자기 일을 끊임없이 돌보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

곡물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고 들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것은 농부에게 크나큰 만족을 준다. 어린양은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털을 제공하며, 염소는 시장에 내다 팔아 받을 더 살 수 있게 한다. 농부의 가족과 그 종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풍부하다.

**28:1** 범죄한 양심은 사람으로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게 한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백미러를 흘깃 흘깃 쳐다보며 운전할 필요가 없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기 때문이다.

**28:2** 나라가 죄로 널리 가득하면 정권이 자주 바뀌는 우환을 당하게 된다. 지도자가 명철과 지식있는 사람일 때 나라는 안정과 견고함을 누리게 된다.

북왕국(이스라엘)은 약 200년의 역사에 19왕이 있었는데 이는 평



균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된 것을 의미한다.

**28:3** 가난한 자가 재물과 권세의 자리에 오를 경우 종종 재물이 많은 자보다 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곤 한다. 그는 밭을 황폐케 하고, 곡식이 자라는 것을 돕는 대신 그것을 멸하는 폭우와도 같다.

**28:4** 하나님의 율법과 일반법의 제약을 저버리는 자는 종종 악인을 칭찬한다. 물론 그것은 그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범죄자들을 대적하고 의를 위하여 입을 연다.

**28:5**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 공의를 행하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공의를 깨닫는 능력을 상실한다. 여호와의 뜻을 찾는 자는 적절한 분별력을 부여받는다. 도덕성과 깨달음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시 119:100).

**28:6**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가난한 자는 그 길이 굽고, 늘 속임과 반역을 피하면서 선한 삶을 사는 채하는 부자보다 낫다.

**28:7** 율법을 지키는 아들은 지각이 있다. 탐식자와 술취하는 자와 사귀는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욕을 끼친다.

**28:8** 모세 율법 아래서 히브리인은 다른 히브리인에게 고리대금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는 이방인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동료 유대인에게는 요구할 수 없었다(신 23:19,20). 오늘날 고리대금은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리대금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수입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그 부를 잃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취해져, 그것을 더

잘 사용하는 법과 가난한 자를 너그럽이 대할 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28:9**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사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말뿐인 기도를 드리는 것은  
돌로 만든 신들 앞에 무릎꿇고  
경배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 (존 버튼)

**28:10** 정직한 자를 유인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자는 징벌의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다(마 18:6).

그러나 성실한(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성실한 자’는 다른 사람을 죄의 길이 아닌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죄의 유혹에 희생물이 되기를 거절하는 자를 의미할 수도 있다.

**28:11**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부자는 스스로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경제적인 안목을 자랑하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한다. 그는 부와 지혜를 혼동한다.

지각이 있는 가난한 자는 그러한 허세를 살펴 알 수 있다. 찰스 램은 한번은 그러한 거들먹거리는 자를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 “실례입니다만 맥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뛰어난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28:12**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큰 기쁨이 있다. 악인이 승리하면 사람들은 두려워 숨는다.

**28:13** 용서에는 법적인 용서와 부모의 용서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죄의 형벌에서 용서받는데, 그것이 법적인 용서이다.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데(요일 1:9),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사귄음을 유지시킨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 즉 그것을 빛 가운데 끌어내어 하나님과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자백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복이 없다.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잊어 버리신다는 확신을 갖게된다(히 10:17).

**28:14** 참된 행복의 한가지 요소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회개치 않는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완고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물리칠 수 없으시다.

**28:15**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백성을 압제하는 군주는 짐승 같고 비인간적이다. 그는 부르짖는 사자와 굶주린 곰과 같다.

**28:16** 여기에 묘사된 치리자는 어떻게 해서든 부유해지려고 애쓰는 점에서 무지한(지각이 부족한) 지를 가리킨다. 이 사람은 더 부유해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까닭에 ‘포학을 크게 행하는 자’이기도 하다. 탐욕을 미워하고 백성의 유익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사는 치리자는 장수할 것이다.

**28:17**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그의 운명을 향해 달려가는 도피자이다. 아무도 법(공의)으로 그를 막거나 제지하려 해서는 안된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창 9:6).

**28:18** 첫째 문장은 다음 세상에서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닌 이생에서의 손실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가리킨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은 성실히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어진다. 성실히 행하는 것은 그러한 구원의 열매이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이생의 여러 올무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거둬서 왜곡되게 행하는 자는 일순간에 추락할 것이다.

**28:19** 여기서는 먹을 것이 많은 것과 궁핍함이 많은 것이 대조된다. 근면한 농부는 먹을 것이 많을 것이나, 공허하고 비생산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28:20** 여기서 충성된 자는 정직하고, 큰 부를 탐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그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불의한 방법으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징벌을 당할 것이다.

**28:21** 재판관이 사람의 낮을 보아주는 것은 심히 불의한 일이나, 어떤 사람은 종종 한 조각 떡, 즉 극히 사소한 것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한다.

**28:22** 인색하고 탐욕적이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빈궁이 곧 그를 덮칠 것을 생각지 못하고 열심히 재물을 구한다.

**28:23** 어떤 친구가 사랑으로 당신을 책망할 때 그 당시는 받기가 어렵다.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그러나 후에 그 친구가 진정 당신을 생각해서 당신의 결점을 지적해준 것임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그에게 감사하게 된다.

아침은 그 당시는 즐거워보일지 모르나 결국 전혀 진실이 아니었으며 다만 당신의 호의를 얻으려 했을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아침할 것이다.

**28:24** 부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그것이 결국 그의 것이 될 것이라거나, 아니면 그것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로 변명할 수도 있다(막 7:11).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 사람을 도둑이나 강도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신다.

**28:25** 교만하고 탐하는 자는 아마도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를 헛되이 좇는 과정 중에 다른 모든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다툼을 일으킨다(약 4: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안과 만족을 얻는데 성공한다.

**28:26** 자기 지혜가 자신의 삶을 인도하리라고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그는 배 안에 닻을 던지며, 그로써 끊임없이 떠다닌다. 여호와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지혜롭게 행한다(렘 9:23,24).

**28:27**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를 상주실 것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서 눈을 돌리는 자는 많은 슬픔을 당할 것이다.

**28:28**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두려워 숨는다. 그러나 악한 통치자가 쓰러지면 의인이 많아진다.

**29:1**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더 이상의 기회를 가질 소망 없이 갑자기 패망을 당할 것이다.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듣기를 거절했다. 홍수가 임하여 그들은 멸망했다.

복음의 초청을 거듭해서 거절하던 한 친구가 그를 위해 종종 기도하던 한 그리스도인 여성을 만났다. “당신은 지금이 주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그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죠?” 그 주말에 그는 원인 모를 사고로 죽고 말았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29:2** 나라의 지도자들의 성품은 그 나라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의인이 그 수효와 세력이 커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악한 통치자는 온 나라에 슬픔을 가져다준다.

**29:3** 지혜를 사모하고 헌신되고 성별된 삶을 사는 아들은 아버지께 기쁨을 준다. 그러나 부도덕한 삶을 사는 아들은 아버지의 재물을 낭비한다. 탕지는 방탕한 삶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리지 않았는가!

**29:4** 왕은 공의를 행함으로써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 공의를 굽게 하기 위해 뇌물을 받는 자는 나라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29:5** 아첨하는 자는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거절하거나 진실이 아닌 것으로 그를 칭찬함으로써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또한 그는 멸망을 가져오는 교만을 부추긴다.

**29:6** 악인은 종종 자기 죄의 울무에 빠진다. 악인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므로 즐거워한다. 그는 노래하고 기뻐한다.

**29:7** 의인은 가난한 자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 악인은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29:8** 거만한 자는 성을 요란케 한다(성에 불을 붙인다). 그들은 분을 자극하고 백성을 선동하고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킨다. 지혜로운 자는 불화를 가라앉히고 평안을 도모한다.

**29:9** 본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보다 가능성이 있는 한가지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툴 때 어리석은 자는 다만 분내고 웃을 것이라는 것이다(NKJV, RSV, Berkeley). 그는 결코 승복하지 않으며, 화평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한가지 해석은,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툴 때는 지혜로운 자가 엄한 말을 하든 부드러운 말(유머)을 하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런 긍정적인 결과가 이뤄지지 않는다.

**29:10** 다시 한 번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다. 하나는 ASV의 표현이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구한다.” 여기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두 경우의 악한 추적자를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NKJV, JND, Berkeley 등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첫째 문장에서 생명을 멸하는 모습으로 발견되나, 정직한 자는 둘째 문장에서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애쓰는 모습으로 발견된다.

**29:11** 어리석은 자는 모든 감정을 표출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것을 억제한다. 아담스는 이렇게 조언한다.

“결과를 헤아리지 않고, 열까지 세지 않고, 그것을 억제하고 잠잠케 하지 않고, 자초지종을 듣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는대로 말하거나 행동함으로써 다스려지지 않은 모습으로 노를 터뜨리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sup>42)</sup>

**29:12** 본문의 요지는, 관원이 유쾌한 소식으로 응석과 아침과 위로를 받기를 원하면 그 모든 하인이 그를 그렇게 대하게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아침할 것이다.

**29:13** 인간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와 압제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수준으로 만난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

**29:14** 통치자를 판단하는데 있어 하나님은 특히 그가 가난한 자를 사려 깊게, 편견 없이 대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으시다. 만일 그가 그렇게 대한다면 그의 보좌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신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유일한 통치자를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은 예수이다.

**29:15** 본문은 “허용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현대 전문가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채찍은 신체적인 징벌이고 꾸지람은 말로 바로잡는 것이다. 이 두 형태의 부모의 징계는 지혜를 준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를 억압하거나 그 개성을 빼앗지 않는다.

**29:16** 악인이 그 수와 세력이 커지면 범죄율이 증거한다. 그러나

---

42) (29:11) Adams, *Counsel*, p. 221.



의인은 살아서 그들의 멸망을 볼 것이다. 물론 예외도 있으나, 그것은 그 원칙을 증명하는 예외이다.

**29:17** 적절한 징계를 받고 자란 아이는 부모에게 근심과 두통 대신 기쁨과 안식을 줄 것이다.

**29:18**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절제를 팽개쳐버린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묵시’(계시)는 ‘예언적인’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삼상 3:1).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백성이 함부로 행한다는 것이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진실로 복있는 자다.

**29:19** 본문은 많은 종들의 완고하고 다루기 힘든 태도를 묘사하는 듯하다. 구두(口頭) 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은 주인의 지시를 알고도 종종 행치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잠잠히, 부루퉁한 채 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눅 6:46).

**29:20** 잠언에 다뤄진 모든 주제 가운데 ‘언어’는 최고의 관심을 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보다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와 같은 부류가 되게 한다(26:12).

**29:21** 종을 곱게 다루어 임의로 하게 버려 두면 그가 제 위치를 잊고 곧 자기를 아들처럼 대해주기를 기대하게 된다.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지나치게 친분이 있을 경우 종종 그러한 업신여기는 분위기가 생겨난다.

둘째 문장의 ‘아들’로 옮겨진 단어는 그 뜻이 매우 모호하다.

**29:22** 우리들 대부분은 이따금씩 이러한 두 부류를 대한 적이 있을 것이다. 노한 자는 각양 문제를 일으키고, 감정이 격한 자는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다.

**29:23**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된다. 겸손한 자는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된다.

“스미쓰 교수가 바이스혼산을 오르고 있었다. 정상 가까이에 이르자 안내자가 정상에 첫 번째 오르는 영예를 누리도록 스미쓰 교수에게 길을 양보했다. 그는 눈앞의 광경에 흥분되어 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는 것을 잊은 채 경충 뛰어 올라 정상에 우뚝 섰다. 이 때 안내자가 그를 끌어내리며 소리쳤다. ‘교수님, 무릎꿇으세요. 무릎꿇지 않으면 위험해요.’ 지식의 정상이든 사랑의 정상이든 출세의 정상이든 인생의 정상은 위험이 가득하다.”(Choice Gleanings).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여전히 나를  
당신의 상한 옆구리 곁에 두시네.  
거기서만 나는 오직 안전하고  
평안히 거할 수 있네.

원수와 올무가 내 주위를 두르고  
정욕과 두려움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으나  
나를 찾고 발견한 그 은혜만이  
나를 깨끗하게 지켜줄 수 있네.” (제임스 G. 텍크)

**29:24** 도적의 동료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양 행동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할 때, 즉 재판관이 그로 그가

이는 모든 사실을 말하라고 맹세시킬 때, 그는 직고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증언하지 않으며, 그로써 위증을 한다. 모세 율법 아래서 재판관이 맹세시키는 말을 듣고도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징벌을 받았다(레 5:1). 그 때는 “묵비권 행사” 같은 것이 없었다.

**29:25** 사람을 두려워하면 악을 행하게 하거나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압력에 굴복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을 경우 친구들이 뭐라고 말할지 두려워한 까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말았는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일이 와도 안전하다. “우리는 사람은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너무 적게 두려워한다”고 윌리엄 거널을 말했다.

**29:26**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양 이 땅의 관원을 기대한다. 그러나 정의는 여호와께로서 온다.

**29:27** 불의한 자와 의인 사이에는 아무 일치점이 없다. 정직한 자는 불경건한 자를 혐오하며, 악인은 의인을 미워한다. 반듯한 막대기가 굽은 막대기의 상태를 보여주듯이 정결한 삶과 악한 삶의 차이는 선명히 드러난다.

여기서 솔로몬의 잠언이 마감된다.

## 6. 야굴의 잠언(30장)

**30:1** 야굴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장에 언급된 것이 전부다. 그는 자신을 야계의 아들로 소개한다.

아굴의 ‘잠언’(신약, NIV)은 ‘마사’(RSV)로도 옮겨질 수 있는데, 이는 아굴이 이스마엘의 후손임을 밝혀준다(창 25:14).

둘째 문장은 “그가 이르되, ‘오 하나님, 나는 쇠약하였나이다. 오 하나님 나는 쇠약하고 소진하였나이다’라고 하였다”라고 옮겨질 수도 있다(ASV 난하주). 이것은 자연 다음 내용(무한지를 무한히 적게라도 깨달을 수 없음)으로 이어진다.

**30:2** 아굴은 먼저 그 자신이 깨달음에 이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다. 그것은 참된 겸손(하나님의 행사와 섭리를 탐구하는 모든 이들이 취할 합당한 태도)의 고백이다.

**30:3** 그는 지혜를 배웠다거나 인간적인 탐구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고백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에 도달할 능력이 없다고 시인한다.

**30:4** 일련의 질문을 통해 그는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위대함을 진술한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람이 그분을 좇을 수 없는 우주의 높은 곳과 깊은 곳에 도달하신 분으로 묘사한다. 둘째는 바람의 큰 능력을 다스리는 그분의 지배력을 가리킨다. 셋째는 물들을 땅 위의 구름이나 바다에 담는 그분의 능력이다. 그리고 넷째는 대륙의 경계를 정하신 그분의 권세이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 물음의 요지는, “그토록 헤아릴 수 없고, 그토록 신비롭고, 그토록 능력있고, 그토록 편재하신 위대한 분을 누가 과연 온전히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 답은 “아무도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이 주(여호와)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아들이 없다고 가르침 받아온 대부분 유대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 말씀이다. 이 구절에서 구약 신자들은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30:5** 이제 아굴은 자연 속의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 말씀 속의 그분의 계시를 말한다. 그는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런 다음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안전함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30:6** 이어서 성경의 절대 충족성을 주장한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위에 자신의 생각과 사색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그들의 글과 전통에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는 이단들을 정죄한다.

**30:7~9** 본문은 잠언에 나오는 유일한 기도를 담고 있다. 이 기도는 짧고 핵심적이다. 그것은 두 가지 간구를 담는데 하나는 영적인 생활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물질적인 생활에 관한 것이다.

첫째로 아굴은 그의 삶이 가치 있고 정직하기를 원했다. 그는 그것이 사소한 일에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하찮은 일에 몰두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또는 자신이 속임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물질적인 면에서는 가난함과 부함의 양 극단에서 건짐받게 해달라고 구했다. 그는 하나님이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만족하고자 했다. 사실 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풍족과 빈곤의 양 극단을 왜 피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힌다. 만일 그가 풍족하다면 여호와를 떠나고, 그분의 필요성을 크

게 인식하지 않음으로 그분을 부인할 수도 있었다. 그는 감히 “여호와와 누가냐?”, 다시 말해서 “그가 누군데 내 필요나 부족에 대해 의지해야 하는가?” 하고 말할 수도 있었다.

빈곤함의 위험은, 그가 물건을 훔치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 맹세로 그 일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0:10** 아굴은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경계한다. 그 형벌로 그가 당신에게 퍼붓는 저주가 이뤄질 것인데, 이는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변호자이시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은 주님의 종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그들의 서거나 넘어짐은 그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롬 14:4).

**30:11** 여기에 묘사된 세대(무리)는 오늘날 세대와 말일에 존재할 세대와 너무도 흡사하다(딤후 3:1~7).

‘부모를 경시함.’ 그들은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에게 아무 감사도 표하지 않음으로 제 5계명을 범하다. 젊은이들의 부모에 대한 적대감은 우리의 타락한 사회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다.

**30:12** ‘자기 의.’ 이들은 악하고 더러운 자들로 아무 수치감이 없다. 그들은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보이거나 안으로는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하다.

**30:13** ‘교만과 지만.’ 그들은 “세상에는 두 의인밖에 없는데 나와 내 아들이 그 둘이다. 그리고 하나를 꼽는다면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한 시므온 벤 요케이라는 랍비를 닮았다.

**30:14** ‘무서운 압제.’ 그들은 부에 대한 즉할 줄 모르는 탐심으로

인해 장시간의 근로와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과 그밖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의로 가난한 자를 찢고 삼킨다.

**30:15~16** 앞절에 나오는 압제자들의 탐욕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다른 욕망들로 이어진다.

(1) 거머리 혹은 흡혈귀(ASV 난하주)는 피를 빨아들이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두 딸이 있다고 묘사되었다. 그 둘은 “달라”(give)라고 불리운다.

(2) 음부(무덤)는 “비어있지 않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죽음에는 휴일이 없으며 무덤은 그 희생자를 맞아들이기를 쉬지 않는다.

(3) 아이 배지 못하는 때는 그 불임됨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끊임 없이 아이를 낳고자 한다.

(4) 땅은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더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다.

(5) 불은 결코 “죽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이 주는데로 연료를 삼켜버린다.

“서녘이 있나니”라는 표현은 절정의 느낌을 주는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다. 그랜트는 지적하기를, “넷은 지상적인 완전함 내지 보편성(동서남북 사방), 혹은 창조에 대비되는 피조물의 수”라고 했다.<sup>43)</sup>

**30:17** 본문은 11절과 유사하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본문은, 그 아버를 조롱하고 그 어머니에게 불순종하는 지는 갑작스런 죽음을 당할 것이며 정중히 장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몸이 장사되지 못한다는 것은 크나큰 비극이요 불행이었다. 패역한 아들은 그 시신이 독수리에게 먹히는 운명을 당할 것이다.

---

43) (3:15~16) F. W. Grant, *The Numerical Bible*, 1:15.

**30:18~19** 아굴은 너무 기이하여 이해할 수 없는 네 가지를 열거한다. 이것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 영적인 암시가 담겨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암시는 무엇이며, 그것들을 한데 묶는 공통된 실은 무엇인가?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 네 가지가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20절의 음녀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입증되는 듯하다. 키드너는, “공중, 바위, 바다, 젊은 여자처럼 빠져나가기 어려운 요소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손쉽게 극복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한다.<sup>44)</sup>

(1)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여기서 우리는 비행의 놀라움을 볼 수 있다. 독수리의 기품과 속력은 잘 알려진 바다.

(2)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여기서 기이한 것은 다리나 팔이나 날개의 도움 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3)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여기서 ‘배’는 고기를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일 수 있으며(시 104:26), 아굴은 선원의 항해술에 감탄하고 있을 수도 있다.

(4)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그것이 아름다운 구혼(求婚) 장면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소 투박한 견해를 취하여 그것을 여자의 유혹을 가리키는 것으로 적용한다.

**30:20** 다섯 번째(아마도 보충을 위해 삽입된 듯한) 기이한 것은 음녀가 그 욕망을 채운 다음 그 입을 씻고 자신의 완전한 무죄를 주장하는 모습이다.

**30:21~23** 이어서 네 가지 견딜 수 없는 것이 열거된다. 그것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것들이다.

---

44) (30:18,19) Kidner, *Proverbs*, p. 180.



(1) ‘종이 임금된 것.’ 종이 임금이 되면 그 새 지위에 도취되어 교만하고 위압적이 된다.

(2)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그의 번성은 그를 어느 때보다 더 방종하게 한다.

(3) ‘꺼림을 받는 계집이 마침내 시집간 것.’ 그녀는 잘못된 성품 까닭에 정상적으로는 독신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어떤 요행으로 남편을 얻을 경우 그녀는 거만하고 오만해져 아직 시집가지 않은 여자들을 조롱한다.

(4)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 그녀는 세련되고 기품있게 행동할 줄 모르고 거칠고 무례하고 천박하게 행한다.

**30:24** 이제 아굴은 그 크기에 비해 지혜로운 네 가지를 언급한다.

**30:25** 개미는 작고 힘없는 동물이지만 여름 내내 부지런히 일한다. 대부분 개미들은 겨울을 위해 예비하지 않는데, 이는 동물백과사전의 설명에 의하면, “개미는 무리를 지어 둥지 안에서 잠을 자며 겨울을 보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개미는 그 예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추운 때를 대비하여 덥고 건조한 때에 양식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양식을 준비하는 개미의 부지런한 활동이다.

**30:26** 사반(바위 오소리)은 약하고 힘없지만 바위 아래 피신처를 찾는 지혜가 있다. (‘바위 너구리’로도 알려진 바위 오소리는 싸움을 잘하는 일반적인 오소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바위틈이 최고의 피신처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영적인 적용은 “나를 위한 피난처 되신 반석이시여”(Rock of Ages, cleft for me)라는 찬송사에서 발견된다.

**30:27** 메뚜기 떼는 눈에 떠는 지도자가 없지만 그 나아가는 질서가 놀랍다.

**30:28** 도마뱀은 작지만 용케도 왕궁에 잠입한다. 그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중요한 곳에 도달하는 것은 종종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재연된다. 하나님은 왕궁일지라도 그분의 증인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30:29~31** 마지막 목록은 당당하게, 위풍 내지 기품있게 움직이는 네 가지에 대한 것이다.

(1) 동물의 왕 사자는 위엄있고 의연하게 다닌다.

(2) 두 번째 예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실치 않다. 그것은 점잔뻐며 걷는 수탉일 수도 있고(NIV), 군마일 수도 있고(JND 난하주), 사냥개일 수도 있다. 이 모두가 다 높은 기품을 말해주는데 그 중 기품 있는 사냥개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3) 수염소는 무리 앞에서 당당히 걷는 까닭에 기품있는 자세를 잘 묘사해준다.

(4) 네 번째 예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이 있다. 그것은 “당할 수 없는 왕”(KJV), “백성 앞에서 당당히 걷는 왕”(RSV), 혹은 “군대가 함께 있는 왕”(NKJV) 등으로 옮겨질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왕이 위엄있게 행차하는 모습을 말해준다.

**30:32~33** 본 장은 이전의 문맥과 아무 관계없어 보이는 두 구절로 마감된다. 윌리엄스는 본문을 이렇게 설명한다.

“만일 나약한 인간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였거나 그분에 대해 마음을 강박케 가졌다면 그로 지혜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그 손으로 그 입을 막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젓이 버터가 되고 코가 피를 흘리고 노가 다름을 일으키는 것 같은 결과가 야기될 것이다.”<sup>45)</sup>

## 7.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31:1~9)

**31:1**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 헌신된” 혹은 “하나님께 속한”이란 뜻이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그 모친이 그에게 베푼 지혜로운 권면을 우리를 위해 보존해두었다는 것이다.

**31:2**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본문의 의미를 보충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해줄꼬, 내가 여호와께 바친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어떤 지혜의 말을 전해줄꼬?”

**31:3** 첫 번째는 방탕과 육정의 삶을 피하라는 경고이다. “설교자의 주석”(The Speaker’s Commentary)은 “규방여자들의 유혹은 지금처럼 당시에든 모든 동방왕국들의 저주였다”고 지적한다.

**31:4~8** 둘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지나치게 즐기 말라는 간청이다. 왕들이 조심해야 할 위험은 음주로 인해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의 표준을 잊고 압제받는 자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할 수 있다. 포도주는 죽어 가는 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낙심한 자의 힘을 북돋기 위해 의학적으로 사용이 허락된다. 그런 상황에 처한 자들이 그것을 마시고 그들의 고통과 근심을 잊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

45) (30:32,33)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437.

**31:9** 왕은 그들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모든 자를 위한 책임 있는 변호자가 되어야 하며, 죽게 된 모든 자의 처지를 신원해 주어야 한다. 그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 입을 열어야 한다.

## 8. 이상적인 아내와 어머니(31:10~31)

잠언의 마지막 부분은 이상적인 아내를 묘사한다. 본문은 각 구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문자 순서대로 시작하는 글자수수께끼 형태로 기록되었다. 낱스의 번역은 26개 알파벳 중 22개를 사용하여 그 글자수수께끼 형식을 영어로 재구성하고 있다.

**31:10~12** 현숙한 아내는 유능하고 근면하고 가치 있고 선한 아내이다. 그녀의 가치는 값진 보석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녀의 남편은 정직한 소득이 부족할 것을 염려할 필요 없이 그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그녀는 남편을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녀는 결코 동역에 실패하지 않는다.

**31:13~15** 그녀는 항상 양털과 삼을 구하며 그것으로 옷을 만들기를 즐긴다. 물건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면에서 물건을 싣고 항구로 도착하는 상선들과도 같다. 그녀가 시장에 나아가 수레에 좋은 물건을 싣는 모습을 보라. 또한 그녀는 가족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난다. 그녀가 여종들에게 정해주는 일에는 그들의 조반뿐 아니라 그 날의 할 일도 포함될 것이다.

**31:16~18** 인근의 밭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녀는 그것을 보려고 나간다. 그 밭이 그녀가 원하는 것이면 그 밭을

사고 그녀가 번 돈으로 부지런히 포도나무를 심는다. 그녀는 주어진 일을 잘 해내려고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한다. 그녀는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 수고한 결과에 대해 조용히, 그리고 겸손히 만족한다. 다른 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에 종종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31:19~22** 그녀는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 즉 그녀는 양털과 삼으로 실을 짜내느라 분주히 손을 놀린다. 그 모든 일 외에 그녀는 곤란한 자를 도울 시간을 찾는다. 그녀는 궁핍한 자들에게 너그러이 물건을 나눠준다. 그녀는 옷장에 두터운 옷이 많으므로 겨울이 오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

**31:23** 그녀의 남편은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 그는 집안 일에 대한 염려 없이 공적인 일에 몰두할 수가 있다.

**31:24~27** 그의 아내는 베옷을 지어 시장에 내다 판다. 또한 그녀는 장식 띠를 상인들에게 공급하여 돈을 번다. 근면과 존귀로 옷을 입은 채 그녀는 자신 있게 장래를 맞는다. 그녀가 가족에게 베푸는 가르침은 지혜와 인애의 균형을 이룬다. 그녀는 집안 일을 잘 보살피며 천하고 비생산적인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31:28~29**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가 뛰어난 어머니임을 깨닫고 그녀에게 그렇게 말해준다.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 칭찬한다. “세상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고 그는 말한다.

31:30~31 이제 기자는 그 남편이 방금 한 말에 ‘아멘’을 추가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어떤 여자는 미모를 갖췄지만 식견이 부족할 수가 있다. 아름답지만 비실제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위에 묘사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야말로 최고의 여자이다. 그녀는 그 근면함과 고귀한 인품으로 인해 존귀케 될 것이다. 그 성의 어른들이 성문에 모이면 그녀의 뛰어난 성취를 칭찬할 것이다.

잠언이 여자에 관한 이러한 매우 긍정적인 교훈을 마감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고 적절한 일이다. 이 책에는 세 여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있는데,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는 여자로 나타난 의인화된 ‘지혜’와, 부도덕한 여자 혹은 ‘음녀’와, 그리고 끝으로 31:10을 문자적으로 옮긴 ‘용기 있는 여자(혹은 아내)’(NKJV 난하주) 등이 그러하다.

## 참고 문헌

- Arnot, William. *Laws for Heaven for Life on Earth*. London: James Nisbet & Co., n.d.
- Bridges, Charles. *A Commentary on Proverbs*. Reprint.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3.
- Delitzch, Franx. "Proverb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s. 16,17.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 Harris, R. Laird. "Proverbs."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2.
- Henry Matthew. "Proverbs."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3. McLean, VA: MacDonald Publishing Company, n.d.
- Ironside, H. A. *Notes on the Book of Proverbs*. Neptune, N. J.: Loizeaux Brothers, 1964.
- Jensen, Irving L. *Proverbs. Everyman's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82.
- Kidner, Derek. *The Proverb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64.
- MacDonald, William. *Listen, My Son*. Kansas City, KS: Walterick Publishers, 1965.
- Plumptre, E. H. "Proverbs." In *Commentary on the Holy Bible*(S-

peaker's Commentary). London: John Murray, 1873.

Spence, H. D. M., and Joseph S. Exell, eds. "Proverbs." In *The Pulpit Commentary*, Vol.9.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09.



# 전 도서

# 전도서 서론

“나는 이 전도서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고통과 기쁨을 감동적으로 펼쳐 보이고, 실패와 성공을 적절히 평가해주고, 고귀한 슬픔에 대해 말해주고, 영적인 비침을 주고자 지칠 줄 모르게 수고하는 시(詩)를 본적이 없다”(E. C. 스테드만).

##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전도서는 그밖에 거의 모든 요소(기자, 연대, 주제, 신학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적어도 그 독특성에 대해서만큼은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는 성경이다.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의 나머지 부분들과 충돌하는 듯 보이는 이유는 단지 “해 아래 있는” 인간의 사유(思惟)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 아래서’라는 이 표현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그 표현이 29번 나온다는 사실이 기자의 전체적인 관점을 말해준다. 그의 탐구는 이 땅에 국한되어 있다. 그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 온 세상을 두루 찾아 헤맨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추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그의 마음 속에서 이뤄진다.

만일 ‘해 아래서’라는 이 열쇠를 항상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 책은 엄청난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그것은 나머지 성경과 모순되고 이상한 교리를 진술하고 그리고 적어도 의문시될 만한 도덕성을 옹호하는 듯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전도서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지혜의 개론(概論)임

을 기억한다면, 어떤 결론들은 진리이지만 어떤 결론들은 반만 진리이고 어떤 결론들은 전혀 진리가 아닌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전도서 12:1은 모든 시대 젊은이들에게 진리이며 믿을만한 충고이다. 그들은 젊을 때에 그들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1:4은 반만 진리이다.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온다는 것은 진리이지만 땅이 영원히 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시 102:25,26; 벨후 3:7,10). 그리고 다음 진술들은 문자 그대로 취하면 전혀 진리가 아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2:24).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3:19).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9:5).

그러나 우리도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계시를 받지 못한다면 아마도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이다.

### 전도서와 영감(靈感)

이 책의 “해 아래서의” 결론 중 일부는 반만 진리이며 일부는 전혀 진리가 아니라고 할 때, 그렇다면 그것은 전도서의 영감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답은, 그것이 영감의 문제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의 일부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경에 포함되도록 명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나머지 성경의 경우처럼 전도서의 경우에도 완전한 축자영감을 믿는다. (서두의 구약성경 서론 편을 보라.)

그러나 성경의 영감된 책들은 때로 진리가 아닌 사단이나 사람들의 말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4에서 사단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더라도 죽지 않는다고 하와에게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으며, 사단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음을 우리에게

게 가르쳐주기 위해 성경에 인용된 것이다. 웨이퍼 박사의 말대로 말이다.

“영감은 사단(혹은 사람들)의 비진리를 기록할 수 있으나 그 거짓 말을 옹호하거나 신성시하지 않는다. 영감은 다만 선악간에 그 한 말의 정확한 기록을 보증할 뿐이다.’<sup>1)</sup>

### 전도서의 오용(誤用)

그것이 “해 아래서”의 인간의 사유를 보여준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전도서는 회의주의자들과 이단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적이거나 이단적인 교리, 특히 죽음과 내세를 다루는 교리들을 증명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이 전도서를 인용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죽음 이후의 영혼 수면과 악인의 죽음 후의 소멸 등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책의 구절들을 인용한다. 그들은 영혼의 불멸성과 영원한 형벌의 교리를 부인하기 위해 구절들을 문맥에서 억지로 떼어낸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열쇠를 문구멍에 넣지 못한다. 그들은 전도서가 해 아래서의 인간의 지혜를 설명해주며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증명하는 유효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희생자들에게 결코 말해주지 못한다.

## 2. 기자

17세기까지 대부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믿었다. 그 1세기 전에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마틴 루터가 솔로몬 기자권을 거부했는데 그는 어디까지나 예외였다.

오늘날 대부분 성경학자들(보수적인 학자들을 포함해서)이 이 책

---

1) (서론) L. S. Chafer, *Systematic Theology*, 1:83.

이 솔로몬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닌 문학적인 의도에서 솔로몬의 작품의 테두리 안에 제시된 것이라고 믿고 있음은 다소 놀라운 일이다.

### 솔로몬 기자권의 문제점

솔로몬 왕이 이 책을 기록했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거부하는 주된 논거는 ‘언어적인 문제’이다. 즉, 많은 전문가들은 이 책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어휘나 문법구조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솔로몬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기록한다는 생각 자체가 불법적인 문학적 기교요 적어도 기만적인 일로 보인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느냐는 논쟁은 길고도 복잡한 문제이며, 여기서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 다만, 솔로몬 기자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반대의견 중 어느 것도 극복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클리어슨 아처와 같은 책임있는 학자들은 솔로몬이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선택임을 보여준다.<sup>2)</sup>

### 솔로몬 기자권의 근거

전통적인 견해가, 현재에 아무리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사실상 거부된 적이 없으므로, 솔로몬 기자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믿는다.

솔로몬이 이 책을 기록했다는 ‘간접적인 암시’로 기자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언급한 1장 1절과 12절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아들’이 이후의 후손을 가리킬 수 있긴 하지만, 이 표현들은

---

2) (서론) Gleason Archer의 *A Survey of Old Testament Introduction*, pp. 478-88을 보라.

솔로몬 왕의 잘 알려진 전기(傳記)와 부합하는 직접적인 사항들과 연결해보면 실제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기자가 자신이 왕이었다고 밝히는 까닭에 많은 이들은 그것을 기자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증거로 받아들인다. 즉, 솔로몬은 왕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글의 기자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것은 꼭 그렇게 추론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연로한 나이에 글을 쓰면서 오래전 과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전도서에 나오는 ‘직접적인 역사적 진술들’은 다름 아닌 솔로몬에게 정확히 들어맞는다.

솔로몬은 (1) 많은 지혜와(1:16), (2)많은 재물을 지녔고, (3)쾌락을 거부하지 않았고(2:3), (4) 많은 종을 거느렸고(2:7), (5) 큰 거축 및 미화 사업으로 알려진(2:4~6) 예루살렘 왕이었다.

“유대인의 전승”<sup>3)</sup>은 전도서를 솔로몬의 작품으로 돌리고 있으며, 오랜 세기 동안 기독교 학자들은 최근까지 같은 입장을 취해왔다.

이러한 증거는, 솔로몬 기자권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주로 근거한 언어 문제가 히브리어 전문가들에 의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로 전통적인 유대-기독교의 견해를 택하도록 한다.

### 3. 연대

만일 우리가 솔로몬 왕을 인간 기자로 받아들인다면, 그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 환멸을 느끼던 노년에 이 글을 썼다고 가정할 때 그 기록연대는 B.C. 930년경이 된다.

만일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코헬렛)가 아니라면, “이

---

3) (서론) *Megillah 7a: Sabbath 30.*

책의 연대는 약 1천년 후로 밀려나게 된다.”<sup>4)</sup>

많은 학자들이 ‘후기’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아쳐는 그것을 ‘독특한’ 현상으로 보지만) 전도서는 일반적으로 ‘포로 후기’(B.C. 350~250)로 연대가 소급된다.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바사 후기’(B.C. 450~350) 직전으로 연대를 선호한다.

전도서 연대를 가장 늦게 잡은 것은 B.C. 250~200년인데, 이는 집회서란 외경(B.C. 190)이 명백히 이 책을 인용하고 있고 또 사해 두루마리(B.C. 2세기 후반)가 이 책의 조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 4. 배경 및 주제

전도서에 대한 솔로몬 기자권의 기초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역사적인 배경 및 주제를 어느 정도 확신있게 파악하는 작업을 한결 수월하게 해준다.

##### 솔로몬의 탐구

인생의 한 시점에 이르러 솔로몬은 인간 존재의 참된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복된 삶(good life)을 발견해보기로 다짐했다. 풍부한 지혜를 누리고 많은 재물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던(왕상 10:14~25; 대하 9:22-24) 솔로몬 왕은 만일 누군가 영원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솔로몬의 탐구에는 제한이 있었다. 그는 그 일을 스스로 해내려 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떠나 그 자신의 지성으로 인생의 성취를 발견해낼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도움이 일절 없는 인간의 탐구가 될 것이다. 그는 “해 아래서” 인생의 최고 선(善)을 찾고자 했다.

---

4) (서론) W. Graham Scroggie, *Know Your Bible*, 1:143.

## 솔로몬의 발견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솔로몬의 탐구는 인생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라는 침울한 결론으로 끝났다(1:14). 그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한, 해 아래서의 인생은 노력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는 성취나 영원한 만족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모든 부와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된 삶을 발견하는데 실패했다.

물론 그의 결론은 옳았다. 만일 해 ‘위에서’ 언지 못한다면 인생은 헛된 노력일 뿐이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 다 합쳐도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간이 있다”라고 파스칼은 말했다. 그리고 “오주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지으셨으며,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안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어거스틴은 통찰했다.

솔로몬의 경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라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미리 내다보았다(요 4:13). 이 세상의 물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실재(reality)에 대한 솔로몬의 탐구는 그의 생애 가운데 잠시간 이뤄진 그의 역사의 한 장에 불과했다. 우리는 그가 이 진리를 향한 철학적인 탐구를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이 기록을 시작한 것은 그가 나이 들었을 때일 것이다(1:12; 1:9). 마침내 솔로몬은 해 위에서의 통찰을 얻었는데, 이는 세 권의 성경의 많은 부분을 그가 기록한 사실로 보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생애 말기에 먹구름을 드리운 죄와 실패는 신자가 얼마나 심각하게 침체에 빠질 수 있으며 또한 주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영화로운 모형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sup>5)</sup>

---

5) (서론) 솔로몬은 천년왕국 동안 평화의 통치를 베푸실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널리 주장된다.



## 솔로몬과 하나님

솔로몬은 인생의 참된 성취를 탐구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40차례 이상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그 때에 경건한 신자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가 전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 즉 그분을 전능한 창조주로 계시하는 이름이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여호와(주, ’아웨)’, 즉 인간과의 언약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으로 일컫지 않았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해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 1:20에서 그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창조로 보아 분명하다. 무신론은 지혜의 증표가 아니라 스스로 소경됨의 증표이다. 이 세상에 존재한 가장 지혜로운 자인 솔로몬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찾아 해마다가 결국 초월적인 존재가 계심을 인정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엘로힘”)이 계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반면에, ‘여호와’되신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이 책에 하나님(“엘로힘”)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의 믿음의 증표로 간주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말해주는 바는,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는 것과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다(시 14:1; 53:1).

## 전도서의 필요성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해 위에서는 생겨날 수 없는 책을 성경에 포함되게 하셨는가?”

첫째로, 이 책이 포함된 것은, 솔로몬의 이 비참한 경험을 통해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만족을 헛되이 이생에서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연인은 본능적으로, 한편으로는 재물과 쾌락과 여행 등으로, 또 한편으로는 마약과 술과 성적인 탐닉으로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의 메시지는 우리 중 어느 누가 이생에서 이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와 부를 소유한 사람이 그렇게 시도해봤으나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해 위로, 홀로 만족을 주실 수 있으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모든 심신소모와 두통과 좌절과 실망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있다.

그러나 이 독특한 책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에게도 가치가 있다. W. T. 데이비슨은 이렇게 말한다.

“전도서와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의 차이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아마 새로운 복음의 출현이 그보다 앞선 시대의 지혜문화를 쓸모 없게 하거나 무가치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 당시에 제 역할을 수행했으며, 여전히 감당할 역할이 있다. 인간의 역사에는 인간이 예수님 발아래 앉을 준비가 안된, 그래서 코헬렛(전도자)이 있는 학교에 가는 것이 더 나은 때가 있다. 인간의 마음은 진실로 채워질 때까지는 비어있어야 한다. 현대의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는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아니 영원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교훈을 종종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는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그 일은 그 길을 예비하는 것에 불과한 보다 차원 높은 교훈들을 가르침받아야 한다.”<sup>6)</sup>

---

6) (서론) Scroggie의 *Kow Your Bible*, 1:44에서 인용.

## 5. 개관

1. 서언: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1:1~11)
2. 모든 것이 헛되다(1:12~6:12)
  - 1) 지적인 추구의 헛됨(1:12~18)
  - 2) 쾌락, 명성, 부의 헛됨(2장)
  - 3)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의 헛됨(3장)
  - 4) 인생의 불공평함의 헛됨(4장)
  - 5) 인기있는 종교와 정치의 헛됨(5:1~9)
  - 6) 쉬 사라지는 재물의 헛됨(5:10~6:12)
3. 해 아래서의 삶에 대한 조언(7:1~12:8)
  - 1) 해 아래서의 좋은 것과 더 좋은 것(7장)
  - 2) 해 아래서의 지혜(8장)
  - 3) 해 아래서 삶을 누림(9장)
  - 4) 해 아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10장)
  - 5) 해 아래서 좋은 것을 뿌림(11:1~12:8)
4. 결어: 해 아래서 가장 좋은 것(12:9~14)

# 전도서 주해

## 1. 서언: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1:1~11)

**1:1** 기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소개한다. 이 ‘전도자’(Preacher)라는 말은 흥미롭다.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인데 그 의미는 ‘부르는 자’ 혹은 ‘모으는 자’이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ekklesiastes)인데 이는 ‘모임을 소집하는 자’라는 뜻이다. 이로부터 이 단어는 ‘소집자, 회집자, 강사, 토론자, 대변인, 설교자’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왔다.

이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손자나 그 후대의 후손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아마도 말 그대로 ‘아들’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던 다윗의 유일한 후손이었다(12절). 다른 모든 왕들은 유다 왕이었다. 이스라엘 왕이던 다른 왕조들에 속한 왕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왕상 12:25)이나 사마리아(왕상 16:24)를 수도로 사용했다.

**1:2** 솔로몬은 곧바로 요점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마지막 장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솔로몬의 해 아래서의 모든 조사와 탐구의 결과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다. 인생은 일시적이고, 쉬 지나가고, 공허하고, 그리고 무익하다. 이 땅에 있는 어느 것도 이렇다 할 존재 목적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다. 절대적으로 사실이다! 만일 인생이 전

부라면, 만일 죽음으로 인간존재가 끝나버린다면, 그렇다면 인생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아무 의미 없고 덧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죄가 들어온 결과로 썩어짐 혹은 무익함에 종노릇하게 되었다고 일깨워준다(롬 8:20). 그리고 최초의 부모가 그 둘째 아들을 ‘공허함’ 혹은 ‘불거품’을 뜻하는 아벨이라 이름 지은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은 옳았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1:3** 유약한 인간의 삶은 수고와 활동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 모든 말과 행동이 끝난 뒤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아무 진전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단조롭고 고된 동작을 반복할 뿐이다. 왜 일하느냐고 물으면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지”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왜 돈을 벌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면 “먹을 것을 사려고”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왜 먹을 것을 원하느냐고 물으면 “힘을 얻으려고”라고 대답한다. 왜 힘 얻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면 “일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렇게 해서 처음 출발한 지점으로 되 돌아온다. 인간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먹을 것을 사고, 먹을 것을 사서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또 일하고, 일을 해서 또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또 먹을 것을 사고, 먹을 것을 사서 또 힘을 얻고…. 이러한 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헨리 도루어의 표현대로 인간은 조용한 절박함의 삶을 산다.

한 여자가 버스정류장에서 우는 것을 보고 한 그리스도인이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그저 지치고 싫증났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잡았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네 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더 많은 일과에 시달리다가 서너 시간 눈을 붙인 다

음 다음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나는 이러한 끝없는 단조로운 삶으로 병이 든 것 같아요.”

H. L. 멘큰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경험에 관한 근본적인 사실은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고통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sup>7)</sup>

**1:4** 인간의 덧없음은 그를 둘러싼 자연환경의 영구적인 듯한 모습과 현저히 대조된다.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온다. 이것이 해 아래서의 삶이다.

“사람마다 영원히 살 것을 꿈꾸지만

모두들 얼마나 빨리 잊혀진 얼굴이 되는지!”<sup>8)</sup>(월 H. 호오톤)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현재의 땅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땅과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주의 날에 다 불살라질 것이라고 말해준다(벧후 3:10).

**1:5** 자연은 지속적으로, 예외 없이 돌고 돈다. 예를 들어, 해는 동쪽에서 떠서 하늘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진 다음 세계 반대편을 신속히 가로질러 다시 동쪽에서 뜬다.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쉬 사라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태양이 도는 것으로 묘사한 솔로몬이 과학적으로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픈 유혹이 든다면 거기서 멈추어야 한다. 솔로몬은 단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뜨고

7) (1:3) H. L. Mencken, Bill Bright의 *Revolution Now*, 1969, p. 15에 인용됨.

8) (1:4) Will Houghton, “By Life or by Death.”

지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도 늘상 그런 표현을 사용하며, 그것은 누구나 이해하는 말이므로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다.

**1:6** 솔로몬은 6절에서도 같은 생각을 계속 이어간다. 바람의 흐름은 계절의 변화처럼 일정하게 변화한다. 겨울에는 북풍이 이스라엘에 밀려와 남부광야인 네게브까지 이른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남풍이 따뜻한 기운을 싣고 북쪽으로 분다. 거의 무서우리만치 동일하게 그 바람들은 그 자체의 순환체계를 따르며, 그런 다음 인간 세계는 완전히 무시한 채 제 갈 길로 가버린다.

**1:7** 땅과 태양과 바람뿐만 아니라 물도 오랜 세기에 걸쳐 그 동일한 단조로운 순환을 반복한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결코 태양이 넘치지 않는데, 이는 태양이 엄청난 양의 물을 증발시키기 때문이다. 이어서 공기가 식으면 수증기가 응결되어 구름을 형성한다. 그런 다음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다가 비나 눈이나 우박 형태로 땅에 비를 내린다. 그리고 강물이 형성되어 흐르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자연의 중단 없는 활동은 인간에게 그 자신의 그침이 없는 수고를 생각나게 한다. 크리스토퍼슨이 “나는 영원히 돌고 돌다 결코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강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 듯하다.

**1:8** 이와 같이 이 땅에 한정된 삶은 피곤함으로 가득하다. 만물의 단조로움과 지루함과 무익함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다. 인간은 결코 만족함이 없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더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의 귀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듣고싶어 하지 않을 지점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볼 것과 새로운 소리를 찾아 끊임없이, 열광적으로 두루 다닌다. 그는 한 미

국인 사회학자가 ‘새로운 경험을 향한 근본적인 갈망’이라고 부른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지친 채로 돌아온다. 인간은 온 세상이 그 마음에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이것은 그의 처지가 절망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인간이 행할 일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에게로, 해 위로 나아가는 것이다(시 107:9).

“세상 기쁨은 쉬 사라지니 헛된 것이다.

휘황찬란한 광채도 헛되고, 재물을 쌓아둔 것도 헛되고

자랑과 영광도 헛되니

오직 주님만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평강과 만족을 주실 수 있네.

주 예수님같은 이 없네, 아무도 없네.

같은 영혼을 채우실 이

주님 같은 이 아무도 없네.”<sup>9)</sup> (저자 미상)

**1:9** 솔로몬이 깨달은 또 한가지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발견이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는 새로운 스타일을 원했지만 머지 않아 모든 것이 제 길을 간다는 것을 발견했다.

**1:10**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가장 현대적인 발견들도 처음부터 만물에 간혀있던 원리들을 발전시킨 것들이다. 인간이 가장 자랑하는 많은 성취들이 자연에 그 대응물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새들은 인간이 날기 오래 전에 날아다녔다. 우주여행조차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산소통을 메지 않고도 우주로 올라갔다! 그러기에 진귀한 것을 찾는라 삶을 소비하는 자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태

---

9) (1:8) 저자 미상. “Thou Alone, Lord Jesus,” in *Hymns of Grace and Truth*, no. 220.



어나기 오래 전 세대에 이미 일어난 일이다.

**1:11** 인간이 견뎌야 할 또 한가지 괴로운 것은 신속히 잊어버리고 또 잊혀짐을 당한다는 것이다. 영원한 영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우리의 증조부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보다 더 적은 수가 미국의 최근의 네 명의 대통령의 이름을 겨우 기억해낼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에 우리 없이는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죽고 신속히 잊혀지며,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느 때처럼 진행된다.

## 2. 모든 것이 헛되다(1:12~6:12)

### 1) 지적인 추구의 헛됨(1:12~18)

**1:12** 솔로몬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제 그는 인생의 최고선을 찾아 두루 다닌 순례여행을 우리를 위해 추적해 보이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부와 지위와 능력을 의미하는 모든 것을 지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여기서 “내가…되었다”(I…was king)고 말한 것은 그의 통치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왕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왕이다(1절).

**1:13** 이제 솔로몬은 해 아래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지적인 통로로 여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면 행복해질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가능한 완전한 교육을 받아보고

자 힘썼다. 그는 연구와 탐구, 종합과 분석, 연역과 귀납 등에 몰두했다. 하지만 곧 그는 배움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사실 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그 깊은 내적인 갈망은 하나님이 인생들로 몰두하게 하신 불행한 과업(business)이라고 말한 것이다.

현시대의 철인(哲人)인 말콤 머거릿지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 “시대의 커다란 우상이요 사기극인 교육은 우리를 인생을 위해 구비시킨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며, 청소년문제에서 노인문제에 이르는 모든 문제의 보편적인 처방책으로 제시된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어리석음을 증가시키고, 자만심을 부풀리고, 경신(輕信)을 조장하고, 그것에 굴복하는 이들을 인쇄물과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갖춘 세뇌공작자들의 처분에 내맡기게 한다.”<sup>10)</sup>

최근에 어떤 이가 어느 대학 도서관의 벽에 검고 굵은 글자로 이렇게 써놓았다. ‘무관심의 법칙’(APATHY RULES). 그는 솔로몬이 여러 세기 전에 깨달은 것, 즉 교육은 성취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 아니라 그 자체로만 보면 무미건조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지적인 추구가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을 위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그리스도의 발아래다.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이 언급된 것이 개인적인 깊은 신앙과 동등시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W. J. 어드만이 그분의 자연적인 이름이라고 부른 ‘엘로힘’이다.<sup>11)</sup> 서론에서 언급했

10) (1:13) Malcolm Muggeridge, *Jesus Rediscovered*, p. 11.

11) (1:13) 예를 들어, 이 이름은 다른 셈족 국가들에서 사용되었으며, 구약성경에서도 ‘엘로힘’이 거짓 ‘신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창세기 3:5의 사단의 말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KJV, NKJV)로 옮겨야 할지, 아니면 “너희가 신들처럼 될 것이다”(NEB, Knox)로 옮겨야 할지는 논란이 있다.

듯이 이 이름은 그분을 우주를 창조한 전능하신 분으로 제시한다. 한편 이 책 어디에서도 솔로몬은 그분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는다.

**1:14**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그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고 주저 없이 주장하는데서 볼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가 과학, 철학, 역사, 미술, 사회학, 문학, 종교, 심리학, 윤리학, 언어학 및 그밖에 여타 학문 분야에서 수준 높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새겨진 학위증이 그가 찾고 있던 것을 그에게 주지 못했다. 반면에 그는, 그것은 모두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을 잡는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

**1:15** 그는 지식습득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좌절했다. 곧게 펼 수 없는 굽은 것과, 수를 셀 수 없는 잃은 것이 있었다. 로버트 로린은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해결될 수 없는 역설과 변칙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줄만한 많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sup>12)</sup>

인간은 달까지 비행할 수 있으나 꿀벌의 비행은 알려진 모든 공기 역학 법칙을 무시한다. 과학자들은 원자의 비밀을 캐냈으나 빛을 만들어 내거나 그 동력을 저장해둘 수 없다. 소아마비나 결핵 같은 질병은 정복당했으나, 평범한 감기는 여전히 정복당하지 않았다.

**1:16** 솔로몬은 모든 학문적인 성취를 이룬 후에 그 목록을 헤아려 보았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그에 앞서 통치한 모든 이들

---

12) (1:15) Robert Laurin, “Ecclesiastes,”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p. 587.

보다 더 지혜가 많다고 자랑할 수 있었다(왕상 4:29~31; 대하 1:12). 그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습득했다. 게다가 그는 지혜도 갖추어, 지식을 매일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고,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줄을 알았다.

**1:17** 솔로몬은 한편으로는 지혜를 얻고, 한편으로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기 위해 마음을 쓴 일을 회상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인생의 참 의미가 혹 둘 중 하나 아니면 두 가지 모두에서 발견될까 해서 인간의 행동의 두 극단을 다 탐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생의 온갖 경험을 다 해보았으나 실망스럽게도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여러 세기 후에 헨리 마틴이라는 한 젊은이가 캠브릿지 대학의 수석을 추구하여 그것을 얻었다. 그러나 그러한 학문적인 승리의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그림자를 잡은 것을 알고 놀랐다.” 그것은 축복된 깨달음이었다. 왜냐하면 J. W. 조윌이 말한 대로, “그의 눈은 이제 학자적인 상급을 훨씬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만족스런 상급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1:18** 만일 지성주의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는 열쇠라면 오늘날 대학 캠퍼스들은 평화와 만족의 광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그 대신 캠퍼스들은 소요와 불안의 온상이다. 머리를 터키 타올로 감싸고 아스피린을 커다란 커피잔으로 마셔버리는 한 대학생들 그릴 어느 풍자만화는 솔로몬이 18절에서 내린 결론을 잘 말해 준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지혜가 많을수록 근심이 많아지고,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이다. 본문에 의하면, “무지가 복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격언에는 어느 정도 진리가 담겨있다.

## 2) 쾌락과 명예와 부의 헛됨(2장)

2:1 지적인 추구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후에 솔로몬은 쾌락의 추구로 관심을 돌렸다. ‘사람이 충분히 낙을 누리면 당연히 행복할 것 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쾌락이란 개인적인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즐거운 감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감정적인 자극을 경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즐거움의 잔을 가득히 마셨으며 마침내 그 마음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탐구는 실패로 끝났다. 그는 해 아래서의 쾌락은 헛되다고 결론 내렸다. 그의 실망은 다음 시귀에 잘 반영되어 있다.

“주여, 나는 웅덩이를 뚫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허리를 굽혀 마시려하면 그 물은 달아나버리고

슬피 부르짖는 나를 조롱하였나이다.”<sup>13)</sup> (B. E.)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쾌락(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의미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은 그 반대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은 진정한 쾌락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오직 해 위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pleasures)이 있나이다”(시 16:11).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쾌락주의자시

13) (2:1) B. E. “None but Christ Can Satisfy!” in *Hymns of Truth and Praise*, no. 306.

다!

영화와 TV와 광고매체가 퍼뜨리는 가장 큰 거짓말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더러운 웅덩이와 샘뿐이며, 하나님만이 생명의 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2** 그는 모든 공허한 웃음을 돌이켜보고, 그것이 미친 것이었고 그의 모든 즐거운 때가 실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 모든 웃음 뒤에는 슬픔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는 자들은 종종 그 자신이 큰 도움을 필요로 한다.

빌리 그레함은 ‘행복의 비결’에서, 정신과의사를 찾아간 한 정신장애자 얘기를 들려준다. 그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동안 이리저리한 처방을 시도해봤지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는 낙심하고 우울한 가운데 잠자리에서 일어났으며, 하루를 보내면서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 그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가 상담실을 떠나기 전에 정신과의사가 어느 마을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을 한번 보라고 권했다. 그 연극의 주인공은 이탈리아 광대였는데, 그는 매일밤 청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고 있었다. 정신과의사는 환자에게 그 연극을 보라고 권하며, 한 두 시간쯤 자신의 문제를 잊고 웃는 것이 좋은 치료가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한번 가서 이탈리아 광대를 구경해보세요!” 이 말에 그 환자는 씩씩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그 광대예요.” 그 역시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하고, 희락을 논하여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은 아무 문제도, 아무 고민거리도, 아무 부족도 없을 것이라고 상상하는지. 그러나 E. A. 로빈슨은 그의 시 “리처드 코리”에서 그 환상을 깨뜨린다.

“리차드 코리가 마을에 나타날 때마다  
 거리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깨끗한 용모에 기품있는 몸매를 갖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완벽한 신사였다.  
 그는 늘 거동이 조용했고  
 이야기할 때면 늘 다정했다.  
 그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듣은 이들의 맥박이 고동쳤고  
 걸을 때면 빛이 반짝거렸다.  
 그는 부자였다. 그렇다, 왕보다 부자였다.  
 그는 모든 면에서 세련되고 품위가 넘쳤다.  
 우리는 그를 우리의 모든 바램이요 소망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그를 동경하며 것처럼 되기를 꿈꾸며  
 고기를 멀리하고 빵을 저주했다.  
 그러나 어느 조용한 여름날 밤  
 리차드 코리는 집에 돌아가  
 머리에 총을 쏘고 죽었다.”<sup>14)</sup>

**2:3** 이어서 구약의 탕자인 솔로몬은 술로 관심을 돌렸다. 그는 가장 좋은 포도주 맛을 알아보는 감식자가 되고자 했다. 만일 가장 뛰어난 맛을 경험한다면 아마 그의 전존재가 만족할 것이다.

그는 지혜롭게도 그의 쾌락주의에 경계를 두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라는 문구로 표현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무절제와 만취에 자신을 내버려두려 하지 않았다. 그는 술에 중독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실재를 위한 그의 탐구 과정 어디에도 그가 약물중독자가 되었다는 암시가 일절 없다. 그는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지혜로웠던 것이다!

14) (2:2) *Selected Poems of Edwin Arling Robinson*. London: The Macmillan Company, 1965, pp. 9,10.

그가 연구한 또 한가지는 ‘어리석음’, 즉 무해하고 즐거운 형태의 무의미한 것이었다. ‘지혜’가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반대를 탐구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때때로 우둔한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는 방종과 여흥으로 관심을 돌렸다. 해 아래서의 쉬 지나가는 짧은 세월 동안 인간이 자신을 바칠만한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탐이 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해답을 얻지 못했다.

**2:4~5** 그래서 솔로몬은 큰 부동산 사업계획을 착수하기로 결심했다. 만일 교육과 쾌락과 술과 어리석음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부동산은 확실히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는 화려한 집을 짓고 자신을 위해 넓은 과수원을 만들었다. 솔로몬의 건축계획에 대해 우리가 이논바에 의하면, 그는 분명 비용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공원과 뜰이 있는 커다란 집을 지었다. 말 그대로 낙원과 같았다. 각종 과목이 있는 과수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우리는 그가 친구들을 데리고 그 집을 구경시켜주고, 친구들이 경이로움으로 탄성을 발하며 그의 자아(ego)를 부추겨주는 모습을 쉬 상상할 수 있다.

아마 그의 손님 중 아무도, 사무엘 존슨이 이와 유사한 자애(自愛, ego) 여행 중인 한 백만장자에게 한 말을 솔로몬에게 건네줄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모든 화려함과 장려함을 둘러본 후에 존슨이 말했다. “이것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지요.”

세상은 ‘황제의 옷’이라는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왕같은 몽상에 빠진 백만장자들로 여전히 가득하다. 그 왕은 그가 믿기에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고 거리를 행차하지만 아이들은 그가 완전히 별거벗은 것을 볼 수 있었다.



**2:6** 그와 같이 넓은 집은 무덥고 건조한 여름 동안 관개(灌溉)가 필요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물을 끌어오는데 필요한 도관과 배수구와 송수관을 갖춘 저수지와 호수와 못을 만들었다.

만일 그 쌓아둔 재산이 평안과 행복을 보장해줄 수 있다면 그는 목표에 도달한 셈이다. 그러나 그는 참된 쾌락은 재산을 끌어 모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결한 포기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그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었다(사 55:2).

**2:7** 왕의 큰 저택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는 많은 노비가 필요했으며, 이에 그는 남녀 노비를 고용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의 집에서 태어난 노비들을 소유했는데, 그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극히 중요한 지위의 상징물이었다.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처럼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큰 자의 한가지 요소는 섬김을 받는 것이었다. 상(床)에 앉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큰 일이었다. 솔로몬보다 크신 분께서 종들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에서 진정 큰 자는 섬기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막 10:43~45; 눅 9:24~27).

예루살렘의 그 어떤 거민이 소유한 것보다 많은 소와 양떼가 솔로몬의 목장에서 풀을 뜯었다. 만일 명성이 행복한 삶의 열쇠라면 그가 그 열쇠를 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한 삶의 열쇠가 아니었으며, 그는 그 열쇠를 쥐지 못했다. “나는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했으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삶을 받았다”라고 어떤 이는 말했다.

**2:8** 그리고 그의 재물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는 풍부한 은금과 왕과 방백들의 보배를 소유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서 거

돈 세금이나 정복한 땅에서 취한 재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스바 여왕과 같은 방문객이 선물한 예술품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는 음악을 시험해보았다. 음악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남녀 노래하는 자들을 모았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아마 모든 공적인 연주에 열광했을 것이다. 한편 솔로몬 왕은 실내악, 라이브음악회 같은 사적인 연주회도 종종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 존슨이 ‘아비시니아 왕 라셀라스의 생애’ (The History of Rasselas, The Prince of Abyssinia)에서 적절히 표현한 것과 같은 실망을 맛보았다.

“나는 류트 연주자와 가수를 내 앞에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어제 나를 기쁘게 한 음악이 오늘은 나를 지루하게 할 것이며, 내일은 더욱 지루하게 할 것이다. 나는 지루함 없이 적당한 기쁨을 계속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 인간은 이 세상이 만족을 줄 수 없는 어떤 잠재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행복을 느끼기 전에 먼저 만족해야 하는 그런 감각과 구별되는 어떤 욕망을 소유하고 있는 듯하다.”<sup>15)</sup>

이어서 그는 성(性)을 시험해보았다. 술(3절)과 노래(8절)뿐 아니라 여자도 시험해보았다. 술과 여자와 노래! NKJV에서 ‘악기’로 옮겨진 단어는 의미가 확실치 않으며 문맥에 맞춰 그런 번역을 취한 것이다. NASB는 후반부를 “사람들, 즉 많은 첩을 둔 즐거움”이라고 옮겨놓았다(우리말 성경도 이와 유사함-역주). 성경은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말해준다(왕상 11:3). 그가 그것을 행복에 이르는 길로 여겼겠는가? 무수한 여자들이 모인 그곳에 얼마나 시기와 험담과 비방이 들끓었겠는지 생각해보라!

오늘날 병든 사회에는 성(性)이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대로리는 착각이 도사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일처제 결혼의 테두리

---

15) (2:8) Samuel Johnson, *The History of Rasselas, The Prince of Abyssinia*, ed. J. P. Hardy.

안에서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성의 남용은 불행과 자기 파멸만을 불러올 뿐이다.

어느 성도착증에 희생된 여성이 후에 자신이 속임당했다고 후회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성(性)이 온 세상을 휘황찬란하게 밝혀주는 환각제 같은 것이 되어주기를 바랬지요. 하지만 그 일이 끝나면 나는 무시당한 느낌뿐이었어요. ‘이게 전부일까? 이게 정말 전부일까?’ 하고 여러 번 되뇌었던 기억이 나요.”<sup>16)</sup>

**2:9**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큰 자가 되었다. 그는 그 만족이 얼마나 가치가 있든간에 명성의 사다리에서 그의 모든 전임자들보다 먼저 올라가는 만족을 누렸다. 그리고 그의 자연적인 지혜는 그 모든 실험과 탐험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는 그의 머리(지성)를 잃지 않았다.

**2:10** 만족을 추구함에 있어 그는 모험에 한계를 두지 않았다. 만일 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샀다. 만일 즐길만한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즐겼다. 그는 그러한 얻고 즐기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어느 정도 만족한 느낌을 얻었다. 그 쉬 지나가는 기쁨이 쾌락과 소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분복의 전부였다.

**2:11** 그 후에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과 쏟아 부은 모든 정력을 헤아려보았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여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그는 해 아래서 영원한 만족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루터처럼, “온 세상 제국은 개에게 던져줄 빵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모든 것에 싫증이 났다.

---

16) (2:8) David R. Reuben의 “Why Wives Cheat on Their Husbands,” in *Reader's Digest*, Aug. 1973, p. 123에 인용됨.

정상의 만화가인 랄프 바톤 역시 싫증을 느끼고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어려움을 별로 겪지 않았고, 많은 친구들을 소유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이 아내에서 저 아내로 바뀌었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다녀보고,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해보았다. 그러나 나는 하루 24시간을 채우는 방법들에 이제 진저리가 났다.”<sup>17)</sup>

쾌락과 소유가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원하기만 하면 즉시 소유할 수 있었던 다음 가상의 인물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가 집을 원하면 문 앞에 종들이 늘어선 집이 나타났다. 그가 케달락차를 원하면 기사와 함께 그 차가 나타났다. 그는 처음에는 아주 신이 났다. 그러나 곧 싫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시종에게 말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경험하고 싶어. 여기 있느니 차라리 지옥에 있는 게 낫겠어.’ 그러자 시종이 대답했다. ‘그러면 주인님, 지금 주인님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죠?’<sup>18)</sup>

오늘날 사회가 그러하다.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없는 것들로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려 하는 다름 아닌 물질주의의 지옥이 아닌가!

**2:12** 그의 모든 탐구의 실망스런 결과로 인해,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중 어느 편이 나은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그 문제를 연구해보기로 결심했다. 인생이 것처럼 거품을 좇는 것이라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반대편 극단으로 치달으며 허망됨과 어리석음 중에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절대 군주로서, 그리고 당대의 지혜롭고 부한 자로서 그는 그 모든 것을 탐구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다. 만일 그가 알아낼 수 없다

17) (2:11) Ralph Barton, Denis Alexander의 *Beyond Science*, p. 123에 인용됨.

18) (2:11) E. Stanley Jones, *Growing Spiritually*, p. 4.

면 그의 뒤를 이을 어느 누가 그런 기회를 갖겠는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

**2:13** 그의 일반적인 결론은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낮되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정도로 낮다는 것이었다. 지혜로운 자는 빛 가운데 행하며 위험이 도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둠 가운데 더듬거리며 구덩이와 함정마다 걸려 넘어진다.

**2:14** 그러나 지혜자의 눈이 그 가는 곳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둘의 마지막 차이점이 무엇인가?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에는 죽을 것이고, 지혜가 그 정한 죽음을 연기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죽음은 그들 모두의 분깃이다.

**2:15** 어리석은 자를 기다리는 그 동일한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솔로몬은 왜 자신이 평생 지혜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했는지 의아해했다. 지혜의 유일한 이점은 길에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다. 그것을 제외하면 더 나은 것이 없다. 따라서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 역시 정력을 헛되이 소모하는 것이다.

**2:16~17** 그는 같은 문제를 16,17절에서 계속 언급한다. 장례식이 끝나면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속히 잊혀진다. 한 두 세대가 가기 전에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자처럼 잊혀진다. 오늘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 이름과 얼굴들은 망각 속에 사라질 것이다. 영원한 명성에 관한 한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명성이 일시적이며, 인간은 쉬 잊혀진다는 냉정한 깨달음은 솔로몬으로 인생을 미워하게 만들었다. 그는 해 아래 있는 인간의 활동

에서 만족과 성취를 발견하는 대신 슬픔만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그에게 괴로움을 주었다.

명성을 거둔 적이 있는 운동선수였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내 생애 가장 큰 스릴은 한 중요한 게임에서 처음 결정적인 골을 기록하고 열광하는 무리의 환호를 들은 때였다. 그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적막한 방에 홀로 있을 때 공허감이 물밀듯 밀려왔다. 결국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 골을 기록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동기는 없는가? 그러한 생각들이 인생의 만족을 찾기 위한 나의 탐구의 시작이었다. 나는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내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인식했다. 얼마 후 나는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sup>19)</sup>

**2:18** 솔로몬을 슬프게 한 부당한 일 중 하나는 자신이 축적한 부를 다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C. E. 스투어트는 이렇게 말한다.

“죽음은 쾌락의 나무뿌리에 도사리고 있는 벌레이다. 그것은 쾌락을 방해하고 즐거움에 찬물을 끼얹는데, 이는 오랫동안 수고의 땀을 흘린 뒤에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sup>20)</sup>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그의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두어야 한다.

**2:19** 가슴아픈 사실은 그의 뒤를 이을 자가 지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의 후계자는 호사가나 우매자나 호색가나 부랑아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큰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수고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부(富)를 다 소모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진정 솔로몬을 안타깝게 했다. 아마 그는 자신의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조짐을 간파했을 것이다. 아마 솔로몬은 그

---

19) (2:16,17) *Choice Gleanings Calendar*. Grand Rapids: Gospel Folio Press.

20) (2:18) C. E. Stuart,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신이 그토록 힘들여 모은 모든 것을 우매함으로 탕진할 것을 내다보았을 것이다. 역사는 르호보암이 그런 일을 저질렀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는 연로한 모사들의 말을 듣기를 거절함으로써 나라의 분열을 재촉했다. 애굽이 유다를 침공하자 그는 그들에게 성전보물을 내주었다. 애굽인들은 금방패를 손에 넣고 의기양양해했으며, 르호보암은 그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야 했다(대하 12:9,10).

**2:20** 그의 평생에 거둔 사업과 부를 무가치한 후계자에게 다 넘겨줘야 한다는 전망은 전도자를 슬픔과 낙심에 빠뜨렸다. 그것은 몹시 불합리하고 부조리해 보였다. 그것은 그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라는 느낌을 갖게 했다.

**2:21** 지혜로운 투자와 적절한 사업결정과 기민한 일 처리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이 죽음을 맞아 어쩔 수 없이, 그 부를 위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조금도 염려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부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낙담케 했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요 ‘큰 해(害)’인가?

솔로몬의 이러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부모들은 여전히 그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부를 쌓기 위해 그들의 삶의 전성기를 소비한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도의적인 의무라고 이타적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제미슨, 포셋, 브라운이 말하듯이, “세상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위한 수고라고 목청을 돋우는 주장의 밑바탕에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다.”<sup>21)</sup> 그들의 우선적인 생각은 그들 자신의 노년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그들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자녀들이 남겨진 것을 물려받는 것은 다만 부모의 죽음

---

21) (2:21) Robert Jamieson, A. R. Fausset, and David Brown, *Critical and Experimental Commentary on the Old and New Testament*, 3:518.

과 상속법의 결과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재물을 남겨주기 위해 수고하고 아끼고 모으고 희생할 아무 이유가 없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선의 유산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유언장으로 남긴 재물은 종종, 그렇지 않았으면 행복하고 화목했을 가정에 심각한 반목과 불화를 불러온다. 자녀들은 갑작스레 큰 유산의 상속자가 되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한다. 이어서 다른 해악(evils)이 필연적으로 따른다.

영적인 해결책(approach)은 우리의 재물을 ‘지금’ 하나님의 일에 드리고, 때로 무가치하고 감사치 않고 심지어 구원받지도 못한 자녀들에게 그것을 건네지 않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그 자신을 의탁했듯이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유언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주 하나님, 저를 이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게 하기를 기뻐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제 뒤에 남겨둘 집도 땅도 돈도 없습니다. 주께서 제게 아내와 자식을 주셨으며, 이제 저들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저를 그렇게 하셨듯이 저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보호해주옵소서.”

**2:22** 솔로몬은 사람이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결과 가운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람은 노력하고 계획하고 마음쓰고 흥분한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가? 그가 죽은 뒤 5분 후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같은 결론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영원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행해진 모든 것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전 15:58).

**2:23** 그러나 무덤 너머에 아무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그 날이 수고와 고된 일로 가득하고 밤에도 이리 저리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인생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절망의 구렁텅이이다.

**2:24** 사실이 그러할진대, 해 아래서 존재하는 사람이 취할 합리적인 인생철학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전도자는 탐식과 술취함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가급적 모든 영역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삶의 여유와, 좋은 음식 맛과, 신선한 음료와, 정직한 근로로 말미암는 만족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즐거워하는 능력마저 소유할 수 없다.

후대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솔로몬의 관점을 확증해주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지”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는 말했다(고전 15:32).

솔로몬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데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서 나온다고 부언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극히 일상적인 즐거움도 누릴 수 없다. 우리는 음식과 음료와 소화와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기억력과 건강과 위생과, 그밖에 모든 정상적인 즐거운 경험들에 있어서 그분을 의존한다.

**2:25** 25절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더 즐길 수 있었다고 부언했다.

존 D. 록펠러는 1주일에 약 1백만 달러의 수입이 있었으나 의사들

은 한결같이 그에게 서너 센트어치만 먹으라고 권했다. 그의 전기작가 중 한 사람은 그가 극빈자도 고개를 돌렸을 형편없는 식사를 하며 살았다고 술회했다.

“이제 몸무게가 1백 파운드(약 45kg) 이하가 된 그는 (아침식사 때에)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였다. 커피 한 모금, 곡물 한 수저, 달걀 한 조각, 콩알만한 고기 한 점 등.”<sup>22)</sup>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갑부였으나 음식마저 즐길 능력이 없었다.

**2:26** 끝으로, 전도자는 하나님이 의(義)는 상을 베풀고 죄는 징벌하신다는 삶의 일반적인 원리를 그 자신이 깨달았다고 여겼다.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노고(勞苦)의 짐을 부과하시고, 그로 모으고 쌓게 하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 그보다 더 열매 없고 패배적인 일이 무엇이겠는가?

### 3) 삶과 죽음의 헛됨(3장)

**3:1** 인생과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도로서 솔로몬은 범사에 정해진 기한이 있고 모든 일이 정해진 때가 있음을 관찰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활동을 거대한 컴퓨터에 프로그램화하셨다는 것과, 히스파닉(Hispanics)이 말한바 “케 세라 세라”(Que sera, sera), 즉 될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역사는 순환형태로 가득 찼으며 그 순환은 변함 없이 일정하게 되풀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고정된 법칙 내지 원리로 결정되는 행동방식에 갇혀 있다. 그는宿命주의의 시계와 율력의 노예이다.

---

22) (2:25) Jules Abels, *The Rockefeller Billions*, p. 299.

1~8절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상징하는 듯한 28가지 활동을 소개한다. 이것은 세상의 수(4)에 완전 수(7)를 곱한 28이란 수로 제시된다.

이 목록은 반대되는 것들로 구성된다. 14가지는 긍정적인 것이고 14가지는 부정적인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들은 서로 대치되기에 최종결과는 제로인 듯하다.

**3:2** 태어날 때가 있다.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다스릴 수 없으며, 부모조차도 정상적인 출산기간인 9개월을 기다려야만 한다.

또한 죽을 때가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기간은 시편 90:10에 의하면 70년이며, 그 기록을 떠나서도 죽음은 지켜져야 할 예정된 약속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애가 끝나는 때를 아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두려운 일도 아니요 숙명적인 일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죽음이 가능한 것이긴 하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스런 소망이 신자로 하여금 장의사가 아닌 구주를 바라보도록 격려한다.

설교자 피터 펠이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나는 ‘아래로 데려가는 자’(undertaker, ‘장의사’를 말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데려가는 자’(uppertaker; 그리스도를 말함)를 기다리고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것은 1년 4계절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농사 일 전체를 가리키는 듯하다(창 8:22). 심고 거둘 때 이 계절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불행한 결과를 당할 수 있다.

**3:3**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 전쟁과 사형과 자기방어를 가리킨다고 장황하게 설

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관찰이 해 아래서의 지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인생은 그에게 도살장이나 병원이나 전쟁터나 응급실처럼 보였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먼저 파괴 소방대가 낡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건물을 헐어버린 다음, 건축자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 현대식 건물을 세우고 그 폐허가 된 지역에 다시 사람이 거하게 한다.

**3: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인생은 비극과 희극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오늘은 비극의 검은 너울을 썼다가 내일은 어릿광대의 가면을 쓴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장례행렬이 애곡하는 자를 거느린 채 지나간다. 그러나 머지 않아 그 동일한 사람들이 얼마전의 슬픔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잔치석상에서 춤을 춘다.

**3:5**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문자 그대로 취하면 이것은, 경작하기 위해 땅을 일궈야 할 때가 있고(사 5:2), 집과 성벽과 그밖에 건물을 짓기 위해 돌을 거둬야 할 때가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대부분 현대 주석가들처럼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결혼생활에 관한 언급일 수도 있다. 즉, TEV는 “성관계를 가져야 할 때가 있고 갖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풀어 읊고 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애정의 영역에는 깊이 젖어야 할 때가 있고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다. 사랑이 순전한 때가 있고 사랑이 불법인 때가 있다.

**3:6**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이것은 우리로 손해와 이익의 변화가 심한 사업의 순환체계를 생각나게 한다. 시장이 수입액이 위로 치솟다가 아래로 곤두박질하고 회사마다 위태위태한 지경이

된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대부분 가정주부들은 이러한 이상한 습관에 익숙하다. 여러 달 내지 여러 해 동안 그들은 찬장, 지하실, 다락 등에 물건을 숨겨둔다. 그런 다음 갑자기 집안을 발각 뒤 집으면서 그 물건들을 다 내다놓고 재활용 센터를 불러 가져가게 한다.

**3: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솔로몬이 의복의 유행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생각한 것일까? 어떤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새로운 경향을 발표하면, 온 세상 사람들의 옷단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 오늘은 매혹적이고 자극적인 현대패션이었다가 내일은 할머니적 고전패션으로 돌아간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잠잠할 때는 우리가 부당하게 비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라는 유혹을 받을 때, 사실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덕이 아닌 말을 하라는 유혹을 받을 때 등이다. 모세는 그 입술로 경솔히 말한 까닭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민 20:10; 시 106:33).

말할 때는 중요한 원리나 명분(cause)이 걸렸을 때이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그녀가 말할 때가 왔다고 조언했다(에 4:13,14). 그리고 그는 단테와 더불어,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중대한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갈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3: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적용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행동은 사랑의 기간과 미움의 기간 사이를 오락가락하

는 듯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인간의 역사는 다름 아닌 잠시간의 평화가 사이사이에 흠뜨려진 잔인무도한 전쟁의 기록이다.

**3:9** 솔로몬의 마음 속에 맴도는 물음은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지속적인 유익을 얻는가?” 하는 것이었다. 모든 이익에는 손실이 따른다. 위의 14가지 긍정적인 일들은 14가지 부정적인 일들에 의해 상쇄되었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수확공식은  $14-14=0$ 이다. 인간은 결국 제로밖에는 얻지 못한다.

**3:10**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도록 하신 모든 활동과 직업과 추구를 철저히 살펴보았다. 방금 2~8절에서 그 목록을 보여주었다.

**3:11**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혹은 모든 활동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에는 그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과 그 때를 잘 맞추어야 아주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영원성’을 부여해주셨다. 인간은 비록 시간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영원성’에 대한 비침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원”에 대해 생각하며, 그 개념은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이생 너머에는 무한한 시간의 바다가 펼쳐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인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사와 길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 우리는 계시를 떠나서는 창조, 섭리, 우주의 완성 등의 수수께끼를 풀 방법이 없다. 인간의 지식의 엄청난 진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울

을 통해 희미하게 보고 있다. 너무도 종종 우리는 탄식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라고 고백해야 한다.

**3:12** 인간의 삶은 어떤 냉정한 법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그 모든 활동은 그를 처음 시작한 곳에 머물게 하는 듯 보이기에, 솔로몬은, 최선의 삶은 가능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3:13** 그는 인생이 술취함과 방탕과 주색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과 매일의 수고에서 낙(樂)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것은 낮은 차원의 인생관이며 그 전망에 있어 전연 그리스도인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솔로몬의 관점이 완전히 지상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3:14** 그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영원히 유효하며 인간이 더하거나 빼므로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 피조물이 그들의 창조주의 계획을 거슬러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럴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분을 경외하고 그 다스림에 복종해야 할 것이 아닌가!

**3:15** 현재의 사건은 전에 일어난 것의 재연에 불과하며, 이미 있던 일밖에는 장래에 일어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반복해서 일어나는 구조 속에 계획하시므로 일은 반복해서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분은 지난 일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그렇게 해서 역사는 되풀이된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하나님은 지난 것에 대한 회계를 요구하신다)”는 표현은 종종, 불신자들은 과거의 죄를 반드시 회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용된다. 그

것이 사실이긴 하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뜻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불러내시는 듯하다. R. C. 스프라울은 그것을 가리켜 영원한 재발(再發)이라고 불렀다. “이 개념은, 무한한 시간에는 모든 일어난 일이 거듭 되풀이되는 일정한 주기(週期)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앙코르’가 연발되는 연극이다.”<sup>23)</sup>

**3:16** 전도자를 괴롭게 한 것 중에는 불의와 악이 있었다. 그는 마땅히 정의가 베풀어져야 할 법정에서 불의를 보고, 마땅히 공의가 실천되어야 할 정부에서 부정직함을 보았다.

**3:17** 그러한 인생의 불공평함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때와 세상의 불의가 바로 잡아지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다. 솔로몬은 내세에서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불공평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보응되지 않는 까닭에 그것은 이미 내린 결론이다. 그의 결론은 의로운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을 반영한다. 성실과 공평함은 회계가 이뤄지고 의인이 보응을 받는 때가 올 것을 요구한다.

**3:18** 3장 중반에서 전도지는 죽음의 문제로 관심을 돌려, 그것을 인간의 모든 최고의 야망과 노력과 기쁨에 종지부를 찍게 하는 냉엄한 불청객으로 보았다. 그는 우리를 깨우쳐줄 성경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았다.

그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이라는 말로 그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을 주목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준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마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것은 해 아래서 그 스스로 생각한

---

23) (3:15) ‘Table Talk’, Vol.11, No. 4, August 1987, p. 3.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죽음과 내세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단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들은 영혼수면과 악한 죽은 자의 소멸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문말씀을 인용한다. 사실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솔로몬이 그러한 견해를 옹호하고 있지 않음을 쉬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바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동물과 같이)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가?

**3:19** 아니다. 요점은 인간이 동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인간은 동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죽음이 동물에게 오듯이 인간에게도 온다. 모두 동일한 호흡이 있으며, 죽음과 함께 그 호흡이 끊어진다. 것처럼 인간의 생명은 하등한 피조물의 생명처럼 공허하다.

**3:20** 모두가 무덤에서 공통된 종말을 맞는다. 그들은 모두 같은 곳(흙)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모두 흙에서 왔으며, 모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인간에게 육체가 전부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다. 육체는 인간이 거하는 장막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솔로몬은 장래의 상태에 대한 완전한 진리를 안다고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3:21**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솔로몬의 무지를 그의 질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것은 교리적

인 사실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의문이다.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신자의 영과 혼은 죽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올라가고(고후 5:8; 빌 1:23), 그 몸은 무덤에 간다는 것(행 8:2)을 안다. 불신자의 영과 혼은 하데스에 가고 그 몸은 무덤에 간다(눅 16:22-23).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은 영화롭게 된 형체로 부활하여 그 영혼과 재결합한다(빌 3:20,21; 살전 4:16,17). 불신 가운데 죽은 자들의 몸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에 부활하여 그 영혼과 재결합되어 불못에 던져진다(계 20:12~14).

엄격히 말해서 동물은 몸과 혼은 있으나 영은 없다.<sup>24)</sup> 성경에는 동물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없다.

**3:22** 죽음에 대해 그가 아는 바로 보아, 또한 그가 알지 못하는 바로 보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매일의 활동을 즐기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한다. 결국 그것이 인간이 인생에서 얻는 분복이며, 인간은 그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더불어 동고동락해야 한다. 그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만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현재의 삶을 즐겨야 하는데, 이는 그가 죽은 후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그에게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 4) 인생의 불공평함의 헛됨(4장)

**4:1** “인간의 인간에 대한 비인간성이 무수한 사람들을 슬피 울게 한다”고 로버트 번즈는 말했다.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민감한 심령

---

24) (3:21) ‘생기’(spirit)로 옮겨진 히브리어 단어는 ‘호흡’(breath)으로도 옮겨질 수 있다.

들이 사람들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행하는 학대를 보고 가슴 아파 해 왔다. 그것은 솔로몬에게도 고통이 되었다. 그는 학대받는 자의 눈물과, 학대자들의 권세와, 그리고 아무도 짓밟힌 자를 변호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슬퍼했다. 권세는 학대자 편에 있었고, 아무도 감히 그 권세에 저항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진리는 영원히 단두대에 있고 거짓은 영원히 보좌에 있는” 듯했다. 그는 “어두운 미지의 세계 너머로 침침한 그림자 안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셔서 그분의 백성을 살피고 계심”을 알지 못했다.<sup>25)</sup>

**4:2** 그러므로 그는 낙심 중에,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낮다고 결론지었다. 그에게 있어 죽음은 이생의 모든 핍박과 잔인함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는 죽음의 보다 깊은 의미, 즉 불신앙 가운데 죽는 자는 이 땅의 최악의 학대보다 더 가혹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순간에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느냐?”가 아니라 “출생 이후의 삶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4:3** 솔로몬의 냉소주의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낮지만 태어나지 않은 자는 더욱 낮다는 성찰(省察)로까지 나아갔다. 태어나지 않은 자는 해 아래서 학대를 당하는 불행을 겪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행복의 유행같은 웃음소리가 생명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4:4** 그를 낙담케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활동과 기술이 그 이웃을 앞지르려는 욕망에 의해 자극받는다라는 사실이다. 그는 인생의 수레바퀴가 경쟁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보았

---

25) (4:1) James Russell Lowell, “The Present Crisis”, in *Complete Poetical Works*, p. 67.

다. 더 좋은 옷과 더 좋은 집을 가지려는 그 모든 욕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좇아 지은바된 인간에게는 극히 공허하고 무가치하게 보였다.

미켈란젤로와 라파엘이 바티칸의 장식을 위해 그들의 예술적인 재능을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았을 때 그들 사이에는 깊은 경쟁심이 유발되었다. “비록 각자 할 일이 달랐지만 그들은 시기심이 가득하여 결국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sup>26)</sup> 어떤 이들은 이들 천재들보다 그 시기심을 숨기는데 능숙하지만, 오늘날 많은 인간활동의 밑바닥에는 동일한 경쟁심이 도사리고 있다.

“나는 인생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살펴보았으나, 내가 본 것은 헛되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앞지르려 애쓰는 한 가련한 사람뿐이다”라고 한 현대 비평가는 표현했다.<sup>27)</sup>

**4:5** 시기심이 그 동기로 상급인 자와 대조되는 자가 우매한 자, 즉 우둔하고 겁약하고 게으른 자이다. 그는 그 손을 거두고는 크게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적은 음식으로 근근히 살아간다. 아마 그는 시기심과 탐심 때문에 정신 없이 쫓겨다니는 그 이웃보다는 지혜로운 자일 것이다.

**4:6** 그들 주변 사람들은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모진 애를 쓰고 있는 반면, 우매자의 마음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낫다’고 읊조린다. H. C. 류폴드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 썼다. “많이 얻고 그에 따르는 온갖 마음졸임을 겪느니 차라리 적게 갖고 편안한 쪽을 택하겠다.”

**4:7~8** 전도자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또 다른 류의 어리석음이 있

26) (4:4) Henry G. Bosch, ‘Our Daily Bread’, 24 May 1973에 인용됨.

27) (4:4) Bill Bright, ‘Revolution Now’, p. 37에 인용됨.

었다. 그것은 홀로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며 미친 듯이 부를 축적하는 모습이였다. 그는 이들도 형제도 가까운 친척도 없었다. 그는 이미 필요한 이상의 돈을 소유했다. 그런데도 그는 날마다 자신을 혹사하며 삶을 즐기기를 거절한다. 그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라고 물을 줄을 모른다. 찰스 브릿지는 그의 강해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이 들면서 억세고 악착스런 삶의 투쟁가가 되어버린 구두쇠(얼마나 합당한 이름인가!)요 재물의 노예된 가련한 자가 여기 있다!” 참으로 공허하고 파산한 삶의 방식이라고 솔로몬은 생각했다!

“무감각하고 후회함 없이 재물에 탐닉하는 것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마지막 부패한 모습이다”라고 한 사무엘 존슨의 말은 확실히 옳았다.

**4:9** 인색한 자의 홀로됨은 솔로몬으로 사킴과 동역의 잇점을 지적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네 가지 예를 든다. 첫째로, 두 명의 일꾼이 한 명보다 나운데, 이는 그들이 협력하여 보다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0** 또한 일을 하다 사고가 나면 한 사람이 그의 동료들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나 혼자 일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가련한 자이다. 그의 주변에는 도움을 청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4:11** 추운 밤 두 사람이 함께 지는 것이 혼자 지는 것보다 나운데, 이는 서로 도와 따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발이 차갑다든지 이불을 걷어찬다든지 아니면 힘이 세다고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온기를 혼자 차지한다든지 하는 등의 짜증스런 일이 있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여

기서의 요점은, 친구관계와 사람들을 사귀는 일에는 혼자 사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기쁨과 유익이 있다는 것이다.

**4:12** 세 번째 예는 공격을 막는 일과 관계가 있다. 한 사람이면 도적이 쉽게 공략할 수 있지만 둘이면 대개 침략지를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끝으로, 세겹으로 짠 줄은 하나나 둘로 짠 줄보다 강하다. 사실 석 줄을 한데 꼬은 것은 꼬지 않은 석 줄보다 세배 강하다.

**4:13~16** 인생의 어리석음과 헛됨은 서민에게만 국한하지 않는다. 그것은 왕궁에서도 발견된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름으로 가난과 투옥경력을 극복한,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한 왕을 묘사한다. 그는 조언자들의 얘기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가르침을 잘 받는 젊은이를 왕위에 두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솔로몬은 왕의 신하인 모든 백성에 대해, 그리고 지휘계통상 둘째 자리(분명 후계자)인 젊은이에 대해 생각했다. 많은 무리가 그에게로 모인다. 그들은 옛 지도자에게 싫증났으며, 더 나은 정부를 기대하고 변화를 원했다. 그러나 ‘후에 오는 자들’ 역시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는 이러한 변덕스러움과 욕심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세상의 가장 높은 존귀도 역시 헛될 뿐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그것도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 5) 인기 있는 종교와 정치의 헛됨(5:1~9)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적이나,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사실 그것은 아주 악한 것일 수 있다. 그의 종교성이 그로 하여

금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는 선물로 받지 못하게 방해할 수가 있다. 게다가 인간의 종교는 내적인 실재가 없는 외면적인 전시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 허영심이 다른 영역에서처럼 종교생활에도 침투하되 훨씬 강하게 침투할 수가 있다. 따라서 5장에서 솔로몬은 창조주를 대하는데 있어 형식주의와 외형주의를 경계하도록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있다.

**5:1** 먼저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그 발을 주의하라고 백성들에게 조언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외심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성급히 말을 뱉지 말고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자세를 갖추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성급히 서원하는 것은 우매자의 제사이다. 생각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악인줄 깨닫지 못하고 성급히 말을 뱉는다.

**5:2** 예배자들은 기도나 약속이나 혹은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는데 있어 경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능자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억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은 인간보다 무한히 높다는 사실은 그분께 가까이 갈 때는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준다.

**5:3** 분주한 생각이 종종 좋지 않은 꿈을 꾸게 하듯이 분주한 입은 기도할 때에도 어리석은 말을 마구 쏟아내게 한다. “말은 나뭇잎 같아서 무성할수록 의미있는 열매가 적다”라고 알렉산더 포프는 말한다.

솔로몬이 3절에서 말하려는 것은 꿈의 기원에 대해 완전하고 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순히 낮의 생각의 분주함이 밤중에 종종 찾아오는 잠못이루게 하는 꿈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5:4**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는 속히 갚는 것이 정직한 반응이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약속한 다음 실천하지 않는 우매자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서원한 것을 갚으라.”

**5:5** 만일 서원할 의도가 없으면 일단 서원하지 말라.

궁지에 몰릴 때면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소연하며 하나님과 흥정하다가, 막상 궁지를 빠져나오면 약속을 쉬 잊어버리는 인간의 성향을 전도지는 잘 간파하고 있다.

영적으로 들떠있을 때에도 자신을 드리고, 어떤 상황에도 절제하고 참고 견디겠다고 서원하기가 쉽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러한 서원을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 독신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나 서원을 했을 때는 지켜야 한다. 결혼서약은 하늘의 비준을 받은 것이며, 그것을 파기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구원받기 전에 한 서원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켜져야 한다.

**5:6** 요컨대 일반적인 원칙은 서원을 파기함으로써 우리 입이 우리로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수였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말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변명하려 하지 말라. 혹은, 그분 앞에 그저 기계적으로 드리는 제물이 서원을 함부로 범한 죄를 대속해 줄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는 제사장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는 파기된 서원은 제사장 앞에 자백되어야 했기 때문이다(레 5:4~6). 그러나 그것은 모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것으로 전제로 한다. 여기서 솔로몬은 계시된 종교를 떠나서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



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기본 의미는, 하나님은 말이 정직하지 못한 것을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분을 분노케 할 말을 하겠는가? 그런 잘못을 범할 경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이루려는 모든 일을 방해하고 좌절시키고 멸하실 것이다.

**5:7** 꿈이 많으면 비현실적인 것이 많듯이, 경솔히 발한 말에도 헛된 것이 많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즐거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두려워함이다. 그것은 아들의 경외심이 아닌 노예의 경외심이라고 G. 캠벨 물건은 상기시킨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솔로몬에게 여기에 의도된 것보다 더 큰 영적인 통찰을 인정해주게 된다.

**5:8** 이어서 솔로몬은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굽게 하는 문제로 관심을 돌린다. 혹 그런 악행을 어느 지방에서 보더라도 절망하지 말라고 그는 조언한다. 결국 정부에는 지휘계통이 있으며,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 그 아래 있는 자들을 독수리 눈처럼 살핀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필까? 너무도 종종 감시와 규제망이 무너져 내리고, 직위를 막론하고 모든 관직에 있는 자들이 부당 이득과 뇌물을 취한다.

의인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보다 높으시다는 것과 언젠가 그분이 모든 일을 회계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있다. 그러나 솔로몬이 여기서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5:9** 9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뜻이 모호한 구절 중 하나이다. 그 이

유는 히브리어 원문의 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러 다양한 번역에서 알 수 있다.

JND: “게다가 땅은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왕도 밭을 의지한다.”

NASB: “결국 밭을 경작하는 왕이 그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TEV: “왕도 추수를 의지한다.”

NKJV: “게다가 땅의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왕도 밭에서 도움을 얻는다.”(우리말 성경도 이와 유사하다-역주).

그 일반적인 뜻은, 최고의 직위에 있는 자도 밭의 소산을 의지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한다는 뜻인 듯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한다.

## 6) 쉬 사라지는 재물의 헛됨(5:10~6:12)

**5:10**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더 많은 돈을 원한다. 재물로는 만족을 살 수 없다. 이득, 배당금, 이자 등이 우리의 욕심을 더욱 자극한다.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5:11** 사람의 재산이 증가하면 관리인, 세무상담자, 회계사, 변호사, 빌붙어 사는 친척 등 그의 재물을 의지하는 식객의 수도 그만큼 늘어나기 마련이다.

사람은 한번에 한 벌 옷을 입고, 하루에 하루만큼의 식사를 할 뿐이다. 따라서 사람의 부(富)가 주는 주된 유익은 그의 통장과 주식과 채권 등을 바라보며 다른 어리석은 부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눅 12:19).

**5:12** 잠자는 문제에 관한 한 노동자가 더 유리하다. 식탁이 풍성

했다든 빈곤했다든 상관없이 노동자는 염려나 걱정 없이 쉴 수 있다. 길 건너 부지는 주식시장, 도적, 공금횡령 등을 염려하며, 그리고 소화 불량으로 들끓는 위를 가라앉히기 위해 알약을 집어삼키며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다.

**5:13** 솔로몬은 쌓아놓은 재물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엄청난 재물을 모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건설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감쪽같이 숨겨버렸다.

**5:14** 갑자기 주가폭락과 같은 재난이 불어닥쳐 재물이 다 날아갔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그에게 남겨줄 것이 없었다. 한푼도 없게 된 것이다.

**5:15** 그는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며, 이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일생동안 모을 수 있었던 모든 재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빈털터리로 죽는다.

세실 로즈(Cecil Rhodes)는 남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을 캐내느라 여러 해를 보냈다. 그는 죽음에 이르러 이렇게 후회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금과 땅을 얻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 동안 얻은 것 중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보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sup>28)</sup>

**5:16** 솔로몬은 그것이 ‘폐단’(심각한 악), 즉 고통스런 재앙이라고 했다. 그는 영원한 축복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 모든 수고를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오던 대로

---

28) (5:15) ‘Choice Gleanings Calendar’.

빈손으로 떠나간다. 그는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한 것이다.

**5:17** 더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의 말기는 어둠과 슬픔과 염려와 질병과 분노로 가득하다는 사실이다. 그의 인생은 신데렐라 이야기와 반대로, 부자에서 빈털터리로 변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죽으면서 모든 것을 남겨둔다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전도자는 유용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었음에도 그냥 재물을 쌓아두었다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평생 수고한 것을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

**5:18** 그러므로 최선의 지혜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생활의 활동을 즐기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아무것도 그가 이미 즐긴 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인생은 아주 짧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5:19**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는 동시에 그것을 즐기고 주어진 분깃에 만족하고 그의 수고를 즐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상황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5:20**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짧음이나 그 비극과 불평등 따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이 현재의 삶의 즐거움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6:1~2** 인생에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와 영예 등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즐길 능력은 주시지 않

는 것이다. 솔로몬이 인간에게서 그 부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주목하라.

그는 일찍 죽음으로써 그 부를 즐길 능력을 빼앗긴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아들이나 가까운 친지가 아닌 낯선 사람에게 물려준다. 이것은 확실히 인생을 물거품 내지 못한 질병처럼 여기게 한다.

**6:3** 사람이 비록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장수할지라도 삶을 즐기지 못하거나 끝날에 정중히 장사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큰 축복이 아무 의미가 없다. 사실 낙태된 아이가 그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6:4** 낙태된 아이는 헛되이 왔다가 아무도 모른 채 떠난다. 그의 이름은 출생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자의 어두운 그늘에 덮인다.

**6:5** 낙태된 아이는 해를 보거나 무엇을 알 수는 없으나 욕심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씬을 누린다. 그는 인생의 미친 듯한 패역함을 경험하지 않는다.

**6:6** 욕심쟁이가 혹 천년의 갑절을 산다해도 인생의 좋은 것을 즐길 수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는 무덤에 내려감으로써 낙태된 아이와 같은 운명을 당한다.

**6:7** 사람이 일을 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양식을 사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수입이 늘어갈수록 그는 더 많은 것을 사고자 한다. 만족은 영원히 그를 유혹하는 당근이다.

**6:8** 그러므로 이 헛된 추구에 있어서, 지혜지는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점이 없다. 그리고 혹 가난한 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삶에 대처하는 법을 잘 안다 할지라도 조금도 앞서지 못한다.

**6:9** 앞에 놓인 음식에 만족하는 것이 뭔가 다른 것을 늘 욕심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같이 늘 뭔가 더 많은 것을 탐내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류폴드의 말처럼, 그것은 “참된 만족을 찾아서 이곳 저곳 탐욕스레 배회하는 것”과 같다.<sup>29)</sup>

**6:10~11** 그가 어떤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노인이든 젊은이이든, 이미 그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 ‘아담’을 표현하며, “붉은 흙”을 뜻한다. 어떻게 붉은 흙이 창조주와 논쟁할 수 있겠는가?

**6:12** 전도자에 의하면, 이 그림자같이 헛된 인생에서 무엇이 자기에게 최선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뒤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 3. 해 아래 있는 인생을 위한 조언(7:1~12:8)

#### 1) 해 아래서 나은 것과 더 나은 것(7장)

**7:1** 6장은 해 아래서 무엇이 최선인지 인간은 결정할 수 없다는 씩씩한 결론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솔로몬은 무엇이 좋으며, 무엇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있었다. 그것이 7장의 주제이다. 사실 ‘좋다(낫다)’, ‘더 좋다’는 말이 구약성경 어느 장보다도 여기에 더 많이 나온다.

---

29) (6:9) H. C. Leupold, ‘*Exposition of Ecclesiastes*’, p. 141.

첫째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아름다운 이름’은 물론 ‘아름다운’ 성품을 말한다. ‘보배로운 기름’은 값지고 향기로운 것을 나타낸다. 요컨대, 이 말은 값진 향료도 영예로운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로 의문을 갖게 하는 말 중 하나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치를 말한 것일까, 아니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만 가리켜 말한 것일까? 참된 신자들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옳은 말이나, 자백과 용서되지 않은 죄를 지닌 채 죽는 자들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전혀 옳지 않은 말이다.

**7:2** 이어서 솔로몬은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 내린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결국’이며, 죽음을 가까이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의 떠날 날에 대해 생각게 된다.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담담히 맞을 수 있게 할 만한 인생철학을 지녀야 한다. 복음은, 구주께서 친히 죽음을 맛보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풀어놓으신다고 말한다(히 2:14,15).

**7:3** 또 하나의 ‘더 나은 것’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이다. 전도자는 신중함이 경솔함보다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신중함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이해하도록 마음을 연단시키는데 비해, 경솔함은 시간을 낭비하고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즐거움과 길을 걸었네.

그녀는 종일 내게 재잘거렸지만  
아무 지혜도 얻지 못했네.

슬픔과 길을 걸었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지혜를 얻었네.” (로버트 브라우닝 헤밀턴)

“이는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되기 때문이다.” 기쁨이 슬픔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역설(逆說) 중 하나이다. 이방 철학자들도 고난과 슬픔에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그저 평범하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다 영광스럽게 적용된다. 이 땅의 슬픔과 고난은 신자의 삶에 은혜를 증가시키는 수단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한다. 그것은 비슷한 시련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장래 영광의 보증이 된다(롬 8:17).

**7:4**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죽음 앞에서 평온과 평정을 유지한다. 그는 그 심지(心志)가 깊으므로 슬픔과 압박을 직면할 수 있다. 어리석은 자는 위경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인생의 소리를 웃음과 흥겨움으로 지나쳐버리려 한다. 그들은 병원과 영안실을 기피하는데, 이는 그들의 열은 마음이 그러한 삶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7:5** ‘더 나은’ 것이 또 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건설적인 비판은 가르침과 교정과 경고를 준다. 어리석은 자의 공허한 웃음소리는 어떤 가치있는 것도 이루지 못한다.



**7:6**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와 같다.’ 그 소리는 요란하고 번쩍거리지만 생산적이지가 못하다. 타는 가시나무는 타닥거리고 평 튀기지만 열효율이 좋지 못하다. 열기가 시원치 않으며 불길이 쉽게 가라앉는다. 그것은 생산성 없는 소음이요, 알맹이 없는 거품이다.

**7:7** 지혜로운 자도 간제한 압제자가 되면 어리석게 행한다. 그는 권력에 마음을 빼앗겨 절제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뇌물과 부당이득을 탐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을 타락케 한다. 일단 뇌물을 받게 되면 공평한 판단을 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7:8** 솔로몬이 보기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 보였다. 아마 그는 어떤 계획을 착수하기 위해 종종 극복해야 할 심한 무기력증과, 그 초기 단계에 요구되는 고된 노력과 훈련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와 대조적으로 일의 끝에는 성취감과 만족이 따른다.

그러나 이 원리는 항상 유효하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의로운’ 행동의 끝은 시작보다 나으나, 죄의 끝은 더욱 나쁘다. 욕의 말년은 시작보다 나았으나(욥 42:12), 악인의 끝은 형언할 수 없이 두렵다(히 10:31).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한 전도자의 말은 보다 근거가 확실하다. 인내는 훌륭한 미덕이나, 교만은 근원적인 죄이다. 인내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나(롬 5:4), 교만은 멸망케 한다(잠 16:18).

**7:9** 이어서 벌컥 화를 내는 성향을 경계할 것을 말한다. 그러한 자제력 결여는 인격의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의 인물됨은 화를 얼마큼 잘 참느냐로 측정할 수 있다고 어떤 이는 말한바

있다. 그리고 원한과 분개를 마음에 키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무분별한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망치지 않는다.

**7:10** 또 하나의 어리석은 처신은 과거 안에 사는 것이다. 지난 시절이 좋았다고 늘 과거를 회상하며 그 날이 돌아왔으면 하는 아쉬움에 젖을 때 우리는 비현실적인 세계에 살게 된다. 상황을 현실 그대로 직면하고 굳굳하게 이겨나가는 것이 더 낫다. 어두움을 저주하는 것보다 촛불을 밝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7:11** ‘지혜’와 ‘유업’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은 여러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지혜는 유업에 있어 아름답다’(NKJV; NASB). 즉, 그것은 그것을 얻은 자로 하여금 자신의 유업을 잘 관리하게 한다. 둘째로, 지혜는 유업으로서 아름답다(JND). 즉, 사람이 한가지 유업만을 택할 수 있다면 지혜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다(우리말 성경-역주). 즉, 그것은 부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햇빛을 보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자에게 유익하다. 어떻게 유익한지가 12절에 설명되어 있다.

**7:12** 지혜는 보호하고 보존해준다는 점에서 돈과 유사하다. 돈은 물질적, 경제적 손실에서 보호해주는 한편, 지혜는 더 나아가 도덕적, 영적 손실에서도 보호해준다. 그런 까닭에 지혜가 더 낫다.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자의 물질적인 소유만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보호해준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요 그분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임을 기억할 때 지혜의 무한한 뛰어남은 명백해진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골 2:3).

**7:13** 지혜로운 자가 해야 할 한가지는 하나님께서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만일 그분이 어떤 것을 굽게 하셨다면 누가 그것을 곧게 펼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누가 그분의 뜻을 철회시킬 수 있겠는가? 그분의 선언은 철회가 불가능하며, 인간의 조종을 받지 않는다.

**7:14**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형통한 때와 곤고한 때를 허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셨다. 형통한 때는 기뻐하며 형통을 누리야 한다. 곤고한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환란을 보내사 사람으로 장래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일 수도 있고 절망스런 일일 수도 있다.

또한 하나님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혼합하사 사람들로 그분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결론은 해 아래서 내려진 것이다. 그것은 험과 육을 뛰어넘지 못한다.

**7:15** “내가…이 모든 일을 본즉”이란 표현은 예기치 않은 것과 역설적인 것과 영영 풀지 못할 것을 보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솔로몬은 헛된 인생을 살면서 온갖 모순된 일을 보았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 일찍 죽고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보았다.

**7:16** 전도자는 의와 축복과, 죄와 징벌에서 고정된 관계를 보지 못한 까닭에 최선의 지혜는 극단을 피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알팍하고 비성경적인 결론은 “중간이 최고”라는 세간의 말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나치게 의롭고 지혜로운 것을 피함으로써 일찍 파멸당하는 것

을 피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은 그들이 죄를 범치 않는 것이다(요일 2:1).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사역이 끝나기까지는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해주신다.

**7:17** 솔로몬이 보기에 또 다른 위험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이었다. 우매자 역시 기한 전에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간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이상적인 전술이라고 전도자는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사유(思惟)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죄를 도저히 눈감아주실 수 없으시다. 그분의 기준은 항상 완전이다.

**7:18** 전도자에 의하면, 최선의 지혜는 이 사실(지나치게 의로운 자의 때이른 패망)을 잡고, 반대편 사실(지나치게 악한 자의 자기 파멸)을 놓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중간을 지킴으로) 지는 두 구덩이를 다 피할 것이다.

이 조언은 하나님을 적당한 죄와 불의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잘못 제시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 아래서 솔로몬이 관찰한 바에서 나온 것이다. 그 점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철학으로 혼돈에 빠질 것이다.

**7:19** 솔로몬은 지혜가 열 명의 지도자가 성읍에 주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보호를 준다고 믿었는데, 이는 단순히 지혜가 군사력보다 뛰어나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수 편에 계신 것이다.

**7:20** 이 구절이 “이느”(for)이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사실(우리말

성경에는 없음(역주)은 본문이 앞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묘사하는 지혜의 유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스로 완전히 의로워서 늘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일반적으로 20절은 죄의 보편성을 가르치는데 인용되는데, 그것은 올바른 적용이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이 구절은 왜 우리가 방금 묘사한 그 지혜를 그토록 필요로 하는지를 말해준다.<sup>30)</sup>

**7:21**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비난에 잘 대처할 수가 있다. 혹 우리보다 사회적인 신분이 한참 낮은 종이 우리를 저주한다해도 그가 우리를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가 있다. 만일 그가 우리를 더 잘 안다면 저주할 거리가 더 있을 것이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아비새가 그의 머리를 치기를 원했으나,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전혀 사실무근은 아니라는 뜻의 답변을 했다(삼하 16:5~14).

**7:22** 아울러 우리는 우리 자신도 같은 잘못을 범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따금씩 우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우리 자신이 전혀 완전치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완전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완벽주의자들이 좌절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이 완전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는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으며 그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

30) (7:20) H. C. Leupold, *Exposition of Ecclesiastes*, p. 167.

**7:23** 전도자는 자신의 비범한 지혜를 사용하여 이 모든 삶의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모든 비밀을 풀고 모든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조사를 하고 있는 까닭에 그는 궁극적인 해답이 그를 멀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별한 계시가 없으면 인생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는다.

**7:24** 사물을 존재하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멀고, 접근할 수 없고, 그리고 ‘깊고 깊다.’ 세상은 풀 수 없는 문제로 가득하다. 알려지지 않은 영역은 탐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우리는 신비한 일들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고민한다.

**7:25** 해답을 얻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혜와 해답을 찾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다. 그는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다시 말해서 왜 사람들이 방탕과 수치에 자신을 내버려두는지를 알고자 했다.

**7:26** 그와 관련하여 그는 특히 방탕한 여자 혹은 음녀(그 영향력이 죽음보다도 독한 여자)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은 사람들을 울무에 빠뜨리는 간계로 가득하며, 그녀에게 걸려든 자들은 사슬에 매이듯이 단단히 매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녀의 울무를 피할 것이나, 죄를 가지고 장난하는 자는 분명 그녀의 길로 들어가 울무에 걸리고 말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세상이나 세상의 지혜를 상징할 수도 있다 (골 2:8; 약 3:15).

**7:27~28** 27~29절은 동료 인간에 대한 솔로몬의 일반적인 실망

을 표현하는 듯하다. 그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큰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잘 알게 되면 그의 기대는 물거품이 돼버린다. 아무도 그의 이상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아마 그는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보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으레 이렇게 기대했다. ‘나는 그 사람을 더 잘 알아야 해. 나는 보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그러나 이 새로운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의 꿈은 깨어져갔다. 그는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친숙함은 상대에 대한 실망감을 키운다는 것을 깨달았다.

솔로몬은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은 친구의 수를 헤아려보기로 작정했다. 그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서 “참 친구”라고 할 만한 자는 몇 명이나 될까?

그는 계속해서 완전한 사람을 찾았으나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가 만난 모든 사람이 인격적인 결함 내지 약점이 있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선한 남자도 희귀하지만 선한 여자는 더더욱 희귀하다는 것이다. 그는 1천명의 남자 중에 그의 이상에 근접한, 즉 충성스럽고 믿을만하고 이타적인 친구를 한 명 발견했다.

그러나 1천명의 여자 중에 이상에 근접했다고 할 만한 여자는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그 모든 여자 중에 한 명도 얻지 못했다. 이러한 충격적인 남성우월주의 발언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도발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기독교의 원리와 가치관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통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충격스런 발언이 아니다. 또한 여자를 노예 내지 사유재산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문화에 속한 남성들에게도 역시 충격을 주지 못한다.

주석가들은 여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심한 말을 완화시키려고 해석학적으로 고심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선의의 노력은 잘

못된 것이다. 사실 전도자는 여기에 말한 그대로를 의미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지상적이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온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공감하는 바다.

솔로몬의 여성관은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쳤다. G. 캠벨 물건은 보다 균형잡힌 관점으로 이렇게 썼다.

“여성의 영향력은 선악간에 매우 강력하다. 일전에 나는 어느 섬세한 관찰자가, 인류 역사에서 여성의 영향력만큼 인간성을 고양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바 있다. 그 최상급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 속에 진리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믿는다. 물론 여성이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한 국가의 여성들의 생활상이 고결하면 그 국가의 생활상도 강건하게 유지된다. 여성들의 생활상이 타락하면 그 국가는 멸망한다. 여성은 선악간에 최후의 보루이다. 동정과 잔인함은 여성에게서 최고도에 이른다.”<sup>31)</sup>

솔로몬은 후에 문학사상 여성의 역할을 높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작품 중 하나를 집필함으로써 이러한 실수를 만회했다(잠 31장). 그는 전도서에서는 인간의 편견이라는 낮은 땅에서 글을 썼으나, 잠언 31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높은 봉우리에서 글을 썼다.

기독교 신앙의 출현과 함께 여성은 그 위엄과 존귀에 있어 정상에 도달했다. 주 예수님은 여성의 가장 진실한 친구요 해방자시다.

**7:29** 전도자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실망해온 일을 생각하면서 인간은 그 최초의 상태부터 타락했다는 올바른 결론에 이르렀다. 얼마나 옳은 말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나 인간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억제하고 일그러뜨리는 많은 죄악된 피를 내었다.

---

31) (7:27)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 from the Word*, p. 217.



그 타락한 상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간은 완전을 발견하려는 직관적인 굶주림이 있다. 그는 완전한 동역자와 완전한 직업과 완전한 모든 것을 찾아 평생 배회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 자신에게서는 완전을 찾을 수 없다. 문제는 그의 탐구가 ‘해 아래’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직 한 사람의 삶만이 이 지상에서 완전한 삶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해 위에 높임을 받으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을 향한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족시키신다. 다른 사람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그 주님을 채울 수 없다.

## 2) 해 아래서의 지혜(8장)

**8:1** 인간의 지혜가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지혜자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동경했다. 다른 이들은 일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낼 자격이 없다. 전도자-왕에게는 지혜가 사람의 외모에도 반영된다. 그 얼굴이 광채가 나며, 그렇지 않으면 경직되었을 인상이 부드럽게 퍼진다.

**8:2** 지혜는, 왕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든 세상 군주로 이해하든, 왕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순종을 가르쳐준다. 이 구절 후반부는 다음 표현들이 보여주듯이 원문의 기록이 확실하지 않다.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도 그럴지니라”(KJV).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로 인해 그럴지니라”(NASB).

“하나님께 한 맹세를 위하여”(NKJV).

여기서의 ‘맹세’는 정부에 대한 충성서약이나, 하나님이 왕들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신 그 맹세를 가리킬 수 있다(시 89:35).

**8:3** 그 모호함은 3절에도 계속된다. 이 구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때 왕 앞에서 지체치 말고 떠나라는 권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분노나 불순종이나 무례함으로, 혹은 맡은 일을 그만둠으로 ‘급속히’ 물러가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KJV, NASB, NKJV). 어쨌든 본문의 요지는,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권위가 있으므로 그를 거스르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8:4** 왕이 말할 때 그 말에는 권능이 있다. 그것은 최고이며, 그의 신복들이 감히 도전할 수 없다.

**8:5**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은 왕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혜는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있어서 그 적절한 시기와 절차 모두를 가르쳐준다.

**8:6** 일에는 옳고 그른 방법과 옳고 그른 시기가 있다. 사람에게 무겁게 임하는 화(禍)는 항상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분별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8:7** 사람이 알거나 행하지 못할 것이 많이 있다. 사람은 장래를, 즉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한다.

**8:8** 사람은 그 생기가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죽는 정확한 때를 결정할 수 없다. 그는 전쟁, 즉 죽음이 그와 가차없이 벌이는 전쟁에서 면제될 수 없다. 그는 어떤 형태의 악(惡)으로도 죽음을 연기시킬 수 없다.

**8:9** 이상이 전도자가 해 아래서의 삶을 연구하고 깨달은 몇 가지

사실들이다. 해 아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발로 짓밟으며,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하여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

**8:10** 인생은 헛된 일로 가득하다. 악인은 죽어 장사된다. 그는 일찍이 예배 처소에 방문했었다. 이제 그가 가버리자 사람들은 그가 악한 일을 저지른 그곳에서 그의 경건함을 칭찬한다. 종교는 부정적함을 가리는 외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모두 공허하고 무의미한 일이다.

**8:11** 악인을 재판하고 징벌하기를 계속 지체하면 불법을 조장하고 재판제도를 경멸히 여기게 할 뿐이다. 모든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피해자를 희생시키고 죄인을 과잉보호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는 재판을 신속히 집행하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계속 재판을 연기하면 범법자들이 더욱 담대히 법을 어기게 된다. 그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적어도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한다.

**8:12** 물론 예외를 보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잘 될 것이라고 솔로몬은 믿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가 장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의인이 마침내 보상을 받고 죄인의 길이 험악하다는 사실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한다.

**8:13** 악인은 궁극적인 패배자라고 전도자는 확신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는 일찍 죽음을 맞는다. 그의 생명은 그림자처럼 덧없다.

**8:14** 솔로몬은 일반적인 원칙과 예외 사이를 오가는 듯하다. 때때

로 의인이 악인처럼 형벌받는 듯 보인다. 그리고 때때로 악인이 고결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상받는 듯 보인다. 이러한 삶의 부조리는 이 철학자-왕으로 하여금 인생의 헛됨을 혐오하게 만든다.

**8:15** 솔로몬이 보기에 가장 논리적인 처신은 할 수 있는 한 인생을 즐기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서는 없다. 그것이 평생 수고하며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에게 주시는 분깃이다. 솔로몬에게는 꿈같은 유토피아 철학이 일절 없다. 그는 현재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했다.

**8:16**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해답을 찾는데 몰두했다. 그는 인생의 여러 가지 활동의 근원을 헤아리기로 결심하고 철학 연구에 골몰했다. 그것은 밤낮 자지 못하고 수고해야 할 일이다.

**8:17** 이어서 그는 사람이 그 모든 수수께끼를 짜맞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행사를 그렇게 만들어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영리해도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 3) 해 아래서 인생을 즐김(9장)

**9:1** 9장에서 전도자는 가능한 폭넓고 철저한 관점을 갖고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그는 의인과 지혜자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조가 될지 미움의 징조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미래는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질 수 없으며,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9:2** 그 모든 것을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만드는 것은, 의인과 악인,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는 자,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등 모두가 결국 같은 곳인 무덤으로 종말을 맞는다는 것이다. 죽음을 피하는 문제에 관한 한, 의인은 악인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다. 맹세 아래 있는 자가 맹세를 기피하는 자와 동일한 곤경에 처해 있다.

**9:3** 인생의 커다란 재앙은 죽음이 마침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노를 밟하며 미치광이같이 살 수 있으나 그 후에는 죽고 만다. 만일 죽음이 존재의 끝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니겠는가?

**9:4**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은 소망이 있다. 즉, 뭔가 기대할 것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로 말한 것이 아니라 가장 미친한 짐승 중 하나로 말한 것이다.<sup>32)</sup> ‘사자’는 강하고 위엄에 찬 동물의 왕이다.

**9:5** 살아있는 자는 적어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 구절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영혼은 죽음과 함께 잠들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의식이 중단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끊임없이 인용된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나 이 책에서 내세에 대한 교리를 만들려는 것은 무분별한 시도이다. 거듭 강조했듯이 전도서는 “해 아래서” 해답을 찾으면서 얻은 인간의 최선의 결론을 말하고 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의 관찰과 논리에 기초한 추론을 말해준다. 그것은 지혜자가 성경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이다.

---

32) (9:4) 근동의 개는 대개 서구의 애견과 달리 오물을 먹고 거리를 마구 달리며 으르렁거리는 잡견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그 몸이 묻히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그 몸이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안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 하겠는가?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다 끝났어. 이제 내 친구 는 아무것도 몰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즐길 수 없어. 그는 다 잊어버렸고 이제 곧 잊혀지겠지.”

**9:6** 그리고 사실이 그렇다고 솔로몬은 생각했다. 일단 어떤 사람이 죽으면 사랑과 미움과 시기와 다른 모든 인간의 감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다시는 이 세상의 활동과 경험에 참여하지 못한다.

**9:7** 그래서 다시 한번 전도자는 자신이 내린 기본적인 결론으로 돌아간다. 네 인생을 누리고, 네 시간을 즐기고, 네 음식을 먹고, 네 마음을 포도주로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이미 인정 하셨다. 그것은 그분이 받으신 것이다.

**9:8** 슬픔의 옷이 아닌 밝은 옷을 입으라. 그리고 네 머리에 재가 아닌 향기름을 부으라. 어떤 이들은 세상이 즐거움과 유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했다.

**9:9** 결혼관계의 즐거움 역시 가능한 한 충분히 누리야 한다. 어쨌든 인생은 헛되고 공허한 것이며, 따라서 최선의 길은 인생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다. 모든 것을 즐기라. 이는 그것이 당신이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7~9절은 부도덕함과 대홍수에 대한 고대 바벨론의 이야기인 서사시 길가메시(Gilgamesh Epic)의 다음 단락과 매우 유사하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죽음을 정하고  
 인간의 생명을 그 손에 쥐고 있으니  
 길가메시여, 네 배를 식물로 채우라.  
 밤낮 즐거워하라.  
 밤낮 흥분하고 흥겨워하라.  
 네 옷을 밝게 하고  
 네 머리를 물로 깨끗이 씻고  
 네 손에 안은 자식을 기뻐하고  
 네 품에 안은 아내를 즐거워하라.”<sup>33)</sup>

위의 시를 인용하는 이유는 한 시가 다른 시를 베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는 ‘해 아래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다. 나는 인본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요약한 데니스 알렉산더의 다음 글을 읽을 때 그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인본주의는 아주 커다란 알약처럼 보인다. 20세기 후반 세대인 30대 이하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우선, 내가 아무렇게 진행된 진화과정의 결과라는 것을 믿도록 요구받았다. 그 과정에 꼭 필요한 요소는 물질과 시간과 우연이 전부다. 어떤 운명의 장난으로, 나와 그밖에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능력을 우연히 부여받은 유일한 물질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토끼나 나무나 돌 등의 물질적인 구조물보다 어떤 면에서 더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1백년이 채 안되어 내 부패한 몸의 원자가 저들의 원자와 전혀 구별할 수 없게 되겠지만 말이다. 게다가, 내 머리의 활동하는 원자는 토끼 머리의 원자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죽음이 그 과정의 끝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진

---

33) (9:9) The Gilgamesh Epic, Leupold의 ‘Ecclesiastes’, p. 216에 인용됨.

화 시간표상에 내 일생은 곧 사라져버리는 물거품이다. 내가 이생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살든 간에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 마침내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지구의 전체 역사에 비하면 물 한 방울에 불과한 수백만 년이 채 안되어, 위대한 문학과 위대한 예술과 위대한 생애들은 제 2열역학 법칙의 가차없는 부패 속에 묻혀버릴 것이다. 히틀러, 마틴루터 킹, 제임스 스웰, 아씨의 프랜시스, 모택동, 로버트 케네디 등 모두가 아무 의식 없는 허공 속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어진 미미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비록 내가 진화의 변덕스런 결과 이상의 존재라는 강렬한 초월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떨쳐버리고 사회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실제적인 문제에 몰두해야 한다. 비록 내 직업이 인간의 뇌를 다른 자연의 기계와 같은 기계로 연구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은 동물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어야 하며, 혹 그것이 사실인지 모른다고 내 감정이 내게 말해줄지라도 그렇게 믿을 객관적인 이유가 내게는 주어지지 않았다.”<sup>34)</sup>

**9:10** 10절의 금언(金言)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금언 중 하나로 종종 주님 일에 열심을 내라고 격려하는데 인용되며, 또 그러한 권면은 합당하다. 그러나 본래의 문맥에 따르면 본문은, 장차 불가피하게 들어갈 무덤에서는 일도 계획도 생각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뜻이다.

이 구절에 주어진 권면은 훌륭하나, 그 이유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 권면 역시 적절하고 유익하고 그 자체가 덕이 되는 활동들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

34) (9:9) Denis Alexander, *'Beyond Science'*, pp. 132-33.



**9:11** 전도자가 관찰한 또 한가지는 행운과 기회가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빠른 경주자라고 항상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용감한 군사라고 항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항상 식물을 얻는 것은 아니다. 명철한 자라고 항상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능력있는 자라고 항상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불운(不運)이 모든 사람의 발을 잡는다. '시기와 우연'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J. 폴 게티리는 갑부는 성공의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어떤 사람은 석유를 발견하지만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지요."

**9:12** 그리고 아무도 언제 불운이 닥칠지 모른다.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고 새가 덫에 걸리듯이 사람은 불운과 혹은 죽음에 걸려든다. 어떤 탄환에 그의 이름이 적혀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9:13~15** 인생의 또 한가지 가슴아픈 것은 지혜가 항상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거민이 많지 않고 따라서 방비가 튼튼하지 못한 작은 성읍이 있었다. 그런데 강력한 왕의 군대가 이르러 성을 포위하고 벽을 허물려 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에 가난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타나 지략으로 그 성읍을 구원했다. 그 순간 그는 영웅이 되었으나 그 후 그는 곧 잊혀져 버렸다.

**9:16** 그것은 전도자를 슬프게 했는데, 이는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조언이 멸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위기가 지나가자 아무도 그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비유는 복음적으로 분명한 경종을 울린다. 성읍은 사람의 영혼과 같아서 작고 미약하다. 큰 임금은 침략과 파괴를 노리는 사단이다(고후 4:4; 엡 2:2). 구출자는 가난하고(고후 8:9) 지혜로운(고전 1:

24; 골 2:3) 구주이다. 그분이 구원을 베푸셨건만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종 그분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즉 주의 만찬에서 그분을 기억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

**9:17** 그러나 사람의 감사치 앎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어리석은 자들의 강력한 통치자의 호령소리보다 더 가치가 있다.

**9:18**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사무엘하 20:14~22에서 우리는 요압이 성을 에워쌀 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벤마아가 아벨 성을 구원한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듯이 한 죄인이 지혜자가 이뤄놓은 많은 선을 무효케 할 수가 있다.

#### **4) 해 아래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10장)**

**10:1** 파리가 향기름에 빠져 죽으면 악취가 풍겨난다. 여기에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다. 어떤 사람이 지혜와 존귀로 명성을 쌓다가 한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쌓은 훌륭한 성취는 다 잊어버리고 그 한차례 작은 실수를 기억할 것이다. 사람은 대중 앞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그 명성을 망칠 수가 있다.

**10:2** ‘오른편’은 전통적으로 민첩한 것으로 여겨지고, ‘왼편’은 둔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혜자는 어떤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할 줄을 알지만, 어리석은 자는 우둔하고 실수가 많다.

**10:3** 어리석은 자는 길을 따라 걷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을 할 때

에도 상식의 부족을 드러낸다. 그는 자신이 어리석은 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다. 이 말은, 그가 다른 모든 사람을 어리석다고 부른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 모든 행동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낸다는 뜻일 수도 있다. 아마 후자가 옳은 듯하다.

**10:4** 만일 주권자가 당신에게 분을 폭발하거든 발끈하여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드럽고 복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큰 잘못을 상쇄시키기에 적합할 것이다.

**10:5~6** 이 혼잡한 세상에서 솔로몬을 번민케 한 또 하나의 모순은 주권자가 내리는 현명하지 못한 결정과 불공정한 일이었다. 종종 사람들이 적절한 자격 없이 어떤 지위에 임명되는가 하면, 유능한 사람들이 사소한 일로 그 재능을 낭비한다.

**10:7** 또한 종들이 종종 말을 타는가 하면, 방백들이 걸어서 여행을 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등 모든 방면에서 존재한다.

**10:8**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 꺾에 빠질 것이다. 남을 저주하면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치는 법이다.

불법적인 침입으로든 실수로든 돌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거나 다른 불미스런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10:9~10** 적법한 활동에도 위험이 따른다. 돌을 떠내는 사람은 돌에 맞을 위험이 있으며, 나무를 베는 사람은 도끼에 찔릴 위험이 있다.

연장을 날카롭게 갈아서 일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끝내는데 수고가 더 든다. 도끼날을 세우는데 드는 시간은 절감된 작업 시간과 노력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 지혜는 지름길과 수고를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류폴드의 표현대로, “지혜는 성공에 이르는 길을 예비해준다.”<sup>35)</sup>

**10:11** 마술사가 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뱀에게 물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혹은 말을 도난당한 뒤에 마굿간을 잠그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이란 가치있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적시에 처리되어야 한다.

**10:12~13**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운 까닭에 그에게 은총을 가져다준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그의 패망을 가져온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 해 없는 농담으로 시작했다가 말이 끝날 즈음에는 ‘광쾌’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10:14** 어리석은 자는 언제 말을 그쳐야 할지 알지 못한다. 말, 말, 말이 계속 이어진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양 계속해서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하다. 그의 끝이 없는 잡담은 거의 필연적으로 장래에 그가 행할 일을 자랑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눅 12:18,19). 그러나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는 “혹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 저것을 하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

35) (10:9,10) Leupold, *'Ecclesiastes'*, p. 242.

다(약 4:15).

**10:15** 어리석은 자는 그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일로 자신을 탈진시킨다. 그는 분명한 것도 보지 못하며, 성읍처럼 눈에 확 띄는 곳에 가는 길도 찾지 못한다. 아마 그는 빗속을 빠져나올 줄도 모른다고 덧붙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토록 단순한 일에 대한 그의 무지는 그의 장래 계획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10:16~17** 왕은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유약하고 대신들은 그들의 직무에 열중하는 대신 아침에 술로 흥청대는 나라는 화가 있다. 왕은 인품과 덕망이 있고 대신들은 술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력을 위해서 먹음으로 정중함과 자기절제를 보여주는 나라는 복이 있다.

**10:18** 계속되는 게으름과 해이는 그 집이 정부를 뜻하던 개인생활을 뜻하던 집을 무너뜨린다.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지붕이든 새게 마련이다.

**10:19** 식사시간은 즐거운 시간이다. 포도주는 삶에 윤기를 더해준다. 돈은 범사에 유용하다.

솔로몬이 정말 돈이 모든 쾌락의 열쇠라고 믿었을까? 아마 그는 단순히 돈으로 사람이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이리라. 혹은 지나친 술취함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경고를 받은 16절의 술취한 대신들을 가리켜 한 말일 수도 있다(18절). 사실 어떤 이의 말대로, 돈은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살 수 있으며 천국을 제외한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열쇠이다. 인간의 삶은 그가 소유한 물건의 풍부함에 달려있지 않다.

**10:20** 왕이나 그의 부유한 신하를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은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벽도 귀가 있으며, 새들이 그 말을 왕궁에 전할지 모른다. “무분별함은 빨리 자라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

### 5) 해 아래서 좋은 것을 뿌림(11:1~12:8)

**11:1** ‘식물’은 여기서 그 원료가 되는 곡식을 상징한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물이 범람한 지역에 씨를 뿌리는 관습을 가리킬 수도 있고, 바다로 곡물을 무역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본문의 요지는 좋은 것을 널리, 대량으로 배분하면 추수 때에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본문은 복음에 적용된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때 직접적인 결과는 보지 못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된다.

**11:2**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두 가지, 즉 한량없는 관대함이나 사업의 다양화를 가리킨다. 만일 전자를 가리킨다면, 그 의미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의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동안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때를 위해 재물을 모아두는데, 본문은 삶의 불확실함 때문에 오히려 한량없이 베푸는데 힘쓸 것을 권한다.

혹은 ‘당신의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다. 한가지가 실패해도 다른 것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심사에 투자하라는 얘기다. 이것은 ‘다양화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11:3** 3절은 앞절의 의미, 특히 이 땅에 임할지 모를 불행한 일과

관련이 있다. 본문은 인생의 재난에는 일종의 불가피성과 종결성(돌이킬 수 없는 성질)이 있다고 암시한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비를 내리듯이 재난과 시련이 필경 인생에게 임한다. 그리고 나무는 일단 쓰러지면 쓰러진채 그대로 있다. 그것으로 그 운명이 인쳐진 것이다.

본문에 대한 폭넓은 적용을 다음 시에서 볼 수 있다.

“나무가 쓰러지면 늪듯이

사람도 살다 죽으면 영원토록 누워있네.” (존 레이).

**11:4** 사람이 너무 조심하는 경우도 있다.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대개 바람과 구름이 조금 있게 마련이다. 만일 바람이 전혀 없는 날을 기다린다면 결코 밭에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다. 만일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곡식은 추수하기 전에 다 썩어버릴 것이다.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자는 영원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11:5**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소유한 지식을 따라 대충 대충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바람의 움직임이나 뼈가 임신부의 태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나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도 알 수 없다.

**11:6**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므로 최선의 지혜는 우리의 날을 온갖 생산적인 일로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형통할지 전혀 알 수 없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칠 줄 모르고, 빈틈없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중단 없는 봉사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

**11:7~8** ‘해’는 밝게 빛나는 젊은 시절을 가리키는 듯하다. 젊다는 것, 건강하고 강하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은 멋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해 동안 젊음과 활력을 즐길지라도 ‘깜깜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노년의 아픔과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노년은 인생의 두렵고 공허한 시기이다.

**11:9** 9절은 진지한 충고인지 아니면 환상에서 깨어난 노인의 냉소적인 말인지 분간하기가 힘들다.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네 눈이 보는대로 보라.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다시 말해서 노년이라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다. 솔로몬에게 노년은 젊은 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다.

**11:10** 젊음이 있는 동안 즐거움을 최대화하고 슬픔과 재난을 최소화하라. (‘악’은 여기서 죄보다는 재난을 의미하는 듯하다.) 어릴 때와 청년의 때는 너무 짧기 때문에 헛되다.

전도서 12장 전반부의 묘사보다 더 노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은 어떤 문학 작품에도 없다. 그 의미는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고 비유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곧 비틀거리는 노인, 즉 걸어다니는 박물관이 아무 힘없이 흐느적거리며 무덤으로 가는 그림이 나타난다.

**12:1** 노년에 대한 서글픈 그림은 젊은이들에게 청년의 때에 그들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경고가 된다. 솔로몬이 그들의 주나 구주나 구속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라. 그것이 솔로몬이 해 아래서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런 관점이지만 그 권면은 옳다. 젊은이는 인생의 황혼, 즉 곤고하고 냉혹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들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모든 젊은이는 다음 시에 표현된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한다.

“주여, 이 기력이 충만한 때에  
당신을 위해 강하리이다.  
참된 기쁨을 추구하는 중에  
당신께 즐거운 찬송을 발하리이다.

세상에 내 마음을 주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전하리이다.  
내 힘을 흘려보내지 않고  
당신을 섬기는데 쏟아 부으리이다.

가벼운 날개를 달고  
세상의 심부름에 분주하지 않고  
지친 발을 끌고 조금씩 조금씩  
천국의 언덕을 오르리이다.

당신을 위한 소원이 흐려지거나  
힘이 쇠약해지게 버려두지 마소서.  
당신을 위한 불꽃이 가물거리거나  
마음의 열정이 시들게 버려두지 마소서.

이 황금기에 나를 취하소서.  
이 즐거운 마음을 받으소서.  
내 청년의 영광과 내 마음의 충만한 것을

당신을 위해 드리리이다”<sup>36)</sup> (토마스 H. 길)

**12:2** 노년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빛이 흐려지는 때이다. 낮은 쓸쓸하고 밤은 길다. 우울함과 적막감이 찾아온다.

젊을 때에도 얼마간의 비, 즉 근심과 낙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 때는 해가 모습을 드러내면 곧 마음이 새로워졌다. 이제는 맑은 날이 사라졌고 비가 그치는가 싶으면 또 구름이 몰려와 더 많은 비가 올 것을 예상케 한다.

청년기는 창조주를 기억할 때이다. 그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지 않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때이기 때문이다.

**12:3** 이제 노인의 몸이 집으로 비유된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전에는 강하고 활동적이었지만 이제는 쭈그러들고 마디가 굽어지고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팔과 손을 가리킨다.

‘힘 있는 자들’은 더 이상 곧고 튼튼하지 않고 몸의 무게로 활처럼 휘어버린 다리와 넓적다리를 가리킨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다.’ 즉, 이가 많이 빠져서 웃니와 아랫니가 들어맞지 않으므로 더 이상 음식을 씹을 수 없다. 치과의사들은 서로 맞물리는 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눈이 점차 시력을 잃는다. 처음에는 초점이 들인 안경이, 그 후에는 초점이 셋인 안경이 필요하다가 나중에는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 이제 그들은 돋보기 안경으로 아주 큰 글씨만 겨우 읽는다.

**12:4**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귀를 가리킨다. 모든 얘기가 거둬 거둬 되풀이되어야 한다. 맷돌 가는 소리같은 시

---

36) (12:1) Thomas H. Gill, “Lord in the Fullness of My Might”, in *Hymns*, no. 26.

끄러운 소리가 아주 적고 불분명하게 들린다.

노인은 불면증에 시달린다. 노인은 첫 새가 지저귀거나 수탉이 우는 새벽녘에 일어난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성대(聲帶)가 손상되어 목소리가 킁킁하고 고르지 않아 전혀 노래를 할 수 없다.

**12:5** 그들은 ‘고소공포증’에 시달린다. 즉 사다리든 높은 건물이든 비행기든 그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길에서 놀란다.’ 그들은 자신감을 잃고 혼자 나가거나 밤중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

꽃이 핀 ‘살구나무’는 일반적으로 백발을 가리킨다. 처음에는 꽃이 만발했다가 후에는 다 시들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이다.

‘메뚜기’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로, ‘메뚜기도 짐이 된다.’ 즉, 아주 가벼운 물건도 노인에게는 무거워 들 수 없다. 둘째로, 메뚜기가 느릿느릿 기어가는 모습은(NASB) 허리가 굽은 채 비틀비틀 걸어가는 노인의 모습 그대로다.

‘원욕(願慾)이 그친다.’ 자연적인 식욕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없어진다. 음식이 더 이상 입맛을 자극하지 않으며 그밖에 다른 본능적인 욕구들이 사라진다. 성적인 욕구도 사라진다.

이러한 쇠퇴과정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람이 죽음과 무덤이라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곧 그의 장례행렬이 거리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12:6** 그러기에 지혜자는, ‘은줄이 풀리거나 금그릇이 깨어지거나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거나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충고한다. 이 모든 비유들은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은줄이 풀린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에서 떠날 때 가냘픈 생명의 줄이 끊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듯 하다. 눈이 먼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은 시를 쓸 때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언젠가 은줄이 끊어지면

나는 더 이상 지금처럼 노래하지 못하리.

하지만 왕궁 안에서 잠에서 깨어날 때

그 기쁨은 어떠할꼬”<sup>37)</sup> (화니 J. 크로스비)

‘금그릇’은 두개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것이 깨어진다는 것은 죽을 때 의식이 멈추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깨어진 ‘항아리’와 ‘바퀴’는 심장의 수축과 이완 작용이 손상되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듯하다.

**12:7** 관 뚜껑이 덮이고 못이 박힌다. 그런 다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혹은 솔로몬이 보기에 그러했다. 신자의 경우에는 솔로몬의 결론이 옳다. 그러나 불신자의 경우에는 영(혼)은 음부(하데스)에 가서 거기서 백보좌 심판을 기다린다. 그 때 영혼이 육체와 재결합하여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계 20:12~14).

**12:8** 이렇게 해서 전도자는 해 아래의 인생은 헛되고 의미 없고 무익하고 공허하다는 근본적인 사실과 함께 처음 시작한 곳으로 돌아온다. 그의 애석한 후렴구는 장터에 가서 너무 오래 머문 작은 소녀를 생각나게 한다.

“나는 음악이 영원히 흘러나오기를 원했지요.

---

37) (12:6) Fanny J. Crosby, “Saved by Grace”, in ‘*Hymns of Truth and Praise*’, no. 621.

내가 장터에 너무 오래 머문 것일까요?  
 나는 어릿광대가 항상 익살스럽기를 원했지요.  
 내가 장터에 너무 오래 머문 것일까요?  
 나는 머리를 묶으려고 파란 리본을 샀지요.  
 그런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회전목마가 이제 느려지고 있어요.  
 내가 장터에 너무 오래 머문 것일까요?  
 나는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축제의 도시에 살기를 원했지요.  
 내 친구들이 멋지고 재치 있기를 원했지요.  
 누군가 나를 봐줄 사람을 원했지요.  
 나는 내 파란 리본이 늘 윤기 있고 빛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파랗지 않아요.  
 회전목마가 나를 비웃기 시작해요.  
 내가 장터에 너무 오래 머문 것일까요?  
 얻을 것도 없고, 나를 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장터에 너무 오래 머문 것일까요?”(빌리 반즈)<sup>38)</sup>

여기서 해 아래의 인생의 공허함을 말하는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대하면서 나는 E. 스탠리가 말해준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어느 배의 갑판에서 그는 아주 뚱뚱한 부부를 보았다. 그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먹기를 즐겼다.

“그들은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점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여행 중에 굶어죽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만이 중요한 듯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책이나 신문을 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다음 식사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어

---

38) (12:8) Billy Barnes, “*I Stayed Too Long at the Fair.*”

느 날 밤 나는 그들이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 남자가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난로로 걸어가서 그 위에 놓인 병들을 집어들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속이 다 비었어!’ 나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속이 다 비었습니다!’ 그러나 빈 것은 그 병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영혼과 뇌가 텅 빈 것입니다. 그들은 맥박은 힘차게 뛰었지만 그 인격에는 아무것도 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자초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루한 일과와 더불어 무사 안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모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허리띠를 늘리는 대신 장래의 전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sup>39)</sup>

#### 4. 맺음말 : 해 아래서 가장 좋은 것(12:9~14)

**12:9** 전도자는 스스로 지혜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는 그 가치를 조심스레 헤아리고 그 정확성을 시험해본 후에 그의 지혜를 ‘잠언’의 형태로 전하는데 힘썼다.

**12:10** 그는 주의 깊게 어휘를 택하되 위로와 기쁨을 주고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그 위에 상큼한 야채조각을 곁들이는 것과 같았다.

**12:11** 지혜자의 가르침은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같이 선명하고, 끈고,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한 목자’에게서 나온 ‘수집된 말’(우리 말 성경 난하주 참조-역주)은 장막을 튼튼하게 하는 잘 박힌 못과 같다. 그것은 견고함을 주며, 또한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의존할 수

39) (12:8) E. Stanley Jones, *Is the Kingdom of God Realism?*, 페이지 알 수 없다.

있다.

대부분의 역본들은 ‘목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데, 이는 역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 목자로 간주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왕은 백성의 목자이다”라고 호머는 말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이 자신을 가리켜 ‘한 목자’라고 일컬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해석이 문맥에 더 잘 맞는다.

**12:12** 솔로몬이 이 주제를 다 다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는 더 쓸 수 있었으나 결론은 똑같은 것이라고 독자들에게 권고한다.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일은 끝이 없으며, 그 모든 것을 읽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럴진대 왜 굳이 마음 고생하겠는가? 그것들이 밝혀낼 수 있는 것은 다만 인생이 헛되다는 것뿐이다.

**12:13** 그의 마지막 결론은 마침내 그가 해 위로 올라섰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말이 구원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움츠러드는 두려움을 말한다. 그리고 “명령”이 반드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새겨두신 모든 명령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말에 높은 수준의 영적인 통찰력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자연적인 직관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는 말은 사람의 모든 의무가 아니라,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가능케 하는 기본 요소라는 뜻이다.

**12:14**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게 하는 동기는 미래의 심판의 확실성이다. 우리는 구주께서 그러한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신자로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 4:18).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믿고 순종한다. 갈보리에서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신한다 (요 5:24).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내게는 정죄함 없네.

내게는 지옥이 없네.

내 눈은 고통과 불을 보지 않으리.

내게는 선고가 없네.

내게는 사망의 쏘는 것이 없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그 날개로 보호해주실 것이기 때문일세.” (폴 게르하르트)



## 참고 문헌

- Delitzsch, Ranz. "Ecclesiaste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18. Grand Rapids: Wm. B. Eermans Publishing Co., 1971.
- Eaton, Michael A. *Ecclesiastes*.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3.
- Erdman, W. J. *Ecclesiastes*. Chicago: B. I. C. A., 1969.
- Hengstenburg, Ernest W. A. *Commentary on Ecclesiastes*. Reprint. Minneapolis: James and Klock Christian Publishing Co., 1977.
- Lange, John Peter, ed. "Ecclesiastes." In *Commentary on the Scriptures*. Vol.7. Reprint(25 vols. in 12).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0.
- Laurin, Robert. "Ecclesiastes." In *The Wycliffé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2.
- Leupold, H. C. *Exposition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2.
- MacDonald, William. *Chasing the Wind*. Chicago: Moody Press, 1975.



# 아 가 서

# 아가서 서론

“계시의 영광스런 성전, 즉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물질 세계의 성전보다 더 찬란한 영광 중에 있는 그곳에서, 이 책은 시온산의 성전의 여러 구역 중 하나처럼 참으로 작지만, 그러나 공교하게 완성되었다. 그 벽과 방은 백향목보다 화려하고, 청옥으로 덮은 상아보다 화려하고, 성령에 의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전과 그 영광이 거하는 곳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의 위로와 기쁨을 위해 여기에 쌓아둔 진리들로 가득하다”(조지 뷰로우).

##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아가서”라는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의 히브리어 관용어이다. 유대인의 미드라쉬(Midrash; 유대적 사고방식으로 집필된 일종의 성경주석-역주)는 그것을 가리켜 “노래 중에 가장 칭송할만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보배로운 노래”라고 부른다. 성(聖)아가(Canticles)라고도 불리우는 이 노래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책으로 간주된다. 프란츠 델리취는 “아가서는 구약성경 중 가장 뜻이 모호한 책이다”라고 적었다.<sup>1)</sup> 만일 시와 사랑과 자연을 좋아한다면 이 책을 ‘감상하기가’(enjoy) 어렵지 않을 것이나, 그러나 그 주제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학자들은 이 책이 독립된 여러 사랑의 서정시를 모아놓은 시집(詩集)인지 아니면 “하나의 통일된 사랑의 대화시”인지 의견이 분분

---

1) (서론) Franz Delitzsch, “The Song of Song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6:1.

하다.<sup>2)</sup> 반복된 후렴구와 이야기의 흐름과 그리고 작품의 간결성으로 보아 후자가 옳은 듯하다.

그러나 어떻게 이 책을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세대를 거쳐 독자들은 상상력을 총동원해왔다. 일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관능적”이라고 기피해온 반면, 일부 경건한 성도들은 그 책에 흠뻑 취해왔다.

## 2. 기자

유대인의 전승은 솔로몬이 청년기에는 아가서를, 장년의 전성기에는 잠언을, 그리고 이 세상에 염증을 느낀 후로는 전도서를 썼다고 말한다. 그 견해는 대단히 일리가 있다. 기자가 부부간의(혼인의) 정절을 높이 기린 까닭에, 솔로몬이 일부다처와 축첩(蓄妾)에 빠지기 전에 이 책을 여러 아내 중 첫 아내에게 바쳤다고 사람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주석은 매우 다른 견해를 취한다.

이 책에서 일곱 구절이 솔로몬의 이름을 언급한다(1:1,5; 3:7,9,11; 8:11,12). 그 첫 구절은 ‘기자권’을 솔로몬에게 돌리는 듯하다(물론 “솔로몬에 ‘관한’ 아가서라”라고도 옮겨질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언급들은 솔로몬의 관심사와 부합한다(왕상 4:33). 또한 왕궁의 말과 수레와 가마에 대한 언급은 솔로몬의 기자권을 지지하는 듯하다. 지명에 대한 언급은 그 지역들이 모두 하나의 통일된 왕국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데, 이 또한 솔로몬 통치 기간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기자권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견해는 받아들일만한 이유가 충분한 반면, 반대 의견들은 설득력이 없다.

## 3. 연대

---

2) (서론) Arthur Farstad, “*Literary Genre of the Song of Songs*,” p. 63.

솔로몬 왕은 아마도 그의 40년 통치기간(B.C. 971~931) 중 어느 시점에 그의 1,005편의 노래(왕상 4:32) 중 가장 아름다운 이 노래를 지었을 것이다. 그가 아직 젊고 아직 많은 여인들에 둘러싸이지 않은 때라는 전통적인 견해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지명들

#### 4. 배경 및 주제

이 책에 부여된 일반적인 해석은 그것이 그분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여러 성경판본들에 나오는 장 제

목은 그러한 해석을 따른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나, 주의 깊은 성경학도라면 그것이 이 책에 대한 우선적인 해석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로서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 때까지는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롬 16:25,26; 엡 3:9). 이 노래에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용이지 해석이 아니다. 이 책에 대한 우선적인 ‘해석’은 여호와 및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책을 불충실한 결혼관계를 경계하는 글로 본다. 여러 아내를 둔 솔로몬이 젊은 술람미 여인에게 구애를 한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목동 연인이 있으며 그녀는 그에게 충실하고 진실하다. 그녀는 솔로몬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솔로몬이 유혹의 손길을 뻗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 끝에서 그녀는 그 목동 연인과 결합하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한다.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솔로몬에 관한 대부분 언급들은 도시와 왕궁을 배경으로 하는 반면에 목동에 관한 언급들은 시골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도시와 시골 간의 뚜렷한 대조는 이 이야기에 한 남자가 아닌 두 남자가 등장한다는 생각을 지지해준다. 이러한 해석은 솔로몬을 좋지 않은 관점으로 보는 까닭에 인기가 별로 없다.<sup>3)</sup> 그러나,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는 일부일처제인데 솔로몬은 사실 일부다처주의자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여호와께 불충실하고 다른 연인을 쫓았다. 이 노래에서 그들은 신실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해석은 술람미 여인을 장래 이스라엘 민족의 믿는 잔존자

3) (서론) Clarke’s commentary(참고문헌을 보라)는 본 ‘신자성경주석’과 같은 견해를 취한다.

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솔로몬은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노래는 그 잔존자들이 그 찌른바 그분을 바라보고 독자를 위해 애곡하듯 그분을 위해 애곡할 때 누리게 될 사랑의 사감을 묘사한다. 솔로몬이 일부다처주의자였다는 사실은 그가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상징은 불완전하지만 실체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견해는 오늘날 대단히 인기있는 해석으로, 이 책을 결혼 관계 안의 진실한 사랑과 순결을 격려하는 글로 본다. 세상이 결혼 관계의 사랑을 벗어난 성관계에 탐닉하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이 견해는 창세기 1:27과 2:20~24에 부합하는 일리 있는 해석이다.

어쨌든, 어떤 견해를 취하든, 아가서는 믿는 연인(부부)들에 의해 그 혼인 밤에, 그리고 그들의 결혼관계를 돈독케 하기 위해 널리, 그리고 우리가 믿기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왔다.

## 5. 개관

1. 제목(1:1)
2. 솔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왕궁에서 목동 연인을 생각하고 왕궁의 여인들에게 그에 대해, 그리고 그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1:2~8)
3.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에게 구애를 하지만 그녀는 그의 유혹에 귀기울이지 않는다(1:9~2:6)
4. 솔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당부한다(2:7)
5. 솔람미 여인이 목동 연인이 찾아온 일과 일터에 나가라는 오라비들의 명령에 의해 방해를 받은 일을 회상한다(2:8~17)
6. 솔람미 여인이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꿈을 꾸다(3:1~4)
7. 솔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거듭 당부한다(3:5)



8. 솔로몬의 행차가 예루살렘에 도착한다(3:6~11)
9. 다시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시도하지만 그녀는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4:1~6)
10. 목동이 와서 술람미 여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이 시골에서 약속한 집에 가라고 호소하고, 그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다(4:7~5:1)
11. 술람미 여인이 혼수상태로 인해 그를 만난 것을 잊어버린 혼란스런 꿈을 회상한다(5:2~8)
12. 왕궁의 여인들의 물음에 답하여 술람미 여인이 그녀의 연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그들도 그를 보고 싶어하게 한다(5:9~6:3)
13. 솔로몬이 다시 사랑을 호소한다(6:4~10)
14.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왕궁에 오게된 경위를 왕궁의 여인들에게 설명한다(6:11~13)
15. 솔로몬의 마지막 시도가 실패로 끝난다(7:1~10)
16. 술람미 여인이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온 목동 연인과 대화를 나눈다(7:11~8:2)
17.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8:3,4)
18. 두 사람이 그들의 시골 마을에 도착하여 피차 서원하고 해로 한다(8:5~14)

# 아가서 주해

## 1. 제목(1:1)

**1:1** 아가서는 솔로몬의 것(Solomon's)으로 소개된다. “솔로몬에 관하여”라는 뜻일 수도 있다.

**2. 솔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궁에서 목동 연인을 생각하고 궁중 여인들에게 그 연인과 그녀 자신에 관해 이야기한다(1:2~8).**

**1:2~4** 솔람미 여인이 목동 연인의 입맞춤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녀는 그가 곁에 있다고 상상하며 그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의 고결함을 향기로운 기름에 비유하면서, 그녀는 그런 까닭에 그가 다른 처녀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본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와서 자기를 그의 소유로 삼아주기를 갈망한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를 좇을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다. 솔로몬 왕이 솔람미 여인을 아마도 후궁의 하나로 삼기 위해 그의 침상으로 이끌어 들였으나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뜻이 전혀 아니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녀의 그 연인에 대한 감정을 그들 자신의 감정으로 삼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마땅하다고 한 마디 한다.

**1:5~6** 궁중에 거하는 얼굴이 흰 여인들과 달리 솔람미 여인은 포도원 지기로서 많은 시간을 햇볕에 쬐어야 했다. 그러기에 그녀는

햇볕에 그슬리고 검었지만, 그러나<sup>4)</sup> 아름다웠다.

**1:7~8** 그녀는 사랑하는 자에 대한 생각에 잠긴다. 그가 어디서 양떼를 먹이는지, 어디서 양떼를 정오에 쉬게 하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왜 자신이 그와 함께 있지 못하고 그녀가 보기에 가치가 떨어지는 남자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sup>5)</sup>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제안한다.

### **3.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에게 구애를 하나 그녀는 그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1:9~2:6).**

**1:9~10** 이제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에게 구애를 시작한다. 그녀는 그에게 바로의 병거 가운데 훌륭한 장식을 한 준마(駿馬)를 연상시켰다. 그는 아름다운 장식으로 빛나는 그녀의 뺨과, 금시슬이 드리운 그녀의 목을 바라보았다.

**1:11** 편집자의 주관으로 ‘우리’라는 인칭을 사용하여,<sup>6)</sup> 그는 은을 박은 금시슬로 그녀를 장식하겠다고 제안했다.

**1:12~14** 솔람미 여인은 왕의 달콤한 말과 매혹적인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그녀의 연인만을 생각할 뿐이었

---

4) (1:5,6) “검고 아름다우니”는 “검고 아름다우니”로 옮겨질 수도 있다.

5) (1:7,8) NKJV 역자들은 8절을 연인의 말로 이해했으며, 따라서 비꼬는 말이 아니다. 연인과 솔로몬을 솔람미 여인의 사랑을 구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일인물로 본 것이다. NKJV, New Scofield 등의 표제어는 본문의 일부가 아니라 편집자의 주(註)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NKJV의 1:1에 붙은 주(註)가 지적하듯이, 히브리어 단어는 언급된 사람의 성(姓)과 수(數)에 대해 영어보다 더 분명하다.

6) (1:11) NKJV는 “우리”를 예루살렘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했다.

다. 왕이 상(床)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향기를 그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목동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곁에 간직해둔 향낭(香囊)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같았다.

**1:15** 다시금 솔로몬이 구애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그녀의 눈을 비둘기 눈에 비유했다.

**1:16~17** 그러나 솔람미 여인은 적어도 그 마음으로 대화상대를 그녀의 연인으로 바꾸어, 그가 얼마나 어여쁜지를 말한다. 그녀는 드넓은 들판을 그들의 집으로, 푸른 초장을 그들의 침상으로, 그리고 크게 뻗은 백향목과 잣나무 가지를 그들의 지붕으로 묘사했다. 그들의 사랑의 현장은 초장이지 왕궁이 아니었다.

**2:1** 솔람미 여인은 자신의 평범함과 무가치함을 거듭해서 힘주어 얘기한다. 그녀가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sup>7)</sup>에 비유한 것은 잘 다듬은 정원의 꽃들이 아닌, 평범한 야생 꽃(아네모네나 크로커스)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sup>8)</sup>

**2:2** 여기서 그녀를 가리켜 매우 특별하다고 추켜세우는 것으로 보아, 솔로몬은 그녀가 자신을 가리켜 볼품 없다고 말한 것을 들었음이 틀림없다. 다른 처녀들에 비하면 그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았다.

**2:3** 다시금 시골로 배경을 바꾸어 그녀는 그녀의 연인을 숲의 거

---

7) (2:1) 산문과 시와 찬송가에서 우리 주님은 골짜기의 백합화와 사론의 장미에 비유되고 있다. 그 비유는 비록 본문에서의 의미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8) (2:1) Farstad, “*Literary Genre*,” p. 79, f. n. 6.

친 나무 가운데 잘 다듬은 사과나무로 보았다.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항상 즐거웠고, 그와 사귀을 갖는다는 것은 늘 달콤했다.

**2:4~6** 그와 함께 머물기만 해도 잔칫집에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그의 사랑의 깃발이 항상 있었다. 그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녀는 자신을 시원케 할 사과와 힘을 돈을 포도주를 요청했다. 마치 그가 실제로 그녀와 함께 있어서 그녀를 품에 안고 있는 듯했다.

#### **4.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당부한다(2:7).**

**2:7**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돌이켜,<sup>9)</sup> 이 책의 핵심 요소를 부각시킨다. 사랑을 나눌 때가 되었다. 솔로몬 왕이 시도하듯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깨워서 안 된다. 그녀는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부드럽게 부탁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돈으로 사거나 강요하거나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값없이, 신실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sup>10)</sup> 만일 이스라엘이 이 단순한 원리를 따랐다면, 여호와께 불충실하지 않았을 것이다.

#### **5. 술람미 여인이 목동 연인이 찾아온 일과, 일터에 나가라는 오라비들의 명령에 의해 방해를 받은 일을 회상한다(2:8~17).**

**2:8~14** 이제 술람미 여인은 그녀의 연인이 과거에 찾아온 일을 회상한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빨리 달려

9) (2:7) NKJV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말을 4절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10) (2:7) W. Twyman Williams, “*The Song of Solomon*,” Moody Monthly, February 1947, p. 398.

왔다. 그는 노루나 어린 사슴처럼 온유했다. 곧 그는 벽 뒤에 서서 창을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함께 떠나자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두운 겨울밤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 봄을 알리는 모든 조짐이 완연하여,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가 울고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었다. 그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녀를 재촉했다. 아마 일이 좀 지체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어서 그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창가로 오라고 청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그녀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처럼 그에게서 숨기웠다.

**2:15** 그녀의 오라비들이 나타나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에게(이 명령은 원문에는 복수형이다) 포도열매를 맺는 중요한 순간에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sup>11)</sup>를 잡으라고 명령하자 그곳을 떠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sup>12)</sup>

**2:16~17** 그 일로 크게 실망했으나, 그녀는 그녀와 그녀의 목동 연인이 서로에게 속했다는 사실로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림자가 드리우는 선선한 저녁에 다시 오라. 베데르산(분리의 산, 즉 우리를 분리시키는 산)을 넘는 어린 사슴처럼 속히 오라.”

11) (2:15) 작은 여우(야생개를 포함한다)는 봄철에 나와, 뿌리 밑으로 통로와 구멍을 파서 그 양분공급을 끊어버림으로써 포도나무를 죽게 한다. Delitzsch, “*Song of Songs*,” p. 54를 보라.

12) 11(2:15) “잡다”의 복수형(catch)이 쓰인 것은 이 글(원본에는 노래와 흡사하고 리듬이 풍부하다)이 “포도나무재배자가 부르는 민요”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Delitzsch, “*Song of Songs*,” p. 53). Otto Zockler는 “이 구절이 포도나무재배자가 부르는 노래이거나 적어도 그 일부”라고 적으면서, 풍유해석가가 아닌 모든 주석가들은 그 점에 대해 일치한다고 말했다(“*Song of Songs*,” in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5:71).

## 6. 술람미 여인이 그녀의 연인과 만나는 꿈을 꾀다(3:1~4).

3:1~4 이제 술람미 여인은 그녀의 연인을 만난 꿈을 회상한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그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자 성 안으로 들어가 거리나 큰 길을 살피고 순행하는 자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를 발견하고 그를 붙들고 그녀의 고향집으로 데려갔다.

## 7.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거듭 당부한다(3:5).

3:5 그녀는 다시 멈추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라.

## 8. 솔로몬의 행차가 예루살렘에 도착한다(3:6~11).

3:6~11 장면이 바뀐다.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화려하고 장려한 행차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광경을 본다. 여기에는 “누가 감히 이 영화로운 왕의 사랑의 제의를 거절하겠는가?”는 물음이 암시되어 있다. 그에 대한 답은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기 연인에게 충성스러웠으며, 다른 음성은 일절 귀기울이지 않았다.

이 행차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몰약과 유향’ 연기와 같은 무수한 시종을 거느린 왕의 도착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60명의 완전 무장한 군사가 호위하는 솔로몬의 수레를 보았다. 그 안에는 화려한 은 기둥과 금 바닥과 자색 융 자리와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름답게 수놓은 천이 있었다. 시온의 시민들이 그의 혼인날에 그 모친이 그에게 씌운 면류관을 쓴 솔로몬 왕에게 나아와 절하라고 소환되었다.

## 9. 다시금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시도하지만 그녀는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4:1~6).

4:1~5 아가서가 세 명의 등장인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본문의 화자(話者)가 솔로몬인지 목동인지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 방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여러 아내를 둔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상세히 묘사하기 시작했다. 너울에 가려진 그녀의 눈은 비둘기 눈을 연상케 했다. 그녀의 윤기 있는 곱슬머리는 햇볕 아래서 길러왔 산 기슭에 함께 누운 염소 떼 같았다. 그녀의 반짝이는 흰 이는 방금 털을 깎고 목욕을 한 암양을 연상시켰다. 그 이는 하나도 빠짐없이 윗니와 아랫니가 맞물려 있어서 쌍둥이 새끼 양 같았다. 그녀의 입술은 홍색 실같고, 그녀의 입 모양은 완벽했다. 너울 속의 그녀의 뺨(관자놀이; 우리말 성경 난히주 참조-역주)은 석류 한 조각 같았다. 그녀의 목은 다윗의 망대 같아서 힘과 위엄을 나타냈다. 그녀의 두 유방은 쌍둥이 노루새끼 같아서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美)를 나타냈다.

4:6 솔람미 여인은 자신이 그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으며, 자신은 연인과의 재결합을 고대하고 있음을 솔로몬에게 알리기 위해 말을 가로챘다.<sup>13)</sup>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에 그녀는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즉 그녀의 목동 연인에게로 갈 것이다.

## 10. 목동이 이르러 솔람미 여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이 시골에서 약속한 집으로 가자고 호소하고, 이에 그녀는 기꺼이 그렇

13) (46) NKJV 편집진은 이 구절을 연인의 말의 일부로 보았다.



## 게 하겠다고 답한다(4:7~5:1).

4:7~15 이제 목동이 나타나서<sup>14</sup> 약혼녀에게 함께 레바논에서 나오자고 권하는 동시에, 그녀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입술과, 그녀의 삶과 순결함을 의미하는 그 옷의 향기를 칭송했다. 그는 그녀를 최고의 열매를 맺고 최고의 향기를 발하는 물댄 동산에 비유했다.

4:16 그는 시적인 언어로 그에게 동산에 와서 그것을 그의 것으로 삼으라고 말했다.

5:1(상) 이제 목동이 술람미 여인의 4:16의 초청에 답하여 이르기를, 그가 그 동산에 이르러 그의 향료를 모으고 꿀송이를 먹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겠다고 했다.

5:1(하) 1절 후반부는 이 두 사람의 열렬한 사랑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사람이 그 두 사람을 격려하며 한 말인 듯하다.<sup>15</sup>

## 11. 술람미 여인이 혼수상태로 인해 목동을 만난 일을 잊어버린 혼란스런 꿈을 회상한다(5:2~8).

5:2~7 이제 술람미 여인은 한 꿈을 묘사하는데, 그 꿈에서 그녀는 목동이 문을 두드리며 그녀에게 문을 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밤이슬에 몸이 젖었다. 그녀가 이미 목욕을 하고 잠자리에 든 까닭에 문열기를 지체하자 그는 문을 두드리던 손을 거두었다. 이윽고 그녀가 일어나서 문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그가 문빗장

14) (4:7-15) NKJV 편집진은 여기서 새로운 화자(話者)에 대한 아무런 암시를 보지 못했으며, 본문을 연인의 말의 일부로 보았다.

15) (5:1) NKJV 편집진은 한가지로 이 사람들을 “그의 친구들”로 보았다.

에 남긴 몰약의 줍으로 향대를 풍겼다. 그러나 그는 가고 없었다. 그녀는 그를 부르며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성중에서 순행하는 자들이 그녀를 잘못 보고 그녀를 치고 그 외투를 벗겼다.

**5:8** 그녀는 슬픔에 잠긴 채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혹 그를 만나면 자신이 여전히 그를 몹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 **12. 궁중 여인들의 물음에 답하여 솔라미 여인이 그녀의 연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그들도 그를 보고싶어 하게 한다(5:9~6:3).**

**5:9** 한 목동에 대한 그녀의 끊임없는 사모심은 예루살렘 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이름 없는 한 시골청년 때문에 솔로몬 왕의 사랑을 마다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녀의 연인에게 무슨 특별한 매력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5:19~16** 그것은 그녀에게 목동의 육체적인 매력을 “만 사람에게 뛰어난 것”으로 칭송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었다. 풍부한 시적인 비유와 수사법을 동원하여 그녀는 그의 피부와 머리와 머리털과 눈과 뺨과 입술과 손과 몸과 다리와 용모와 입에 관해 묘사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녀의 사랑하는 자이자 그녀의 친구는 온전히 아름다웠다.<sup>16)</sup>

**6:1**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 전형적인 남성미를 갖춘 사람을 진정 보고싶어 했다. 그들은 어디서 그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물었

---

16) (5:10-16) 이 책에 대한 기독교론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만 사람에게 뛰어나다”와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는 표현은 설교와 찬송에서 우리 주님에게 적용되어왔다. 비록 원문상 문맥의 의미는 아닐지라도, 특히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적용은 매우 타당하다 하겠다.

다.17)

**6:2~3** 솔람미 여인의 답변은 의도적으로 막연하고 우회적이었다. “그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 왜 그들에게 그곳을 말해주겠는가? 그녀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그녀에게 속했으며, 그녀는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자 했다!

### 13. 솔로몬이 다시 간절히 구애하다(6:4~10).

**6:4~10** 솔로몬이 다시 나타나 그녀의 마음을 얻고자 애썼다. 그는 근동의 표현법을 동원하여 그녀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는데, 그 대부분은 4:1~3의 반복이다. 그가 보기에 그녀는 60명의 왕후와 80명의 비빈과 무수한 시녀를 능가했다. 그녀는 그 어미의 귀중히 여기는 자일뿐 아니라 왕후와 비빈과 시녀들이 모두 그녀를 칭찬하여 이렇게 말했다.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고?”

### 14. 솔람미 여인이 자신이 왕궁에 오게된 경위를 왕궁 여인들에게 설명한다(6:11~13).

**6:11~12** 솔람미 여인은 자신이 과실을 살피려고 호도동산에 내려갔을 때 왕의 수레가 지나가던 일을 모호하게 설명하며 솔로몬의 제의를 비껴갔다. 왕이 그녀를 예루살렘 궁에 데려간 것은 그녀가 계획한 것이나 원한 것이 아니었다.

### **6:13~14** 그녀가 막 그곳을 떠나자 솔로몬과 예루살렘 여자들,

---

17) (6:1) 기독교적인 해석에서, 그녀의 연인(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부(교회)의 “증거”는 다른 이들도 그분을 찾게 한다.

혹은 솔로몬의 친구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 문장은 난해하다. 솔람미 여인이 말한 ‘마하나임’(‘두 진영’)은 두 그룹의 춤추는 자들이 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추는 춤을 가리키는 듯하다.

### 15. 솔로몬의 마지막 구애가 실패한다(7:1~10).

**7:1~9(상)** 솔로몬이 계속해서 그녀의 육체적인 매력을 생생히 묘사하며 그녀를 헤스본, 바드랍빔, 다메섹, 갈멜산 등 그의 넓은 영토의 유명한 곳들에 비유했다. 그는 그녀를 쪽 뺨은 종려나무로 여기며 그녀를 품에 안고자 했다. 그녀를 품에 안으니 그 가슴은 열매송이 같고 그 호흡은 사과향기 같고 그 입은 가장 좋은 포도주 같았다.

**7:9(하)~10** 솔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포도주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것임을 알림으로써 문장을 끝마쳤다. 그녀는 그녀의 연인에게 속했지 왕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목동이 자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알았다.

### 16. 솔람미 여인이 그녀를 데리러 온 목동 연인과 대화를 나눈다(7:11~8:2).

**7:11~13** 이제 목동 연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며, 그녀는 그와 함께 자유롭게 들과 마을로 나갈 수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들판을 거닐고, 동이 틀 때 포도원에 나가 포도열매와 석류꽃을 볼 것을 기대했다. 합환채가 향기를 토하는 전원에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사랑과, 그를 위해 모아둔 각종 귀한 실과를 줄 것이다.

**8:1~2**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의 말이 이어진다. 만일 목동이 그녀의 하나뿐인 오라비였다면 그에게 입을 맞춰도 꾸지람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그 어미의 집에 데려가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최고급 술을 마시게 했을 것이다.

### **17.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8:3,4).**

**8:3~4**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하는 방백(傍白, 귓속말)으로서, 술람미 여인이 그의 팔에 안긴 자신을 내보이며,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 **18. 두 사람이 그들의 시골 마을에 도착하여 피차 서원을 하고 해로(偕老)한다(8:5~14).**

**8:5(상)** 그녀의 고향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녀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하고 물었다.

**8:5(하)** 두 사람이 가까이 이르자 목동이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자 그녀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 사과나무 아래를 가리켜 보였다.

**8:6~7** 술람미 여인이 그들의 서원을 새롭게 할 것을 제안했다. 널리 인용되는 극히 아름다운 표현으로 그녀는 자신의 사랑은 비할 것이 없음을 다짐했다. 그것은 죽음같이 강하고 꺼질 수 없으며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다.

**8:8~9** 오래 전에 어린 술람미의 장래를 계획하면서 그녀의 오라

비들은 이같은 결정을 했다. 만일 그녀가 순결하고 정숙하고 신실한 여자로 입증되면 그녀에게 결혼지참금으로 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녀가 문처럼 쉽게 몸을 더럽히는 여자로 드러난다면 그녀를 은신처에 숨길 것이다.

**8:10~11** 솔라미 여인은 이제 결혼연령이 되어 자신이 성벽처럼 견고한 여자가 되었다고 오라비들에게 확인시켰다. 그녀의 연인은 그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오라비들에게 바알하몬에 있는, 많은 조각인을 둔 솔로몬의 포도원에 대해 얘기했다.

**8:12** 그러나 그녀는 그 포도원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포도원, 즉 목동 연인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녀가 관심이 있다면 자신의 부를 지켜줄 수가 있었다.

**8:13** 목동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결혼하겠다”는 말로 자신에게 서약할 것을 청했다.

**8:14** 그녀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그녀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녀를 그의 것으로 서둘러 소유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렇게 마감된다. 이 책은 이렇게 평가된다.

“성경에서 발견된 가장 두드러진 일부다처제의 예 앞에서 일부일처제의 가치를 노래한 것이다. 이 책은 솔로몬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상적인 사랑과 결혼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 강력한 호소이다.”<sup>18)</sup>

---

18) (8:14) Williams, “*Song*,” p. 422.

## 참고 문헌

Bellett, J. G. *Meditations upon the Canticles*. London: G. Morrish, n.d.

Burrows, George. *A Commentary on the Song of Solomon*. Philadelphia: William S. & Alfred Martien, 1860.

Clarke, Arthur G. *The Song of Songs*. Kansas City, KS: Walterick Publishers, n.d.

Delitzsch, Franz. "The Song of Song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16.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Zockler, Otto. "The Song of Solomon."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Vol.5.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0.

### 정기간행물

Williams. W. Twyman. "The Song of Solomon," *Moody Monthly*, February 1947.

### 미간행물

Farstad, Arthur L. "Literary Genre of the Song of Songs." Th. M. Thesis, Dallas Theological Seminary, 1967.

신자 성경주석(구약)—시가서(2)

발행일: 2003년 5월 30일 1판 1쇄 발행

지은이: 윌리엄 맥도날드

옮긴이: 정 병 은

발행인: 이 치 일(E. Ritchie)

발행소: 전도출판사(등록 98-43호)

연락처: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 화: (031) 914-2732

팩 스: (031) 917-4520

정 가: 15,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ISBN : 89-7531-534-7 03230